

독립운동가

최한영

崔

漢

泳

1899 ~ 1990

평전

저자 약력

전남 보성 출생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및 동 대학원 사학과(문학박사)를 졸업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평가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위원·교과서 검토심의위원, 전라도천년사편찬위원을 역임하였다.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강사를 거쳐 현재 초당대학교 글로벌화학기계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라남도 마한문화권개발 자문위원, 전라남도미래유산 자문위원, 전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신라 중대사 연구』, 『영암 의병사 연구』, 『독립운동가 의사 김범수 연구』, 『박해현의 새로 쓰는 마한사』, 『독립운동가 교사가 되다』, 『독립운동가 강석봉 평전』, 『도청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들』, 『독립운동가 이경채 평전』이 있고, 역저로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3·1운동』,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학생운동』 등이 있다.

독립운동가 최희영

崔 漢 泳
1899 ~ 1990 평전

인 쇄 2023년 11월 27일
발 행 2023년 11월 30일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천득염)
주 소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연락처 Tel. (062) 603-9600 Fax. (062) 941-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저 자 박해현(초당대학교 교수)

인 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Tel. (062) 530-0573 Fax. (062) 530-0579
홈페이지 <http://www.cnap.co.kr>

비매품

ISBN 979-11-90608-71-8 (03990)

* 본 도서는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지원사업으로 발간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

최한영 묘 (대전현충원)



비명

牧亭 崔漢永 志士께서는 三·一運動의 先驅者로 祖國 光復에 공훈을 세우시고 九十平生을 청빈한 선비로 일관하셨다. 청아한 선생의 書道는 達人의 경지에 이르셨고 弓道를 익히며 不正不義와 타협을 거부하셨다. 大人의 도량으로 만인을 포용하시며 새 시대의 문화진흥을 위해서도 몸바쳐 盡力하신 永遠한 우리의 스승이시여! 고이 잠드옵소서.

■ 머리말

역사를 사건이나 제도 중심으로 보려는 경향이 많다. 역사는 살아 있는 인간의 다양한 삶을 기록한다. 제도나 사건 중심으로 역사를 읽으면 그 시대를 살았던 인간의 삶을 놓치게 된다. 인간의 활동상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한국 현대사는 어느 시기보다 인물 연구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저자는 광주 3·1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이끈 인물¹⁾,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가 해방 후 교사가 된 인물들을 다룬 전기물²⁾, 광주학생운동을 촉발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거쳐 중국군 장교가 되어 한·중 연대를 실천한 이의 평전³⁾을 잇달아 펴내 인물 중심으로 광주·전남 현대사를 파악하려 하였다.⁴⁾ 이는 역사를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효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서는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자본가인 최한영을 다룬 평전이다. 최한영은, 1919년 3월 10일 광주 만세 시위 주체였던 비밀결사 ‘신문잡지종람소’ 회원이고, 그 시위에 필요한 유인물 인쇄 장소를 제공하여 광주 3·1운동이 성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그는⁵⁾ 출옥 후 청년, 사회운동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일제의 자본침략에 맞섰던 민족자본가이기도 하였다. 좌, 우 이념을 초월하여

1) 박해현, 2020, 『독립운동사 의사 김범수 연구』(도서출판 선인) 및 2022, 『강석봉 평전』(다큐디자인).

2) 박해현, 2021, 『독립운동가 교사가 되다』(도서출판 다킴).

3) 박해현, 2023. 2., 『독립운동가 이경채 평전』(전남대출판문화원).

4) 최근 5·18민중항쟁에 참여한 시민군 기동타격대 31인의 생애사를 다룬 『1980. 5. 27. 도청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들』도 인물 중심으로 현대사를 파악하려 한 시도라 하겠다. (박해현·이윤정, 『1980. 5. 27. 도청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들』 2022,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 실제로는 감형으로 1년 6월 복역하였다.

민립대학설립운동, 신간회 결성 등에 앞장섰던 그는, 광주상공회의소 전신인 광주상업회 결성에도 앞장섰다. 일제의 국방헌금 강요에 반발하여 신발 대리점 협회 이사장직을 내던졌던 기개는 우리가 몰랐던 최한영의 모습이다. 이 때문에 일본 경찰에 구속되는 시련도 있었지만, 그의 독립 의지는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다. 일제 강점기 자본가들을 부르주아로 계급적 갈등 내지는 친일파로 해석하려는 경향도 있으나 그에게는 이러한 일반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한영은 사회운동과 실력양성운동을 동시에 실천함으로써 독립운동의 활로를 개척한 위대한 독립운동가였다. 최한영을 주목하는 까닭이다.

時·空을 초월하여 전개된 그의 삶은,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그에 관한 자료는 다른 이보다 비교적 많다. 일제 강점기 활동 사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고, 90이 되어 작고할 때까지 광주의 원로로서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의 삶의 조각들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역사적 평가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본서의 출간은, 한국학호남진흥원 천득염 원장의 격려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거듭 감사함을 표한다. 누구보다 조부의 삶을 그리워하는 손녀 은정의 증언 또한 큰 도움이 되었다.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의 송미숙 과장의 수고로움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님께서 저자에게 전임교원의 기회를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전후사 관련 자문을 한 저자의 노부모는, 현대사를 복원하는 데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부친께서는 안타깝게도 지난 1월 하늘의 별이 되었다. “노트북 들고 와 내 옆에서 일해라” 하며 입원 중에도 장남과 함께 있고 싶어했던 부친, 한없는 그리움만 남는다.

2023. 11.

저자

목 차

■ 머리말 ____ 04

제1장 기개 곧은 광주 의인 탄생 _____ 11

1. 이자겸의 난을 막은 최사전(崔思全)의 후예 _____ 11
2. 과묵하면서도 결단력이 뛰어난 최한영 _____ 13
3. 국권 피탈과 민족의식 자각 _____ 15

제2장 신문잡지종람소와 광주 3·1운동 _____ 18

1. 독립운동 비밀결사, 신문잡지종람소 _____ 18
2. 신문잡지종람소, 만세운동을 계획하다 _____ 25
3. 신문잡지종람소와 광주 3·1운동 _____ 28
4. 2·8 독립선언서 인쇄와 광주 3·1운동 _____ 32
5. 폭발하는 광주 3·1운동 _____ 48

제3장 대구형무소에서 안재홍과 만남 _____ 64

제4장 신(新) 사상 유입과 최한영 _____ 73

1. 청년운동의 메카 광주 _____ 73
 - 1) 행정·상업의 중심지 광주 _____ 73
 - 2) 계몽운동을 지향한 초기 광주청년회 _____ 76
 - 3) 활발한 사회운동과 광주청년회의 성격 변화 _____ 80
2. 신(新) 사상의 유입과 독립운동의 새로운 양상 _____ 84
 - 1) 신(新) 사상 유입과 신우회 _____ 84
 - 2) 청년운동과 광주청년동맹 _____ 88
 - 3) 아체이가 조직과 조선공산당 _____ 92

6 독립운동가 최한영 평전

제5장 사회운동에 앞장선 최한영	95
1. 중도노선을 지향한 광주청년회	95
2. 서울회계와 화요계의 각축장이 된 광주청년운동	106
3. 민족주의를 표방한 광주청년회	108
제6장 실력양성운동과 신간회	115
1. 민립대학설립운동과 최한영	115
1) 민립대학설립운동에 앞장서다	115
2) 광주·전남지역에서 전개된 민립대학설립운동	119
2. 민족협동전선 구축과 최한영	123
3. 실력양성운동과 최한영	131
1) 광주실업청년구락부 조직	131
2) 일제의 경제적 침략에 맞선 자본가 최한영	137
4. 연진회 창립과 최한영	147
제7장 통일국가건설과 좌절	152
1. 전남도 건준 조직과 최한영	152
2. 인민공화국 결성	169
3. 최한영, 민주주의 민족전선(민전) 참여	174
4. 좌우합작운동 좌절과 최한영	184
제8장 민족을 사랑한 최한영	189
1. 민족을 사랑한 독립운동가, 초야에 묻히다	189
2. 5.18 민중항쟁 수습에 앞장선 최한영	192
3. 최한영, 하늘의 별이 되다	197
4. 최한영의 유업을 계승한 후손	198
■ 최한영 선생 연보	202

■ 부록

부록 1. 3·1운동 판결문 (예심)	204
부록 2. 3·1운동 판결문 (1심)	229
부록 3. 3·1운동 판결문 (2심)	259
부록 4. 애국지사 목정 최한영 선생 탄신 100주년 및 서거 10주기 기념 추도식	275
부록 5. 누실명 (陋室銘) 손녀 최은정 (수필가)	285
부록 6. 기억 속의 의도인 (毅道人) 허백련 (최은정)	288
부록 7. 목정 (牧亭) 최한영 할아버지 (최은정)	291
부록 8. 서예가 최한영 작품	295
부록 9. 최한영 가족 사진	296

■ 참고문헌	303
--------------	-----

표 목차

표 1. 광주청년회 임원	80
---------------------	----

그림 목차

무양서원	12
이미륵(1922년)	16
광주농업학교로 사용될 때의 신문잡지종람소	29
작은 장터 사진	53
큰 장터 사진	53
대구형무소 출옥 직후 달성공원에서 광주영웅들	59
삼일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는 최한영	63
신간회 나주지회 참석(1927)	71
연설하는 안재홍(1945)	72
대구 달성공원 출감 직후(1920)	296
생전 가족 사진 (오른쪽 안경쓴 이 최한영)	296
생전 가족 사진 (맨 뒤 오른쪽부터 4번째 최한영)	297
최은정의 둘 사진(1940년대)	297
최은정과 어머니, 고모들(1940년대)	297
최은정·최정자 자매	298
최은정 부부	298
장남 최일출과 손자들	298
장손 최창우 가족사진	299
최창식 가족사진	299
최창복 가족사진	300
최정자·정진성 부부	300
대전 국립현충원 안장	301

최한영 선생 영결식 사진	301
훈장	302
전북일보에 보도된 최한영 기사	302
2021 가을 인문학 축제(양림의 문화인물 최한영)	302

제1장

• • •

기개 곧은 광주 의인(義人) 탄생

1. 이자겸의 난을 막은 최사전(崔思全)의 후예

최한영은 본관은 탐진(耽津)이다. ‘탐진’은 최씨 가운데 경주(慶州), 전주(全州), 해주(海州), 강릉(江陵)을 이은 5위에 해당하는 큰 문중(門中)이다. 한 인물을 연구하는 데에 가계(家系)를 밝히는 작업은 중요하다. 가계 분석은 인물의 성격을 유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탐진을 본관으로 하는 최씨 시조는, 고려 인종 때 왕의 주치의(主治醫) 격인 어의(御醫) 최사전(1069-1140)이었다. 최사전은 조부, 부 모두 의업에 종사하여 어렸을 때부터 의술에 밝아 15세 때 궁궐에서 일을 하였다. 그때 국왕인 선종이 어린 의사 사전을 내전으로 불러 “의자(醫者)는 실력이 뛰어나야 하므로 오로지 위(位)만을 생각해야 한다. 너는 그러한 의자이니 이에 사전(思全)이란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며 ‘사전’ 이름을 주었다 한다.

이후 인종의 충애를 받았던 최사전은 외척 이자겸이 난을 꾀하자 이자겸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던 척준경을 설득하여 그가 이자겸을 제거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삼한을 바로 되돌리고 종사를 안정시킨 것은 공의 힘으로 한 것이다”라고 사전의 공을 치하한 인종은, 그를 추충위사공신(推忠衛社功臣)·삼한후벽상공신(三韓後壁上功臣)에 올렸고, 사후에는 인종 묘정에 배향하였다. 장경공(莊景公)이라는 시

호도 내렸다. 이처럼 비록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신분임에도 목숨을 걸고 불의에 결연히 맞섰던 최사전의 강한 기개는 대를 이어 가문의 명예를 빛냈다. 최사전이 탐진 출신이라 하여 ‘탐진’이 본관이 되었다.

현재 광주 토반으로 있는 탐진 최씨는 고려말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인 손암 최윤덕의 후예들인 ‘손암공파’, 영암군파, 서은공파, 보작파, 진사공파, 중서령파 등으로 분화되었다. 이 가운데 최한영은 서은공파라고 한다. 조선 중기 유명한 ‘표해록’을 남긴 최부가 탐진 최씨의 전통을 이었다. 손암(최윤덕)이 고려 공양왕 때 벼슬이 시중직에 이르렀지만, 새 왕조에 협조를 거부하고 낙향한 까닭에 후손들 대부분이 중앙 관직에 진출하기보다 향촌에서 학문에 정진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려 하였다.



무양서원

이후에도 중앙의 치열한 정쟁의 소용돌이를 피한 탐진 최씨들은 지방에서 향리층을 형성하여 향촌 세력의 중요한 구심점을 형성하였다. 이들이 주로 호장 등의 관직을 지니면서 양반 기득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개화사상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대표적 가문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최한영이 목숨을 건 독립운동과 이후 격변하는 현대사의 순간마다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시대의 흐름을 앞서 나간 데는 이러한 탐진 최씨가문의 전통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올바른 ‘의(義)’의 실천과 적극적인 근대 문물의 수용은, 1927년 탐진 최씨 문중이 전국 유림 도움으로 장경공 최사전, 손암 최윤덕, 금남 최부와 더불어 문절공 유희춘, 충열공 나덕헌 선생을 모시는 서원을 광주에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광주의 옛 이름인 ‘무진의 별’, ‘무진지양(武珍之陽)’을 딴 ‘무양서원(武陽書院)’이 그것이다.

새로운 문물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탐진 가문은, 1945년 해방이 되자 현재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에 무양중학교를 설립하여 인재 교육을 통한 지역 사회에 봉사할 방법을 모색하여 많은 지역 인재를 길러냈다. 무양중학교는 최근 ‘비아고등학교’로 학제 및 교명 변경까지 하면서 옛 전통을 새롭게 잇고 있다.

2. 과묵하면서도 결단력이 뛰어난 최한영

최한영은 1899년 5월 15일 광주 사동 146번지에 최양섭(崔亮燮)과 정운남(鄭雲南) 사이에 2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친형은 최남립이다. 광주에는 탐진 최씨를 비롯하여 경주 최씨 등 최씨들이 토반을 형성하며 살았다. 최근 kbc 광주방송이 있었던 곳이 최한영이 태어난 동네였다.

그가 태어난 1899년은 근대화와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인 우리나라 최초의 기차인 경인선 철도가 개통된 해이다. 그리고 보니 경성의전 출신으로 최한영과 함께 광주 3·1운동을 기획한 김범수도 1899년생이 묘한 인연이다. 1897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꾼 조선 정부가 ‘대한국제’를 반포하여 국왕 중심의 전제주의 국가 체제를 강화할 것을 공표한 해이기도 하였다. 변화하는 사회는 급속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대한제국 정부는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려하지 않고 있었다.

최한영이 유년 시절을 보낸 광주는 1897년 도청 소재지라고 할 수 있는 관찰부가 들어선 이래 빠른 속도로 도시의 기틀을 닦았다. 1904년 2월부터 시작된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1905년 11월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하며 우리 내정을 간섭하고 외교권을 빼앗았다.

이에 반발하여 전국에서 의병들이 봉기하였다. 최익현이 중심이 된 ‘태인 의병’이 대표적인 예이다. 1907년 8월 1일 강제로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 대부분이 합류하면서 전투력이 강해진 대한제국 의병부대는 1907년 10월부터 일본 정규군과 물러서지 않은 치열한 독립전쟁을 치렀다.

한말 의병 전쟁의 중심지가 전남·북 지역이었다. 이곳에서 활약한

남도 의병의 규모는 1909년 경우 전국 의병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실상 대한제국의 존망이 남도 의병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남도 의병의 주 무대인 광주에서는 김태원 의병부대를 비롯하여 여러 의병부대가 일본 수비대에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1908년 설 명절을 맞아 광주 무동촌에서 휴식을 취하던 김태원 의병부대는 일본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으나 당황하지 않고 용맹 분투하여 일본군 2명 사살, 2명 중상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무동촌에서 광주 수비대를 격파한 김태원 의병부대는 이후, 장성 토촌(토물) 전투에서 일본군 30여 명을 살상하는 전과도 올렸다. 대한제국 의병부대와 일본 정규군 사이에 혈전이 전개되고 있던 상황을 어린 최한영은 가까이서 보았기에 잘 알고 있었다.

최한영은 우리 의병과 일본군의 혈전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불의에 맞섰던 가문의 피가 솟구쳤다. 그의 어린 가슴에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하였다. 하지만 최한영의 부친은 아들에게 공부하여 실력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최한영은 1909년 공립 광주보통학교¹⁾에 입학하였다. 이 무렵은 남도 의병의 활약이 절정에 다다를 때였다.

그가 2학년 재학 중이던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강제로 일제에 병합되었다.

1) 공립광주보통학교는 1895년 발표된 고종의 교육입국조서에 의해 세워진 초등교육 기관으로, 1896년 11월 6일 세워진 전라남도 관찰부 공립 소학교가 1906년 개칭된 것이다. 1910년 11월 1일 광주공립보통학교로 개칭되고, 이어 1934년 4월 1일 광주 제1보통학교로 개칭되었다. 광주 제2보통학교로 개교한 수창초등학교와 구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면서 광주서석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되고, 1941년 광주서석공립국민학교로 개칭되고 1950년에 이르러 광주서석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3. 국권 피탈과 민족의식 자각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이 체결되고, 그로부터 1주일 후인 1910년 8월 29일 조선의 국권이 일본에 예속되었다.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조선 학생들은 우리 말 대신 일본어로 된 교과서로 공부를 해야 해 일본어를 새롭게 공부해야 하고 우리의 빛나는 역사 대신 왜곡된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때의 상황을 전후 일본 동경대학 총장을 역임한 야나이바라(矢内原忠雄)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의 보통학교 교과에는 조선의 지리·역사에 관한 독립된 교과서는 없고 일본의 지리·역사교과서 속에 단편적으로 삽입되어 있을 뿐이다. 나는 조선인 보통학교의 수업을 참관했는데 조선인 교사가 조선인 아동에게 일본말로 일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²⁾

약간 시대가 뒤떨어지기는 하나 이 글을 통해 한일병합 당시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 일본인조차 이러한 안타까움을 지녔을 정도이니, 아무리 나이가 어린 보통학교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의식이 있는 조선 학생들에게는 건디기 힘든 일이었다. 특히 최한영과 같은 영재들이 받은 상실감은 훨씬 컸다. 1912년부터 시작된 토지조사사업으로 경작권을 상실한 소작농민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한 최한영의 느끼는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당시 최한영과 같은 또래 학생들의 심경이 경성의학전문학교 3학년 재학 중 3·1 독립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독일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의사로서, 문학가로서 명성을 높였던 이미륵의 자전소설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독일에서 공부하며 『압록강은 흐른다』는 유명한 자전소설을 남긴 주인공이다.³⁾ 이 자서전의 내용은 10여 년 전 TV 드라마로 제작되어 일반

2) 박선흥, 앞의 책, 140쪽. 재인용.



이미락(1922년)

대중들에게 소개된 바도 있다.⁴⁾

이미락의 자서전은 같은 또래의 최한영의 생애를 엿보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910년 국권 피탈 당시 이미락은 그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모든 교과서가 일본말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말을 배워야만 했다. 또한 우리들은 역사를 다시 배워야만 했다. 한국의 독립 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깎아 없애 버렸던 것이다. 한국 민족은 이제부터

독자적인 역사를 지닌 민족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다만 오래전부터 일본 제국에 공물을 바치는 변경 민족으로 여겨졌을 뿐이다.”⁵⁾

3) 이미락, 전해린 역, 『압록강은 흐른다』, 범우사, 1973. 이미락은 본명이 이의경으로, 3·1운동 때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일본 경찰에 쫓기자 압록강을 넘어 독일로 망명을 떠났다가 그곳에서 의사로, 작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독일로 넘어가기 전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도하여 결성한 대한민국 청년외교단에서 편집부장을 맡아 활약하였다. 이 단체는 기관지 ‘외교시보’ 등 선전물을 발간하였다.

이미락은 1919년 11월 말 상해임시정부에서 안창호 등이 중심이 되어 비밀리에 국내와 연결된 청년외교단 조직이 일제에 노출되어 피검 대상에 올랐으나 피체를 면하고(조선소요사건 관계서류, ‘청년외교단원 검거에 관한 건’) 독일로 망명을 떠났다. 조선 소요사건 관계서류에는 이의경은 미체포자로 분류되어 있다. 대구형무소에서 징역 2년의 궤석재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국가보훈처 공훈록에는 그가 징역 2년 투옥생활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를 근거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연구도 있다.(조규태, 2019,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의학도」, 『의학도, 3·1운동의 선두에 서다』, 허원북스) 이 기회에 잘못을 바로 잡고자 한다. 어쨌든 그의 자전소설에는 임시정부 활동이 생략된 채 바로 독일로 망명을 떠난 것으로 나와 있어 독자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미락에 대한 연구는 장근호·최규진, 2019, 「일제강점기 조선인 의학도들의 삶과 활동」, (『의학도, 3·1운동의 선두에 서다』)와 박수영, 「독일에서 재발견한 이미락」, 위의 책) 참조

4) 1908년 11월 SBS에서 한·독 수교 125년을 기념하여 『압록강을 흐른다』라는 제목으로 3부작으로 제작·방영하였다.

5) 이미락, 위의 책.

일제가 식민지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를 철저히 왜곡하는 이른바 식민 사학을 강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가 조선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내세운 역사학이 식민사학인데, 우리 민족이 늘 외세의 눈치를 본다는 타율성, 그러다 보니 발전이 없다는 정체성, 따라서 끊임없이 내부에서 분열 갈등한다는 당파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륵 글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비록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왜곡된 식민사관으로 역사 교육을 받았지만, 당시 조선 학생들은 5천 년의 빛나는 역사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가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조선 학생들은 어린 보통학교 학생이라 하더라도 식민통치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1운동 때 전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보통학교 학생들이 시위에 앞장섰던 것도 이러한 강한 민족의식의 발로였다. 이미륵의 이러한 분노에 찬 심경은 최한영을 비롯한 많은 조선 학생들이 가졌을 것이다.

이러한 민족적 자이는 최한영이 1913년 광주농업학교에 입학하면서 더욱 커졌다. 1912년 공포된 토지조사령으로 기한부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들의 삶이 더욱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최한영은, 일제 식민지 정책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전국에서 농민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던 전남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소작인의 비율이 높고, 소작인 1인당 경작지 면적도 유난히 적어 소작인 계급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였다.⁶⁾ 이러한 곤궁한 백성들의 삶을 목격한 최한영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회의와 번민을 끝없이 하였다.

최한영은 농업학교에 다니면서도 일본인 교장과 교사의 식민지 교육에 비판적이었다. 최한영보다 약간 늦게 농업학교에 들어온 한길상, 강석봉은 일본인 교사의 차별적인 교육에 항의하다 퇴학 처분을 받았었다.⁷⁾

6) 김점숙, 1993, 「1920년대 전남지방 농민운동」,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7) 박해현, 2022, 『강석봉 평전』.

제2장

• • •

신문잡지종람소와 광주 3·1운동

1. 독립운동 비밀결사, 신문잡지종람소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광주농업학교에 재학한 불과 10대 중, 후반의 최한영이 총독부의 무단통치 아래에서 제복을 입고 위압감을 준 일본인 교사에 저항할 수 있었던 힘은, 민족의식이 뿌리깊게 형성된 가문의 전통과 그가 유년기에 직접 목도(目睹)한 처절한 의병 전쟁과 이어진 국권 피탈 등이 그의 내면을 불타는 항일 의식으로 가득 채우게 하였다.

최한영이 농업학교 졸업 후 어떤 일을 하였는지 잘 알 수 없다. 다만 1919년 3·1운동 주동자로 체포되어 재판받을 때 그의 직업을 ‘전남도청 雇人’이라고 한 데서 유추할 따름이다. 곧 그가 졸업 후 생가 가까이에 있는 전남도청에서 일용직으로 있었지 않았을까 싶다. 물론 그가 도청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지만, 일제 식민 통치의 본질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앞장서 민족과 민중을 위한 투쟁 방도를 모색하였다.

1919년 3월 10일 광주에서 폭발한 광주 3·1운동은 전남 지역의 독립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광주 3·1운동의 특징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축적된 내재적 역량에 의해 일어났다는 점이다. 경성에서 3월 1일 일어난 운동의 결과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이때 주목되는 것이 신문잡지종람소였다. 광주 신문잡지종람소를 회원 스스로 ‘비밀결사’로 인식하고 있었다. 광주 3·1운동 당시 필요한 유인물 제작에 필요한 인쇄용지

를 공급한 강석봉은 신문잡지종람소 회원이었다. 그를 포함한 신문잡지종람소 회원들이 광주 3·1운동 직전에 찍은 사진에 훗날 강석봉이 가필한 ‘3·1운동 비밀결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있다.¹⁾ 또한 광주 3·1운동을 준비할 때 유인물이 인쇄된 곳이 최한영의 집이었다. 그 또한 신문잡지종람소 회원이었는데 신문잡지종람소를 ‘지하단체’라고 회고하고 있다.²⁾

사진 속에는 강석봉, 김용호, 김복수, 김태열, 최한영, 강생기, 오영표, 김용규, 최용걸 등 여러 인물이 있다. 이들이 신문잡지종람소 회원들인 셈이다. 최한영은, 이 ‘지하단체’의 회원으로 “정상호, 일본 유학생이며 광주보통학교 생도였던 김복수, 경성 유학생 박팔준, 광주농업학교 출신이거나 재학 중인 최한영, 김용규, 한길상, 강석봉, 김태열, 강생기 등이 회원이었다”고 회고하였다.³⁾

1919년 3월 10일 일어난 광주 시위에 대해 최한영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이날(3월 6일, 필자 주) 밤 양림동의 남궁혁 목사 집에는 김 철을 비롯한 김강, 최병준, 황상호, 강석봉, 한길상, 최영균, 김용규, 최정두, 서정희, 김태열, 홍승애 등 교인과 ‘삼합양조장’ 회원들이 모여 광주 거사의 업무 분담을 의논했다.”

삼합양조장 회원들이 광주 3·1운동 추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최한영이 증언하고 있다. 삼합양조장은 신문잡지종람소의 만세 시위 추진을 은폐하기 위해 장소를 옮겨 새로 붙여진 이름이다. 처음 광주에 신문잡지종람소가 들어섰을 때는 지금의 적십자병원 근처에 ‘신문잡지종람소’라는 간판이 있었다. 최한영은 신문잡지종람소를

1) 박해현, 2022, 『강석봉평전』 (다큐디자인).

2) (사)3·1동지회, 1985, 『3·1독립운동실록(上)』.

3) 위의 책.

“10여 명의 젊은 학생들이 모여 공부도 하고 신문과 잡지도 읽으며, 세계정세와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는 한편, 이따금 존경하는 인사들을 모셔다가 강연을 듣기도 하였다”

고 회고한다.⁴⁾ 처음 간판이 걸렸던 곳은 이전의 광주농업학교 건물로, 광주의 부호 정낙교 소유 건물이었다. 신문잡지종람소 회원인 정상호가 정낙교의 아들인 까닭으로, 회원들은 신문잡지종람소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광주 3·1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던 신문잡지종람소는 원래 어떤 성격이었을까?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신문잡지종람소는 원래 “여러 종류의 신문이나 잡지를 특정 장소에 구비하여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유료 혹은 무료로 읽을 수 있도록 한 곳”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문 역사와 관련이 깊다고 하겠다. 한국 근대 신문의 역사에서 신문잡지종람소 형태가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1898년이였다.⁵⁾ 최한영은 그 이듬해 태어났다.

그가 태어날 무렵에는 ‘신문잡지종람소’라는 용어는 아직 없었다. 다만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 당시 매일신문 보도에 나오고 있다.

“인천항에서 뜻있는 친구들이 이달 9일부터 박문회(요즘 같으면 박람회)를 실시하고, 매일 관보와 각 처의 신문과 시무상에 유익한 소식을 널리 구하여 놓고 모든 회원들이 날마다 모여 강론하며 연설하여 지식과 학문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벌써 백여 명이 모였다. 우리는 그 회를 대하여 공손히 치하하는 중 아무쪼록 흥왕(興旺)하여 인천항 동포들에게 유익한 산업을 많이 하기를 바라노라.”

4) 위의 책.

5) 신문잡지종람소 서술은 정경운, 2018, 「근대기 종람소 연구」, 『국학연구론총 22』의 글을 참조하였다.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박문화’라는 모임을 만들어 일정한 장소에 신문과 잡지를 구비하여 놓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신문잡지종람소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신문잡지종람소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02년 11월 25일이다. 다음 신문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다.

“명동 경성학당에서 저명한 신문과 잡지 수십 종을 구입하여 매월 오후 1시부터 동 8시 반까지 종람(縱覽)을 허용한다고 한다.”

경성학당은 1898년 경성의 명동에 설립한 일본어 학교이다. 그러므로 종람소는 일본인들이 처음 설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1898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신문잡지종람소가 확산이 되었는데, 이는 1896년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이 창간되어 민중의 관심을 받게 되자 1898년 매일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이 연이어 창간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듯 신문이 민중의 관심을 받았으나, 당시 현실적으로 신문 보급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문잡지종람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잡지종람소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05년 이후인데, 1904년 러일전쟁의 발발, 1905년 을사늑약 체결로 의병 전쟁과 애국계몽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깊다.

특히 의병 전쟁과 같은 직접적인 투쟁보다는, 교육 구국, 언론계몽, 민족종교,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언론을 통한 계몽으로 국권회복을 꾀하는 신민회 계통의 실력 양성운동의 흐름에서 신문잡지종람소의 운영이 확대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민간은 물론 관청에서도 신문잡지종람소에 관심을 보였다.

결국 신문잡지종람소는 신문의 사회적 역할이 점차 커지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어 가는 가운데, 애국계몽운동의 흐름 속에서 국민을 널리 계몽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점차 발전해갔다.

1902년 경성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신문잡지종람소가 설치된 이래, 한국인을 대상으로는 1904년 8월 윤치호 집을 빌려 민간 차원에서 신문잡지종람소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신문잡지종람소가 지방에도 설치되었다. 1907년 무렵 경상남도 진주, 1908년 평안도 성천 등 지방에도 설치된 것이 그것인데, 특히 평안도에 많이 설치되었다. 평안도는 압록강을 통해 중국을 통한 서구 문물 유입이 활발한 곳으로, 개화사상 형성이 다른 곳보다 빨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신문잡지종람소는 대부분 민간이 주도하여 만들었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발행된 신문, 잡지 등이 비치되었는데, 앞서 언급한 경성학당 신문잡지종람소에는 신문 13종, 잡지 17종을 구비하여 놓았다.

신문잡지종람소는 국민계몽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일본에서는 신문잡지종람소가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에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정부가 종람소 설치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1880년대 자유민권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본의 지역 유력인사들이 그들의 이념을 확산시키려는 의도에서 종람소를 이용하면서 민간이 종람소를 세웠다. 그러니까 민간이 처음부터 신문잡지종람소를 설치한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관이 설립의 주체였던 셈이다.

결국 신문잡지종람소는 사람들이 모여 여러 종류의 신문이나 잡지를 읽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곳이라 하겠다. 광주에 신문잡지종람소가 설치된 것은 1917년이였다. 다른 지역보다 약간 설치시기가 늦었는데 신문물 유입이 상대적으로 늦은 지역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다른 지역보다 늦게 설치된 광주의 신문잡지종람소는 단순히 신문과 잡지를 함께 보기 위해 생긴 것은 아니었다. 신문잡지종람소가 있었던 곳은 불로동의 옛 측량학교 건물이었다. 이 건물은 당시 광주 부호였던 정낙교 소유였다.

정낙교는 광주 지방 금융조합의 조합장이었다. 그는 대지주이자 금융업으로 부를 축적한 인물이다. 광주 사직공원 입구에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약간 높은 언덕받이에 세워져 있는 ‘양파정(楊波亭)’이라는 정자

도 그가 1914년 세운 것이다. 그의 아들 정상호는 훗날 독일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이었다. 정상호는 부친을 설득하여 부친 소유 건물을 종람소 사무실로 쓰도록 하였다. 이후 정상호의 행적을 보면 독립운동 세력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곧 그가 독립운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고 본다.

정상호는 김태열과 광주보통학교 동기동창이었다. 신문잡지종람소 회원들은 정상호를 비롯하여 김복수, 김용규, 한길상, 최한영, 강석봉, 김태열, 강생기 등 10여 명이었다. 한길상(2회) 김복수(3회) 정광호·정상호·김태열(4회), 김용규·최한영(5회), 강석봉·박일구(6회), 강생기(7회) 등이 광주보통학교 졸업생이었고, 김용규·김태열·최한영·강생기는 광주농업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이었다. 이처럼 신문잡지종람소 회원들은 대부분 광주보통학교 및 광주농업학교를 졸업한 나이 20 안팎의 젊은 지식인이었다.

이들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성 명	광주보통학교	비 고	성 명	광주통학교	비 고
최한영	5회	애족장 (1990)	김태열	4회	애족장 (1990)
오영표			김용규	5회	애국장 (2009)
최용걸		자산보통학교 교사 회천보통학교 교사	김복수	3회	
김용호			강석봉	6회	
강생기	7회		한길상	2회	

이들은 종람소에서 여러 종의 신문, 잡지를 윤독하고 역사 공부를 하며 경성이나 일본에 유학 간 학생들과도 접촉을 통해 국내·외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이들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독립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였다. 특히 이들 가운데 농업학교 재학 중 일본인 교사의 차별에 항거하다 퇴학당한 강석봉, 한길상의 항일 정신은 이들의 투쟁 의지를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이들은 모임을 통해 내부적으로 단결을 도모하고, 국내외 정세분석을 하며 독립 기회를

살피고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의 신문잡지종람소가 신문, 잡지를 통한 정보 교환이 주목적이었다면, 광주 그것도 독립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비밀결사체였다. 이 단체의 사무실 제공은 정상호가 하였으나, 이 모임의 구성 및 운영을 누가 하였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 추측하건대 강석봉, 최한영, 한길상 등 농업학교 출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광주신문잡지종람소 설치를 주도했다고 볼 근거로 보통학교와 농림학교 출신으로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거기에 신문잡지종람소 설립이 1917년이라는 시점 역시 주목된다. 이 무렵은 강석봉이 농림학교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다 퇴학을 당한 직후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강석봉은 독립운동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려 하며 같은 보통학교 출신에다 농업학교 출신으로 이웃에 사는 최한영, 한길상 등과 이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때 강석봉 등이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던 신문잡지종람소에 주목하여 이를 통해 독립운동을 추진하려 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생각을 한 강석봉은 누구보다 투쟁 의지가 강하고 기획력이 있는 김태열, 한길상, 최한영 등을 만나 겉으로는 신문, 잡지를 읽는 모임이지만, 장차 독립을 준비하는 비밀결사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의논하였다고 본다.

이들은 이 모임을 소규모로 운영하려 하였다. 이들 단체의 성격이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다. 겉으로는 단순히 ‘종람’한다고 하여 모인 젊은이들의 수상쩍은 행동이 1년 넘게 지속 되자. 이들을 주목하고 있던 일본 경찰은 이들 모임을 해산시켜 활동을 막으려 하였다. 일본 경찰이 이들 단체의 활동을 차단하고자 한 것 자체가 신문잡지종람소가 단순한 ‘종람소’가 아니라 ‘독립운동단체’라고 살피는 근거라 하겠다.

일본 경찰은 이들을 해산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건물주인 정낙교를 압박하였다. 이에 종람소 회원들이 어쩔 수 없이 건물을 나와 지금의 충장로 4가에 있는 한옥으로 옮겼다. 현재 NC 웨이브 충장점 자리인데, 이곳에서 ‘삼함양조장’이라는 위장 간판을 내걸고 모임을 계속하였

다. 이들은 낮부터 술을 마시며 노는 척하며 일본 경찰의 감시의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고, 밤에는 시국 전반을 토론하며 민족의식을 강화하였다.

이들은 일본 경찰의 집요한 감시에도 무려 2년 가까이 모임을 계속하며 그들끼리의 결속을 강화하며 독립운동의 방법을 모색하며 결정적 시기를 보고 있었다. 1919년 들어 일본에 유학 중이던 광주 출신의 최원순·정광호·이이규 등을 통해 일본 요코하마에서 발행된 영자통신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독일의 패전 소식과 미국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자결주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들은 이를 독립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낼 기회가 도래했다고 여기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2. 신문잡지종람소, 만세운동을 계획하다

‘신문잡지종람소’가 ‘광주 3·1운동 비밀결사 조직’이라고 할 때 이 조직이 중심이 되어 광주 3·1운동을 일으켰다고 하겠다. 광주 3·1운동을 일으킨 주체가 명확해진 셈이다.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써 세계만방에 고(告)하야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써 자손만대에 고(誥)하야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1910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은 악랄한 무단통치 아래서 거의 절멸(絶滅) 상태에 있었던 일부 의병들의 저항과 독립의군부와 같은 비밀결사 투쟁을 제외하고는 조직적이고 전면적인 투쟁이 불가능한 상태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 우리 민족이 1919년 3월 1일 전면적인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독립 쟁취에 대한 자신감을 지니게 되었고, 전 세계인들에게 한민족의 자주독립 의지와 역량을 확인시켜 주었

다. 이 위대한 항쟁에 종교계와 학생, 농민·노동자, 지식인, 심지어 결인과 기생들까지 참여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참여 주체가 전 민족으로 넓혀졌다. 나아가 정치체제도 왕정에서 최초의 민주 공화정으로 바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어 1919년 3월 21일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국민의회,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그리고 4월 23일 국내의 한성 정부 등 여러 임시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조직되었다.

이들이 마침내 1919년 9월 17일 중국 상해에서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단절된 우리 민족사를 계승하고 정통성을 지닌 정부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3·1운동의 의의는 실로 대단하다 하겠다.

3·1운동은 1920년 상해에서 출판된 박은식 선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 의하면,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 218개군 단위 이상 지역 가운데 무려 211개 지역에서 1,542회 이상의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고, 참가인원은 202만 308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같은 책에 실린 일본 군경에 입은 피해 상황을 보면 사망 7,509명, 부상 1만 5,961명, 체포된 사람 4만 6,948명에 달하고 있다. 일제 측 자료에도 1919년 3월 1일부터 1년간 살해 745명, 부상 4만 5,562명, 피체 4만 9,811명으로 나와 있다. 일본 측 자료가 실제보다 상황을 축소하였을 것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저항이 얼마나 강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러나 1919년 2월 28일 밤 서울 시내에 독립선언서가 뿌려지고, 이튿날 아침 여러 곳의 대문 앞에 뿌려져 있는 고종황제의 독살설을 알리는 격문을 발견한 일제 경찰도, 이를 추진한 민족 독립운동 진영에서도 이 운동이 어디까지 파급되어 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일제의 폭압적인 지배로 3·1운동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조직적인 투쟁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민족이’, ‘전국에서’, ‘국외에서’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참여한 투쟁이

이루어졌다.

이제껏 3·1운동을 서울에서 대도시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단계적으로 확산이 되었다 하여 지방의 만세 운동을 중앙 운동의 부속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다. 서울에서 독립선언서가 전달되면 지방에서 이에 호응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운동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3·1운동의 대부분은 지방의 만세 시위가 차지하고 있다. 이른바 민족대표들이 3월 1일 당일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는 등 주도층이 붕괴된 상황에서 종교인, 학생층이 불을 지핀 만세 운동이 농민층을 중심으로 한 지방 민중 항쟁으로 발전되어갔다.

실제 지방의 3·1운동은 그 지역 인사들의 목숨을 건 결의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들은 지역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운동을 조직화하여, 그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하였다. 동네와 장터에서 시위, 야간 산상 봉화 시위, 면사무소나 헌병 주재소를 압박하거나 일본 관헌과 충돌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지방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3·1운동이 대규모 민족운동으로 오랫동안 전개될 수 있었다.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도 3·1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3월 3일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3월 10일 송일학교·수피아여학교·광주농업학교 등 학생, 종교인, 일반인을 중심으로 대규모가 시위가 전개된 것은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1919년 3월 10일 광주·전남 지역에서 최초로 일어난 광주 3·1운동은 전남의 다른 지역의 3·1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광주 3·1운동 기념탑은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소재 수피아여자고등학교에 세워져 있다. 이처럼 지역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기념탑이 특정 학교에 세워져 있는 경우가 이례적이다. 이는 광주·전남 지방의 독립 만세운동을 학생들이 주도하였음을 알려주는 예이다. 3월 10일 광주에서 일어난 시위로 재판에 넘겨진 숫자가 103명이다. 이 가운데 송일학교 학생이 24명, 수피아여학교 학생 20여 명, 광주농업학교 6명, 광주보통

학교 학생 1명 등 학생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광주 시위를 학생들이 주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주동자급으로 3년형을 선고받은 한길상, 최한영, 김용규, 김태열, 1년 6월형을 선고받은 강석봉 등이 신문잡지종람소 회원이었다. 신문잡지종람소가 3·1운동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최한영의 증언이나 강석봉이 지닌 신문잡지종람소 사진이 사실임을 판결문이 말해주고 있다.

3. 신문잡지종람소와 광주 3·1운동

1917년 설립된 광주 신문잡지종람소는, 지식 정보 조달의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는 데 그친 다른 지역과 달리, 처음 설치될 때부터 독립운동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당시 회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광주 신문잡지종람소 회원들은 정상호를 비롯하여 김복수, 김용규, 한길상, 최한영, 강석봉, 김태열, 강생기, 오영표, 최웅걸 등 10여 명이었다. 정상호는 김태열의 보통학교 동창이었다. 김태열은 당시 광주보통학교 축탁교사로 김복수를 도와 1919년 2월 5일 장성에서 2·8독립선언서를 인쇄하였고, 3월 6일 광주시위를 계획할 때 참여하였고, 3월 17일 송정리에서 전개된 만세 시위를 주동하는 등 광주 3·1운동을 설명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한길상 역시 광주3·1운동을 이끈 대표 인물의 한 사람이 일제강점기 전개된 사회주의, 학생운동 등 각종 항일운동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이다. 김용규는 3월 10일 및 3월 17일 송정리 시위를 이끌었다. 최한영은 시위 유인물을 그의 집에서 인쇄하고 농업학교 생도들의 시위를 이끌었다. 강석봉은 판결문 인쇄용지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보면 정상호와 김복수를 제외한 대부분 신문잡지종람소 회원이 3·1운동의 주동자급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강석봉의 설명대로 신문잡지종람소가 독립운동의 비밀결사체임을 분명히 해준다.

신문잡지종람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진 이들은 신문, 잡지를 통해 국내외 정세를 살피고 있었다. 마침 1919년 1월 파리에서 열린 강화회의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식민 국가의 독립 문제는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민족자결주의’를 회의에서 이야기함을 신문에서



광주농업학교로 사용될 때의 신문잡지종람소

보고 이에 발맞추어 독립 의지를 만천하에 표방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광주 신문종람소 회원들은 본격적으로 시위 계획을 세웠다. 경성에서 손병희 등 종교계 및 경성의전 등 경성 지역 학생들이 만세 운동을 추진할 때와 시기가 비슷하다.

그러나 광주에서 신문잡지종람소 회원들의 시위 계획 수립은 1919년 1월 이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이는 정광호를 비롯하여 김범수, 박일구, 최정두 등이 2월 5일 경성에서 내려와 박일구의 처가인 장성 김기형 집에 인쇄하러 갈 때 김태열이 동행하였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신문잡지종람소 회원으로 광주보통학교 출신인 당시 광주보통학교 촉탁교사 김태열은 종람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그가 김범수 등과 2·8독립선언서를 인쇄하러 장성에 갔을 때 신문잡지종람소 회원들의 시위 준비는 꽤 이루어져 있었다. 김태열은 신문잡지종람소 대표 자격으로 인쇄 작업에 참여하였다. 김태열이 유인물을 광주에 가져왔을 때 곧장 신문잡지종람소 회원들과 유인물을 공유하며 본격적으로 시위 준비에 착수한 사실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신문잡지종람소 회원의 구성은 보통학교와 농업학교, 양림교회 출신 등 당시 광주의 의식이 깨어난 젊은 지성인들이었다. 한길상(2회) 김복수(3회) 정광호·정상호·김태열(4회), 김용규·최한영(5회), 강석봉·박일구(6회), 강생기(7회) 등이 광주보통학교 졸업생이었고, 김용규·김태열·

최한영·강생기는 광주농업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이었다. 강석봉, 김태열은 양림교회 출신이었다. 보통학교와 광주농업학교 출신으로, 양림교회 신도인 김태열과 강석봉은 다른 회원들과 관계가 중첩되고 있다.

한편 1919년 3월 10일 일어난 광주 시위를 앞장섰던 서정희가 있다. 경기도 포천 출신인 1898년 광주 출신 김용원과 혼인하며 광주와 인연을 맺었는데 그는 광주 북문안 교회 교인으로 활동하면서 신문잡지총람소 회원들과 친분을 쌓았던 것이 시위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3·1운동에 참여한 북문안 교회의 교인들은 강석봉, 김용규, 최정두, 한길상, 황상호 등이 있었다.

신문잡지총람소 회원들이 1919년 3월 6일 밤 열린 광주시위 첫 준비모임에서 유인물 인쇄, 학생 및 시위 군중 동원 등 핵심 임무를 맡고 있음을 판결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미 그들이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특히 경성에서 3·1운동을 준비하던 지도부가,

“광주의 젊은이들이 시위를 먼저 일으켜 큰 일을 그르칠까 염려스럽다”

라고 걱정한 것으로 보아 이미 광주에서 독자적으로 시위가 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문잡지총람소가 그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광주의 움직임을 알고 있는 경성의전 재학생인 김범수는 광주 시위를 신문잡지총람소 회원과 손을 잡고 추진하려 하였다. 2월 5일 장성 김기형 집에서 2·8독립선언서를 인쇄할 때 김태열이 참여한 것은 이때문이다. 이처럼 유인물을 준비하며 만세 시위 추진을 계획하던 세력은 김범수와 신문잡지총람소 회원이 최초였다.

그러나 이들이 시위를 추진하려 할 때 경성에서 천도교 등 종교 단체와 경성의전 등 학생들이 전국적인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다. 손병희 등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고종의 인산일인 3월 3일 시위일로 정하였으나, 인산일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혼란을 피하려고 3월 1일로 앞당겼다.

한편 광주에서의 시위 준비를 하던 김범수는 2월 중순 경성의전 및 다른 학교 학생들이 별도의 시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았다. 김범수를 통해 광주 시위 준비 계획을 들은 경성의 시위 지도부는 광주에서 독자 시위를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최한영이 훗날 “거족적으로 일어서야 할 독립운동에 광주의 어린학생들이 선불리 일어나 큰 거사를 그르칠까 걱정하고 동일보조를 취하자고 연락을 해왔다.”⁶⁾이라고 증언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라 하겠다.

김범수는 이러한 뜻을 김태열을 통해 신문잡지총람소 회원에게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신문잡지총람소 회원들 중심으로 추진되던 시위 계획의 일정이 다시 조정되게 되었다. 그들은 비밀을 유지하며 시기를 살피고 있었다.

광주 신문잡지총람소 회원들이 김범수와 김태열을 중심으로 시위 계획을 수립하고 경성에서의 시위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인 2월 하순, 경성에 있던 김필수 목사가 경성의 기독교 단체로부터 광주에서의 독립만세 운동 추진을 부탁받았다. 김필수 목사는 양림교회 장로인 최홍종과 같은 양림교회 신도인 김복현(異名 김철)을 만나 시위 계획을 논의하고 상경하였다. 최홍종과 김복현은 경성에서의 상황을 살핀 후 광주 시위를 결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여 상경하였다.

이들이 경성에 올라간 것은 최홍종의 판결문에는 3월 2일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전후 상황을 보면 그 이전에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들이 상경한 것은 경성에서의 시위 준비 상황을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김범수를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한영의 중요한 증언이 있다. 경성에 올라간 최홍종·김복현이 담양 출신으로 동경 2·8독립선언에 참여하고 귀국한 국기열의 안내로 청량리 산기슭에서 김범수를 만났다는 것이다.

6) 『광주시사』 (1966).

“최홍중 장로와 김철(복현) 씨도 즉시 상경하여 담양 출신으로 일본 유학생이었던 국기열 씨의 주선으로 청량리 근처의 산기슭에서 광주 출신 유학생 김범수 등 여러 청년들과 만나 3·1운동 광주거사를 협의한 끝에 최홍중 장로와 김철씨가 책임을 맡기로 했다.”⁷⁾

최홍중 등을 김범수에게 안내한 사람은 국기열이다. 국기열은 일제강점기 매일신보 기자로 활동하면서도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도와주는 등 지역에서 명망이 있었던 인물이다. 여하튼 국기열이 최홍중을 김범수에게 안내한 것은 국기열과 김범수가 자주 만나 광주시위를 상의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최홍중 등이 경성에 올라가자마자 김범수를 만났다는 것은 김범수가 광주 만세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김태열을 통해 광주신문잡지종람소를 중심으로 광주 시위를 추진하고 있었던 김범수가 배후 주동자의 한 사람임을 짐작하게 한다.

김범수는 경성에서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3월 1일 시위와 더불어 3월 5일 경성 학생들 중심의 2차 대규모 시위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 주었다. 김범수는 최홍중과 김복현 등이 독자적으로 광주 시위를 추진하려는 데 대해 김태열 등 신문잡지종람소 회원과 함께 추진하면 좋겠다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복현이 광주에 내려오자마자 신문잡지종람소 회원들을 먼저 만났다는 사실이 이를 알게 한다. 광주 3·1운동에 김범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4. 2·8 독립선언서 인쇄와 광주 3·1운동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정의와 평화, 인도주의와 민족주의를 부르짖는 새로운 사조가 세계사에 새롭게 등장했다. 1918년 1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정의와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발표했고, 10월에는 독일의 지배를 받던 체코가 독립되었다. 민족자결주

7) 『광주시사』 (1966).

의 원칙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 민족에게도 감격스러운 소식이었다.

민족자결주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지자 국외의 독립운동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국 상해의 신한청년당은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해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기로 하였다. 미국에서는 이승만 등이 조선 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려 하였다.

일본 동경 한국 유학생들도 이 기회를 이용하여 독립운동을 추진하려 하였다. 1919년 2월 8일 추진된 2·8 독립선언이 그것이다. 최팔용·김도연·김철수 등 11명이 중심이 되어 1월부터 독립선언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들은 2·8 독립선언을 본국과 일본 양국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였다. 이에 1월 중순 송계백·정광호·김안식 등 2·8 독립선언을 준비했던 주요 인물들은 2·8 독립선언서 초안을 품에 숨기고 귀국하였다. 경성에서 송계백으로부터 시위 계획을 들은 정노식은 田畠 판돈을 모두 내주었다. 그 돈을 일본에 가져간 송계백은 2·8 독립선언을 성공리에 치르는데 요긴하게 사용하였다.

판결문에 있는 것처럼 경성과 고향인 광주에서 2·8 독립선언서를 동시에 뿌려 독립 의지를 널리 알릴 계획을 가지고 귀국한 메이지대 정광호는 김범수를 찾아갔다. 김범수와 정광호는 앞서 살핀 바처럼 광주보통학교 때부터 가깝게 지낸 사이였고, 경성에서 학교를 같이 다녀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 1919년 2월 2일 일요일 정광호는, 경성 송현동 근처에서 하숙하고 있었던 김범수를 만나 일본에서의 만세 운동 계획을 설명하며 경성과 광주에서 동시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자고 하니 김범수가 흔쾌히 찬동하였다.

이때 김범수 집에는 김범수의 광주보통학교 후배이자 동생 언수 친구인 박일구가 광주에서 올라와 있었다. 판결문에는 박일구가 김범수 집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다, 박일구가 경성으로 유학 갔다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박일구의 아들 승부의 증언에 따르면 장성군 진원면의 천석군 아들 박일구는 경성에 거주할 집을 매입하기 위해 올라갔었다고 한다. 박일구는 친구 형 하숙집에서 잠

시 유숙하며 매입할 집을 물색하다 정광호를 만났다고 승부가 증언하여 주었다.

정광호로부터 일본 유학생의 독립 만세 계획을 들은 박일구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다량의 2·8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인쇄하기 위해서는 일본 당국의 감시가 미치지 않은 깊은 산골이 좋겠다는 정광호의 제의에 박일구는, 장성 백암의 그의 처가 집을 소개하였다. 김범수가 내놓은 돈으로 등사기를 산 정광호는, 이때 또 다른 고향 친구 최정두를 김범수 집에서 만났다. 최정두는 당시 중앙학교에 재학 중이었다.⁸⁾ 재경 유학생 최정두를 이 계획에 끌어들인 이는 유학생 김범수였다. 최정두 역시 이들의 계획에 흔쾌히 찬동하였다. 이들은 2월 5일 장성 백암 김기형의 집에서 만나자고 하며 헤어졌다. 정광호와 최정두는 등사기를 들고 장성으로 내려왔다.

김범수와 박일구는 이들보다 하루 먼저 2월 4일 화요일 광주로 함께 내려왔다. 박일구는 곧장 장성 처가 집인 김기형의 집으로 가고 김범수는 수기동 본인 집으로 향하였다. 수기동 자택에서 김범수는 고향 친구이자 광주보통학교 동창인 김태열을 만나 만세 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다. 당시 김태열은 광주보통학교 교사였다. 김범수의 제의에 김태열이 찬동하자 김범수는 2월 5일 장성 김기형 집으로 김태열을 데리고 갔다. 김태열의 가담은 이들의 시위 계획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광주 출신인 그는 광주보통학교를 나오고 그 보통학교 교사를 지내는 등 광주지역의 젊은 청년들과 튼튼한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었다. 특히

8) 서울 중앙고등학교 略史에 의하면 중앙학교의 뿌리는 1908년 애국계몽단체인 기호흥학회에서 세운 기호학교가 모태였다. 1910년 1909년 세워진 융희학교와 통합하여 중앙학교로 개칭되었다. 1915년 인촌 김성수 선생이 인수한 후 1921년 사립중앙고등보통학교로 개칭되었다. 1918년 11월부터 중앙학교 교장 사택에서 3·1운동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최정두는 대부분 판결문에는 광주군 본촌면 양산리에 주소를 둔 농민으로 나와 있으나, 또 다른 판결문에는 중앙학교 생도라고 나와 있다. 이로 보면 최정두가 중앙학교 재학생이거나 졸업반 학생이지 않았을까 한다. 즉 재판 중에 졸업을 하여 농업으로 직업을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

신문잡지총람소 회원이라는 점도 김범수는 주목한 것 같다.

장성 김기형 집에 모인 김기형과 정광호·김범수·박일구·김태열·최정두 등 6인이 시위에 필요한 2·8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인쇄된 2·8 독립선언서의 내용 일부이다.

“조선청년독립단은 아 3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득한 세계 만국의 전에 독립을 기성하기를 선언하노라. 4천 3백년의 장구한 역사를 有한 吾族은 실로 세계 古民族의 일이라. 비록 유시 호 중국의 정사를 봉한 사는 유하였으나, 차는 양국 왕실의 형식적 외교 관계에 불과하였고 조선은 창상 오족의 조선이고 일차도 통일한 국가를 실행하고 이족의 실질적 지배를 수한 사 무하도다.

일본은 조선이 일본과 순치의 관계가 유(有)함을 자각함이라 칭하여 1894년 청일전쟁의 결과로 한국의 독립을 술선 승인하였고 미·영·법·아 등 제국(諸國)도 독립을 승인할뿐더러 차를 보전하기를 약속하였도다. 한국은 그 사의를 감여 예의로 제반 개혁과 국력의 충실을 도하였도다.(하략)

최팔용·윤창석·김도연·이종근·이광수·송계백·김철수·최근우·백관수·김상덕·서춘”

정광호 등은 이러한 내용의 2·8 독립선언문을 5,700여 매를 인쇄하였다. 그런데 정광호·김범수 등이 2월 초에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며 동경 유학생과 동시에 경성·광주 등지에서 시위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송계백을 통해 일본 유학생의 움직임을 전달받은 국내의 종교계 및 학생들도 각기 별도의 독립 만세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광호는 장성으로 내려가기 전인 2월 3일 송진우, 정노식을 만나 동경에서 2월 8일 독립선언을 발표한다는 얘기를 전하며 시위 동참을 촉구하였다. 송진우 등은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으므로 2월 20일로 독립선언을 연기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으나 동경에서는 더 늦추면 비밀 유지가 어렵다고 하여 그대로 2월 8일 독립선언을 발표하였다.

광주를 중심으로 김범수, 정광호 등이 만세 운동을 계획하고 있을 즈음, 경성에서는 독립 만세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학생과 종교계 두 갈래로 추진되던 만세 운동이 하나로 결집하여 일어난 것이다. 학생들이 추진하던 시위 계획을 종교계가 추진한 시위로 끌어들이는 박희도였다.⁹⁾

당시 YMCA 간사였던 박희도는 1월 하순 경성 시내 전문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중 대표가 될 만한 청년들을 관수동에 있는 음식점 대관원으로 초청했다. 연희전문학교 김원벽, 보성법률상업전문학교 강기덕, 경성의학전문학교 김형기·한위건, 경성공업전문학교 주중의, 경성전수학교 이공후, 졸업생 주익, 윤화정 등 참석자들은 학생들의 독립운동 방안을 협의하였다.¹⁰⁾

이갑성은 2월 12일과 14일에 세브란스병원 구내 자택에서 음악회 명목으로 김원벽·김형기·한위건·윤자영 등 전문학교 학생들을 불러 모아 학생들의 결속과 독립운동을 독려했다. 김원벽, 강기덕, 윤자영, 김형기, 한위건 등은 동경 유학생의 선언서 발표를 본받아 청년, 학생들을 규합하여 독립선언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강기덕 등은 각 전문학교에서 대표적 인물을 물색하여 2월 20일경 예배당에서 학생 간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들은 학교별로 1명씩만 대표자로 내세워 체포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경성전수학교 전성득, 경성의학전문학교 김형기,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김문진, 경성공업전문학교 김대우, 보성법률상업전문학교 강기덕, 연희전문학교 김원벽이 각 학교의 대표자로 나서고, 한위건·윤자영·이용설·한창환은 학생들을 규합하고 후사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강기덕, 김원벽 등은 각 중등학교에서 대표적 인물을 물색하여 박쾌인, 김백평, 박노영, 이규송, 장채극 등을 학교별 대표자로 삼았다.¹¹⁾

9) 김상태, 2019,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의 3·1운동 참여양상」, 『의학도, 3·1운동의 선두에 서다』.

10) 김상태, 위의 논문.

경성의 학생들이 시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박희도는 2월 23일경 학생 대표들에게 손병희 등 종교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립운동에 합류하여 시위운동의 전면에 나서 달라고 제안하였다. 학생들이 그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종교계와 학생들의 대연합이 성사되었다. 그동안 여러 계통으로 추진되던 독립선언 준비는 하나로 추진될 수 있었다.

그런데 장성에서 2·8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광주와 경성에서 시위할 계획을 수립하던 김범수와 정광호는 경성에서 학생과 종교계가 중심이 되어 거족적인 시위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려 한 시위 계획을 보류한 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김범수와 정광호 등이 광주와 경성에서 계획한 시위는 비록 실행 단계에서 멈추었지만, 3·1운동은 물론 2·8 독립선언보다 먼저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 가운데 시위 계획을 수립하고 유인물을 인쇄하는 등 행동으로 실천한 이는 김범수였다.

한편 김범수처럼 경성의학전문학교 출신으로 시위 계획을 구상하고 이를 조직화하는 데 앞장선 이는 4학년 재학 중인 김형기와 김범수와 같은 학번인 2학년 한위건이었다. 특히 시위 준비 초기 국면에서 경성의학전문학교 대표로 활약한 학생은 4학년 김형기였다. 평소 YMCA의 복음회에 다니던 김형기는 YMCA 간사 박희도에게 직접 1차 학생모임 건을 들었고, 같은 경상도 출신의 경성전수학교 학생 윤자영에게 학생대표 모임 참석을 권유했다.¹²⁾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대표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학생은 김범수와 동급생인 2학년 한위건이다. 한위건은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행해진 시위 때 학생대표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였다. 훗날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로 유명한 그는,¹³⁾ 1월 하순부터 3월4일까지 열린 여

11) 김상태, 위의 논문.

12) 김상태, 위의 논문.

13) 김준엽·김창순, 1986,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러 차례의 학생대표 모임 때마다 거의 참석했다. 박희도의 주선으로 모인 1차 모임 때 다른 학교 학생대표의 참여를 독려했는데, 특히 경성공업전문학교 학생 주종의에게 직접 참석을 권했다. 1차 모임에 참석하여 신문, 잡지 등에 보도된 민족자결주의와 파리강화회의 및 해외 조선인들의 독립운동 소식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에게 조선 민족이 자결하여 독립할 시기인지 아닌지 의견을 물었다.

한위건은 김형기, 윤자영과 함께 지금이 독립할 좋은 시기라면서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월 중순의 학생대표 모임에서도 이갑성이 해외 독립운동에 호응하여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했을 때 곧바로 찬성 의사를 밝힌 유일한 사람이 한위건이었다. 그는 2월 중순 학생들의 독자적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생 측 독립선언서의 제작 논의를 주도했으며, 전문학교별, 중등학교별 학생대표 선정에도 깊숙이 간여했다.¹⁴⁾ 이렇게 보면 2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경성에서 학생들의 시위 준비가 차츰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무렵 김범수는 이미 5,700매 이상 되는 2·8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경성과 광주에 옮겨놓고 시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보면 1919년 3월 독립만세의 서막은 김범수와 정광호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나던 당시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학사 일정을 보면 학기가 4월 1일에 시작되어 이듬해 3월 31일에 끝난다. 3월 하순에 졸업식과 봄방학이 있었고, 3월 초~중순에 학생들은 학년말 시험을 치렀다. 1919년 2월 경성의학전문학교는 학년 말 시험을 치르기 직전 상황이었다. 2월 25일부터 예비시험이 계획되어 있었다. 교수에 따라서는 이미 시험을 치르고 있는 과목도 있었다. 1학년 학생들의 경우 3월 1일 오후에 조직학 시험이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2월 초부터 시험에 대비하여 과목별 복습이 한창이었다.¹⁵⁾ 따라서 학생들이 만세 시위

14) 『한국독립운동사』, 1983, 국사편찬위원회.

15) 김상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의 3·1운동 참여 양상」, 『의학도, 3·1운동의 선두

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에는 상황이 녹록하지 못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범수를 비롯하여 경성의학전문학교의 많은 학생은 시험 준비보다는 시위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들에게는 공부보다 민족의 독립 문제가 더 소중하게 다가왔다. 다음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 대부분이 3·1만세 시위에 연결되어 있었다.

김범수가 경성에서 3·1운동 지도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정광호가 김범수를 찾아와 2·8 독립선언서 인쇄 및 시위 문제를 상의하였다고 하는 것은 김범수가 적어도 민족의 독립 문제에 대해 평소에 관심이 많았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의 하숙집에 와 있는 박일구를 시위 계획에 끌어들이고, 박일구의 장성 처남 집에서 인쇄하게 하고, 등사기 구매 비용을 부담하고, 광주 청년의 구심점인 김태열을 독립선언서 인쇄 작업하는 데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볼 때 동경에서 있었던 학생들의 독립 만세 계획을 국내와 연결을 시키는 데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해도 전혀 잘못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범수는 경성의학전문학교 출신으로 2·8 독립선언의 열기를 국내로 확산시키는 데 앞장선 최초의 인물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경성에서의 3·1운동에 참여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와 동급생인 경성의학전문학교 2학년생은 8명이나 된다. 김범수 역시 경성에서의 3·1운동 추진 주체들과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겠다. 그러나 다른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이 경성의 3·1운동 준비에 관심을 가졌을 때 김범수는 광주시위를 어떻게 성공리에 추진할 것인가에 더 많은 고민을 하였을 법하다. 다시 판결문으로 돌아가 보기로 하겠다.

“원심 재판 중에 김범수가 진술한 나와 김태열이 함께 김기형의 집에서 정광호·최정두·박일구 등이 경성에서 등사판을 가져와 동경에서 가

에 서다」.

저은 독립선언서를 등사하였다. 다음날 일본어로 된 선언서 5000통, 조선어로 선언서 700통을 인쇄하였다. 그 등사판과 용지는 정광호, 최정두가 경성에서 가져왔다. 조선어로 된 6매 1부 씩 약 600부를 인쇄하였다. 대부분은 정광호가 서울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김태열이 광주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¹⁶⁾

“1919년 1월 최팔용 외 10인이 연명한 선언서와 경고문을 가지고 경성으로 온 동경 명치대학생 정광호는 김범수, 박일구, 김태열 등과 협력하여 1919년 2월 5일~6일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김기형 집에서 최팔용 등의 선언서 약 650매를 등사 인쇄하였다.”¹⁷⁾

1919년 2월 5일, 6일 양일간 장성에서 2·8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는 과정을 언급한 각기 다른 판결문이다. 두 판결문을 비교하여 보면 당시 선언서 인쇄과정이 비교적 정확히 구성된다. 이들이 2월 5일, 6일 양일간에 걸쳐 인쇄한 유인물 가운데 600부는 정광호와 최정두가 경성으로 가지고 올라갔고, 나머지 유인물 55부는 김태열이 광주로 가져왔다. 말하자면 김범수와 정광호는 경성과 광주 두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김태열은 이를 시민들에게 언제 어떻게 뿌릴 것인가 기회를 엿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박일구의 아들 승부의 증언에 따르면 김태열이 유인물을 가지고 올 때 포대에 담아 말(馬)에 싣고 왔는데 여섯 포대였다고 한다. 이를 연결하면 아마 수레에 싣고 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실제 유인물은 55부보다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경찰 신문 조서나 재판정에서는 일부러 유인물 매수를 줄여서 말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출판물법 위반 형량이 가장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¹⁸⁾

16) 판결문(대정 8년 형제 558·910호).

17) 판결문(대정 8년 제403·737호).

18) 후술하겠지만 3월 10일 광주시위에 사용된 유인물도 광주에서 제작하였지만, 심문

장성에서 인쇄된 2·8 독립선언서는 3월 10일 광주시위에서 사용되었는데, 상당수는 숭일학교 학생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에게 사용되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다. 판결문을 따르다 해도 김태열이 장성에서 가져온 유인물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겠다.

장성에서의 2·8 독립선언 유인물 인쇄는 광주 3·1운동의 시작단계였다고 말할 수 있다. 유인물을 광주로 운반한 김태열은 3월 10일 광주시위를 논의하는 첫 모임에 참여하는 등 광주 3·1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다. 김태열을 처음 장성 인쇄 작업에 참여하게 한 역할을 김범수가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김범수가 광주 3·1운동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광주 3·1운동은 전달인 2월 5일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장성 김기형 집에서 2월 5일, 6일 인쇄된 2·8 독립선언서가 김태열을 통해 광주로 들어온 것은 2월 6일 밤 내지는 7일 무렵이라고 믿어진다. 그런데 인쇄물을 김태열이 말에 싣고 왔다고 한 것으로 보아 등사기도 함께 가지고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김태열이 광주에 돌아올 때 김범수도 동행하였을 것이다.

이때 등사기를 가지고 다시 경성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없다. 반면 최정두가 가지고 온 등사기를 이용하여 광주시위에 필요한 유인물을 인쇄하였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다. 그렇다면 광주시위 때 사용된 유인물 인쇄에 사용된 등사기는 김기형 집에서 2·8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였던 그 등사기임을 알 수 있겠다. 최정두가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경성에서 장성으로 가져왔다는 얘기이고, 장성에서 인쇄가 끝난 다음에는 김태열이 수레에 싣고 광주로 가져온 것임이 분명하다.

이들은 등사기와 유인물을 수기동의 김범수 동생인 언수 집에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3월 7일 김언수 집에서 3월 10일 시위에 필요한 유인물을 인쇄하기 시작한 데서 알릴 수 있다.

광주에서 일어난 3월 10일 시위와 관련된 판결 기록은 여러 부가 있

과정에서 경성에서 유인물을 가져왔다고 거짓 진술하였다. 이는 출판법 형량이 최고 3년이나 되는 등 보안법 위반보다 무겁기 때문이다.

다.¹⁹⁾ 이들 판결문은 1심인 광주지방법원, 2심에 해당하는 대구복심법원, 3심에 해당하는 고등법원형사부 판결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에 따라 각각 다르게 편성되어 있다. 동일 피고의 같은 사실을 다룬 판결문이지만 판결문에 따라 사실들이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각 판결문을 펼쳐놓고 유기적으로 엮어놓고 보면 당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진다. 다음을 보자

“피고 김종삼은 당 법정에서 (1919년, 필자) 3월 7일 ①김언수 집에서 피고 최정두·김용규 외 1명 등과 함께 ②국기에 깃봉을 부착하였으며 당시 피고 김용규가 ③선언서에 인쇄할 원지에 기재할 내용을 생각하다가 ④관헌에게 탐지될 것을 염려하여 중지하고 ⑤9일 피고 최한영의 집에서 피고 한길상·범윤두·최정두·김용규·최한영이 함께 인쇄하였는데 약 1천 통이었다.”²⁰⁾

위 판결문은 광주 3·1운동 때 사용된 유인물을 인쇄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판결문을 내용에 따라 편의상 필자가 다섯 항목으로 나누었다. 여기에 보면 3월 10일 사용될 유인물을 김언수 집에서 인쇄 작업을 시작하다가 관헌에게 탐지될까 염려하여 최한영 집으로 옮겼음을 알 수 있다. 김언수 집으로 들어가는 대로변 건너편은 광주지방법원이 있어

19) 광주 3·1운동과 관련된 판결 기록은 여러 부가 있다.

- 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복현 외 21명을 다룬 판결문인데, 1심에 해당하는 광주지방법원(大正 8年 刑 第 558·910號)과 2심에 해당하는 대구복심법원(大正 8年 刑 控 第403·737號), 3심에 해당하는 고등법원 형사부(大正 8年 刑上 第980號) 판결문
- ② 최정두의 광주지방법원(大正 8年 刑 第591號) 판결문
- ③ 박애순외 76명의 광주지방법원(大正 8年 刑 第558號) 판결문
- ④ 황상호 외 2인의 광주지방법원(大正 8年 刑 第620號), 2심 대구복심법원(大正 8年 刑 第537號), 3심 고등법원형사부(大正 8年 刑上 第505號) 판결문
- ⑤ 이달근외 45인의 2심인 대구복심법원(大正 8年 刑控 第738號)과 3심인 고등법원 형사부(大正 8年 刑上 第979號)
- ⑥ 최홍중외 31명, 1심인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20) 판결문(대정 8년 형 제558, 910호).

있어 인쇄하는 데 여간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다. 이제껏 최한영의 집에서 인쇄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을 뿐 김언수 집에서 태극기를 만들었고 독립선언서 등 유인물을 인쇄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았다.

한편 인쇄용지 1만 매를 불과 하루에 준비한 강석봉의 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²¹⁾ 이에 못지않게 인쇄 장소 또한 매우 중요하다. 3월 6일 저녁 모인 시위 주도세력이 인쇄 장소로 김언수 집을 처음 지정하였다는 것은 김언수와 시위 주도세력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려준다. 김언수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제껏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이후 김언수의 행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3·1운동 재판기록을 꼼꼼히 분석하다 김언수 집에서 최초로 태극기가 제작되고 인쇄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김언수는 광주보통학교 6회 졸업생으로 박일구와 동창이었다. 그러나 이후 행적이 없어 김언수 집이 어디이며, 왜 그의 집을 인쇄 장소로 삼았는지, 그리고 다시 최한영의 집으로 장소를 옮긴 것인지 그 까닭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러던 차에 김범수의 형 제적등본에서 김언수가 김범수의 친동생임이 확인된 것이다. 언수와 범수는 금남로 4가 36, 37번지에서 이웃하며 살고 있었다.

김언수 집이 인쇄 장소로 결정된 것은 김범수 뜻이 반영된 것이 분명하다. 김범수와 언수 집은 붙어 있는데 김언수의 집은 골목 안으로 들어

21) 당시 서방면에 막대한 토지를 지닌 대지주의 아들 강석봉을 판결문에는 직업을 ‘被雇人(피고인)’ 즉 ‘고용된 사람’이라 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였는데, 그의 조카인 강태진 선생으로부터 강석봉의 부친인 강호일이 광주에서 유기공장을 경영하였고, 강석봉은 그곳에서 부친 일을 도와주었다는 귀중한 증언을 들었다. 곧 담배대 제작에 필요한 유기를 제작하였다. 강호일은 수기옥정에서 강호일 유기공장을 경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강태진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음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강석봉은 재판과정에서 직업을 ‘고용인’이라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의 부친 강호일은 광주 서방 및 비아 일대에 많은 토지를 지닌 대지주였다. 빛나는 독립운동 가계를 복원하고자 노력하였던 강태진은 최근 작고하였다. 저자에게 가문의 빛나는 역사를 정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다.

가 있어 외부로부터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손녀 행자의 진술이 있다. 김언수 집은 대로에서 골목길을 따라 50m 정도 떨어져 있다. 김범수는 장성에서 인쇄한 2·8 독립선언서와 등사기를 동생 집에 보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2학년 말 시험과 경성에서의 시위 준비를 위해 상경한 김범수로서는 본인이 없이 아내 혼자만 있는 집에 보관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외부에서 잘 보이지는 않는 골목에 있는 동생 집에 보관한 것은 아닌가 한다.

3월 8일 사용될 유인물 인쇄를 김언수 집에서 처음부터 하려 한 것은 등사기가 그의 집에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김언수는 김범수의 동생으로 누구보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김언수는 김범수와 김태열, 박일구 등이 장성에서 2·8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있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형의 부탁으로 2·8 독립선언서와 등사기를 보관하고 있던 언수는 형의 부탁으로 3월 8일 시위에 필요한 유인물 인쇄 공간으로 그의 집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보면 3월 10일 광주시위에 김범수가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또 다른 근거를 찾는 셈이다.

김범수가 또한 광주 3·1운동에 개입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필자는 김태열의 역할을 주목하고자 한다. 김태열이 광주 3·1운동에 참여하는 계기는 김범수의 제의를 받아 2월 5일 장성 김기형 집에서 유인물을 인쇄하는 작업에 합류하면서이다. 김태열은 인쇄된 유인물을 광주로 가져와 시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다. 말하자면 김범수가 할 역할을 김태열이 거의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범수와 김태열은 단순한 친구라기보다 피를 나눈 동지나 다름이 없었다.

김범수가 김태열을 장성 김기형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인쇄 작업에 동참시킨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김태열과 김범수는 보통학교 때부터 가깝게 지낸 친구였다. 하지만 김범수는 광주보통학교를 다니다가 전학 간 관계로 광주를 떠나 있었다. 특히 1917년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광주에 내려올 기회도 거의 없어 광주 친구들과 소통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반면 김태열은 광주보통학교와 광주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광주보통학교 교사²²⁾로 재직하고 있어 광주지역에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광주에서의 시위를 전개하는 데 있어 김태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범수는 광주에서의 시위를 처음 계획하였을 때 김태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김태열은 광주시위 준비 첫 모임 때부터 참여하고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국사관논총』에서도 광주 3·1운동이 일어나는 데는 김범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해당 부분을 인용해보기로 한다.

“그러던 가운데 2월 하순 서울에서 김범수 등이 함께 거사하자고 제안해왔다. 이에 정광호 등은 선언서 등을 가마니에 담아서 광주로 돌아와 최한영 집에 숨겨두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같은 시기 이들과 교유하였던 김필수 목사와 김철(김복현), 최홍중 등은 국기열의 주선으로 김범수 등과 만나 운동 계획을 세웠다.”

광주 3·1운동을 김범수가 처음 제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김범수가 2·8 독립선언을 광주시위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최한영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때의 상황을 최한영은 다음과 같이 구술하고 있다. “2월 하순이라고 기억되는데 서울에 있던 김필수 목사가 독립운동 준비회의 밀령을 받고 광주에 내려와 최홍중 장로와 김철(본명 복현) 등을 만나 광주 운동을 교섭하고 올라갔고, 최홍중 장로와 김철도 즉시 상경하여 국상이 진행되는 동안 담양 출신으로 일본 유학생이었던 국기열 주선으로 청량리 근처의 산기슭에서 광주 출신 유학생 김범수 등 여러 청년과 만나 3·1운동 광주 행사를 협의한 끝에 최홍중 장로와 김철이 책임을 맡기로 하였다.”²³⁾

22) 판결문에 김태열의 직업을 광주보통학교 교사라 하였다.

최한영의 진술에서도 광주 시위 주체들이 광주시위의 구체적 내용을 김범수와 상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김범수 등이 청량리 근처 산기슭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김범수 등이 감시의 대상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김범수가 경성과 광주의 시위 전개에 결정적 고리 역할을 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국사관의 언급 가운데 정광호 등이 광주에 2·8 독립선언서를 가져왔다고 하였으나 사실과 다르다. 정광호가 아닌 김태열이 광주에 가져왔다. 정광호는 경성으로 유인물을 가지고 상경하였다. 김범수와 정광호는 장성 김기형 집에서 인쇄한 유인물을 광주 김언수 집에 보관하여 놓고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다. 김범수는 2월 2일 정광호를 처음 만난 이후 1개월 가까이 광주시위 준비에 정성을 기울였다. 김언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유인물을 3월 10일 시위를 앞두고 최한영 집으로 옮기었음을 알 수 있다.

광주에서는 일본 도쿄에서 2월 8일 유학생들에 의해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기 직전에 이미 그 선언서가 비밀리에 알려졌다. 정광호·김범수·김태열·박일구·최정두·김기형 등 인쇄에 참여한 이들에 의해 전파되고 있었다. 특히 김태열이 회원으로 있는 신문잡지총람소 회원들은 김태열을 통해 이 소식을 들었다.²⁴⁾

김범수는 경성에서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3월 1일 시위와 더불어 3월 5일 경성 학생들 중심의 2차 대규모가 시위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주었다. 김범수는 최홍종과 김복현 등에게 광주의 시위를 김태열 등 신문잡지총람소 회원과 함께 추진하면 좋겠다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23) 3·1동지회, 1985, 『3·1독립운동실록』.

24) 2·8독립선언서가 광주에는 다른 계통으로도 전해지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 즉 김마리아가 도쿄에서 몰래 휴대하고 들어와 고모인 김필례에게 전달하였고, 김필례는 그것을 남편 최영욱이 운영하는 서석병원 지하실에서 복사하였다 한다.(『광주제일교회 110년의 발자취』, 2006.) 김마리아가 광주에 2·8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빨리 광주에는 2·8독립선언서가 유포되었다고 본다.

보인다. 이는 김복현이 광주에 내려오자마자 신문잡지종람소 회원들을 먼저 만났다고 하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²⁵⁾ 이 과정에서 광주 3·1운동의 사실상의 지휘부 역할을 김범수가 하였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3월 5일 경성에서 경성의학전문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3월 1일 시위와 별도로 대규모 시위를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시위를 살피러 나갔던 최홍중 장로는 그만 시위 열기에 흥분하여 남대문역전에서 인력거 위에 올라가 ‘신조선신문’이라는 유인물 수십 부를 나누어주며 ‘민족자결주의’에 대해 연설을 하였다. 그리고 대한문 앞 인력거 위에서 ‘조선독립’이라고 쓰인 깃발을 높이 흔들며 시위를 선동하다 체포되어 종로경찰서로 연행되었다.²⁶⁾ 시위 열기에 흥분한 최홍중은 광주 시위를 성공리에 치러야 한다는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구속되고 말았다.

경정부 봉래정 신행여관에 투숙 중이던 김복현은²⁷⁾ 3월 5일 최홍중 장로가 체포된 것을 확인하고서 3월 6일 광주로 내려왔다. 이때 그는 손병희 등 33명이 서명한 독립선언서와 ‘경고 우리 2천만 동포’라는 제목의 격문, 최팔용 등 11인이 서명한 2·8 독립선언서, 조선의 독립을 노래한 독립가, 2·8 독립선언서의 요지를 관철하기 위해 일본의회와 일본 정부에 대해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고 그 결의로써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줄 것을 청원하는 국민대소집의 인쇄물 등 다섯 종 인쇄물을 휴대하고 내려왔다.

25) 『광주시사』에는 “최홍중 장로와 김철(복현)씨도 즉시 상경하여 담양 출신으로 일본 유학생이었던 국기열씨의 주선으로 청량리 근처의 산기슭에서 광주 출신 유학생 김범수 등 여러 청년들과 만나 3·1운동 광주거사를 협의한 끝에 최홍중 장로와 김철씨가 책임을 맡기로 했다.”고 되어 있다.(55쪽)

26) 판결문(경성성지방법원 대정 8년 형공 제941호).

27) 판결문(대정 8년 형제 403, 737호).

5. 폭발하는 광주 3·1운동

경성에서 내려온 6일, 김복현은 곧장 김강을 만났다. 김강은 김복현과 같은 양림교회 교우이자 가까운 친구로, 김복현의 결혼식에 최홍종과 김강이 함께 참석하여 사진을 찍을 정도로 막역한 관계였다. 김복현은 김강에게 경성의 시위 상황과 최홍종 장로의 체포 사실을 알리며 광주에서의 시위를 빨리 진행하자고 하였다.

김복현은 나주 출신이기에 광주의 사정에 밝지 못해 연락 등 주요한 연락은 김강이 맡았다. 김철이 경성에서 내려온 6일 밤 김강의 연락을 받고 효천면 양림리 즉 지금의 양림동 남궁혁 집에 여러 사람이 모였다. 남궁혁은 당시 평양장로회 신학교 학생이었다. 남궁혁 집을 모임 장소로 정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에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궁혁이 후에 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그가 평양장로회 신학생으로 평양에 있어 그날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3월 6일 밤 첫 모임에 김강을 비롯하여 김철, 최병준, 송홍진, 최정두, 한길상, 김용규, 김태열, 강석봉, 손인식 등 10명이 참석하였다. 이 가운데 김철, 김강, 최병준, 강석봉, 한길상, 최정두, 김태열은 양림교회 교인이었다. 김태열, 한길상, 김용규, 강석봉은 삼합양조회 회원 곧 신문잡지 종람소 회원이었다. 최병준과 손인식은 숭일학교 교사였다. 광주보통학교 교사인 김태열은 김용규, 강석봉과 광주보통학교 선후배 사이였다. 6일 밤 회동한 사람들은 학교 선후배, 교회 신도, 신문잡지종람소 회원 등으로 관계들이 서로 겹치고 있었다. 이른 시일 내에 조직적인 거사가 가능했던 중요한 까닭이라 하겠다.²⁸⁾

28) 김태열은 광주 3·1운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이후 행적이 잘 드러나 있지 않다. 최근 우연히 그의 행적의 일단을 발견하였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고, 더욱 그 결혼식 주례를 광주보통학교 1년 후배이자 신문잡지종람소 회원이었던 최한영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지난 2일 하오 4시에 광주사립보통학교 대강당에서 김태열군과 정순이 양의 결혼

그런데 이 모임에서 주목되는 점은 김태열과 최정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2월 5일, 6일 양일간에 걸쳐 김범수와 함께 장성 김기형 집에서 2·8 독립선언서를 5,700매나 인쇄했던 인물들이다. 당시 경성의 중앙학교 재학생 최정두는 당시 경성에서 유학 생활하며 김범수와 자주 어울렸던 사이로, 김범수 집에서 정광호를 만나 장성으로 등사기를 운반한 인물이다. 그리고 장성에서 인쇄된 유인물을 정광호와 함께 경성으로 가지고 올라갔다. 광주 시위 준비에 처음부터 참여한 셈이다.

김태열은 김범수와 같은 광주보통학교 친구 사이로, 김범수의 소개로 장성의 김기형 집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는 데 참여하였고, 유인물 5500통을 광주로 가져와 김범수의 동생 언수 집에 숨겨놓고 김범수와 연락을 하며 시위 기회를 보고 있었다.²⁹⁾

최정두와 김태열은 모두 김범수를 중심으로 이미 2월 초부터 독립 만세 운동을 실질적으로 준비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이 3월 6일 밤 처음 있었던 광주 시위 모임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김범수를 중심으로 준비되었던 시위 계획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

6일 저녁 10인 모임에서 김복현은 3·1 독립선언서 등 경성에서 가져온 유인물을 보여주며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 시위는 이틀 후인 8일 광주 큰 장날을 이용하여 전개하자고 결의하였다.³⁰⁾ 인쇄는 신문잡지종람소 회원들이

식을 친우 최한영씨의 주례로 거행하였다. 신랑 신부가 모두 광주청년학원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운동에 충실한 역군들이었다(1926년 5월 8일 동아일보)".

29) 판결문(대정 8년 형제 558, 910호) 그런데 최한영은 그가 장성 박일구의 처갓집에서 인쇄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사실과 다르다.([『3·1독립운동실록』, 1985, 511쪽의 최한영 진술)

30) 1919년 3월 10일 광주시위의 준비 과정 및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시위 주동자 및 가담자에 대한 다음의 판결문을 참고하였다.

① 광주지방법원 대정 8년 형제 558, 910호 김복현외 21인(대정 8년 6월 16일)
 ② 대구복심법원 대정 8년 형제 403 737호 김복현 외 15인(대정 8년 9월 15일)
 ③ 고등법원 대정 8년 형제 980호 김복현·서정희(대정 8년 10월 20일)
 위 판결문을 유기적으로 엮으면 당시의 상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복원되고 있다.

맡고, 인쇄용지는 강석봉이 구매하여 조달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나누었다. 그래서 대지주였던 강석봉 등은 다음 날 아침부터 광주 시내의 조상점·대강상점 등 지물상을 전부 돌아다니며 용지 1만 장을 3천 원에 사들여 한길상에게 전달하여 인쇄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였다.³¹⁾ 최병준과 손인식은 숭일학교, 김태열은 광주보통학교 학생을 시위 당일 동원하는 일을 맡았다.

시위를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은 독립선언서 등 유인물 인쇄 작업이었다. 이미 경성에서 3월 1일과 5일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시위 열기가 전국으로 전파되는 상황에서 일본 경찰의 감시는 한층 강화되고 있었다. 이때 들키지 않고 다량의 유인물을 인쇄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다.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등사기는 경성에서 가져와 김기형의 집에서 2·8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김언수 집에 보관되어 있던 한 대뿐이었다.³²⁾ 등사기 한 대를 가지고 거의 유인물 1만 장을 인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때 송홍진이 숭일학교 인쇄기를 추가로 이용하자고 제안하여 숭일학교 교사 손인식이 학교에서 몰래 등사기를 가져왔다. 손인식 선생이 인쇄기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8천 명 넘게 참여한 3월 10일 시위에 필요한 유인물을 제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손 교사의 공이 크다

그동안 3월 10일 시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판결문보다 시위에 참여한 몇몇 인사들의 증언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판결문도 위의 세 판결문을 함께 분석하지 않고 각각의 판결문 하나만 가지고 하다 보니 전체 윤곽을 그리는 데 한계가 적지 않았다. 3월 10일 광주 시위를 서술하는 데 있어 판결문을 이용하였던 경우는, 딱히 각주를 달 필요성이 없으면 생략해왔다.

31) 판결문(대정 8년 형제 558, 910호).

32) 판결문에 보면 최정두 소유 등사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판결문, 대정8년 제403. 737호) 이 설명은 매우 의미가 있는데, 최정두가 소유하였다는 인쇄기는 최정두가 경성에서 가지고 내려와 장성 김기형 집에서 2·8독립선언서를 인쇄하는 데 사용된 인쇄기가 분명하다. 그 역사적인 인쇄기는 김범수가 경성에서 구입한 것이었다. 김태열이 김언수 집에 보관하여 놓은 인쇄기를 3월 7일 저녁에 태극기 등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다 시내에 위치하여 일본 경찰에 노출될까 염려하여 3월 8일 최한영 집으로 옮겨 광주시위에 필요한 유인물을 인쇄하는 데에 사용한 것이다.

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인쇄는 두 곳에서 진행되었다. 숭일학교에서 가져온 등사기는 남궁혁의 집에서 사용되었고, 김언수 집에 보관되어 있던 등사기로 7일 독립가, 구한국 국기 등을 인쇄하였다.³³⁾ 김언수 집은 광주지방법원 맞은편 골목 안에 있어 시위 지도부가 담대한 결정을 하였으나 아무래도 일본 관헌의 감시망에 걸릴 염려가 있었다.

8일 최한영이 향사리 본인 집에서 인쇄하자고 하여 등사기를 옮겼다. 그의 집은 현 사동 KBC 뒤로 시내에서 떨어져 있었다. 이곳에서 8일부터 9일 밤늦게까지 최한영, 김용규, 최정두, 범윤두, 김종삼, 한길상 등이 방문을 이불로 가려놓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인쇄하였다. 남궁혁과 최한영 집 등에서 인쇄된 유인물은 8,000여 장에 달한다. 광주 3·1운동 추진의 결정적 순간을 최한영이 맡은 것이다.

이때 인쇄된 유인물 가운데 애국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⁴⁾

1. 알루의 물(압록강) 홍안의 피(홍안령) 발해에 달해/
길이길이 밭 뻗은 그때 그리움/
우리 속에 흐르는 피 나름이요/
그 손발 물림이 내 것이로다.
(후렴) 길 나도다. 빛나도다. 뛰고 굳거라./
앞바람에 넓음이 내 것이로다.
2. 억천만 년 변함없이 새 목숨 품고/
범 눈인 듯 흘긴 지 얼마나 오랜가./
새겨 먹고 잘 새겨라. 풀밭이나마.
몸부림할 새벽 이것이로다.

33) 3월 6일 처음 모였을 때 인쇄는 김언수 집에서 하기로 하였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다. (대정 8년 제558, 910호) 최한영은 그의 집에서 태극기 등의 인쇄하기로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3·1독립운동실록』, 1985, 512쪽의 최한영 진술)

34) 『신동아』 최한영 회고록(1966년 3월호).

한편 3월 8일 큰 장에서의 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3월 7일 지도부가 서정희 집에서 모였다. 서정희, 김강, 김태열, 범윤두 등 13명이 독립선언서 인쇄 상황을 확인하고 배포 책임자 등을 다시 결정하였다. 그러나 독립선언서 인쇄가 7일 밤 안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함을 깨닫고 3월 8일 큰 장에서의 시위를 연기하기로 하였다. 이날 밤 모임에 최한영도 당연히 참석하였을 것이다.

3월 9일 이기호 집에 김복현, 김강, 서정희, 송홍진 등이 다시 모였다. 이곳에서 인쇄물이 그날 밤 안으로 마무리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10일 오후 3시 30분 큰 장터³⁵⁾에서 시위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작은 장날 큰 장터에서 만세시위를하기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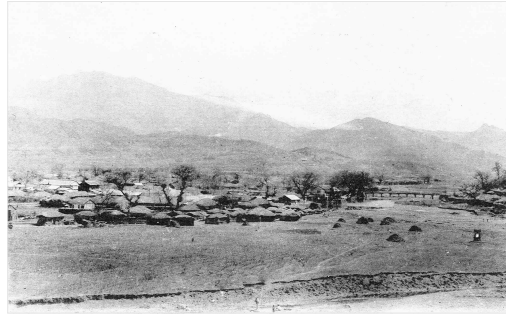
이들은 구체적으로 시위 전개 방법을 논의하였다. 김강과 최병준은 송일학교를, 한길상은 농업학교 및 누문리 일대를, 김종삼은 동문통 및 작은 시장, 김용규는 서문 및 남문 밖, 최한영은 큰 시장 및 광주교 부근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운동 참가를 권유하기로 하였다.

이때 이들이 준비한 유인물은 7일부터 9일 사이에 인쇄된 기미독립선언서와 ‘경고 아 2천만 동포’라는 격문, 애국가 및 독립가, 그리고 2월 5일, 6일 장성 김기형 집에서 인쇄된 2·8 독립선언서 5,500장 등이었다. 2·8 독립선언서는 송일학교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주로 배포되었다.

동료인 손인식 교사를 모임에 소개하는 등 김복현과 함께 시위 준비의 중요 역할을 담당한 송일학교 최병준 교사는 김강과 함께 독립선언서 1천 매와 김태열로부터 받은 2·8 독립선언서를 송일학교로 가지고

35) 당시 광주의 시장은 大小 2개소로 나누어져 있었다. 큰(大)장은 광주교 하류 하천가에서 ‘旧曆’의 날에 3회 열렸다. 작은(小)장은 부동정 밖 하천가에서 ‘旧曆’의 날에 3회 열렸다. 큰 장의 규모가 작은 장보다 10여 배 정도 컸다. 두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었던 품목은 미곡류였다. (『광주시사』, 1980) 이렇게 큰 장, 작은 장으로 나누어 있던 광주천변의 시장은 1928년 광주천변의 물길을 바로 잡고 독을 쌓는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며 큰 장인 공수방장과 작은 장인 부동방장을 합쳐 구태평극장 앞 광주천 건너편 사동의 매립지에 사정시장을 개설하였다.(박선희, 『광주1백년』, 1994)

가서 보통과·고등과 학
년 대표인 정두범, 김성
민, 김철주 등을 시켜 학
생 1인당 20매씩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최병준은
학생들과 함께 선언서,
포고문, 독립가, 태극기
등을 동문, 남문, 서문 거
리에서 시민들에게 나누



작은 장터 사진

어 주고 만세를 선창하는 등 학생·시민들의 시위를 이끌었다. 참가인원
8천 명이 넘는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최 교사가
한 셈이다. 그가 당시 김범수, 김복현 등 주동자급들이 받은 최고형인
징역 3년 형을 받은 것은 이 때문이라 하겠다.

최병준과 함께 유인물을 학교에 가져간 김강을 일부에서는 숭일학교
교사로 설명하기도 하나 판결문에 농업으로 나와 있어 사실로 받아들이
기 어렵다.



큰 장터 사진

한편 김강은 수피아학교 교사 박애순에게 독립선언서 50매를 교부해주며 독립운동 개시 시각을 알려주었다. 이미 신문에 보도된 파리강화회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며 독립 의지를 높이는데 앞장섰던 박애순은 전달받은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며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그런데 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은 이미 3월 7, 8일 무렵부터 수피아 홀지하에서 박영자, 홍순남, 최경애, 양태원 등이 중심이 되어 교복 치마를 잘라 구 대한국기를 제작하고 있었다. 광주 수피아여자고등학교에는 지금도 구한국기를 제작한 수피아홀이 보존되어 그날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다. 이처럼 사전에 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만세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시위 참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역사적인 1919년 3월 10일 오후 3시 30분. 수백의 군중들이 큰 장터에서 모여 김복현, 김강, 서정희의 선창에 따라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옛 대한국기(태극기)를 흔들며 작은 장터를 향해 출발하였다. 양림리 방면에서는 숭일학교 학생 100여 명과 수피아여학교 학생 30여 명이 달려오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작은 장터에는 순식간에 수천의 인파로 가득하였다. 이들이 외치는 만세 소리는 광주천에 흐르는 물을 웅숭음치게 하였고, 무등산에 메아리쳤다.

작은 장터를 출발한 시위대는 서문통을 지나 본정통으로 좌회전한 후 충장로 4가에서 광주농업학교 학생 등 군중과 합세하였다. 그리고 다시 충장로를 따라 우체국 앞으로 되돌아온 후 광주경찰서로 행진하였다.

이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들이 출동하였으나 처음에는 당황하여 시위대를 따라올 따름이었다. 그러다 시위대가 우체국 앞에 이르렀을 때 기마 헌병대가 출동하여 선두에 선 주동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였다. 시위대는 해산하기는커녕 인근의 광주경찰서로 몰려들며 서로 먼저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때 수피아여학교 윤형숙은 일본 헌병이 휘두르는 칼에 팔을 다쳐 중상을 입었지만 흔들림 없이 더욱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다. 이를 본 시위대는 더욱 격렬한 기세로 시위에 나섰다. 여수 출신 윤형숙은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이름을 묻

자 ‘윤혈녀’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 광주시민들은, 광주를 자발적으로 ‘제2수도’라고 부를 정도로 자존심이 강하였다. 이것은 이미 3월 10일 크게 폭발한 광주시위 열기가 사회주의 항일운동, 신간회 활동, 광주학생독립운동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붙여진 호칭이라 여겨진다.

1919년 3월 10일 있었던 광주시위는 어느 지역의 만세 운동과 비교될 수 없는 대규모 시위였다. 광주시민들의 내면에 흐르는 항일의 에너지는 3월 6일 밤부터 불과 3, 4일 짧은 기간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의 힘을 총동원하는 대규모 시위를 엮어낸 것이다.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준비 기간이 3, 4일에 불과하였지만, 실제 광주 시위는 2월 2일 경성에서 정광호와 김범수가 만나고, 2월 5일 장성에서 2·8 독립선언서가 인쇄되면서 시작된 것이니 거의 한 달 넘게 준비되었다고 하겠다.

3월 10일 이후에도 광주에서 시위 열기는 뜨겁게 타고르고 있었다. 이 때도 김범수 등이 경성에서 가지고 온 등사기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음의 판결문을 보도록 하자.

“피고 박경주는 범윤두와 김용규, 김태열의 부추김을 받고 3월 17일, 18일 양일간 송정면 선암리 피고 박경주 집에서 등사판을 사용하여 독립선언서 1,500통과 독립가 500매를 인쇄하였다.”³⁶⁾

3월 10일 시위를 성공리에 이끈 김태열은 광주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른 송정면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였다. 그는 송정리에서 박경주를 만나 시위 열기를 확산시키자고 하였다. 박경주는 3월 16일 그가 구입한 백지 6천 장을 가지고 송정면 선암리 그의 집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였는데, 이때 사용된 등사기는 최정두가 가져온 것이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바, 김범수 등이 경성에서 가져온 것이 분명하다. 김기형 집에서 2·8 독립선언서를, 그리고 김언수·최한영 집에서 3·1 독립

36) 판결문(대정 8년 형제 558·910호).

선언서 등을 인쇄하는 데 사용되었던 등사기를 이용하여 박경주, 범윤두, 김용구 등은 독립선언서 1,500통, 경고문 1,500장, 독립가 500장을 인쇄하였다.

이렇게 송정면에서 전개된 대규모 시위에 김범수가 구입한 등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중심에는 김태열이 있었다. 송정면 시위의 보이지 않는 배후 인물 역시 김범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큰 잘못은 아닐 것이다.

김범수와 신문잡지종람소 회원들이 광주시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가 받은 형량에서도 알 수 있다. 3월 10일 광주 시위와 관련하여 구속된 사람은 103명이다. 이들의 재판 모습이 당시 신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① 광주소요공판 피고 80여 명

광주소요사건 공판은 1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정된 바 피고는 전부 80여 명으로 목목판사가 입회하여 수괴 김복현 김강 최한영 서정희 박실상 박애순 등을 순차로 심문하였는데 피고 등은 비교적 명료한 답변을 하고 혹 어떤 점에서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수괴 김복현은 나주로부터 온 자로 기타는 광주에서 소학교 졸업자요, 박애순은 애소학교의 여고사인데 공판은 16일까지 계속하였다.³⁷⁾

② 광주의 공판 검사의 구형

광주소요사건의 공판은 지나간 15일 오전 9시부터 광주지방법원에서 재청을 하였는데 피고 일동의 심문과 증거 설명이 있는 후 검사의 논고가 있었는데 이 사건은 자못 중대하여 한 걸음을 더 나가면 내란죄로 논고를 할 것이나 치안법으로 처분하겠다고 논고를 하고 피고 김복현 김강 서정희 송홍진 최병준은 각 징역 2년 최한영 한길상 김종원 박순

37) 매일신보, 1919년 4월 17일.

애 각 1년 6개월 이달근 이하 11명은 각 1년 진신애 이하 5명은 각 8개월 기타는 모두 6개월에 처분하기로 구형을 하고 위 6개월 구형을 한 자 가운데 양태원 이하 11명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하기를 청구하였는데 16일에 피고인의 변론이 있었다.³⁸⁾

그리고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있었다. 이날 보도된 판결 내용이다.

1919. 5. 4 매일신보 광주소요공판 주동자 80명 재기소
광주 소요 공판 수모자 89명 재기소
전남 광주에서 소요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된 80명에 대하여 사월 30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열고 아래와 같이 판결 하였다.
징역 1년 6개월 박애순
동 1년 이달근 최영균, 이동운, 송기호, 김정립, 정병연,
동 10개월 송광춘, 정두범, 김철주, 김현숙, 김정수, 진신애
동 8개월 홍순남 박영자 최경애 양태원 강대년 신의구
동 6개월 이병환 김관철 장남규 유계문 김영 주형옥 김석현 조홍중
이창호 원창권 주장암 황맹석 이남채 김창수 양만석 정몽석 홍금동
동 4개월 최경동 김금석 김화순 김순배 조공찬 박재하 최순우 국채진
이주상 유상규 이윤호 민성국 박창규 배광석 노천목 정삼모 차봉규 임영구 변순기 최연순, 김학선 임오기 김상원 김필호 임진실 고연홍 박성순 이태옥 김양순 양순희 윤혈녀 김덕순 조옥희 김안순 수향
무죄 황오봉 홍승애
재기소 김복현 김강 서정희 최병준 송홍준 최한영 한길상 김종삼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김복현 외 21인, 박애순 외 76인, 황상호 외 2인, 그리고 광주보통학교 학생 최영섭 1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판결문을 분석하면 김복현 외 21인은 주동자급, 박애순 외 26인은 시위 적

38) 매일신보, 1919. 4. 18.

극 가담자, 황상호는 조선독립광주신문 발행, 최영섭은 3월 10일 광주시 위와 별건이다. 따라서 각 판결문은 나름대로 일정하게 성격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동자급인 김범수와 김복현 등 22명은 광주 3·1운동을 모의하고, 독립선언서와 태극기 등을 인쇄한 후 시위 군중을 이끌었던 핵심 인물이다. 이들에게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이 적용되었다. 그런데 최한영은 4월 15일 첫 재판에서는 징역 1년 6월이 구형되었는데, 4월 30일 재판에서 김복현, 김강, 서정희, 최병준, 송홍준, 한길상, 김종삼 등과 함께 재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리하여 형량이 징역 3년으로 늘어났다. 처음에 징역 1년 6월이라 할 때는 최한영이 주동집단 및 그의 집에서 인쇄가 이루어진 사실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에서 1919년 9월 15일 결정된 형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징역 3년(14명) : 김복현, 김 강, 최병준, 한길상, 김종삼, 최한영,
김용규, 김범수, 박일구, 최정두, 김태열, 정광호,
범윤두, 박경주
징역 2년(3명) : 서정희, 송홍진, 김기형
징역 1년 6월(2명) : 손인식, 강석봉
무죄(3명) : 남궁혁, 이기호, 최기순

이 판결에 대하여 김복현, 김강, 최병준, 최한영, 한길상, 김종삼, 김범수, 박일구, 최정두, 김태열, 서정희, 송홍진, 박경주, 김기형, 손인식, 강석봉 등 16인은 대구 복심법원에 항소하였다. 그러나 박경주 징역 2년, 김기형 징역 1년 6월, 강석봉 징역 1년 등으로 각 6월이 감형되었을 뿐 나머지는 광주지방법원 형량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대구 복심법원에 항소하지 않은 사람은 당시 피신하여 궐석 재판으로 3년을 선고받은 김용규, 정광호, 범윤두와 무죄를 선고받은 남궁혁이다.

그런데 위 형량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1920년 3년 형을 받은 한길상, 최한영, 최병준, 김 강, 김태열, 최정두, 박일구, 김범수, 김종삼 등은 징역 1년 6월로, 1년 6월을 받은 손인식, 김기형은 9월로, 2년을 받은 송홍진은 1년으로 각각 감형되어 출



대구형무소 출옥 직후 달성공원에서 광주영웅들

소하였다.³⁹⁾ 이들이 감형을 받은 것은 문화정책을 폈던 일제의 회유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여태껏 광주 3·1운동을 다룬 적지 않은 자료들을 보면 이들이 감형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한편 당시 시위로 재판을 받은 103명을 판결문에 나와 있는 직업별로 구분하면 학생이 53명으로 가장 많다. 이를 학교별로 살펴보면 송일학교 24명, 수피아여학교 20명, 농업학교 6명, 보통학교 1명이다. 전문학교 이상 학생은 2명이 있다. 경성의학전문학교 재학생 김범수와 일본 메이지대 유학생 정광호가 그들이다. 정광호는 2·8 독립선언의 열기를 국내와 연결 지으려 하였으며, 김범수는 정광호와 더불어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광주 3·1운동이 성공적으로 일어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대구형무소에서 3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김범수는 1년 6개월이 감형되어 1920년 9월 말 출옥하였다. 그때 김범수와 함께 3년 형을 받은 다른 3·1운동 주동자들도 역시 1년 6월이 감형되어 같이 출옥하였다. 이 때 출옥된 독립지사들이 김범수를 비롯하여 김태열, 최한영, 김기형, 최

39) 대구복심법원 형집행원부(1919-829호, 0698-0699쪽). 여기에 보면 대정 9년 즉 1919년 9월 0일 감형처분이 내려졌다. 유감스럽게도 감형을 확인한 도장인주가 희미하여 날짜를 분명히 하지 못하였다.

정도, 서정희, 박일구, 최병준, 김복현 등이다. 이들은 대구 형무소에서 출옥 직후 대구공원에서 서로의 독립의지를 맹서하며 기념 사진을 찍었다.

사진 좌측으로부터 김태열, 최한영, 김범수, 김기형, 최정두, 서정희, 박일구, 최병준, 김복현 애국지사이다. 이들은 불과 갓 20을 넘은 젊은 청년들이었지만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온몸을 내던졌다. 이들은 투옥 중에도 서로를 격려하며 독립 의지를 불태웠다.

무려 36년 가까운 악랄한 일제강점기 시대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들이 셀 수 없이 많다. 안재홍처럼 감옥을 집안 드나들 듯이 한 사람도 부지기수다. 그러나 빛나는 독립운동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오랜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의 회유 협박을 이겨내지 못한 채 지조를 굽히고 친일의 길을 간 사람도 적지 않다.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광수는 친일 인명사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사람이다.⁴⁰⁾ 하지만 이광수는 3·1운동을 촉발한 2·8 독립선언서를 기초하여 투옥되는 등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여러 차례 투옥된 경력이 있다. 어쩌면 우리 독립운동사를 빛낼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사람이라도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1937년 이후 일제의 집요한 회유 협박을 이기지 못한 채 적극적인 친일의 길로 들어서 자손만대에 부끄러운 ‘친일파 000’라는 여섯 글자를 남겨놓았다. 젊어서 ‘조선의 천재’라는 말을 들었던 위대한 지식인의 변절은 나약한 역사의식의 소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변절의 역사는 광주에서도 적지 않게 찾아진다.

3월 10일 광주 3·1운동이 일어나자 ‘조선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을 발행하여 시위 사실을 크게 보도하여 광주의 시위 열기를 다른 지역으로 전파한 제중병원의 황OO의 기여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가 공훈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가 훗날 일제의 사주로 조직된 친일 기독교 단체에서 간부를 역임한 까닭이다.

40) 민족문화연구소, 2010, 『친일인명사전』에 이광수는 12쪽 분량 서술되어 있다.

당시 광주보통학교 학생으로 담양 출신 최OO은 17세의 어린 나이로 1919년 4월 7일 학교 운동장에 급우들을 모아 놓고 “내일 아침 조선 독립운동을 일으켜 만세를 외치겠으니 모두 학교에 가지 말고 자혜의원(지금 전남대병원) 앞으로 집결하라”고 선동하였다 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뚜렷한 독립운동의 공적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였다. 그 또한 총독부 산하기관인 전매국에 근무한 이력 때문이다.

필자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한 인물들을 추적하다 보면 뜻밖에 친일의 굴레로 인해 빛나는 독립운동의 역사가 빛바랜 경우가 많다. 물론 친일파에 대한 단죄는 엄히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민족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나 친일의 굴레를 씌울 때 정말 유의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영암 구림 3·1운동을 이끈 핵심 인물 최민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는 당시 면사무소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계획하고 시위에 사용되는 유인물을 면사무소 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등 구림 3·1운동을 성공리에 이끌고 3년간 옥고를 치른 영웅이었다. 저자는 최민섭의 공적은 여타 독립운동가들과 견주어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요즘으로 말하면 현직 공무원이 시위를 주도하고 면사무소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시위용품을 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 실로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3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출옥하였다.

그런데 논란은 그가 면사무소에 재채용되어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협조하였다는 것인데 후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차분히 검토할 계획이지만, 시위로 투옥된 전과자를 일제가 면사무소직원으로 재채용하였을까 하는 의문은 남아 있다. 오히려 축탁직 같은 경우로 잠깐 근무하였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 그의 행적에 보면 일제강점기 사회운동을 이끌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에 걸맞게 공적이 평가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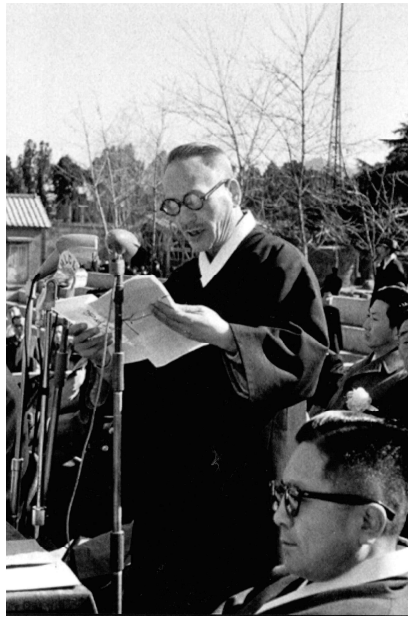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 이기흥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전향서를 썼다는 한 줄의 기록 때문에 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기흥은 본인은 생전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가 전향하였다는 단 한 줄의 내용이 유일한 전향 근거인데 당시 전후 사정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 그가 협박 또는 심신 미약으로 한 것인지, 일제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렇게 적어 놓았는지 알 수 없다.

최민섭과 이기흥은 그들의 친일 흔적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제 국가에서 이들의 빛나는 독립운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친일 여부를 후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정확히 판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후손들의 몫으로 남겨놓을 것인가. 후손이 똑똑하면 독립유공자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서훈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이다. 특히 유공자를 서훈할 때 그 시대의 눈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시각으로 살펴버리면 역사의 진실은 변조되어 버린다.

이광수를 포함하여 광주 제중원 ○○○ 또는 담양의 ○○○ 독립운동을 하다 친일의 굴레에 빠져버린 경우가 뜻밖에 많다. 따라서 특정 시기·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에 가담한 一群의 사람들 가운데 참여한 전원이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독립운동의 명예를 지킨 경우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광주 3·1운동의 핵심 지도부를 구성하여 정역 3년 형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투옥된 사진 속의 주인공들이 주목되는 것이다.

이들 광주 3·1운동의 영웅들은 친일의 굴레와는 전혀 무관하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지조를 지키며 출옥 후에도 독립을 위해 그들의 길을 끝까지 갔다. 이 가운데 김범수와 서정희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모두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 서정희는 을사오적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수립하다 유배 갔고, 그리고 다시 3·1운동을 주도하다 투옥되었으며, 출옥 후에는 소작 농민운동에 헌신하다 한국전쟁 때 납북되었다. 그의 사회주

의적 행동과 납북된 것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아직 서훈이 되지 않고 있다. 김범수 역시 뒤에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친일파와 공산주의자 낙인, 한국전쟁 때 부역이라는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 때문에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제외되고 있다.



삼일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는 최한영

제3장

• • •

대구 형무소에서 안재홍과 만남

최한영의 삶을 관통하는 것은 올곧은 지조를 간직하면서도 민족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그는 진정으로 민족의 삶을 고민한 지사였다. 1920년대에 풍미한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면서도 1923년에 있는 민립대학 설립 운동에 앞장서고, 고무신 대리점을 경영하면서 민족 자본 축적에 앞장섰다.

그는 좌·우 이념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 국가 기틀을 닦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최한영, 김범수, 강석봉 등 광주 3·1운동의 주역들의 이후 행적을 보면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되기보다 실용적 노선을 취하였음이 곳곳에 보인다. 이들 외에도 광주 3·1운동 주역들 대부분이 특정 이념에 매몰되어 있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이 이렇게 된 데는 당대의 대표적 민족주의자였던 민세 안재홍과 만남이 크게 작용하였다. 특히 안재홍과 교분이 두터웠던 최한영에게는 더욱 그랬다.

최한영 등 광주 3·1운동의 주역들 대부분은 복심 재판이 기각되어 징역 3년이 확정되어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919년 7월 무렵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중요한 인물을 만난다. 대구형무소에는 3·1운동을 포함하여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다수 있었다. 이 가운데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여운형과 함께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던 민세 안재홍도 있었다. 건국준비위원회 결성 당시 여운형이 위원장, 안재홍이 부위원장을 맡았었다.

안재홍은 1891년 12월 30일 경기도 진위군(현,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에서 9남매 가운데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1909년 나철 선생이 창도한 대중교에 관계하였을 때는 ‘응암(應庵)’이라는 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는 어려서 한학을 공부할 때부터 ‘조선의 사마천’이 되기를 다짐할 정도로 역사에 흥미와 관심이 많았다. 1907년 17세 때 부친의 권유로 신학문을 배우기로 결심한 그는, 평택의 사립학교인 진흥의숙(振興義塾)에서 근대적 학문을 접하였다. 한양의 황성기독교청년회 중학부에서 이상재, 남궁억 등 당대의 인물들을 만났다. 졸업반이던 1910년 8월 29일 국권이 피탈되자 적국 일본을 찾았다. 그곳에서 신학문을 배워 힘을 키우면서 동시에 일본을 알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는 일본의 우리에게 청산(靑山)학원으로 유명한 ‘아오아마’ 학원에서 1년 동안 어학 준비를 하며 대학 입학 준비하였다.

1911년 9월 조선인 유학생들이 많이 다닌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에 입학하였다. 이 무렵 그는 ‘민중의 세상’이란 뜻의 아호 ‘민세(民世)’를 아호로 지었다. 그의 나이 이제 갓 20이 될 때인데 그의 가슴에는 오로지 ‘민중’, ‘백성’만이 있었던 셈이다.

그는 유학 생활 중 신해혁명이 일어난 중국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해, 베이징, 선양을 답사하기도 하였는데, 신규식, 조소앙, 신채호 등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던 지사들이 세운 비밀결사인 ‘동제사(同濟社)’에 가입하게 된 배경이다. 그는 적극적으로 재일 유학생을 규합하여 독립의 의지를 조직화하였다. 10월 27일 신익희, 최한기 등과 더불어 도쿄에서 조선 유학생학우회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유학생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 조직이었다. 민세는 1914년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였다.

1915년 5월부터 서울에 소재한 중앙학교 학감(學監)으로 재직하면서 3월에 조직된 조선산직장려계(朝鮮産織獎勵契)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이 단체는 민족 자본을 축적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을 꾀하려는 목적에서 조직되었다. 일제는 이 단체를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엮어 1917년

3월 간부와 계원을 체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때 안재홍은 체포되었다가 곧 풀려났지만, 중앙학교에서 해직되었다. 이후 대중교로 개종하였다.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서울에서는 이해 6월 임시정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비밀결사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조직되었다. 안재홍은 7월경 대한민국청년외교단에 참여하여 총무로 활동하면서 강령·규약을 작성하였고, 8월 임시정부 중심의 독립운동을 촉구하는 6개 항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총무인 자신의 명의로 직접 임시정부에 발송하였다.

이어 외교단을 배달청년단(倍達靑年團)으로 개명하여 전국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려던 중, 11월 말 대구에서 발각되어 경상북도 경무국(警務局) 제3부에 체포되었다.¹⁾ 1920년 6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²⁾ 1922년 6월 가출옥하였다.

안재홍이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 나이 30세였다. 안재홍은 그보다 먼저 최한영 등 광주 3·1운동 주역들이 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³⁾ 안재홍은 이들이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엄청난 광주 3·1운동을 철저히 계획하여 완벽히 추진한 것에 대해 감탄하였다. 그의 눈에는 이들이 호남의 영웅으로 보였다. 그는 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

1) 조선총독부 민정회보 청년외교단원 검거에 관한 건(대정 8년 12월 3일 고경 제 34301호).

2) 매일신보, 1920년 6월 30일자. 대구지방법원에서 6월 29일 대한청년외교단 및 대한 애국부인회 결성 건으로 안재홍 외에 이병철, 조용주, 연병호, 이순이, 정낙륜, 임득산, 나창현, 김태규, 김마리아, 황애스터, 송세호 등이 함께 3년 형이 내려졌다. 김마리아는 고문으로 병이 악화되어 궤석 판결이 내려졌다. 곧 대구형무소에는 당시 조선을 대표하는 젊은 지식인들이 독립운동을 꾀하다 체포되어 수감되어 있었다.

3) 『광복 30년』 1, 1975, 전남일보. 이 책은 전남일보에 연재된 글을 엮은 것으로, 필자는 집필자인 김석학 선생을 생전에 직접 만나 글이 나오게 된 배경, 해당 부분에 대한 증언한 이들에 대해 상세히 들을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김석학 선생은 2022년 2월 필자의 ‘독립운동가 강석봉 평전’ 출간기념회 때 유명을 달리하였다.

었다. 대구 형무소에 수감된 최한영, 김범수 등 광주의 영웅들도 안재홍의 투쟁경력에 깊은 경외감을 지녔다. 이들이 대구 형무소에서 서로 격려하며 독립의지를 더욱 굳게 맹서하였다.⁴⁾

이때 있었던 사정을 1929년 10월 6일 조선일보 부사장으로 있던 안재홍이 광주를 방문하고 조선일보에 게재한 기행문을 통해 알 수 있다. 기행문을 그대로 전재해 본다.

탑산원(塔山園)의 전망(展望)

◇광주(光州)는 호남웅변(湖南雄藩)

안민세(安民世) 삼년왕작옥중인(三年枉作獄中人) 임별유언장(臨別猶言壯) 지신(志新) 고래남지다호걸(古來南地多豪傑) 차거(此去) 원성춘외춘(願成春外春)

기미신유(己未辛酉)의 겨울이다.

대구(大邱)의 그곳에서 수(數)만흔 광주(光州)의 청년(靑年)들을 만기(滿期)되어 작별(作別)할 때 덩달어 별시(別詩)를 짓는다고 구음(口吟)으로 불러준 줄시(拙詩)이다. 내—원래 시인(元來詩人)이 못되었고 더구나 한시(漢詩)에 소매(素昧)한지라 지상(紙上)으로 피로(披露)할 바 못된다. 다만 당시(當時) 식식하게 작별(作別)하든 적의(赤衣)의 동무들 이땅에 십수인(十數人)이 넘고 전후(前後)에 친우(親友)가 적지 안함으로 이땅이 나에게는 언제나 친숙미(親熟味)가 있다. 광주행(光州行)을 할 기회(機會)도 여러 번 잇섯스나 쓸데 엮는 분망(奔忙)에 못왔섯고 이번이 처음이다. 이십육일(二十六日)아침 세현택(洗軒宅)에서 밥을 먹고 객실(客室)에서 회담(會談)하는 지국장 제씨(支局長諸氏)와 오후(午後)까지 가티하고 녀점(點)이 지나서 비로소 시가(市街)구경 겸 고인(兼故人)도 방문(訪問)하

4) 1919년 11월 안재홍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라는 단체를 결성하는 등 빛나는 항일운동을 하다 체포되었을 때 이를 보도한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서 ‘필경 排日의 거괴(居魁)인 안재홍이 출동’했다라고 보도하였다.(매일신보, 1919년12월19일 자) 안재홍을 일본 경찰에서 ‘거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김범수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러다 다시 자동차(自動車)를 몰고 나섰다. 석초형(石樵兄)과 지국(支局)의
 김창선씨(金昌鮮氏)가 동반(同伴)하였다. 서양인촌(西洋人村)으로 별천지
 (別天地)를 일운 양림(楊林)을 지나 연합(聯合) 『빠사』로 우의관계(友誼
 關係)있는 『스피어』여학교(女學校)를 차즈니 교사(校舍)와 기숙사(寄宿
 舍)를 아울러 몇채나 되는 양관(洋館)은 허릴업는 광주(光州)의 이화학교
 (梨花學校)이다. 교장(校長) 『야곱·컴밍』(김아각(金雅各))씨(氏)가 친절
 (親切)히 향도(嚮導)해 춤으로 각과 교실(各 科教室)을 일주(一週)하고 나
 와서 역로(歷路)에 호은(湖銀)의 무송 현준호씨(撫松玄俊鎬氏)를 방문(訪
 問)하고 서북(西北)으로 잇는 탑산공원(塔山公園)에 올라 시가(市街)형세
 (形勢)를 대관(大觀)하였다. 동남(東南)에서 서북(西北)으로 비스듬히 노
 힌 길죽한 시가(市街)가 다가산(多佳山)에서 보는 전주시가(全州市街)와
 국세(局勢)가 비슷한데 산하(山河)의 형승(形勝)이 좀 소규모(小規模)로
 되었고 장원봉일대(壯元峰一帶)의 산악미(山岳美)가 그럴듯도 하지 안함
 아니나 남고산성(南固山城)에 북장대(北將臺)를 점(點)쳐놔고 비장미(悲
 壯味)를 띄운 만경대(萬景臺)의 준봉(峻峰)이 미창으로 만마동(萬馬洞)에
 서 몰려 닳는 다가천(多佳川)물과 발리봉(鉢里峰)의 기슭에 눌러지은 한
 벽루(寒碧樓)의 그것과 알맞게 조화(調和)된데 견주면 저절로 얼마의 손
 색(遜色)이 있다. 그러나 동(東)으로 무등산(無等山)의 웅건(雄健)한 체세
 (體勢)가 남주(南州)를 눌러 출색(出色)하는 바 잇고 서(西)으로 경호(鏡
 湖)의 즐번한 물은 광주천(光州川)의 조종(朝宗)하는 바로 시가(市街)맞
 게 괴이여 노힌 것이 무던히 조흔데 푸른 나무 그늘에 듬성듬성 솟은 높
 고 나즌 양관(洋館)과 조선(朝鮮)기와집이 녹수진경(綠樹秦京)의 넷 광경
 (光景)을 어름푹이 볼 만하다. 석자견훤(昔者甄萱)이 무진주(武珍州)에 일
 어나 후백제(後百濟)리 일컫고 의자왕(義慈王)을 위(爲)하야 원수를 갚는
 다고 『서남주군(西南州郡) 망풍향응(望風響應)』하는 기세(氣勢)를 어덧
 거늘 인(因)하야 완산(完山)으로 옮겼스니 그는 북방경략(北方經略)을 위
 (爲)한 교(交)통(通)의 형세(形勢)를 위(爲)함이 잇스려니와 또양지(兩地)
 의 경중(輕重)을 엿볼 것이다. 그러나 한양조오백년(漢陽朝五百年)에 왕
 왕(往往)히 소위 명상(所謂名相)들이 이땅에 낫섯고 임신역(壬辰役)의 때

에는 김천일(金千鎰) 김덕령(金德齡) 정충신 등(鄭忠信 等)의 충의영당(忠義英達)의 인물(人物)들을 산출(產出)하였으며 지방에는 농공(農工)에 걸쳐안근 전남부력(全南富力)을 토대(土臺)로서 광주(光州)의 발전(發展)이 자못 불만한 바 있스니 오천호(五千戶)가 넘어가는주민(住民)은 이만사천(二萬四千)을 산(算)하게 되고 조선인(朝鮮人)의 부력(富力)은 경성대구(京城大邱)를 제(除)한외(外)에 역내(域內)에서 제삼위(第三位)를 바라보아 십만인구(十萬人口)의 평양(平壤)과도 백중(伯仲)을 다투는 정세(情勢)이다. 엇딴튼 광주(光州)는 의연(依然)한 호남웅변(湖南雄藩)이다. 그런데 일본인(日本人)의 인구(人口)가 일천여호사천다인(一千餘戶四千多人)에 달(達)하며 그네들이 각 방면(各方面)에 진출(進出)하는 사정(事情)은 새삼스러히 말할 것이 없다. 이 사이는 종연방직(鍾淵紡績)의 분공장(分工場)을 이곳에 두고 호남(湖南)의 면화(棉花)를 농단(壟斷)할 것도 멀지 안호리티한다공원(公園)의 한엽호로 칠층석탑(七層石塔)이잇서 꼭대기가 문허것는데 규모(規模)가 증심사(證心寺)의 그것과 꼭갓고 연대(年代)도 동일(同一)할 것인데 그 내력(來歷)은 상고할 길업다. 이런데서 안보는 일업는 일본인(日本人)의 충혼비(忠魂碑)와 모여자(某女子)의 『기모노』 입은 동상(銅像)이 잇고 단풍(丹楓)든 『사구라』 나무가 몇백주(百株)인 것가티 보인다. 들으니 춘사월(春四月) 『사구라』철이면 관앵(觀櫻)하는 광수목이(廣袖木履)의 손님들이 강산(江山)도 조붓하다고 이곳에서 나뉜다고 한다. 시가(市街)에 내려와 다시 순회(巡廻)하니 날이 이미 저물어 신간회관(新幹會館) 도문(門)이 잠겼고 청년연맹(青年聯盟)과 근우지회(槿友支會)와 기타 각 단체사무소(其他各團體事務所)도대체(大體)로모다퇴출(退出)한 때이라 이번에는 방문(訪問)을 모다 그만 두기로 하고 동고(同苦)하든 최한영씨(崔漢泳氏)를 잠간차저 본 후(後) 광양여관(光陽旅館)에서 체류(滯留)하는 지 국제씨(支局諸氏)를 방(訪)문(問)하고 약속(約束)한대로 무송 현형(撫松玄兄)의 초대(招待)에 응(應)해야 다시 모요정(某料亭)에서 오순(午■)을 함끼하게 되었다. 호은(湖銀)의 김신석씨(金信錫氏)의 한라산등보(漢拏山登跡)한 이야기도 듯고 세현(洗軒) 석초(石樵) 벽산(碧山) 및김창선제씨(金昌鮮諸氏)와 함끼 무송(撫松)이 자랑하시는

호남(湖南)의 명창(名唱)을 사계사(斯界斯)이 있다는 아교(阿嬌)들에게 들었다. 여기에서는 동경행진곡(東京行進曲)이니 국경경비가(國境警備歌)이니 하는 알구즌노래란일절(一切)로 업고 조선(朝鮮)의향토정조(鄕土情操)를 담백담 은 신구(新舊)의 가곡(歌曲)을 듣는 것이 일락사(一樂事)이다. 열점(點)이 지나매 나는 제씨(諸氏)와 작별(作別)하고 석초형(石樵兄)의택(宅)에서 온서(穩叙)한 후(後) 하로밤 유숙(留宿)하였다.

이 글은 당시 광주의 사정을 엿보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 글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있다.

“三年枉作獄中人 臨別猶言壯志新 古來南地多豪傑 此去 願成春外春
己未辛酉 겨울.

대구 그곳에서 수많은 광주의 청년들을 만기가 되어 작별할 때 덩달아 별시(別詩)를 짓는다고 구음(口吟)으로 불러준 줄시(拙詩)이다 내 원래 시인이 못 되었고 더구나 한시(漢詩)에 소매(素昧)한지라. 지상(紙上)으로 피로(披露)할 바 못 된다. 다만 당시 씩씩하게 작별하든 적의(赤衣)의 동무들이 이 땅에 십수인이 넘고 전후에 친우가 적지 않음으로 이 땅이 나에게는 언제나 친숙미가 있다.”

안재홍이 대구형무소에서 3년간(기미, 경신, 신유) 복역하고 있는 동안 먼저 출소한 광주지역 독립운동가들에게 한시를 지어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안재홍이 예부터 전남지역에는 호걸이 많았다고 하여 이들 광주 3·1운동 영웅들을 호걸에 비유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겠다. 안재홍은 씩씩하게 형무소에서 이별하였던 광주 청년들이 십 수인이 넘고, 이 가운데 친우가 된 이가 적지 않아 광주는 언제나 친숙미가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최한영 등 대구형무소에 투옥된 광주 청년들과 안재홍이 각별하게 지냈음을 알 수 있다.

1929년 10월 6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 최한영을 만나고 있음을 기행문

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그가 최한영에게 쓴 ‘동고(同苦)’라는 표현에서 다른 광주의 영웅보다 최한영에게 각별한 감정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한영과 교분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알게 한다.

최한영이 출옥 후 청년, 사회운동, 그리고 ‘민립대설립대학’운동, 민족 자본 축적 등 때로는 좌파와, 때로는 우파의 길을 걷는 등 특정 이념에 구속받지 않았던 것은 평소 민족실력 양성을 강조하였던 안재홍과 옥중 만남, 그리고 출옥 이후에도 이어진 교분이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좌·우합작단체인 신간회 창립에 안재홍은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다음 사진은 신간회 나주지회 행사 때 안재홍이 참석하였음을 알려준다. 이처럼 안재홍은 여러 차례 광주를 방문하였다. 최한영 외에도 김범수와도 각별하였다. 안재홍은 경성의전 재학생으로 광주 시위를 주도하고 이후 무료 인술을 베풀고 있던 김범수가 기특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한편 안재홍은 1917년 조선산직장려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앞서 언급한 배달청년단을 조직한 죄로 징역 3년, 조선일보 주필로 있으면서 공산당 사건을 다룬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금고 4월, 이어 일본의 중국 침공을 비난하는 사설로 금고 8월, 1929년 신간회 민중대회 사건으로 기소 유예, 안재홍을 통제하기 위하여 엮은 만주 동포 구호의연금 유용혐의로 금고 8월, 1936년 난징군관학교 학생사건으로 지명 수배 중인 정세호 등을 숨겨준 죄로 징역 2년, 1942년 12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5개월간 유치되어 있다가 불구속 기소로 이듬해 3월 석방 등 그의 전 생애는 일제와 끈질긴 투쟁의 연속이었다.⁵⁾



신간회 나주지회 참석(1927)



연설하는 안재홍(1945)

그런데 안재홍은 1931년 만주사변 후 일제의 파시즘 정치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정치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정약용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며 ‘조선학’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였다. 조선학은 안재홍과 정인보가 주창한 것으로 민족주의 역사관을 바탕으로 둔 것이다. 그는 “민족으로 세계에, 세계로 민족에, 交互되고 조합되는 민족적 국제주의-국제적 민족주의를 형성”하자는

이른바 민세주의를 주창하였다.⁶⁾

해방 후에는 여운형과 좌·우 합작운동 단체인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나 지나치게 좌편향 중심으로 단체가 운영되는 것에 반발하여 그는 민족주의 정당인 국민당을 결성하였다. 여운형·김규식 등이 주도한 좌우 합작운동에 우파의 대표로 참여하였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모두 극복한 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초계급적 통합 민족국’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그의 정치 이념은 오로지 민족에만 있었다.

5) 안재홍, 『민세안재홍선집』 4,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 옮김, 지식산업사, 1992 참조.

6) 안재홍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다음의 글 참고. 류시현, 「해방 후 안재홍의 일제강점기에 관한 기억과 감성」, 『민족문화연구』 54, 2011.

제4장

• • •

신(新) 사상 유입과 최한영

1. 청년운동의 메카 광주

1) 행정·상업의 중심지 광주

1928년 4월 일제 식민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뼈라를 뿌려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이경채의 영웅적인 행동은, 학생들의 동맹휴학(맹휴)을 촉발시켰고, 이듬해 세계독립운동사를 빛나게 한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4학년에서 6학년으로 2학년 월반하여 1924년 광주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송정리에서 소문난 수재였다. 그런 그가 1926년 5월 독서회라는 사회과학서적을 탐독하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모순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어떻게 사회주의 이념 서적을 읽는 비밀모임을 만들었을까?

이는 3·1운동 후 일제 식민 정책의 모순을 깨달은 광주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전개한 청년운동과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에 따른 사회변혁 운동이 활발한 것과 관계가 깊다. 1896년 전남의 도청 소재지가 되어 행정 중심지로 기능이 확대된 광주는, 1910년 국권피탈 후 식민통치와 관련된 기구들이 광주에 집중되면서 더욱 발전하였다. 통일신라 시대 광주는 무진주에 치소(治所)가 설치되어 전남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고려 건국 후 그 위상을 나주에 빼앗겼던 광주가 새롭게 전남의 중심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광주에 행정기구가 집중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빠른 속도로 상업 도시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¹⁾

이와 같이 산업 자본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1917년 광주전등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동력 문제가 해결된 것도 대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었다. 1918년 조선인 자본가가 지배하고 있던 광주농공은행이 식산은행 광주지점으로 개편되면서 일본인이 중역진을 독점하는 등 일본의 금융권 장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인 대자본이 제사·방직업 부분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1910년대 후반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던 조선인과 일본인 자본의 균형 관계는 서서히 일본인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에 대한 조선인들의 불만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²⁾

1914년 완공된 호남선의 거점 역이 들어서면서 송정역은 목포항을 통해 유입되거나 수출되는 물산의 집산지가 되어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였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인 지주 자본이 상공업 자본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어 갔다. 이경채 부친이 농기구 제조업을 하게 된 것도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은 바였다. 심지어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하였던 최한영조차도 1920년대 중반 민족 자본 축적이 결국 독립의 원동력임을 깨닫고 고무신 대리점 운영에 뛰어든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한편 1910년대 말 광주군에는 조선인 교육기관으로 공립중등학교(농업학교), 공립보통학교(광주·송정보통학교), 기독교계 사립학교(송일학교·수피아여학교)가 있었다. 송정보통학교는 1919년 12월에 개교하였기 때문에 1910년대 말의 통계로 삼기에는 망설여진다. 3·1운동 후인 1920년대 중반에는 중등학교 3개소(광주면), 공립보통학교(각 면 소재), 사립학교 3개소(광주면)로 증가하였으나 조선인 1430호당 1교의 비율로 학생을 수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일본인 교육기관은 중등학교 2개소, 소학교 4개소로 일본인 241호당 1교의 비율에 못 미치고 있었

1) 박해현, 『독립운동가 의사 김범수 연구』.

2) 이애숙, 1995, 「1920년대 전남 광주지방의 청년운동」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다. 이것만 보더라도 교육기회 면에서 우리 민족교육이 심각한 차별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 중등 교육기관은 광주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전남지역에 설립된 대부분의 ‘고등교육기관’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었다. 따라서 도내 각지에서 몰려든 전남의 인재들이 광주의 중심지인 광주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광주면은 장차 전남의 조선인 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 지식층의 배출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초 광주 청년 가운데, 근대적 교육과 문화의 혜택을 받은 소수의 상류층 청년은 사회 변동과 식민지적 근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조선인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반면, 농민층 해체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청년층 일부는 행상 혹은 송정리역 부근의 화물 운반 인부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일부는 광주면과 송정리의 중소 공장, 상점 등지에 분산 고용되었다. 청년 대다수는 농촌에 잔류하였다.³⁾

한편 청년층의 상당수는 학교가 집중되어 있는 광주면에 모여 있었다. 전남의 청년운동은 식민지적 근대화가 진행되고, 교육을 받은 청년의 집중도가 높은 광주면과 송정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확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1910년대의 청년운동은 총독부의 승인을 받아 결성된 일종의 어용 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당시는 결사의 자유가 없어 3명 이상의 단체결성은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학교 동창회 모임은 예외적으로 가능하였다. 따라서 청년들의 모임은 일제의 억압을 피해 보통학교 동창회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광주 최초의 근대학교인 광주보통학교 졸업생들이 1910년대 초부터 동창회를 조직하고, 동창회를 중심으로 강습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여러 체육 활동을 벌인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광주 3·1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한 ‘신문잡지종람소’는 1917년 무렵 광주보통학교 졸업생 동창회 지육부가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 단체는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결사체였다. 이 단체의 결성에 강석봉의 역할이 컸다.⁴⁾

3) 이애숙, 「1920년대 전남 광주지방의 청년운동」.

이 단체에서는 청년들이 모여 신문·잡지를 윤독하며 우리 역사와 세계 정세를 익히고 토론하며 청년운동에 건문을 넓히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의 압박으로 1년 만에 신문잡지종람소 간판을 내리고, 장소를 옮겨 길로는 삼합양조장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밤마다 모여 신문 윤독과 잡지를 읽으며 민족의식 강화와 더불어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있었다. 당시 신문잡지종람소 회원이었던 김용규·최한영·한길상·강석봉·김태열·정상호 등은 광주보통학교 출신들로 광주 3·1운동의 주역이 되었고, 1920년대 들어 전개되는 청년·사회 운동의 핵심 인물로 성장하였다.

광주보통학교 졸업생 동창회는 청년들의 결사가 없었던 시기에 지역 청년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대 광주는 전남의 조선인 사회를 이끌어 나갈 배출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청년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3·1운동이었다. 3·1운동의 성과로 일제의 무단통치에 균열이 생겨 집회·결사의 자유가 허용되는 등 합법적 공간이 확보되자 정의감, 순수성, 행동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들은 그들의 힘을 발현될 기회를 만들었다. 3·1운동 후 각종 사회단체가 급속하게 결성되고, 특히 청년단체는 하루에도 10여 개씩 새롭게 조직되었던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1920년 말 전국 각지의 청년단체 수는 청년회 251개, 종교 청년회 98개에 달하였다. 1922년에는 그 수가 각각 488개, 271개로 늘어났다. 일반 청년회들은 대체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이른바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1920년 9월까지 전남 각지에서 23개의 청년회가 조직되었다.

2) 계몽운동을 지향한 초기 광주청년회

3·1운동 후 광주에서도 청년단체가 속속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 1920년 6월 12일 광주면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광주청년회’가 대표적이다. 이 지역에서 조직된 최초의 자생적인 청년 단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단체는 광주면 유지 청년들이 주도하

4) 박해현, 『강석봉 평전』.

여 결성하였다.

광주청년회의 초기 활동을 보면 광주보통학교 동창회에서 하던 사업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로 미루어 보통학교 동창회가 청년운동단체로 발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청년회는 회장제를 채택하고 체육·사교·체육·교풍·경리·편집부 등 6개 부서를 두었다. 말하자면 광주청년회는 청년들의 지·덕·체를 함양하고 친선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의 잘못된 풍속을 개량하는 데 역점을 두어 활동하였다. 아직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청년회는 사회변혁보다는 계몽적인 활동에 치중하고 있었다. 광주청년회를 비롯한 1920년대 초 청년단체의 활동에서 이를 알 수 있다. 1920년부터 1923년까지 전남지방에서 조직된 45개 단체 가운데 17개 단체가 야학 운영, 강연회 등 주로 교육 활동을 하였다. 3·1운동을 통해, “이는 것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 청년, 학생들이 청년회를 중심으로 부족한 학교 시설을 확충하려 하였다. 1922년 총독부의 교육령 개정⁵⁾에 따라 취학연령이 낮아지고 자력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상황도 이러한 활동이 추진된 배경이라 하겠다.

이는 여자 야학을 개설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광주청년회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청년회는 1920년 9월 ‘구식 가정부인’에게 신지식을 보급할 목적으로 여자 야학을 개설하였다. 여자 야학이 문을 열자 4백여 여성이 몰려들었다. 가히 폭발적인 여성의 참여는 광주청년회를 크게 고무시켰고 지역 사회에 ‘여자 야학’이 세워지는 기폭제가 되었다. 광주청년회는 일반 학교 과정으로 청년학원도 운영하였다.

1922년 4월에 문을 연 청년학원은 1~2년간 보통학과 수준의 학과를 가르쳤다. 모집인원은 약 200명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사업을 위해서는 건물 등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이어서 재력이 있는 간부나 지방 부호의 일시적인 ‘의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년회는 구조적으로 이들 자본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지녔다.

5) 이애숙, 앞의 글.

1920년대 초의 청년회 활동이 교육·금연·금주, 민립 대학 설립 운동 등 민족 개량주의적, 계몽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광주청년회의 성격을 1920년 6월 12일 창립 당시 구성된 임원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리부장을 맡은 최선진은, 한 해 6천여 석을 추수하는 대지주이자 광주에서 손꼽히는 대미곡상이며, 호남은행 취체역·호남산업 전무 취체역·최선진 자동차부를 경영하는 문자 그대로 대자본가였다. 회장 최종섭·부회장 정인준·교풍부장 전용기는 1920년 겨울 최선진과 광주상업조합을 발기하였고, 정인준·최종섭은 상조회지회의 회장, 부회장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사교부장 최영옥은 서울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의사였으며, 지육부장 양원모는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숭일학교 교사를 거쳐 동아일보사 간부로 활동하였다. 편집부장 설병호와 회계 최연석은 동아일보 광주지국의 지국장·통신부주임이었다. 총무를 맡은 최준기는 훗날 광주금융조합 이사를 역임하였다. 참고로 광주금융조합은 1919년에 설립되었는데 조선인은 최준기가 유일하였다.

광주청년회 창립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된 청년인사들은 일찍부터 근대 교육을 받은 경제적으로 유복한 집안의 자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의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년, 혹은 십여 년 동안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교육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였다. 이들 임원을 맡은 청년들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당시 청년들이 관직보다는 주로 상공업 분야로 진출하였음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이들 집안의 경제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이들이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식민지 민족이라는 한계로 관직 진출을 거부하였을 것이다. 그들에게 관직 진출은 일제 식민통치에 영합하는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었다.

한편 광주청년회는 1921년 9월 1일 임시총회에서 임원진을 개편하였다. 이때도 총회에서 간부로 선출된 인사들은 여전히 실업가, 상업 및 금융업종사자, 지주, 전문 직업인이었다. 예컨대 1921년 9월 1일 있었던

임시총회와 1922년 7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장으로 연거푸 선출된 이기호는 대지주였다. 다른 임원이었던 백남순은 광주금융조합 및 호남산업주식회사의 중역을 맡는 등 상업에 종사하였다.

광주청년회를 이끈 인사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문의 자제들이 많았다. 이러한 초기 청년단체의 특징은 광주청년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1921년 8월 창립된 광주청년회 다음으로 큰 조직인 송정청년회를 이끈 인사들 역시 지역 사회의 실업가들이었다. 초대 회장 변상구, 이사 배현식은 호남물산주식회사 중역이었다.⁶⁾

광주청년회뿐 아니라 다른 청년단체도 그들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지역 유지의 출연으로 이루어졌다. 광주 지역 유지들 스스로 광주청년회 찬성부를 조직하여 청년회를 정신적 재정적으로 후원하였다. 광주청년회는 회관 건축비, 운영비 등을 지방 유지의 기부금에 의존하였다.

1921년 5월 5일 동아일보 보도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광주청년회에서는 4월 30일 임시총회를 열어 학교의 수용능력 부족으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아동들을 강습하기 위하여 발족된 학부형회의 요구에 응하여 흥학관과 유지들의 의연금으로 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청년회가 초청한 블라디보스토크 조선 학생음악단 경비도 의연금으로 충당하였다.”

광주청년회가 학생들에게 공부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블라디보스토크의 재외 교포 학생음악단초청 행사까지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를 대부분 지역 유지 성금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실제 광주청년회의 모임 공간인 흥학관은 1921년 광주 실업가인 최명구의 기부로 건립되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청년들이 활동하는 데에는 광주의 실업인들이 직,

6) 이애숙, 앞의 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회 활동에 많은 돈을 기부한 유지(有志)나 그 자제(子弟)가 청년회 간부가 되거나 청년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내부에서 치열한 계급적 갈등을 노출하였다.

3) 활발한 사회운동과 광주청년회의 성격 변화

광주청년회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의 학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등 청년회가 필요한 경비를 유지들로부터 모금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광주의 가장 대표적인 청년단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광주청년회 주도층이 막대한 경제적 기반과 높은 교육까지 받은 부르주아 계급이었다는 점은, 이들이 일본 식민지 지배체제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단계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을 보자.

표 1. 광주청년회 임원

선출 시기	간부진 명단
1921.9.1. (임시총회)	1. 집행위원장: 이기호 2. 집행위원: 서무부(김유성) 재무부(김복수) 지육부(김인주) 사교부(전용기) 체육부(조용선) 편집부(결원) 교통부(문태곤) 산업부(결원) 3. 의사원: 최흥종, 김기석, 정인준, 설병호, 최준기, 류상원, 강태규, 한용수, 백남순, 문천귀, 정학권, 차순정, 최종륜, 최영운, 문상기
1922.7.15. (정기총회)	1. 집행위원장: 이기호 2. 집행위원: 서무부(전도) 재무부(이기호·전용기) 지육부(최장전) 사교부(문천귀) 체육부(최준영) 편집부(최연석) 교통부(설병호) 산업부(장봉익) 3. 의사원: 최준기, 유상기, 김형운, 김유성, 김인주, 장인영, 김용환, 최영운, 김종삼, 문태곤

1921년 9월에 열린 임시총회와 1922년 열린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광주청년회의 간부 명단이다. 이들 명단을 통해 광주청년회 성격 일단을 엿볼 수 있다. 특이하게도 1920년 창립 당시, 그리고 1921년 임시총회,

1922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 가운데 임원이나 집행위원 이상 간부 중에 3·1운동 관련자가 한 명도 없다는 점에 눈에 들어온다. 3·1운동 관련자는 임시총회 때 의사원에 선임된 최홍종과 1922년 정기총회에서 의사원으로 선출된 김종삼 둘 뿐이다. 광주에서 가장 먼저 조직되어 청년운동을 주도한다는 자부심을 지닌 광주청년회로서는 간부들 가운데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투옥된 인물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조직이 지닌 약점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청년회는 광주 3·1운동의 주동자로 경성의전 재학생이었던 김범수를 비롯하여 김복현, 최한영을 회원으로 영입하였다. 이렇게 3·1운동 주도 세력이 광주청년회에 합류하면서 광주청년회의 성격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위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회장-부회장-부장’으로 이어지는 단일 지도체제가 ‘집행위원장-집행위원-의사원’으로 이어지는 집단지도 체제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아직 집행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의사원의 구성에 이전의 유지 중심에서 탈피하여 여러 계층이 합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예를 들어 김유성·문태곤(대동상회 공동운영), 최영운(전남학무과교원), 김복수, 최홍종(목사), 김용환, 김종삼(광주 자혜의원 간호인), 전도(노동·농민운동) 등이 그들인데, 계층과 직군이 다양해졌다. 특히 강석봉과 함께 노동자·농민운동을 함께 한 담양 출신 전도가 참여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⁷⁾ 지역 유지 자체 중심의 청년회 운영이 근본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1920년대 초반 결성된 광주청년회를 비롯한 대부분 청년단체는 지주, 상공인, 지역 최고의 지식인,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주도하였다. 다만 지주라 하더라도 소작료 수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옛 봉건적 지주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지주 겸 상공인이었다. 이들은 식민지 민족으로서의 고통과 불만 때문에 민족의 독립을 지지하였

7) 박해현, 『강석봉 평전』.

고, 청년운동에 뛰어들었다.

조선노동공제회 광주지회, 조선소작인상조회 전남지회, 송정노동수양회 등의 단체에서 활동한 상당수 지도급 회원들도 노동자와 자본가가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 이들 자본가 계층이 지니는 구조적인 한계는 노동자·농민층이 주도층을 형성한 노동공제회 등과 갈등을 예비하고 있었다.

한편 당시 전남지역이 처한 상황은 심각하였다. 약간 시기가 뒤떨어지기는 하였으나 1935년 통계에 의하면 전남지역 총 경지 면적은 전국 총 경지 면적의 9%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국 제2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농업 호구가 전국 1위 지역으로 농가 1호당 평균 경지 면적은 전국의 1호당 평균 경지 면적보다 대략 0.5정보나 적다. 전남지방 농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토지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들은 그나마 생존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주로부터 가해지는 온갖 불이익, 고율의 소작료와 지세, 공과금 부담 등을 감수해야 했다.

3·1운동 이후 고양된 사회적 분위기는 지주로부터 가해지는 불이익에 맞선 농민들의 투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1923년 암태도에서 전개된 소작쟁의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1920년대 초기의 농민운동은 소작인 조합·농민조합·소작상조회·농우회·농민공제회·작인동맹 등 농민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단체는 대부분 지주와 소작인이 농사 개량·소작관계 개선·생활개선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서 상호 부조 및 계몽적인 성격이 짙었다. 그러다 일제와 지주의 수탈이 심해지고 소작쟁의가 늘어나면서 차츰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바뀌어 갔다.

농민조직은 1922년 23개에서 1923년에는 107개로, 1925년에는 126개로 늘어났다. 소작인 조합이 중심이 되어 “소작인회에 비상사태가 일어날 경우 인접 면에서 응원할 것” 등을 결정하여 연대 투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지주와 일제를 규탄하는 토론회·집회 등을 열어 농민의 계급의식을 높여 갔다. 1924년 4월에는 사회주의자와 노동단체의 지원을 받아

조선노동총동맹을 결성하여 전국 범위의 중앙조직을 갖게 되었다. ‘소작료 인하, 소작권 박탈 반대, 동척 이민 반대’ 등의 소작쟁의 구호에서 나타나듯이, 농민구성원 대부분은 소작농이었다. 이처럼 농민운동이 조직화하는 과정을 광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청년회와 더불어 광주지방 사회운동 중심에 섰던 단체가 ‘조선노동공제회 광주지회’였다. 광주청년회보다 약간 늦은 1920년 7월 30일 조직된 이 단체는 초기에는 주로 노동야학, 노동합숙소 설치, 환난구제사업 등 주로 노동자에 대한 활동에 주력하였다.

1922년 10월 16일 중앙에서 조선노동공제회가 해체되자 광주지회도 총회(1922. 11. 18)를 열어 ‘광주노동공제회’로 명칭을 바꾸어 독립적 성격의 단체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활동 범위를 농민운동에까지 점차 확대하여 노동연합체적인 성격을 띠어갔다. 1923년 6월 4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각 회의 경과 상황 보고, 신규 소작인 쟁의에 대한 처리 방법” 등을 결의하고 있는 데서 확인된다.

광주노동공제회의 농민운동에 대한 활동은 소작인회 조직으로 구체화되었다. 1923년 봄까지 광주의 15개 면 전체에 소작인회가 조직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1923년 4월 29일 중앙집행기관인 소작인연합회가 조직되었는데, 주요 임원은 광주노동공제회의 간부로 충원되었다. 조선노동공제회 광주지회는 광주노동공제회로 개조된 후 소작인 운동을 투쟁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청년회 지도부도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조직체계에서 먼저 보인다. 1922년 개편된 8개 부서 가운데 기존의 사교부, 산업부, 교풍부, 편집부 등이 없어지고 사회부가 신설되었다. 사교부, 산업부, 교풍부는 부르주아적·개량주의적 성격이 드러나 있는 기구였다. 이들 부서를 폐지하고 사회부를 신설한 것은 노동자·농민 계급 등 다른 부문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변혁에 관심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노동자, 농민의 희생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계급적 한계 때문에 광주청년회

가 1923년 이후 격화되는 노동·농민 운동에 처음부터 동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광주노동공제회가 소작 운동을 회 차원에서 당면 사업으로 설정하여 조직적으로 꾸려나갔다면, 광주청년회는 회원이 개별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수준이었다. 광주청년회는 물산장려운동이나 민립대학 설립 운동 등을 광주에 정착시키는 데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면소작인회는 광주노동공제회와 정치적 행보를 같이하며 광주청년회와 대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1922년 말 광주노동공제회가 출범한 이후 1923년부터 격렬하게 전개되는 노동·농민 운동은 광주청년회 내부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였다. 1923년 이기호가 친일적인 성격을 띤 광주면협의원으로 선출되자, 직전에 집행위원장을 역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부직에서 배제하였다. 이는 광주청년회의 성격이 차츰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친일적 성향을 보인 인사는 단체의 간부에서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주청년회가 일제와의 타협을 거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광주청년회의 이러한 변화는 내외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강석봉이 귀국하여 노동자, 농민을 위한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강석봉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부르주아적 성격의 광주청년회가 사회주의적 성격으로 변화되는 신호였다.⁸⁾

2. 신(新) 사상의 유입과 독립운동의 새로운 양상

1) 신(新) 사상 유입과 신우회

최한영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등 특정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강경집단으로부터 공격받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양 진영과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였

8) 박해현, 『독립운동가 의사 김범수 연구』.

다. 1920년대 유입된 사회주의 사상에 관심을 가져 그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였으나 민족자본가로서의 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1923년 9월 보수적 성격의 인물로 구성된 광주청년회의 지도부에 사회주의 사상을 지닌 강석봉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광주, 전남의 최대 규모의 청년회인 광주청년회가 사실상 사회주의 사상을 지닌 청년들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표방하는 학생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등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광주지역에 있는 신우회라는 사회주의 사상 연구단체와 그 단체를 결성한 강석봉의 역할이 있었다.⁹⁾

일본에서 귀국한 강석봉은 동경대학의 ‘신인회’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사회주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확산시키려 하였다. 신우회의 창립 시기와 초기의 활동 내용을 알려주는 신문 내용이다.

“광주 사상 단체 신우회에서는 창립 이래로 회원 자체의 계급적 단결과 역사적으로 필요성을 가진 신사회를 건설하는데 요소가 되는 유물사관을 중심으로 하고 사상연구를 목적으로 우금(于今) 3개 성상을 매월 4회씩 회합하여 수십 명 회원이 다 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소견과 연구한 바를 발표하는 동시에 현대 조선청년으로써 가질 바 사상과 취할 바 행동을 과학적으로 토론하여 그 내용 충실에 주력하여 오던 바, 최근에는 종래에 불성문법(不成文法)의 해당 회의체를 변경하여 회칙을 제정하는 동시에 노농, 교양, 서무 3부서로 나누어 사상, 청년, 노동 등 실제 운동에 착수하여 대중 본위의 신사회를 목표로 계급전선에 전위(前衛)됨을 바란다는 데 회의체 개혁의 첫소리로 다음과 같이 사상문제 대강연회를 개최하리라.

- 일시 : (1925년) 12월 5일 오후 7시
- 장소 : 흥학관 강당
- 연제 및 연사 :
 - 철학의 파산과 생활의 긍정(김갑수)

9) 박해현, 『강석봉 평전』.

- 자본주의의 사적 발달과 그 필연 붕괴(지용수)
- 경제적 파멸과 오인(吾人)의 이상(김광진)
- 노예연구(강석봉)
- 제목 미정(배고파, 이일선, 기노춘, 최한영)”¹⁰⁾

이 기사를 통해 신우회의 창립 시기, 목적, 활동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우선 신우회가 1925년 당시 창립된 지 3년이 되었다고 한 데서 1923년에 창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¹⁾

신우회가 창립 당시에는 ‘불성문법(不成文法)’이라 하는 데서 회칙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알 수 있다. 일본에서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조선에서도 총독부는 사회주의 사상을 제국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탄압하고 있었다. 사회주의 사상이 광주에서는 유입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신우회 창립 초기에는 조직을 철저히 비밀리에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우회는 매월 4회씩 수십여 명이 참여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신우회가 비록 회칙 등 조직을 문서로 만들지 않았을 뿐, 실제로 상당히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25년 말에 이르러 이 조직 활동을 공개적으로 전환하며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우회는 강석봉이 지용수와 함께 1923년 조직한 광주 전남 최초의 유물사관 연구단체였다. 창립 당시에는 사회운동에 희생적으로 투쟁하는 순결분자가 18명이 결속하여 조직하였다고 한다. 강석봉을 비롯하여 창립 멤버 18명이 처음에는 사회주의 사상 연구에 치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외부 활동을 철저히 자제하고 이론 학습을 통한 내부 결속을 강화하여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신우회는 조직이 정비되자 중간사제로 운영하였다. 이때가 1925년 무

10) 동아일보, 1925. 12. 1.

11) 박해현, 『강석봉평전』.

렵인데, 서무, 노농, 교양 등 부서를 두어 적극적인 투쟁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석봉은 핵심세력을 공산당에 가입시키는 등 운동 세력을 정예화하고 있었다.

이 무렵 강석봉이 ‘사상대강연’ 세미나에서 발표한 주제 ‘노예연구’를 통해 그가 자본주의 모순을 냉철히 분석하고, 이 바탕 위에 계급투쟁을 분명히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1925년 조선공산당이 창당되자 일제는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을 억압하고자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광주에서는 오히려 사회주의 실천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12월 5일 세미나에서 강석봉이 주제 발표를 하였고, 이듬해 1926년 10월 2일 강해석, 지용수가 신우회에서 가장 노력하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강석봉 형제가 지용수 등과 함께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석봉의 아우 강해석이 신우회의 실무적 일을 맡은 것도 강석봉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무렵 신우회에 이경채가 가입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어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 단체와 관련은 있었다. 1928년 빼라 살포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광주경찰이 이들을 의심하여 강해석, 지용수 등을 체포한 사실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1926년 5월 이경채가 광주고보 친구들 외에도 송정보통학겨 죽마고우들과 사회주의 이념 서적을 읽는 비밀모임을 만든 것도 이러한 추론의 근거이다.

여하튼 처음에 조직을 감춘 채 사회주의 사상만을 연구하던 신우회가 현실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자, 일본 경찰은 이들의 활동을 억압하려 하였다. 1926년 7월 26일자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다.

“연합토의회를 현지 경찰 금지

광주신우회에서는 오는 8월 2일부터 일본 나가사키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민족대회에 대하여 해당 대회를 절대 반대하기로 하고, 이에 대책을 토의하고자 지난 23일 오후 8시부터 광주청년회 홍학관 대강당에서 광주 각 사회단체 연합토의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현지 경찰서에서는 주최 단체 대표자를 불러 해당 집회를 절대로 금지한다 하므로 부득이 중지하였다 하며 광고까지 압수하였다.”

신우회가 여러 사회단체 활동을 하나로 묶는 연합체를 결성하려 하자 일본 경찰이 이를 막으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신우회가 광주 지역 사상대강연회주의 활동의 시원일 뿐만 아니라 구심점이 되고 있었다.(동아일보 1925. 12. 1.) 강석봉은 신우회를 통해 형성된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항일 운동 세력을 조직화하고 있었다.

2) 청년운동과 광주청년동맹

일본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습득하고 귀국한 강석봉은 1923년 사회주의 사상 단체인 신우회를 조직하여 사회주의 이념을 체계화하고 세력을 확산하려 하였다. 그는 동시에 과거의 부르주아 중심의 활동에서 탈피하고 있는 광주지역 최대의 청년운동 조직인 광주청년회를 그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자 하였다. 1923년 9월 강석봉이 광주청년회의 임시 의장이 된 것은 이러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석봉이 광주청년회의 임시총회를 주재한다는 사실은 광주청년회의 회원들 가운데 사회주의적 성향을 지닌 세력이 그만큼 성장해 있음을 말해준다. 이제 광주청년회가 자본가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노동자·농민 중심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사회주의 사조가 들어오면서 광주청년회에도 조직체계뿐 아니라 지도부의 성격에도 변화가 있었다. 종전의 실업가 중심에서 최한영, 강석봉 등 고학력자, 언론사 기자, 교사 등 지식인 그룹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훗날 신간회 지회에서 간부로 지냈던 청년들이 많았다. 1920년대 중반 들어 광주청년회는 부르주아 중심에서 소부르주아 지식 청년으로 지도부가 변경되어갔음을 알 수 있다.¹²⁾

1924년 광주청년회는 “계급적 단결로 해방운동의 전위가 되어 민중본위의 신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는다는 강령을 채택하였다. 광주청년

12) 이애숙, 앞의 글

회가 ‘지·덕·체’를 표방했던 창립 초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급진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주청년회에서 새롭게 내건 ‘신사회 건설’이란 구호는 ‘사회주의 사회’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청년회 활동에 사회주의적 색채가 차츰 드러나고 있었다.

1925년 9월 개최된 광주청년회 창립 5주년 기념강연회에서 청년의 계급적 단결을 강조하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청년회의 성격에 사회주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주청년회가 사회주의적 성격으로 바뀌어 가는 데는 청년운동을 조직화한 강석봉의 역할이 있었다. 강석봉은 일종의 이념 학교인 광주청년학원을 운영하였다. 강해석이 청년학교 교사로 있었고, 그의 아우 석원이 청년학원을 다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³⁾

강석봉의 아우로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해석은, 형을 도와 청년, 사회주의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석봉의 아우이자 호일의 다섯째 아들인 석원이 1924년 경성의 경신학교 1학년을 다니다 중퇴하고 광주에 내려와 광주 청년학원에 다녔다. 당시 청년학원 교사를 해석이 맡고 있었다. 광주청년학원이 청년, 학생을 의식화하는 강습소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경채 등 광주고등보통학교, 광주농업학교, 광주사범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이 단체에서 청년운동 및 사회주의 서적을 읽으며 식민지 조선의 모순을 구조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신우회를 조직한 강석봉은 이와 별도로 기존의 광주청년회 활동을 뒷받침하는 청년운동 전위대를 육성하고자 일종의 강습소격인 광주청년학원을 세워 해석에게 맡겼다. 강해석이 1926년 창립된 광주청년회 연합회, 그리고 1927년 청년회연합회가 발전한 광주청년연맹의 임원을 맡았고, 강석봉 본인과 넷째 아우 영석이 광주청년회연합회의 집행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강석봉 3형제가 광주청년연합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이 단체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광주청년연맹을 새롭게 조직

13) 박해현, 『동구의 인물』 2.

하였다. 1927년 11월 26일이었다. 조선청년총동맹 중앙집행위원 전남대표로, 김재명, 강석봉, 한상호가 선출되었다. 앞서 6월 17일 전국적으로 결성된 조선청년동맹의 하부 조직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광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운동이 전국적인 조선청년총동맹 결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겠다.

이제 새로 출범한 광주청년동맹은, 김재명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 조철성, 강해석 등 17명, 감사위원으로 김흥선, 최한영, 강석봉이 선출되었다.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청년동맹에 최한영이 감사위원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이다. 최한영은 강석봉 등과 가까운 사이였다. 강석봉이 최한영을 감사위원으로 선출한 것은 중도 세력까지 포용하며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중도파까지 포용하면서 광주청년동맹이 세력을 키우려 하자 일제는 탄압에 나섰다.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다.

“광주청년회원 5명 검속 취조

지난 23일에 광주경찰서 고등계에서는 형사대를 풀어 놓아 광주청년회원인 강석봉, 김재명, 강해석, 장석천, 강영석 등 다섯 명을 검속하고 엄중히 취조 중인데, 사건의 내용은 절대 비밀에 붙임으로 보도할 자유가 없으며 일반인은 매우 주목하고 있다.”(동아일보 1927. 9. 25.)

광주청년동맹 결성이 구체화하자 이를 막으려는 일본 경찰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일본의 집요한 훼방에도 불구하고 광주청년동맹은 출범하였다. 이때 검속된 5인 가운데 강석봉, 강해석, 강영석 3형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광주청년연맹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재명은 강석봉의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 사상을 학습할 정도로 두 사람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나주 농민운동 대회에도 강석봉과 김재명이 함께 참석하였다. 이를 통해 광주청년동맹 결성에 강석봉이 실질적 역할을 하였다.¹⁴⁾

14) 박해현, 『강석봉 평전』

최한영은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1925년 8월 12일 ‘3천의 청중 광주수해구제음악회’를 주최하여 의연금을 모았다는 보도가 있는데, 최한영, 강석봉, 진동호, 소병호 등이 준비위원이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최한영은 1929년에도 광주청년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음 기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29. 3. 21. 조선일보

광주청년위원회

전남광주청년회는 장구한 역사와 다대한 사업으로써 청년운동사상에 혁혁한 이름을 나타냈던 단체이던 바 재작년에 조직체를 변경하여 군내 청년단체를 통합한 광주청년동맹이 창립되었으나 동 회는 광주를 위하여 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장래 대(大) 광주의 공회당이 될 회관의 건축문제까지를 짊어지고 있는 까닭에 회체(會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지난 12일 하오 8시에 동 회 위원회에서는 제반 중요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역대 간부로서 명망있는 인사 제씨를 위원에 보선하여 제반사무를 원만히 처리한다고 한다.

보선위원 최원순, 최준기, 지창선, 최한영, 김홍선, 최남립, 최춘열

1927년 광주청년동맹이 결성된 지 2년 후의 신문 보도 내용이다. 강해석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광주청년동맹이 2년이 지난 1929년까지도 활동하고 있었다. 이때 광주청년동맹은 동맹을 결성하였던 핵심 인물 상당수가 조선공산당 사건에 연루되어 강석봉처럼 일본으로 망명하였거나 김재명처럼 수어 있다가 옥사하거나 강해석처럼 이경채 사건 연루자로 간히는 등 핵심 인물들이 탄압을 받아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도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최한영 등이 청년위원회의 보선위원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이다. 청년위원회는 청년동맹 산하에 있는 특별위원회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때 보선위원에 선출된 인물들이 최한영을 비롯하여 최남립, 지창선 등이 들어있는 점이 눈에 띈다. 지창선은 광주의 대표적 부호의 한 사람

고, 최남립은 최한영의 큰형으로 함께 고무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광주 실업인들이 청년운동 단체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단체의 성격이 종전의 사회주의적 성격에서 다시 부르주아적 성격을 띤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청년위원회 보선위원 선출과정에 최한영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3) 야체이카 조직과 조선공산당

제1, 2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사회주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었다. 특히 화요회계의 타격이 컸으므로, 화요회계와 경쟁하였던 서울회계와 가까운 광주청년회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였다. 강석봉은 서울회계에서 활동한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공산당 세포조직인 ‘야체이카’를 구축하였다.¹⁵⁾

1928년 터진 제4차 조선공산당 사건은 강석봉이 중심이 되어 구축한 M.L당 조직이 일본 경찰에 노출되어 46명의 조직원이 구속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강석봉이 결성한 공산당 조직 실체가 드러났다. 2년 가까이 일본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한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동아일보 등 국내 신문에는 보도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만 자세히 나와 있다. 총독부의 보도 통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문을 통해 고려공산당원과 고려공산청년회원의 일부를 병합 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자는 화요회계, 후자는 서울회계를 지칭한다. 그리고 M.L당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재명이 강석봉으로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배웠다는 사실도 드러나 있다.

사회주의 사상을 이념화하기 위해 1923년 신우회를 결성한 강석봉은 청년, 노동자, 농민, 그리고 학생들을 의식화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김재명, 지용수, 그리고 아우 해석을 확실한 운동가로 육성한 강석봉은 본격적인 공산당 세포조직 건설에 나섰다. ‘야체이카’는 소련말로 ‘세포’

15) 박해현, 『강석봉 평전』.

라는 뜻으로 운동의 가장 하부조직을 의미한다.

강석봉이 가장 먼저 ‘야체이카’를 건설한 곳이 목포였다. 강석봉이 목포에서 조직한 야체이카를 중심으로 서병인, 김철진, 조극환, 유혁 등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조극환이 사회주의 사상을 접한 것은 강석봉에 의해서였다고 판결문에 명확히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목포에서 해륙물산 중개업 일을 하던 조극환이 1925년 가을 공산주의 사상에 접한 후, 여러 지역을 다니며 이를 전파하러 다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강석봉이 목포를 야체이카를 결성할 장소로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항운노조와 같은 노동자 조직이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무목 청년단체 모임에서 알 수 있듯이 8개에 이르는 청년운동 단체가 있는 등 비교적 농민, 노동자, 청년 운동이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한일병합 이전부터 이미 부두 노동자의 파업이 있었던 목포를 주목한 강석봉의 영향에 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목포 사회주의자들의 세력기반인 야체이카 구성에 강석봉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목포시사』인데, “1926년 9월 결성된 제3차 조선공산당에는 목포의 사회주의자들도 활발히 참가해 목포 지역 세포를 구성했다. 1927년 3월 조극환, 김철진, 서병인 등이 목포 지역 공산당 세포였고 김철진, 설준석, 조문환, 김석순이 청년조직인 고려공산청년회 세포였다. 그러나 목포 세포는 핵심 구성원들이 공개적인 조직인 신간회와 노동연맹에서 극심한 대립을 벌여 지역당 활동도 원활하지 못했고 당 조직이 발각되어 붕괴했다.”라 하였다. 특히 야체이카가 일제의 탄압으로 붕괴된 것을 마치 내부 갈등 탓으로 삼은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¹⁶⁾

목포 다음으로 강석봉이 야체이카 구축에 공을 들인 곳이 제주였다. 제주에 이어 담양, 광주 등에도 야체이카를 조직하였다. 이렇게 공산당 세포조직을 결성하는 과정에 강석봉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강석봉이 이들 조직을 결성하면서 들어간 경비가 1만 원이었

16) 박해현, 『강석봉 평전』.

다. 당시로 말하면 엄청난 거금이었다. 이 비용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강석봉이 사회주의 세력을 구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그가 1925년 무렵 목포를 왕래할 당시 그곳에 작은 사업처를 운영하며 독자적인 자금을 마련한 것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이러한 추정은 1934년 귀국하여 이듬해 1935년 목포에 내려갔을 때 강석봉이 바로 사업기반을 가지고 있는데서 짐작할 수 있다. 강석봉이 공산당 조직을 결성하는데 1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1933년 망명지 일본에서 그가 체포되었을 때, 이를 보도한 당시 신문에 나와 있다.

이렇게 강석봉이 엄청난 사재를 투입하면서 혼신을 기울여 야체이카 구축에 노력한 결과 조직이 확장되어 갔다. 광주에서는 강석봉을 비롯하여 김재명, 강영석, 최용운, 한길상, 최창순이 야체이카에, 김재명, 강영석, 지용수, 강해석, 소진호는 고려 공산청년회에 참여하였다. 담양에서는 정병용, 정경인이 야체이카에, 정경인, 김득선, 강완득, 김용표 등이 고려공산청년회에 참여하였다. 목포에서는 조극환, 김철진, 서병인이 야체이카를, 김철진, 설준석, 조문한, 김석순이 고려공산청년회 등에 가담하였다. 영광에서는 조용남, 김은환이 야체이카에, 완도에서는 신준희, 최형천, 감사원, 정남국 등이 당의 세포 조직을 구성하였고, 영광회, 위경영, 최평산이 고려공산청년회에 가담하였다.

제1, 2차 조선공산당과 달리 강석봉의 서울회계가 주도한 조선공산당 재건 때는 담양, 장성, 영광, 목포, 완도 등 전남 서부 지역에 야체이카와 고려공산청년회가 주요한 기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김재명 등 많은 공산당 관련 인물 체포되었다. 이때 기소된 인물만 46명에 달하고, 김재명은 고문 끝에 옥사하였다. 이 사건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데 무려 3년이 걸릴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강석봉은 다행히 일본 경찰에 피체를 면한 채 일본 망명길에 나선다.

제5장

• • •

사회운동에 앞장선 최한영

1. 중도노선을 지향한 광주청년회

광주청년회가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기 시작한 1924년 이후 광주청년회와 광주노동공제회는 노선의 정체성을 둘러싸고 점차 대립 갈등하기 시작하였다.¹⁾ 당시 경성의 공산당 운동 세력이 주도권을 둘러싸고 서울(청년)회계와 화요계로 나누어 대립 갈등하고 있었는데, 이 갈등이 고스란히 광주지역 청년 사회단체로 이어지고 있었다. 광주청년회가 서울 청년회계로, 광주노동공제회는 화요계로 이어지는 분파 구도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학습하였던 신우회는 서울 청년회계의 고려공산동맹 광주지부, 십팔회는 화요계의 조선공산당 광주지부로 모습을 드러냈다.

고려공산동맹은 광주청년회를 통해 청년·학생층을 파고들었다면, 조선공산당은 광주노동공제회와 광주소작인 연합회를 매개로 노동대중과 접촉하였다. 광주에서는 노동대중과 접촉을 시도한 광주노동공제회나 소작인연합회는 크게 뿌리내리지 못한 채 일제의 공산당 탄압으로 세력이 약화 되었으나, 청년·학생층을 파고든 광주청년회계는 광주학생운동을 성공리에 치루는 등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광주에서 사회주의 계열

1) 이 부분 서술은 신주백, 1993, 「1925-1928년 시기 전남지방 사회운동 연구-조공 전남도당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Ⅱ, 호남편.

간에 전개된 주도권 싸움에서 광주청년회가 승리하였다고 하겠다.

이들 두 세력은 내면적으로는 서로 경쟁 대립하는 구도였으나 지역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긴밀히 협력을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925년 광주청년회관이 화재로 전소되자 광주노동공제회에서 광청회관 부흥 운동 후원을 결의한 것이 이들의 관계를 엿보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말하자면 두 단체는 경쟁하면서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²⁾

그런데 광주청년회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적격성을 광주노동공제회가 간섭한 것을 가지고 두 단체 내부에 쌓여있던 구조적인 갈등이 폭발하고 말았다. 광주청년회에서 1926년 임시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위원 등 일부 임원을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하였다. 이에 대한 당시 신문 기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광주청년회에서는 지난 1월 4일 오후 8시에 동 회관 내에서 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금후 다수 위원이 사임함에 대하여 정상호·지창선·김범수·최준기 군을 보선하고 다음과 같이 부내를 정하였다. 위원장 정상호·서무부 김태열·김범수, 지육부 지창선·최한영, 사회부 정상호·최준기·최묘립, 재무부 조창준·김홍선, 체육부 김재명” (시대일보 1926년 1월 9일)

신문 보도를 토대로 선출된 임원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출 시기	간부진 명단
1926. 1. 4. (정기총회)	1. 집행위원장 : <u>정상호</u> 2. 집행위원 : 서무부(김태열· <u>김범수</u>) 지육부(<u>지창선</u> ·최한영) 사회부(정상호· <u>최준기</u> ·최묘립) 재무부(조창준·김홍선) 체육부(김재명)

2) 신주백, 위의 논문.

광주청년회가 기존 임원진이 사퇴하자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였다는 것이다. 밑줄 친 인물들이 새로 선출된 인물이다. 최한영은 광주청년회의 기존 집행위원이었고, 김범수는 비로소 광주청년회의 집행위원이 되었음을 알려준다. 김범수와 광주청년회가 인연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1921년 5월 28일 광주청년회 의연금 유용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확인하였다. 그러다 5년 후인 1926년 1월 집행위원에 선출되어 회장단이 된 것이다. 이는 김범수가 광주청년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1924년 11월 남선의원을 개업한 지 1년이 넘었을 때였다. 이렇게 보면 김범수는 광주청년회가 창립된 이래 계속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보겠다.

그런데 이때 눈길을 끄는 것은 김범수와 함께 회장단을 구성한 인물들의 면모이다. 우선 김범수와 함께 서무를 담당할 집행위원으로 김태열이 선출되었다는 사실이다. 김태열은 김범수를 도와 인쇄한 2·8독립선언서를 광주로 가져와 3월 10일 광주시위에 사용한 인물이다. 그는 3월 6일 밤 광주시위 계획 첫 모임에 참석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신문종람소 회원이었던 그는 김범수와 이들 청년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였다. 대구형무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는 등 다른 동지들보다 가장 가까운 김태열이 김범수와 함께 집행위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어쩌면 광주청년회의 실질적인 일을 이들 두 사람이 맡았음을 말해 준다.

집행위원장이 된 정상호 역시 김태열과 광주보통학교 동기동창으로 매우 가깝게 지낸 사이이다. 앞서 설명하였지만, 김범수, 김태열, 정상호는 보통학교 때부터 막연한 사이였다. 정상호는 광주의 지주이자 사업가인 정낙교의 아들로 3·1운동에도 깊숙이 참여하였다. 아들이 신문종람소 회원인 관계로 정낙교는 그의 건물을 신문종람소 사무실로 이용하도록 하였다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어려움을 받기도 하였다. 정상호는 이때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광주 최고의 부호 아들이자 지식인인 정상호가 집행위원장이 되었다는 것은, 광주청년회 임원 구성

이 창립 초기처럼 부르주아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측을 하는 증거로 정상호 외에 집행위원이 된 최준기와 지창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준기는 앞서 살폈듯이 광주청년회 창립 당시 총무를 맡은 인물로, 1919년 설립된 광주금융조합의 유일한 조선인 이사였다. 이로 미루어 그의 경제 기반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지창선 역시 당시 광주의 최대 지주인 지응현³⁾의 장남으로 대단한 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력을 지닌 청년 지식인이 광주청년회의 새로운 집행위원으로 들어섰다는 것은, 사회주의 성격을 띤 이전의 조직에서 다시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상호·지창선·최준기를 비롯한 비교적 자본력이 있는 인물들이 새롭게 임원으로 선출한 것은 당시 광주청년회가 이들을 통해 회관 신축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 곧 특정이념을 고집하지 않고 실용 노선을 광주청년회가 걷게 된 데는 최한영의 역할이 있었다고 본다.

한편 광주청년회는 출범 직후 회의 임원을 차지한 친일적 성향이 있는 인사들을 배제하고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는 인사를 임원으로 선출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 마냥 예전처럼 지주 자제들과 같은 지역 유지들 중심으로 회를 운영하는 것이란 불가능하였다. 실제 이때 구성된 광주청년회를 보면 위에 언급한 김범수와 김태열 등 광주 3·1운동의 핵심 인물이 새롭게 보강되었다. 기존에 있던 최한영과 함께 독립운동 세력도 상당수 임원진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상호·김태열의 광주보통학교 후배인 최한영 역시 그의 집에서 3월 10일에 사용된 많은 유인물

3) 지응현(1867·1957)은 광주, 장성, 담양, 곡성, 순창 등에 무려 100만 평이 훨씬 넘는 땅을 소유하였던 지주로, 응세농도학원(현 쌍촌동 대건신학대학 광주 평생교육원 건물)과 응세수의학교(지산동 살레시오 여고) 등의 부지를 기증하였고, 금호지구에 있는 병천사를 세워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 하였다. 그의 장남인 창선은 일본 메이지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귀국하여 부친을 도와 육영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지창선은 후에 광주상공회의소 의원과 옥천합자회사 사장을 역임하였다.

을 인쇄하는 등 시위를 성공리에 이끄는 데 적지 않은 공을 세운 인물로, 이들과 함께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이렇게 보면 1926년 임시총회에서 구성된 새로운 광주청년회 임원진은 3·1운동을 이끈 주도세력과 자본가 그룹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조직체였고 하겠다. 이것은 광주청년회가 자본가 집단이 다시 나섬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계급적 갈등을 미리 예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두 계급 사이에 나타난 갈등을 최한영은 예상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최한영의 노력은 곧 노동자 계급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추측은 정상호·김범수·김태열·최준기·지창선이 광주청년회의 새로운 임원으로 선출되자마자 튀어나온 사회주의계의 반발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오치 노농청년회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8시 동 회관에서 특별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청년회 습격 행동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위원을 파송하여 해당 진상을 조사한 결과 상당한 조치를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한다.

결의문

광주청년회의 임원 보직을 맡은 위원장 및 임원들은 지위를 유지한 ‘부르조아’ 계급 정상호·지창선·조창준·최준기·김범수 등 5인에게 양여한 것을 다년간 허다한 인사의 악전고투로 혈한의 공적을 들어 적진에 투여하는 동시에 전남의 무산자 청년 운동으로 하여금 ‘쁘로’ 계급의 선상으로 운영하라는 음모에서 나옴이 명백한 일인 이상 본회에서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일반사회에 공포하며 그 주모자 일파를 조사할 일, 조사위원으로 오충근 군을 파송할 일”(시대일보 1926. 1. 18.)

② “전남 광주에서는 그곳 청년회에 관계된 문제로 여러 가지 말썽이 되어 오던 중 지난 12일에는 청년회원들이 청년회와 문제된 사람들을

추적하여 동 공제회에 이르러 문을 부수고 책임자의 거취를 찾는 등 일장의 살풍경까지 연출할 일이 있었는데 사건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대략 다음과 같이 파란이 있었다.

지난번 광주청년회관이 불에 타버린 후로 동회 집행위원 4, 5명이 회관 부흥에 노력을 기울지라도 실현 여부가 의문이라 하여 사임한 후, 최준기·조창준·정상호·지창선·김범수 5인을 보선하였는 바, 광주시국장 설병호씨는 청년회원 최영균씨에 말하기를 광주 청년회는 종래 계급 전선에서 하던 일이었는데 금번에 다수한 부르조아 청년이 집행위원으로 피선된 것을 보면 동회는 부르조아에게 정복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보다 부르주아化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일반 회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분개하는 데 최군은 어느 편에 가담하겠는가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청년회에서는 (중략)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준기·김태열·최한영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설병호를 찾아가서 광주 청년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당을 모았느냐! 정체를 말하라 하니 說이 정운모에게 들었다 하니 그날 밤 청년회관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씨를 청하여 질문하였다. 정이 갑자기 단도를 빼내니 청년들이 칼을 빼앗고 때리려고 하니 정이 도망갔다. 정이 노동공제회관에 숨고 문을 잠금으로 잔뜩 흥분한 청년회원들이 그 문을 부수며 일시 소란이 일어났던 것이다.”⁴⁾

최준기 등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보선 결과에 대한 갈등이 많았음을 다룬 『시대일보』(①)와 『동아일보』(②)의 보도 내용이다. ①, ②를 통해 이를 통해 당시 갈등의 전말은 물론 광주청년회를 둘러싼 알력의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이 기사를 통해 광주 청년단체의 이념적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다.

광주청년회가 임원 보선을 통해 정상호 등 비교적 자본력이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은 불탄 회관 신축을 위한 경비 조달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최한영, 김범수 등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투옥된 경력이 있는 인물을 집행위원으로 선출한 것은 자본가 출신이 집행위원

4) 동아일보, 1926. 1. 18.

으로 선출됨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계급적 갈등을 완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광주청년회의 선택에 대하여 일부에서 불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광주청년회가 노동자·농민을 위한 계급투쟁으로 어렵게 방향을 선회하였는데, 갑자기 일부 부르주아 계급이 임원으로 들어오면서 광주청년회의 성격이 변질이 되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위에서도 설명한 바 있지만, 1920년 경제적 기반이 튼튼한 지주·자본가 계급 및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광주청년회가 1923년을 계기로 친목 도모 및 교육 활동 등 개량주의적 활동에서 점차 노동자·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었다.⁵⁾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광주청년회의 집행부에 자본가 계급이 다시 선임된 것은 부르주아 성격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광주청년회의 성격이 과거로 회귀하였다고 구체적으로 공격받은 인물들이 최준기·조창준·정상호·지창선·김범수 등이었다. 김태열이나 최한영은 이들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다. 최한영은 오히려 진상조사단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최한영이 좌·우 진영을 넘어 신망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정상호나 최준기, 조창준, 지창선 등은 자본가라고 공격을 하여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광주지역 대표적인 부호 집안이었다. 하지만 무산자 이익을 대변한다고 표방하며 의원을 개원한 김범수까지 이들과 같이 한 묶음으로 공격하는 것은 언 듯 이해되지 않는다. 더욱이 실제 빈민들을 위한 진료 활동에 솔선하고 있는 김범수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든다.

이는 김범수가 아무리 무산자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여도 원래 지주 자본가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일부 사회주의 계급 쪽에서는 그를 투쟁의 대상인 부르주아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범수의 아우인 김언수는 1926년에 형의 병원이름과 동일한 남선양

5) 이애숙, 앞의 논문.

말공장을 창업하였다. 남선양말공장은 1935년 창업된 대표적인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무등양말공장보다 10년 일찍 세워졌다.⁶⁾ 말하자면 민족 산업을 일으켜 민족의 역량을 키우려는 김범수의 의도가 아우인 언수에게 이어졌다 하겠다. 3·1운동 때 그의 집을 인쇄하는 데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 독립운동을 도운 언수는 처가가 있는 옥과 금융조합 이사를 맡기도 하였다. 그의 아들은 훗날 그의 집 근처에서 전남여관이라는 유명한 숙박업을 하였다. 이렇게 자본가로서 이름을 서서히 올린 김언수는 해방 후 인민위원회가 결성될 때 재정담당을 맡기도 하였다.

이렇게 김언수가 민족자본가로서 성장한 것은 사회주의자들이 볼 때는 김범수가 부르주아적 성향이 있다고 여길 충분한 이유가 된다. 따라서 그가 청년회 간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였다고 본다.

최한영도 김범수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사상에 한때 경도되어 있었다. 그가 강석봉 등 사회주의 운동가들과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1920년대 중반 광주 전남의 청년들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이념적 갈등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한영은 이러한 갈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족 독립을 위한 길을 묵묵히 걷고 있었다.

“재만 동포옹호코자

각지에서 항의, 경고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동포가 중국관헌에게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있다는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할 차로 지난 13일 오전 11시부터 신간회 광주지회관에서 12단체 대표회의를 열고 정수태씨 사회로 장시간 분분한 토의가 있는 후 우선 시민대회를 개최하기로 좌기 10명의 준비위원을 선정하고 하오 3시에 폐회하였다더라.

준비위원 전도, 전용기, 최당식, 김재명, 조만선, 국채진, 차문걸, 최한영, 서우석, 김용환 그런데 시민대회만은 경찰이 금지하였다.

(동아일보 1927. 12. 15.)

6) 박선흥, 1994, 『광주 1백년』.

전국적으로 확대된 재만동포 돕기 운동에 최한영이 앞장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운동에 사회주의 사상을 지닌 전도, 김재명 등도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무렵은 광주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손을 잡고 신간회를 결성한 직후였다. 신간회가 이 행사를 주관한 행사였기 때문에, 양측을 대표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최한영 등 3년 형을 받았던 광주 3·1운동 주역들은 일제의 회유책에 따른 가석방으로, 1년 6월 투옥생활을 마치고 광주에 돌아왔지만 일제의 감시가 심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최한영은 장성 사가리에서 3·1운동을 일으킨 신상우⁷⁾가 출옥 후 2세 교육을 위해 세운 ‘오복의숙’에 교사로 잠시 근무하고 있었다. 신상우와 최한영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구 형무소에서 만난 옥중 동지로서의 인연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오복의숙의 학생들은 광주 3·1운동의 전설 최한영의 감동어린 강의에 열중하였다. 최한영에게 가르침을 받고 장성 청년운동 지도자로 성장한 학생들이 그에게 특강을 부탁하였다. 장성에서 최한영의 특강 요청이 집중한 까닭이다. 이를 알려주는 당시 신문기사 내용이다.

장성 갑자 청년 사상 강연 금지

11월 7일에는 5인 이상 집회 금지

전남 장성역 앞 갑자청년회에서는 남녀 아학생을 약 40명 가량이나 교수하여 오던 바 경비가 곤란하여 그의 유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임시 역원회에서 일변으로 교육열을 고취시키며 일변으로는 사상을 소개할 목적으로 지난 7일 오후 7시에 동 회관에서 이 사상 강연회를 열기로 하여 광주청년회 최한영, 강석봉 양 군을 연사로 고빙하여 방재 준비에 노력 중이던 바 돌연히 경찰로서 간부를 불러다가 상부의 명령이 전남덕으로 5인 이상 집회는 절대로 금지하라고 하였은 즉 오날(11월 7일)에 한하여는 무슨 집회든지 할 수 없다고 말하므로 간부들은 여러가지로 교섭을 하였으나 종시 듣지 않고 8일에는 강연을 할지라도 관계

7) 신상우가 3·1운동 후에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고 하였다.

하지 않으나 7일은 허락할 수 없다 하여 부득이 간부들도 낙담하고 돌아와서 8일 오후 4시에 강연회를 하기로 하였다.⁸⁾

전남 장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갑자 청년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최한영, 강석봉을 불러 강연회를 열었는데 경찰이 갑자기 행사를 막았다는 것이다. 갑자 청년회 강연에 최한영이 강석봉과 함께 강사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 이 무렵 강석봉은 조선공산당 전남 책임자로 활동하며 청년, 학생운동을 조직화하고 있었다. 최한영과 강석봉은 같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보통학교, 광주농업학교 선후배로 매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이들은 1917년 결성된 신문잡지종람소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리고 광주 3·1운동 기획, 실행 단계에도 함께 한 사이였다. 최한영이 강석봉과 함께 하였다는 것은 그가 이 무렵 광주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사회주의 이념도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가 되겠다.

다음 신문 내용을 보면 최한영을 ‘청년학원 교원’이라고 하였다. 광주 청년동맹을 결성한 강석원이 ‘청년학원 교사’였다. 곧 최한영이 1925년에 강석봉, 강해석, 강석원 3형제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청년동맹에 교사로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1929년 3월까지도 그가 청년동맹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던 것은 이러한 인연 때문이었다.

삼서 청년주최 하기 강좌 26일 개강

전남 장성군 삼서면 청년회 주최로 오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동 회관 내에서 하기 대강좌를 개최한다는 데 강사는 동 청년학원교원 최한영 현 일본노동총동맹회 간부인 임종웅 양인이며 사회학 및 경제학 등을 무료 교수한다는 데 청강생 자격은 17세 이상 청년 남녀로 벌써 다수 모집 되었다.⁹⁾

8) 조선일보, 1925. 11. 10.

9) 매일신보, 1926. 7. 26.

이와 관련하여 다음 신문기사는 이 무렵 최한영이 계급 투쟁적인 농민운동과도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곧 그가 참여하여 특강을 하였던 삼서농민조합의 창립 목적인 “계급 해방과 당면 이익을 목표”라고 하는 사실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삼서 농민조합 창립 발대식

전남 장성군 삼서 농민들이 계급 해방과 당면 이익을 목표로 삼서농민조합을 지난 5월에 창립하였다함은 이미 보도한 바 있거니와 저간에 본 조합에서는 각 동리에 7개 단체를 설치하여 전 조합원이 600여 명에 달함으로 지난 22일 오전 10시에 삼서 청년회관 내에서 삼서농민조합 창립발회식을 거행하였다는 데 우렁찬 목소리로 운동가를 부르며 주악으로 개식한 후 김홍빈씨의 개식사가 끝나자 각지에서 온 축전문을 낭독하고 내빈으로 최한영, 박성중, 나입, 임무, 변동갑, 김인수 제씨의 축사가 차례로 있던 후 만세 3창으로 대성황리에 식을 마쳤다.¹⁰⁾

이보다 앞서 최한영은 광주여자청년회 국제부에서 하는 ‘데이 기념 대강연회’에 참석하여 특강을 하고 있었다.¹¹⁾

이처럼 최한영은 1920년대 중반 광주 사회주의 운동을 이끈 강석봉 등과 밀접히 지내며 계급적 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물론 이를 가지고 그의 이념 스펙트럼이 사회주의자였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보다 앞서 나왔던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중도적 입장에서 좌·우를 넘나들며 민족의 독립을 고민한 실천적 행동가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최한영의 이러한 태도는 다른 한편에서는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10) 동아일보, 1926. 8. 28.

11) 1926. 3·14 광주여자청년회 국제부인 데이 기념 대강연회 개최.

2. 서울회계와 화요계의 각축장이 된 광주청년운동

그런데 이 무렵 광주 청년운동의 구심점이었던 광주청년회가 부르주아화 되었다고 광주노동공제회가 공격하자 광주청년회 간부와 일부 회원들이 발끈하여 공제회관을 습격함으로써 두 단체의 관계가 순식간에 적대관계로 돌변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에서 이미 분파되어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던 서울청년회계와 화요회계가 개입하여 논란이 증폭되었다.¹²⁾ 서울청년회가 조선청년동맹과 각 지역 대중 운동 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다면, 화요회계 측은 조선노동총동맹을 축으로 각 지역 대중 운동 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서울청년회계는 광주청년회를 옹호하고, 북풍회·화요계는 공제회를 옹호하는 등 중앙의 대립이 그대로 지방으로 이어져 왔다.

이들 두 세력의 치열한 각축장이었던 광주에서 급기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앞서 살핀 광주청년회의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이를 비난한 광주노동공제회를 1926년 1월 12, 13일 양일간 강석봉, 김재명 등 50여 명의 광주청년회원들이 습격하여 기물을 부수고 사람을 구타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광주청년회가 일으킨 습격사건은 서울청년회 측에 가까운 활동가들이 장악하고 있던 광주청년회와 조선공산당 측의 영향을 받고 있던 광주노동공제회간의 누적된 대립관계가 중요한 원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광주청년회와 광주노동공제회의 대립 갈등은 이후 전남지역 사회주의 단체의 분열 갈등을 촉진시켰다. 전남지역 사회주의 세력은 조선공산당 계열과 고려 공산동맹 계열로 나누어져 있었다. 전자는 주로 북풍회·화

12) 1924년 10월 서울청년회 세력이 고려공산당 및 고려공산청년동맹을 결성하고 1925년 1월 전조선노동교육자대회를 개최하려 하자 이에 맞서 화요계는 2월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의 개최를 선언하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화요계는 조선공산당 및 고려공산청년회를 결성하였다. 두 세력은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이때부터 전국적 차원에서 세력 경쟁을 펼쳤다. 이 때문에 전국의 노동, 농민, 청년, 사상 단체들은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되었다.(신주백, 1993, 「1925-1928년 시기 전남지방 사회운동 연구-조공 전남도당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요계열인 반면, 후자는 서울청년회계열이었다. 지역적으로 두 세력의 갈등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었다. 조선공산당 계열이 고흥, 보성, 광양, 순천, 여수 등 전남의 동부지역이었다면, 서울청년회계의 기반은 무안, 나주, 완도, 진도 등 전남의 남서부지방과 북부지방인 담양과 장성지역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해당 지역의 지도적 인물이 어느 정파에 속하고 있었는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조선공산당 측 인물은 순천의 이영민, 박병두, 광양의 신명준, 정진무, 광주의 서정희, 신동호, 화순의 조정서 등이고, 서울청년회 계열 인물은 광주의 강석봉, 나주의 이항발, 장성의 기노춘, 담양의 국기열, 정병용, 무안 서태석, 목포의 배치문, 영암의 조극환, 김준연, 유혁, 완도의 송내호 등이 있다. 이들은 해당 군, 전남지역을 넘어 경성에서도 나름대로 활동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¹³⁾

이들 인물들 가운데 서울회계로 분류된 인물들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주의 강석봉·한길상, 담양의 정병용, 완도의 송내호, 영암의 조극환 등이 그들인데, 1922년 송내호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비밀결사 ‘수의위친계(守義爲親契)’ 회원들이었다. 말하자면 서울청년회 계열이라 여겨지는 이들 인물들은 1924년 고려공산당동맹 전남조직 또는 1925년 전남해방운동자동맹이 결성되기 이전부터 비밀결사 조직 활동 속에서 이미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열렬한 민족주의자였던 이들이 사회주의자로 세계관을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청년회 계열에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의 활동가들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을 전남지방의 예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다.¹⁴⁾

그런데 조선공산당에 입당한 광주지역 사회주의자들은 1926년 여름 조직이 발각되어 대부분 검거되고 말았다. 반면 온전히 조직을 보전한 고려 공산동맹 계열의 사회주의 청년들은 1926년 하반기부터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였다. 이러면서 두 세력이 서로 조선 공산당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대립하였다.

13) 신주백, 위의 논문.

14) 신주백, 위의 논문. 133-134쪽의 주)38.

고려 공산동맹계열의 일부 청년 학생들이 조직한 성진회가 중심이 되어 광주학생독립운동 등 학생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에 앞장섰다. 이때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풀려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1930년대 공산당 재건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따라서 광주청년회가 사회주의 성향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선공산당 계열이 아닌 고려 공산동맹계열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광주에서는 광주청년회 세력이 강했기에 조선공산당보다는 고려 공산동맹계열의 사회주의자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성향은 사회주의보다 민족주의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3. 민족주의를 표방한 광주청년회

일제의 감시를 피해 1942년 광주 벽돌공장으로 숨어들었던 박헌영을 통해 이 지역의 서울회계와 광주청년회계의 세력 추이를 엿볼 수 있다. 박헌영은 화요계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그가 광주로 피신한 것도 역설적으로 이 지역이 서울회계인 광주청년회 세력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일본 경찰이 이곳에 세력 기반이 거의 없는 박헌영이 설마 피신하였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박헌영은 이를 역으로 이용한 것이라 하겠다.

광주지역에서 박헌영 계열은 그 존재가 매우 미미할 정도로 세력이 거의 없었다. 해방 직후 조선공산당에서 파벌 투쟁이 전개되었을 때 광주지역의 상당수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이 反 박헌영 계열의 입장에 섰던 것은 이 때문이다. 이는 한국전쟁 때 이 지역의 사회주의적 성격이 있었던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북에서 내려온 박헌영계 인사들에게 숙청을 당한 것은 이러한 旧怨이 작용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때 보복을 당한 사람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보다 강했던 서울회계인물들로 이들이 사회주의 공화국을 지향한 박헌영계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겠다.

한편 1931년 만주사변이후 일제의 파시즘적 성격이 노골화되며 민족

운동에 대한 일체의 탄압이 거세지자 사회주의 계열 내에서 분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즉, “비합법적인 종파주의에 흐르지 말고 합법적 활동으로써 광범히 대중과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1931년 신간회가 해체되면서 사회주의 운동 세력은 합법적 운동 공간을 상실하였다. 이제 이들의 선택공간은 철저히 지하로 들어가 비합법적 투쟁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합법적 공간을 통해 대중과 결합을 강화해야 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런데 일부 사회주의 내부에서 합법적 공간에서의 대중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 주장은 주로 서울회계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 운동은 1920년대 ‘선실력, 후독립’을 주장한 민족주의 우파들이 주장한 자치론과 비슷하여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였으나, 1930년대 중반 이후 다수 사회주의자들은 ‘합법·비합법’ 활동의 배합 방침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말하자면 이들은 그들이 한때 기회주의라고 공격하였던 민족주의 우파들이 하였던 실력 양성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이와 관련하여 1930년대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을 주도하다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김철수의 다음의 증언은 당시 서울회계열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그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예방구금령에 의해 공주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

“감옥에서 가만히 살다보니까 박헌영파만 잡혀와. 공산당 재건 운동하다가 잡혀온 것이야. 자꾸 잡혀와. 우리파(서울회계)는 말을 잘 들으니까. 이권운동이야, 양조업도 하고, 정미업도 하고, 뭐 그런거 저런거 모두 직업을 얻어 가지고, 왜 놈한테 얻어서, 아쉬운 소리 하고 (운동 일선에서) 딱 떨어져 버려. 박헌영파가 재건운동하다가 자꾸 잡혀와. 그걸 보고 감옥에서 내가 양심적으로 어무래도 박헌영을 (지도자로) 내세워야지(라고 생각했어)”¹⁵⁾

15) 김철수, 2004, 「구술자료-정진석 소장본」, 『지운 김철수』, 243쪽; 임경석, 『이정 박헌영 일대기』, 역사비평사. 재인용.

투옥되어 있는 김철수가 서울회계 사회주의자들이 일제와 타협하다 보니 투쟁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다. 서울회계열의 사회주의 운동 세력이 합법적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언이다. 이는 무조건적 투쟁은 한계가 있다고 당시의 정세를 분석한 서울회계가 실력 양성운동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음을 알려준다.

3차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을 이끌었던 김철수는 해방 후 이승만과 박헌영의 연대를 통한 민족통합을 시도하기 위해 사회노동당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그의 의도와는 달리 사람들이 박헌영의 남조선노동당으로 합류하자 크게 실망하였다. 더구나 그가 우파와의 연대를 시도하였다고 하여 비판이 쏟아지자 일체의 정치 활동을 포기하고 귀향하였다. 김철수가 이념의 포로가 아님을 알 수 있겠다. 어디까지나 이념보다 민족을 우선시한 서울회계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서울회계열의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민족주의적 성격이 분명하였다. 자본가의 영향력이 비교적 강하게 뿌리내려져 있는 광주청년회는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노선과 결합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설사 사회주의 노선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념보다는 민족을 우선시한 서울회계와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들의 목표는 조국의 해방을 위해 민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민족주의 우파들이 지향하였던 실력 양성운동에 큰 관심을 가졌다. 박헌영이 재건하려 한 조선공산당과는 근본적인 지향점이 달랐다.

이때 주목되는 것이 1935년에 광주실업 청년들이 물산 회사를 조직하였다는 신문 보도 내용이다.

광주 실업 청년들 물산 회사 조직

전라남도논 각 산물이 풍부하나 우리 청년들이 특산물에 대하여 하등의 관심이 없음을 보고 금번에 광주중산청년들이 10여만 원의 주식으로 광주물산창고회사(光州物産倉庫會社)를 창립하게 되어 공모주도 예정가대로 진행되어 주주총회를 10월 중순경에 개최할 예정이며 발기인은 다음과 같다 한다. 발기인(무순) 김재규·박경민·지정선·권계수·김익

광주 청년 실업가들이 광주물산창고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보도한 내용이다. 광주물산창고회사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라남도는 각 산물이 풍부하나 우리 청년들이 하등의 관심이 없음을 보고”라고 하는 취지문을 통해 전남지역의 특산물을 경성 또는 일본 등에 수출하기 위한 무역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의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설립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물류회사를 세우는 데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지역의 부호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정선은 당시 호남의 대표적인 지주 지응현의 셋째 아들로 일제 강점기에 도평의원을 역임하였다.¹⁷⁾ 그는 부친으로부터 약 33.7정보의 땅을 상속받아 대단한 재력을 자랑하였다.

조동순은 뒤에 설명할 김범수의 사위 조주순의 형이다. 당시 그 역시 화순의 부잣집 장남으로 화순주조장을 경영하며 재산을 크게 늘린 사업가였다.¹⁸⁾

박경민은 김범수의 셋째 처남으로 부친은 화순 원리의 대지주인 박동표로 금강 이남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¹⁹⁾ 박경민은 비록 사업을 하고, 뒤에 친일 관변 단체인 경방단의 부단장을 맡아 친일 논란이 있기도 하나, 중앙학교 졸업반에 재학 중 3·1운동에 앞장섰던 형 경조의 영향을 받아 민족의식이 강했다. 그는 사회주의자들하고 자주 어

16) 조선·중앙일보, 1935. 10. 6.

17) 지정선(1905-1975)은 지응현의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일제강점기에 사회활동을 하였다. 도평의원은 일제의 관변조직인 도평의회 의원으로 친일적인 성향을 지닌 인사들이 주로 하였다.

18) 조동순이 조주순의 형으로 화순 주조장을 경영하였다고 하는 것은 최근 조주순의 조카 며느리인 김○○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의 부친은 지주로서, 양조장 사업을 통해서 축적된 재산으로 사채업을 하여 재산을 크게 불렀다 한다. (2020. 3. 31 광주 사동 자택 인터뷰)

19) 박경민의 부친인 박동표의 토지는 특히 곡성 옥파에 많았다 한다.

올린 것으로 보아 단순한 자본가라고 할 수 없다.

최남주는 1917년 광주전기주식회사를 설립한 자본가인 최원택의 아들로 용진광산을 설립한 광산사업가로 유명하다. 특히 그는 영화에도 관심이 많아 1937년 경성에서 조선영화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렇게 경성에서도 알려진 대자본가인 최남주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최남주의 집은 김범수 집과 인접해 있었다.

이렇듯 광주물산창고회사 설립은 광주와 광주 인근에서 재력이 있는 젊은 실업가들이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일을 추진하는 발기인 명단에 김범수 이름이 올라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곧 물류회사의 설립을 김범수가 주도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김범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이 모두 실업인들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 이들 인물 모두가 한결같이 김범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범수는, 1924년 광주에 내려와 남선의원을 개원한 김범수는 무산자를 위한 의료 활동에 헌신을 다하고 있었다. 1929년 심야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고아 소년을 김범수가 치료하였다고 보도된 신문 내용은 이를 말해준다. 한편으로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구호 활동을 위한 사회 운동에도 몸을 아끼지 않았다.

1920년 9월 출옥하자마자 막 출범한 광주청년회를 통해 사회 활동에 참여한 그는, 의사가 된 후에도 이 회를 통해 민족의 역량을 키우려 하였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취학하지 못한 학생의 학업 기회를 만들어주었던 그는, 불탄 광주청년회관을 복구하기 위해 임원진을 맡기도 하였다. 그에게는 민족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이념보다는 민족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그것이 민족의 삶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주저 없이 뛰어들었다.

1926년 광주청년회관 건립을 위해 광주청년회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을 때도 자본가 계급과 손을 잡았다 해서 부르주아로 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는 그러한 공격을 받는 것보다 광주 청년들의 활동 공간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사회를 이끌 청년들의 역

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인식이 1935년 광주물산창고회사라는 주식회사를 세우는 데 앞장선 것은 아닌가 한다. 광주물산창고발기인 명단 맨 마지막에 실업인 아닌 인물로 가장 나이 많은 김범수가 이름을 올린 것은 이를 짐작하게 한다. 특히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모두 김범수와 관계가 깊은 인물이라는 점도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한다. 박경민은 그의 셋째 처남, 조동순은 김범수의 장모 조정순과 같은 집안이었다. 지정선은 지응현의 아들로 지응현이 김범수 아들의 중매를 설 정도로 관계가 평소에도 깊었다. 대표적인 실업인인 최남주는 금광개발에도 뛰어들 정도로 대자본가였다. 그런데 그는 1939년 ‘학예사’라는 출판사를 세워 카프 계열의 작가였던 소설가 임화에게 운영을 맡기었다. 이렇게 보면 최남주가 비록 자본가이긴 하나 사회주의 세력과의 일정 부분 관계가 있는 듯하다. 박경민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사회주의자인 조주순과 통하고 있었다. 물론 김범수도 무산자 계급을 우선하고 해방 후에도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중도 좌파적 관점에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당시 광주물류회사를 세운 이들은 비록 이들이 자본가 계급이라 하더라도 민중의 계급적 이익에 소홀하지 않은 사회주의적 이론에 어느 정도 경도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광주물산창고회사가 세워지기 직전의 다음 보도 내용은 물류회사의 설립의 구체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추측하는데 중요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준다.

광주청년회관 기지 원만 해결

광주청년회 기지문제로 인하여 조선동아와 조선중앙의 광주지국 주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예보하였거니와, 좌장으로 김광진씨가 선거되어 장시간 토의한 결과 정락교씨로부터 양도하여 청년회관을 건축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지난 19일 오후 4시 광주사립보통학교에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행위원 8인을 선거하였다 한다.

정상호·최남규·김범수·김광진·지창선·강해석·김태열·최한영

광주청년회의 숙원사업인 청년회관 신축비 부담을 둘러싼 오랜 논의가 신문종합소 활동 공간을 제공했던 정낙교가 부지를 제공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것이다.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 1926년 임시총회에서 광주청년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는 정상호·김범수·김태열·최한영 등과 광주의 대표적 실업가들이 추진위원으로 합류하였음을 알려준다. 광주청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재력이 있는 인물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광주청년회 자체적으로도 자본을 모을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법하다. 이것이 광주물산창고회사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특산물의 제값 받기 운동을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광주청년회 건물 신축 경비 마련의 의도도 함께 있었다.

그런데 정상호·김태열·최한영 등 다른 추진위원들은 광주물산창고회사 설립 발기인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유독 김범수 이름만 들어 있는 까닭이 궁금하다. 이에 대한 뚜렷한 근거는 없으나 다음의 추론은 가능하리라 본다. 1926년 임시총회에서 정상호·김범수·김태열·최한영이 광주지역 자본가들과 함께 집행위원으로 선출될 때 부르주아 논쟁이 크게 일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 김태열과 최한영은 논란에 비껴 있었지만, 정상호와 김범수는 부르주아라고 공격을 받았었다. 이 때문에 1935년 광주 실업인들이 창고회사를 세우려 할 때 사회운동을 하는 대부분 사람은 이름을 올리는 것을 주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김범수만은 이에 개의치 않고, 광주물산창고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본인 이름을 올리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그에게는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이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그는 늘 사회주의자나 우파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20) 조선중앙일보, 1935. 9. 19.

실력양성운동과 신간회

1. 민립대학설립운동과 최한영

1) 민립대학설립운동에 앞장서다

1910년 국권 피탈 당시 전라남도의 행정 중심지로 성장한 광주는 빠른 속도로 식민 경제 지배체제에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 전통적 산업 기반을 가진 한국 상인들과 상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있었지만 우세한 자본과 일제의 일방적인 일인 상인 지원책에 밀려 역부족 상태에 있었다.

행정의 중심지로 인구 유입과 유동인구가 많은 광주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정기 시장인 5일장이 두 곳이나 있었다. ‘작은 장’, ‘큰 장’이 그것인데 ‘큰 장’은 현재의 양동시장 부근의 하천에 ‘구력(旧曆) 2’의 날에 3회 개장되었고, ‘작은 장’은 부동정 밖 광주천변의 옛 적십자 병원 인근에 ‘구력(旧曆) 7’의 날에 3회 개장되었다. 큰 장은 광주의 제일 큰 장시였다. 작은 장은 뒤에 원래 있었던 자리보다 밑으로 내려와 ‘구동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었다. 다음은 두 시장의 거래량 통계이다.

연도별	큰 장	작은 장
1912	68,637,000圓	7,142,000圓
1916	106,586,000	12,000,000
1921	207,520,000	24,629,000
1924	245,439,000	26,629,000

1912년에 비하여 10여 년 후인 1924년을 보면 3배 이상 거래액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광주의 상권이 급속도로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이때 유통량이 많은 품목은 미곡류였다. 이 무렵 한국인 상인들이 주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을 형성한 것과 달리 일본 상인들은 1911년 ‘염옥(塩屋)’이라는 상호의 전방(塵房, 가게)을 현재의 충장로 2가 우리은행 광주지점 건너편에 일용잡화점이 들어선 것을 표시로 충장로 일대에 일본인 상가가 형성되었다.

3·1운동 이후 조선의 민중들은 스스로 실력을 길러야만 생존권 확보와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실력양성운동은 일제가 제한적으로 인정한 ‘문화운동’과 결합되어 나왔다는 비판도 있다. 문화운동에는 ‘부르주아 주도의 실력 양성론’과 일부 사회주의자들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이 내재되어 있었다.

민립대학 설립 논의는 1920년 6월 20일 한규설, 이상재 등 91명이 발기한 조선교육회 발기회가 개최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이러한 교육활동을 인가받고 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막상 인가는 쉽게 내주지 않아 활동이 늦어졌다. 일제는 1922년 조선교육령을 개정하기 직전 교육활동의 인가를 내줬다.

1923년 3월 민립대학기성회의 취지문은 이 운동을 하게 된 배경이 나와 있다.

“우리들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까? 정치냐, 외교냐, 산업이냐? 물론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다 필요하도다. 그러나 그 기초가 되고 요건이 되며 가장 급무가 되고 가장 선결의 필요가 있으며 가장 힘 있고 가장 필요한 수단은 교육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곧 교육을 통해 민족운동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여 민족의 독립을 달성하고자 한 열망이 민립대학 설립운동으로 표출되었다. 이 운동에는 동아일보 주간으로 있었던 장덕수가 참여하고 있던 조선청년연합회

도 참여하였다. 이 조선청년연합회는 장덕수 등 상해파 공산주의 그룹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민립대학 설립 논의는 조선교육협회가 구상하고 동아일보가 공론화시켰고, 조선청년연합회가 호응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동아일보는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부르주아 혁명의 전 단계로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려 하였다.

“유산자 무산자가 합하여 조선사람의 지식을 발달하기 위해 교육사업에 철저히되 모발을 뽑아서라도 교육비 부담에 인내할 때까지 철저히 보통교육을 완비하고 또 금년도 사업으로는 민립대학을 필히 기성함이 가할까 하며 경제문제에 대하여는 묵하 자본주의의 횡포를 방지하는 도리가 오직 조선민중의 단결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으니”

그런데 민립대학기성준비위원 47명의 성향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¹⁾

민족주의계	기독교계(11인)	이상재, 이승훈, 강 우, 정대현, 장두현, 이상협, 이갑성, 김일선, 박희도, 김우현, 김정식
	천도교계(3인)	이종훈, 최 린, 강인택
	불교계(1인)	한용운
	기타(15인)	현상윤, 허 현, 송진우, 임경재, 장응운, 백남규, 설태희, 신명균, 최순택, 명이환, 유진태, 남궁훈, 한인봉, 최규동
사회주의계 (7인)	화요회계(2인)	홍덕유, 김병희
	서울파(2인)	이시완, 강제모
	상해파(2인)	장덕수, 정노식
	알수없음(1인)	고용환
관변유력자 (7인)	관료(4인)	고원훈, 유성준, 박승봉, 이현식
	자산가(3인)	오현옥, 이종준, 강백순
판단하기 어려움		이광중, 홍성걸, 이봉화

1) 우윤중, 2015, 「민립대학 설립운동의 주체와 성격」,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민립대학기성준비회에서는 조선교육협회·조선민우회·조선청년회연합회·물산장려회·언론기관 등 다양한 단체의 관계자들이 두루 참여하였다. 이들은 겉으로는 ‘사회의 진화’를 위한 교육운동의 일환으로 민립대학을 설립하려 함을 내세웠으나, 실은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거국적인 민족운동으로 발전시키려 하였다.

위 표에 있는 인물 47인을 분석하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계열은 물론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3·1운동을 주도한 인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3·1운동 이후 분화되어 가는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고 전 조선인이 단결하여 거국적인 민족운동을 일으키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민립대학기성준비회에는 기독교, 천도교계, 교육계 등을 망라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에서 모두 참여하였다.

그런데 민립대학기성준비회에는 조선교육협회에서 유입된 관변 조선인 유력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혁명적인 운동으로 바뀌는 것을 막고 순수한 교육운동으로 이끌어가려고 하였다.

민립대학기성준비회가 결성되자 민립대학기성준비회와 동아일보는 기성회를 정식으로 창립하기 위해 지방부 발기인 모집에 착수하였다. 이 운동에 조선일보와 매일신보 등 주요 언론도 환영하였다. 다만 총독부 기관지 격인 매일신보가 환영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의 민립대학 설립운동 환영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민립대학을 설립코자 유지 간에 운동 중이라 한 즉, 이는 실로 환영할 일로 당국에서는 가급적 편의와 원조를 주고자 한다.”

총독부도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총독부가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식민지 지배체제 내로 흡수하려 한 방침의 반영이었다. 지방부 발기인 가운데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오른 인물도 있었는데, 이들을 통해 총독부가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관여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제는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공식적으로는 지지한 것처럼 하였으나 민족감정이 심상치 않았을 때는 개입하여 저지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1923년 9월 관동대지진 때 일제에 의한 조선인 학살 만행이 자행되어 일본에 대한 우리 민족 감정이 격앙되자 강연회를 금지하기도 하였다.

민립대학 설립기성회 발기인 선정 방법은 전적으로 각 지방에 위임하였다. 곧 설립 취지에 찬성하는 단체이기만 하면 단체의 이념적 성격이 타협적이건, 비타협적이건 간에 성향을 불문하고 받아들였다. 발기회 선정 절차 만큼은 지방부가 중앙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성준비위원회에서는 발기인 모집 발송 안내문을 발송한 후 1922년 12월 13일 오후 4시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지방에 보낼 중앙 간부 4명을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전남 지역에 파견된 이는 백남진이었다. 그는 1923년 1월 3일부터 1월 14일까지 전라도 곳곳을 순회하며 강연활동 등을 통해 지방부 결성을 독려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였다.

2) 광주·전남지역에서 전개된 민립대학설립운동

민립대학 설립기성준비회 중앙부에서 지역 책임자를 파견하여 지방부 설립을 독려하자 각 지역에서도 이 취지에 동조하고 나섰다. 광주에서도 광주군 지방부 결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지방부 설치와 관련된 당시 신문 보도 내용이다.

① 민대기성회(民大)기성회 광주군 지방부

민대 기성회 광주군 지방부

전 군민 일치 가결로 전남 광주군에서는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 광주 지방부를 조직하기 위하여 광주 유지인사들이 창립총회를 열고 의결한 결과 지방부를 조직하고 다음과 같이 위원을 선정하는 동시에 회무 진행에 대대적으로 활동한다고 한다.

집행위원장 김상순

집행위원

조만선 서정희 범재풍, 정순환, 박봉주, 김홍선, 김영기, 박하정, 이기-
김용호, 박기준, 김영규, 김형옥, 최한영, 박봉주, 김상순, 지창선, 양영목,
장경두, 김복수, 정석모, 서우석, 전도, 유병순, 유강렬, 최용숙, 나종우,
강운변, 최달석, 박승주

상무위원

지창선, 최한영

회금보관위원 : 현준호, 최선진

감사위원 : 최영운, 최장전²⁾

광주에서는 5월에 지방부가 조직되었다. 위 신문에 자세히 당시 상황이 나와 있는데, “광주군에서는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 광주지방부를 조직하기 위하여 광주 유지인사들이 창립총회를 열고 의결한 결과 지방부를 조직하고 다음과 같이 위원을 선정하는 동시에 회무 진행에 대대적으로 활동한다고 한다.”하고 하는 데서 당시 상황을 살필 수 있다. 창립총회에 이름을 올린 이들이 모두 36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명단에 올라 있는 이들의 행적을 아타깝게도 모두 알 수 없다. 다만 그 인물들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 꽤 있다. 우선 재력이 있는 인물이 많이 참여하고 있음이 얼른 눈에 띈다. 당시 광주의 대표적 자산가인 현준호, 최선진, 지창선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서정희, 최한영 등 광주 3·1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최한영이 자본가인 지창선과 함께 상무위원에 올라 있는 것도 주목하다. 이는 민립대학설립기성회 지방부 설립에 최한영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담양에서 농민운동을 활발히 하던 전도 역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민립대학기성회 중앙부와 마찬가지로 광주 지방부 구성원의 스펙트럼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2) 조선일보 1923. 5. 24.

다음은 민립대학설립기성회 지방부인 광주부의 내용이다.

②-1. 민대광주부 임원회

6월 24일 광주홍학관에서 민립대학 기성회 광주지방부 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 김상순씨의 사회 아래 회계보고와 먼 순회선전보고 및 결의안 제5조 제1항 및 단서 개정의 건과 예산 통과 및 기타 사업 진행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 폐회 후 하오 8시부터 위원장 김상순씨가 동운여관으로 각 임원을 초대하여 만찬회를 개최하고 위원장 김상순씨의 위로담과 상무위원 최한영의 감상담이 있었다.³⁾

②-2. 민대위원 초대

민립대학 기성회 광주지방부(地方部) 위원장 김상순씨는 지난 24일 동 부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제씨를 동운식당에 초대하여 만찬회를 개최하고 김상순씨의 위로사와 최한영씨의 감사 이야기가 있는 후 오후 11시 무렵 산회하였다.⁴⁾

②-1에서 ②-2까지의 내용은 같은 사실을 각기 다른 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홍학관에서 1차 임원회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상무위원 최한영의 감상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모두 보도한 것을 보면 최한영이 앞서 추측한 대로 민립대학설립기성회 광주지역 지방부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3. 광주군 임원회

민립대학기성회 광주지방부에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당지 홍학관에서 임원회를 열고 위원장 김상순씨의 개회사와 상무위원 최한영씨의 경과 보고 및 회계보고가 있는 후 선전방침과 회원 모집에 착수할 일을 협의한 후 오후 6시에 폐회하였다.⁵⁾

3) 동아일보, 1923. 6. 30.

4) 매일신보, 1923. 7. 2.

②-4. 민립대 지방임원회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광주지방부에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광주 청년회관 제2호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회의 순서에 의하여 위원장 김상순씨의 개회 아래 상무위원 최한영씨의 점명과 전회록 낭독이 있었고, 감사위원 최창전씨의 회계가 있는 후 건전에 관한 건과 회원모집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등이 지방형편과 기타 상황을 신중 협의한 결과 광주면 각각 촌리 합하여 22개소에 조선인 호구 2,770호에 대한 회원 모집은 각 위원 등이 각자 동리로 나누어 모집하기로 만장일치하였고, 임원은 각자 동리 형편에 따라 증원도하기로 가결한 후 동 5시 반에 폐회하였다.⁶⁾

②-3과 ②-4는 같은 사실을 각기 달리 보도한 언론의 보도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광주면 22개소 전 지역을 방문하여 홍보를 통해 회원 확보를 독려하자는 내용이다. 이 회의를 상무위원 최한영이 주재하고 있음이 보인다. 이는 최한영이 광주에서의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최한영 등은 방학을 맞아 광주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여 사람들에게 직접 민립대학설립기성회의 성격 및 이 운동의 중요함을 널리 알리려고 하였다.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대선전순회 강연

조선민립대학기성회 광주지방부에서는 금번 하기휴가로 귀성한 동경 유학생을 초빙하여 민대취지선전순회강연단을 조직하여 광주 각면을 순회강연하였다는 데 연사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제1대

연사 장영규 김갑수 김광진 송정면 동곡면 극락면 서창면 대촌면 효천면 지한면

5) 동아일보, 1923. 7. 11.

6) 매일신보, 1923. 7. 13.

제2대

연사 최정두 김태열 최한영 임곡면 하남면 우치면 비아면 본촌면 석곡면 서방면⁷⁾

최한영 등이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민립대학설립운동을 홍보하고 회원 확보를 위해 ‘민대취지선전순회강연단’을 조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조직을 마무리한 각 연설팀의 인적 구성원이 눈에 들어온다. 곧 2대의 강연팀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보면 광주 3·1운동의 주역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정두는 김범수와 함께 서울에서 내려와 2.8독립선언서를 장성 김기형 처가에서 인쇄하였고, 김태열 또한 2.8독립선언서를 장성에서 김범수와 함께 인쇄하였다. 최한영은 광주 3·1운동에 필요한 유인물을 인쇄한 인물이다.

결국 민립대학설립기성회의 중앙부와 마찬가지로 지방부도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자들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인물이 구성원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광주의 경우 당시 명망가들이 대거 참여한 것은 최한영이 좌·우를 넘나들며 이들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이었다. 최한영 등의 노력으로 민립대학기성준비회의 발기인 숫자가 전남 22개 전 지역에서 115명이 참여하는 등 조직율이 100%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민족협동전선 구축과 최한영⁸⁾

1920년대~1930년대 초 민족해방운동은 크게 두 갈래의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 민족주의의 운동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의 운동이었다. 이 두 갈래의 큰 흐름은 민족운동의 이념·방법·주도세력 등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1926년 말 조선 내에서 사상단체가 ‘350’개가 있었다고 한

7) 조선일보 1923. 7. 31.

8) 윤효정, 2017, 「신간회 운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다. 우리 민족운동의 분열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민족협동전선으로 창립한 것이 신간회였다.

1927년 2월부터 1931년 해소될 때까지 존속한 신간회는 본부는 서울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지회가 120-150여 개 있었다. 회원수도 4만 가가이나 되었다. 이 가운데 전남에는 23개 부군 가운데 14곳에 지부가 설치되어 함북, 경남, 경북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지부 설립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른 많은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남의 신간회 역시 청년단체들이 주도하여 결성하는 곳이 많다. 특히 사회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간회의 조직과 강화에 나섰다. 전남에서는 신간회가 제3, 4차 조선공산당 조직들이 밀집되어 있던 전남의 북부와 서남부 지역에서 많이 조직되었다.

반면 동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신간회 설립이 부진하거나 뒤늦은 편이었다. 노선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동부 지역 사회주의 세력이 대탄압으로 위축되어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던 것이다. 실제 1, 2차 조선공산당 관계자들이 석방되고 나자 동부 지역에서도 신간회 조직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회의 설립 단위는 행정구역 부, 군과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광주와 별개로 지회를 만든 송정이 대표적이다.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되었지만, 전통적으로 별개의 생활권을 유지하던 지역에서 별개의 신간회 지회를 구성하려 한 경우도 있다. 행정구역상으로 화순군에 속한 능주, 강진군에 속한 병영, 해남군에 속한 우수영, 곡성에 속한 옥과에서 지회를 조직하려 했으나 대부분 설립준비위원회만 구성하고 실제 조직하지는 못했다.

전남북에 걸쳐 민족운동가들 사이의 연대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던 서울청년회의 중심인물들이 조선민홍회와 신간회의 합동을 주도하면서 신간회 창립을 이끌었으며 본부 상무 간사로 활동하였다. 목포지회의 조극환, 장병준, 설준석, 김철진, 장성 지회 김시중, 나주 이항발, 구례의

선태섭, 광주의 강한길 등이 그들인데 이들은 완도에서 송내호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수의위친계 회원들로 회원 상호 간에 지속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송내호는 확인되는 것만 해도 전남지역 신간지회 결성에 다섯 차례나 본부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지회명	설립년월	비고
함평	1927. 5.	
구례	1927. 6.	
목포	1927. 6.	
별교	1927. 7.	
장흥	1927. 7.	
영암	1927. 8.	
완도	1927. 8.	
나주	1927. 9.	

각 군 신간회 지회 결성과정에서는 청년단체들이 큰 역할을 했다. 신간회 함평지회가 창립하기 전 함평에서는 함평 청년회와 함평청년연합회 등이 신간회를 지지하고 나섰다. 함평청년회에서는 ‘신간회 축성을 결의’ 하고 함평 청년연합회에서는 ‘좌익 민족주의 대표기관인 신간회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을 결의하였다.

1927~28년 지회 결성을 완료한 신간회는 원래 지회 대표들이 모두 참가하는 정기대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일제 경찰이 금지하는 바람에 계속 정기대회를 열 수 없었다. 규약의 개정이나 임원 개선 등 필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일제 경찰의 술책이었다. 그리하여 각 지회에서 규약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몇 개의 인접 지회가 합동으로 한 사람의 대표를 선정하고 이 복대표들이 모여 정기대회를 여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1929년 6월 28~29일 열린 이 대회를 복대표대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신간회는 임원진을 개선하고 지회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규약을 채택했다.

전남에는 목포, 장흥, 강진, 완도 지회가 합동하여 목포구를, 함평, 장성, 송정, 나주지회가 송정구를, 광주, 강진, 담양, 영광이 광주구 등을 형성하고 장병준, 김시중, 정수태를 대표로 파견했다. 북대표대회는 6월 29일 각 도마다 한 사람의 전형위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중앙집행위원과 중앙검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전남에서는 장병준이 13인 전형위원 중 한 사람으로 선출되어 집행부의 조직에 참여했다. 1920년대 후반이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나가고 있던 시기였고,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 사회주의적 경향이 절대적이었던 만큼 신간회의 각 지회를 실제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사회주의자들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신간회 지회에는 확고한 민족주의 세력이나 종교인, 자산가, 교사, 변호사 등 유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 지회에서 갈등이나 대립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이념적 대결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1931년 신간회 해소 당시의 논쟁 국면에서 사회주의자 다수가 해소를 주장하기는 했으나, 좌파 가운데서도 해소반대론자들이 있었으므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대결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신간회는 각 지회마다, 시기에 따라 다른 활동 상황을 보인다. 전남 지방은 사회주의 청년운동의 세력이 강력했지만, 지회마다 사정이 달랐다. 신간회 광양지회는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였다. 김완근, 정진무, 신명준, 정순화, 정순제 등은 광양 사람으로 조선공산당에 관계했다. 조선공산당 관계자들이 간부진에 참여하여 조직적 주도권을 장악했으며 광양 농민 운동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다. 광양지회가 1929년에야 비로소 조직되었던 것도 김완근, 정순화 등이 제1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이때 비로소 석방되었기 때문이었다. 1929년 9월 8일 설립된 신간회 광양지회는 집행위원장에 신명준을 선출했으며 정순화가 조직선전부장, 김완근이 조사부장이 맡았고 김정진무가 검사위원에 선임되었다. 또다른 검사위원인 김학근은 김완근의 친동생으로 역시 사회주의자였다. 서기장 겸 서무부장이었던 1, 2차 조선공산당에서 핵심적

인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이 신간회 광야지부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간회 완도지회도 사회주의자들의 주도가 확연했다. 1927년 8월 28일 창립했다. 완도읍 중학원에서 열린 완도 지회 창립 총회에는 송내호가 중앙 본부 대표로 참석했으며 오석균이 사회를 보았다. 임재갑이 회장, 정동식 부회장이었으며 서무부에 강사원, 이홍세, 재정부에 박노길, 김관선, 정치문화부에 박한규, 오학균, 조직선전부에 신준희, 김병규, 조사연구부에 김장렬, 송계완 등이 각각 총무와 상무간사를 맡았고, 김동섭, 박성래, 최형천, 임재현, 박흥기, 김영현, 나봉균 등이 간사가 되었다.

이들은 완도 지역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인사들로서 강정태, 임재갑, 나봉균, 신준희, 최형천, 김병규는 모두 수의위친계와 배달청년회 출신으로 강력한 상호연대를 맺고 있는 동지들이었다.

신간회 영광지회의 창립은 민족주의자들이 참여했지만 역시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했다. 1928년 1월 4일 영광의 사회단체들이 모여 신년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신간회 영광지회 설립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바로 발기준비위원으로 김은환, 조용남, 조희충, 남궁현, 임영수, 정동윤 등을 선출했다. 김은환, 조용남, 남궁현은 제3차 조선공산당의 영광지역 조직원들이었다. 이항발은 이 무렵 서울에서 주로 활동했으므로 지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1929년 당시 집행위원장 김창용은 이항발의 절친한 친구였으며, 나주농민조합 조합장을 역임한 사회주의자였다. 서기장 박공근은 사회주의 사상단체 효종단 출신이며 나주 청년운동의 핵심인물이었다. 상무집행위원 중 김형호, 최남구, 송상기 등이 사회주의 계열이었고, 메이지 대학을 졸업한 박준삼은 지주였다. 감사위원장 서형규도 2천석 지기의 지주였다.

신간회 목포지회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참여, 운영했다. 기독교 장로였던 김면수가 최연장자로 회장직을 맡았고 장병준, 김상규 등 임시정부 계열의 운동가, 변호사 등 우익인사들과 김철진, 서병인, 설준석, 조극환, 배치문 등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어느 정도 균형

을 이룬 곳이었다. 장병준은 보성학교 출신으로 서울청년회 계열의 인사들과 학맥이 연결되어 있었고, 송내호와 교류가 있었으니 좌우의 대립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문제는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발생했다. 조극환과 서병인, 김영식은 전위 동맹부터 함께 활동했는데, 이 무렵 극단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했다. 조극환 계열이 김영식은 이미 신간회 경성지회 회원이므로 목포지회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분이 지회 활동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운동까지 혼란스럽게 했다.

한편 사회주의자들의 영향력이 비교적 적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신간회 광주지회다. 1927년 10월 신간회 광주지회 창립대회에서 회장 최홍중, 부회장에는 정수태가 선임되었다. 최홍중은 3·1운동에 참여했던 지역 기독교계의 원로였다. 또 정수태는 곡성 대지주의 아들이며 민원식이 주도한 참정권 요구 운동에 참여하여 대표단의 일원으로 도교를 방문했다. 또 1926~1927년 전라남도평의회 의원까지 역임했던 인물이었다. 1929년 9월 신간회 광주지회는 임시대회를 개최했는데 정수태가 집행위원장에 임명되었고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들은 대부분 탈락했다.

한편 신간회 광주지회는 본부와 충돌하기도 했다. 1929년 7월 4일 집행위원장 허헌이 소집하여 중앙상무집행위원과 각 부 부장과 부원을 선출한 중앙 상무 집행위원회는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것이었다. 신간회 본부는 광주지회의 문제 제기를 반동적인 것이라 일축했지만, 광주지회는 집행위원장이 변호사 자격을 문제삼았다. 문제가 커지면서 허헌은 변호사 업무를 휴직했고, 1929년 10월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정수태를 제명하고 광주지회를 해산시켰다. 김병로가 1930년 11월 중앙집행위원장에 선임된 이후 중앙 집행위원회가 광주지회를 복권하기는 했으나 근 1년 동안 신간회 광주지회는 해산상태였으니 광주학생운동 당시에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하자 11월 4일 신간회 광주지회가 상황을 본부에 알렸다. 광주지회에서는 임시대회를 소집하려 했으나 중앙상무집행위원회가 이를 보류하고 우선 진상을 파악

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신간회 본부의 집행위원장 허헌, 서기장 황상규, 회계 김병로가 직접 광주로 내려와 청년연맹 위원장 장석천과 회담하고 전국적 확산을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 이후 광주 지역에서 2차 시위가 벌어지면서 광주 지역은 계엄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신간회 본부가 직접 나서면서 광주 지회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다.

신간회 본부는 11월 15일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진상조사서를 작성하여 발표할 것, 진상보고 비판 연설회를 개최할 것 등을 결의했다. 11월 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집행위원들에게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비판연설회를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결의했다. 그러나 총독부 당국의 불허로 연설회 개최가 좌절되고 12월 들어 서울 지역 학생 시위가 확산되자 민중대회 개최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1929년 12월 10일 집행위원장 허헌, 상무집행위원 홍명희, 경성지회장이며 교육부장 조병옥, 학생부장 이관용 등이 서울에서 벌어진 대규모 광주학생운동 지지 시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고 민중대회 개최, 시위 운동의 전개 등을 시도했다. 신간회에서는 이렇게 전국적이고 민중 전체가 참여하는 대중 투쟁으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12월 13일 이후 허헌 등 지도부가 전격 체포되며 실패했다. 그러나 각 지회로 민중대회와 시위를 촉구하는 통지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 시위의 실상을 알리고 운동을 촉진하는 데는 크게 기여했다.

전체적으로 전남의 신간회 지회들은 조직 이후 기대만큼 활발한 활동을 보이지는 못했다. 목포지회의 경우처럼 지역에서 발생한 소작쟁의나 사회문제에 대한 조사,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 연대를 시도하는 사례들은 간혹 발견되지만,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 청년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경우는 많지 않다. 조직의 중추가 되었던 사회주의자들이 1928년 제3, 4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대규모로 구속되는 바람에 역량이 크게 약화되었고, 그 와중에 심각한 계파 간 대립을 벌이고 있었던 것도 한 원인이다.

또 1929년 말~1930년 초 광주학생운동과 민중대회 사건으로 중앙집행위원장 허헌이 구속되는 등 본부 조직이 타격을 입은 후 개선된 김병로 집행부의 '온건 노선'은 본부와 지부 사이의 대립을 조장하고 있었다. 사회주의자 노선의 전반적인 좌경화도 신간회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조선공산당이 계속 붕괴하자 1928년 12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는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은 지식인 중심의 운동을 중단하고 노동자 농민 등 기층계급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당 재건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정서를 작성했다. 흔히 12월 테제라고 하는 이 결정서가 신간회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개량주의를 거부하고 노동자 계급 중심의 계급대 계급 전술을 강조하는 코민테른의 노선은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신간회 해소론이 대두하도록 했다.

한편 광주에서 신간회가 출범하자 최한영도 적극 참여하였다. 다음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1927. 11. 3. 동아일보 신간회 광주회 임원회

광주에서도 지방유지들이 발의하여 신간회 광주지회를 설립하였다는 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지난 달 31일 오전 9시부터 제1회 인원회를 최홍종씨 사회로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총무간사 및 부서를 배정한 후 금일부터 각기 상당 사무를 집행하기로 한 후 동 11시에 산회하였다.

서무 최중섭 범윤두 김응규
재정 한용수 김홍선 간다식
출판정치문화 최장전 최한영 김태오
조사연구 문태곤 김철 전도
조직선전 전용기 정해업 국채진

② 1927. 12. 16. 신간회 제2회 정기총회(매일신보 1927. 12. 20.)

광주홍학회관 의장 오영씨 사회로 각부의 경과보고 받은 후 결의안과 구체적 행동의 안을 확정하고, 본부대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임원을 선거하였다.

회장 최홍중 부회장 정수태, 간사 이운호 국채진 김철 장순기 김재명
최종섭 전도 손석천 김응규 한용수 김용기, 범윤두, 정해업 최상식 김태
천 김홍선 문태곤 강해석 최한영

앞서 언급되었듯이 광주 신간회의 구성을 보면 자본가 계열과 사회주의 운동계열이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광주청년회 활동을 한 인물들이 주로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계열 인물들은 김재명, 강해석을 제외하고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대부분이 중도적이거나 오히려 중도 우파 성향을 띤 인물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사회주의 계열 인물들이 신간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두 진영의 갈등이 일단 봉합되었음을 말해준다.

3. 실력양성운동과 최한영

1) 광주실업청년구락부 조직

광주가 근대적 도시로서의 성격을 갖추게 된 것은 시가지를 확장하여 인구가 5만에 달하게 됨으로써 광주읍이 부로 승격하고 부(府)제를 실시한 1935년이 전환점이 되었다.⁹⁾

1929년 세계공황으로 광주 경제도 어려움에 빠졌는데, 이 무렵 일본인이 경영하는 대표적 회사로 전남도시제사(全南道是製絲)¹⁰⁾·종연방직 광주제사공장¹¹⁾·약림제사(若林製絲¹²⁾)·광주양조회사 등이 있었다. 일본인 회사를 제외한 조선인은 여전히 대지주의 거점도시로 소비도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광주의 실력자들은 여전히 대지주들이었으며 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광주면상담역, 면협의회회원이 되고 있었다.

9) 『광주시사』, 1980.

10) 전남도시제사는 1926년에 자본금 2백만원에 설립되었다.

11) 종연방직제사공장은 1930년 자본금 6백만으로 설립되었다.

12) 약림제사는 1930년 설립되었고, 연생산고 3만근이었다.

이 무렵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이 그들의 이익단체를 만들었는데 상공회의소이다. 이 단체는 이제까지는 임의단체의 형태로 한·일 상공인이 각각 별개의 조직을 갖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광주의 젊은 기업인들은 ‘광주실업청년구락부(光州靑年實業俱樂部)’를 조직하였는데, 일본 상인들이 조직한 ‘광주상공회(光州商工會)’라는 단체에 맞서기 위함이었다.

광주실업청년구락부 조직과 관련된 당시 신문기사이다. 광주의 젊은 청년 기업가들이 중심이 되어 모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임의 대표에 최한영이 선출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모임에 광주의 대표적 자본가인 지정선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이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에 많은 시사를 준다.

① 광주실업 청년 구락부를 조직

광주실업 청년, 구락부를 조직

우리 조선에서는 자고로 상공 등의 실업은 천업이라 하여 일반이 멸시하여 왔을 뿐더러 아직까지 그 유풍이 남아 있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는 유수한 청년들이 사계(斯界)에 착안하여 점점 진출하는 중이러니 지난 11일 오후 8시부터 요정 춘목암에서 광주실업청년구락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시의장 최한영씨 사회로 규약을 통과하고 다음 임원을 선정한 후 동 12시 산회하였다.

최한영(대표) 김태환, 김양실, 하석암, 조덕환, 지정선, 한충한, 김용호, 문중구, 최동호¹³⁾

② 광주소비조합(합) 발기인 총회

지난 10일 오후 3시 광주 금정 7번지에서 광주 소비조합 발기인 총회를 열고 다음 사항을 토의하였다.

13) 동아일보 1929. 3. 14.

간부보선

최원순, 최한영, 김홍선, 지창선, 최준기, 조창준, 최남립, 최춘열

결의안

1. 차기집행원회 오는 3월 20일

1. 회무 정리에 관한 건

1. 회관당직에 관한 건¹⁴⁾

최한영은 민족자본 축적을 위해 조선인 상인들의 힘을 결집할 필요를 느꼈다. 광주실업청년구락부의 창설은 광주상공회의 발족보다 후의 일인데, 이 구락부를 창설하게 된 것은 일본 상인들이 상공회를 조직하여 일본 등지의 유명 상품을 싼값으로 대량 공동 구입하여 한국인 상인의 상권을 위협하는 한편 관청, 학교 등에 납품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국인 상인들이 결속한 조직체였다.

광주실업청년구락부의 중심 인물은 최한영¹⁵⁾·심상엽(沈相燁)¹⁶⁾·유현상(劉賢相)¹⁷⁾, 총장로 4가 공익상회(公益商會) 등인데 대표에는 최한영이 선출되었다. 이 무렵 최한영은 고무신 대리점을 통해 재력을 축적하였다. 그는, 후술되지만, 독립운동가였다 청년 운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였기 때문에 광주 재계에 미치는 그의 힘은 매우 컸다. 호남의 신흥 재벌로 여수에서 천일고무를 운영하던 김영준조차 그의 대리점 경영자에 불과한 최한영을 극진히 우대하고 있는 사실은 좋은 증거이다.

최한영은 광주실업청년구락부를 결성한 후 첫 사업으로 ‘광주상민대운동회(光州商民大運動會)’를 개최하였다. 현재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정인 ‘묵은 바탕’에서 개최하였는데 광주의 한국인 상인과 종업원이 거의 참가하여 단결과 의비를 과시하고 민족의 울분을 달랬다. 이상민대운동회는 상공회의소가 발족된 후에도 연례 행사로 개최되었다.¹⁸⁾

14) 조선일보 1929. 3. 16.

15) 고무신 상인이었다.

16) 포목상인이었다.

17) 포목상인이었다.

이때가 최한영이 광주청년위원회에서 활동할 때의 일이다. 최한영이 청년운동과 더불어 젊은 실업가들을 중심으로 단체결성을 추진한 것은 광주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상인과 맞서기 위해서였다.

최한영은 청년 실업가 중심의 '광주실업청년구락부'를 광주 조선인 실업가 전체를 아우르는 광주상업회(光州商業會)를 결성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31년 6월 9일 광주 삼산당(三山堂)에서 발기인 총회를 열고 6월 16일 호남은행에서 창립총회를 하기로 하였다. 최한영이 준비위원 겸 취지 기초위원이 되었다. 최한영이 민족기업가 중심의 단체를 결성하려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6월 16일 광주상업회가 창립되었다. 최한영의 큰형 최남립이 사회를 본 가운데 최한영이 창립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최한영 형제가 광주상업회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창립총회에서 제 일성으로 전기요금 인하, 차가(借家, 전셋집) 인하, 상민(商民)대운동회 개최 등을 결의하였다. 최한영이 전기요금 및 전세금 인하 등의 주장한 것을 통해 최한영이 광주상업회와 같은 단체를 결성한 목적이 단순히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민생 문제 해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주에서 한, 중 국민이 충돌하는 상황이 일어나¹⁹⁾ 서울, 광주 등지의 중국집이 공격을 받자 1931년 7월 9일 광주상업회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1932년도에 광주상업회 2차 정기총회 관련 기사이다.

18) 매일경제, 1984. 2. 16.

19) 만보산 사건을 말한다. 1931년 7월 1일 길림성(吉林省) 장춘현(長春縣)에서 서북방 30km지점인 만보산 밑에 사는 한인 300여 명이 논농사를 위해 용수로로 건설하였다. 중국농민들은 농수로가 완성되면 수원이 범람할 위험이 있다고 하여 공사를 막는다. 이과정에 양국인 사이에 마찰이 생기는 데 일제는 양국인을 이간시키기 위해 한인이 중국인에게 피살된 것처럼 보도한다. 이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만주에서 조선 동포들이 당하였던 그동안 감정 및 일제 식민 지배 하에서 쌓였던 민족 감정이 폭발하여 7월 4일 평양과 인천 등지에서 화교들이 집단 공격받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광주에서도 화교들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가게가 공격을 받았다.

① 광주상업회총회

(광주)광주상업회에서는 지난 3일 오후 4시부터 숭명학교 강당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최호식씨 사회로 개최하여 임시 집행부를 선정할 때 의장 최한영 서기 장남규, 사찰 강태성 김영필 등 제씨가 피선 승적하여 회순대로 진행할 때 강태성씨로부터 회계보고 최남립씨로부터 경과보고가 있는 후 임원을 개선하고 다음 사항을 결의한 후 6시에 무사회 산회하였다고 한다.

신임위원

고재섭 김영필 박병길 고광인 정운채 유현상 최한영 장남규 유연상 강태성

결의사항

1. 제2회 시민대운동을 개최할 일
2. 의연금 미수조(未收條)를 종속히 징수할 일
3. 회원장을 제조하여 분배할 일²⁰⁾

최한영이 여전히 상업회 의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시민대운동회 추진과 의연금 모금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시민대운동회와 의연금 모두 민족의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일제는 최한영 등이 중심이 되어 ‘광주상업회’를 결성하자 이를 방해하고 나섰다. 1935년 광주읍이 부로 승격한 것을 빌미로 일본 상인들의 모임체인 광주상공회 측은 한·일 두 단체가 통합하여 광주상공회의소를 설립할 것을 광주상업회 측에 제의하였다. 최한영 등은 일본인이 주도한 상의에 들어가는 것이 반가운 것은 아니었으나 결국은 일본 상인과 경쟁하여야 한다는 생각 끝에 들어가기로 결정한다.

최한영은, 일본 상의 측 대표들과 만나 상의(商議) 발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 협의하였다. 최한영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부회두 가운데 1명은 한국인, 상임의원 7인 가운데 한국인은 3인으로 하기로 하였다. 마침내 1936년 12월 광주의 한, 일 양국 상인들이 조직체인 광주

20) 동아일보, 1932. 9. 7.

상공회의소가 설립되게 되었다.

① 매일신보 1937. 4. 3.

광주상공회의소 초대 임원 선정

광주상공회의소는 창립이래로 제반 사무가 순조롭게 진척되어 전일에 선거된 의원의 첫 총회를 지난 2일 오후 1시 40분부터 광주부청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임원을 건거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두 1인 부회두 2인 당의원 5인을 각각 선정하였다.

회두-마홍작, 부회두 김희성 가등기차랑, 당의원 최한영 지창선 강신일 각치삼랑 궁기영희

② 조선일보 1937. 4. 6.

광주상공회의소 정부(正副) 회두(會頭) 결정

광주상공회의소 초대의원 선거는 3월 20일에 거행되어 정원 18명이 선정되었다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이 일에 부 회의실에서 최초 의원의 회합이 있었는데 회두와 부회두급 5명의 상무위원을 선정하였는바 다음과 같다.

회두 상마여작 부회두 김희성, 가등기삼랑

상무의원 지창선 강신일, 각치삼랑 최한영, 궁기영희

한·일 실업가들이 함께 결성한 광주상공회소에 한국인으로, 부회두로 김희성(수기동 정미업), 상임의원으로 지창선, 최한영, 강신일이 선임되었다. 그러나 설립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7월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전시경제로 전환되는 바람에 상공회의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가 해방 직전인 1944년 9월 ‘상공경제회(商工經濟會)’로 개편되었다가 해방 후인 1946년 7월 광주상공회의소로 재발족하였다. 천일고무공장을 운영한 여수상공회의소 회두인 김영준을 앞세워 전라남도상공회의소를 조직하였다. 부회두 조천섭(광주) 강선명(목포) 오영식(순천)이었다. 2대에는 서재홍이, 3대 회두에는 금호그룹을 세웠던 박인천이 등장했다.

한편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추진하였던 최한영은 민족 교육에도 관심

을 가졌다. 다음을 보자.

역사가 장구한 장명학원(長明學院) 비운

수원군 장안면 장안리에 있는 장명학원은 원래 안홍강습소로 18년간 아동교육에 유수한 기관이든 바 3·1운동 당시에는 폐문 상태에 있다가 당시 최한영, 김준식, 박종훈 3명 회 유지 제씨의 열성으로 장명학원이라고 변경하여 지지하여 오던 바 흥년으로 인하여 또 다시 폐교할 현상이라 하는 대 동 경영자들은 명함 행상을 하여 일반사회의 열렬한 동정을 받고자 한다고 한다.²¹⁾

최한영 등이 ‘정명학원’이라는 강습소의 운영을 10년 넘게 후원하였다는 내용이다. 최한영이 청년, 사회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사업가로 활동하면서 이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의 관심이 민족 역량을 제고하는 데 있음을 알겠다.

2) 일제의 경제적 침략에 맞선 자본가 최한영

최한영은 일제 강점기에 고무신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다음 신문보도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조선일보 1931. 9. 5.

난매투매방지(亂賣投賣防止)로 고무 상조(商組) 창립

지난 2일 전남광주에서

(광주) 전남 광주읍내 유수한 고무신 상점 주인 다수가 지난 2일 하오 2시에 시내 화순옥 루상에 모여 서로 친목과 복리를 증진하여 동시에 고무신 판매하고 있던 종래의 모든 폐해를 교정할 목적으로 광주시 장고무화상조합(光州市場護靴組合)을 조직하고 조합장 최남립(최보립) 부조합장 진치남 이사 송래완(송태완) 김양실, 최한영 제시를 임원으로 선거하고 오후 4시경에 폐회하였다 한다.

21) 조선일보, 1929. 4. 18.

최한영은 광주에서 고무신 대리점 조합을 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고무신 대리점을 운영하였음이 확인된다. 곧 시장 거래질서를 위반하고 회원 사이의 친목을 도모함이었다. 그가 이렇게 조합을 만들었던 것은 일본 자본이 시장에 파고 들어 상대적으로 빈약한 조선 상권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한영이 민족자본을 축적하려고 애쓴 대목을 알 수 있다.

조합장으로 선출된 최남립²²⁾은 최한영의 친형이었다. 최한영이 동업자였던 형을 결성된 고무신발대리점 조합 이사장으로 추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당시 유명한 천일고무신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가 다음에 설명할 천일고무대리점주 모임 회장을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가 천일고무와 언제 인연을 맺었는지는 알 수 없다. 최근 지리학자인 김경수의 신발과 관련된 글을 소개하였는데 참고될 만한 내용이 있다.²³⁾ 그의 얘기를 전제한다.

“근대 신발상점은 1910년대 남문통 상전(上田)과 북문통 관원(管原)이다. 1930년 자료에 신발장·류로 북문통 고전(高田)과 동문통 약송(若松), 양화로 수기옥정 서한권·최동섭·오태환이 나온다. 고무신 상회로는 북문통 김세라, 남문통 박동춘, 수기옥정 모전(牟田)·김진국·서봉진, 송정리 고목(高木)이 들어 있다.”

1910년대부터 근대 신발상점이 들어섰음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글에는 최한영 형제가 신발가게를 운영했다는 얘기가 없다. 그런데 그의 다음 글에서 약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22) 최남립과 최한영 형제는 우애가 깊었다. 남립이 아들이 없자 최한영의 큰 아들 일출(日出)을 양자로 입양시켰고, 훗날 최남립의 아내인 형수를 최한영 집에서 모셨다고 한다.

23) 김경수, 우리 땅 최초, 광주매일신문, 2023. 4. 3.

“땅 이력서에 충장로3가 3번지 35평은 1920년대 지웅현 땅이다가 1930년 사정 131번지 최남립, 1932년 서한곶터가 된다. 김세라가 김세 상회를 운영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호남동 12번지²⁴⁾ 72평은 1935년 국 유지(광주면)였다가 1933년 강본(岡本), 1935년 사정 131번지 최한영이 소유한다.²⁵⁾”

최한영의 형인 최남립이 광주 대지주 지웅현으로부터 1930년 사정 131번지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토지가 다시 최한영의 소유로 넘어갔음을 알 수 있다. 최남립이 지웅현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은 고무신 대리점 규모를 확장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한다.

이로 미루어 최한영 형제가 고무신 대리점을 운영한 것은 1920년 대중반이후가 아닐까 한다. 천일고무는 부산에 1923년에 조선인이 세운 고무신 공장이었다.

천일고무신 공장은 17세에 일본에 건너가 고무신 공장에서 일했던 경남 의령 출신 김영준이 귀국하여 1923년 부산 수정동에 ‘천일고무신공장’을 세운 것이 시작이었다. 상표는 타원형에 ‘천(天)’ 글자를 새긴 것이었다. 그때 부산에는 ‘환대(丸大)고무’라는 일본 재벌 고무신 공장이 있었다. 천일고무신은 민족기업으로 품질이 좋아 금방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환대고무’는 천일고무를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결국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어 회사가 환대로 넘어갔다. 이제 김영준은 환대의 종업원이 되었다. 김영준은 자존심을 버리고 다시 회사를 복원하려는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

최한영이 언제부터 고무신 대리점을 운영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1920년대 중, 후반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최한영이 1923년 세워진 ‘천일고무’ 대리점을 하였기 때문이다. 최한영이 일본인 고무신 공장에서

24) 호남동 12번지에서 최한영, 장남 일출이 거주하였다. 손녀 최은정은 이 집에서 태어났다.

25) 호남동 12번지에서 신발 가게를 하다가 현재 사동 131번지로 매입하여 최한영은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였다. 가게에 안집이 따로 있는 넓은 집이었다.

생산된 신발을 사용하지 않고 ‘천일고무’를 사용한 것은 민족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과 천일고무의 품질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천일고무가 일본인 회사에 억울하게 넘어가자 고향인 경남에서 “김영준을 도와 한국인 공장을 세우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광주에서 최한영은 천일고무를 돕자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최한영은 동업자 김양실의 동의를 얻어 전남북, 경남북, 충남북에서 천일고무 대리점을 운영한 이들을 만나 천일고무를 살리기 위한 자본출자를 제의하여 모두 15명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른바 ‘천우회(天友會)’, 천일고무를 돕자는 모임이 만들어졌다. 최한영이 회장을 맡았다. 이들은 형편껏 출자하여 김영준의 사업 자금에 보탬다. 김영준은 천우회원들의 자본 투자에 힘입어 여수 남산동에 공장을 세웠다. 1935년 천일고무회사 공장이 여수에 세워진 것도 직항로를 통해 고무원료를 일본으로부터 직접 들여와 고무제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고무제품은 전남 내륙으로 이어진 철도를 통해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한영 등의 도움으로 여수에 들어선 김영준의 천일 고무회사 시장은 그가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시장을 차지하였다. 이때 천일고무회사의 급성장 모습을 최한영은 “자고나면 커지고 눈을 뜨면 늘어났다”²⁶⁾로 증언하였다. 각 대리점들과 도매상들은 ‘천(天)’자 고무신을 구입하기 위해 미리 대금을 맡기고 줄을 지었다. 공장을 개설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분공장을 마련할 정도였다. 1937년 부산에 분공장을 신축했다.

1923년 부산 수정동에 천일고무공장을 세웠다가 그곳의 ‘태일고무’에 밀려 눈물을 머금고 1935년 여수 남산동에 공장에 세웠다가 상술한 바처럼, 여수에서 엄청난 성공을 한 바탕 위에 1937년 부산 수정동에 분공장을 지었다. 이보다 앞서 전북 이리 남중동에 공장을 세우는 등 불과 3년 사이에 조선의 고무신 시장을 완전 장악하였다. 훗날 손녀 최은정이 조부가 여수와 이리에 있는 공장에서 신발을 가져왔다고 기억하는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26) 매일경제신문, 1983. 8. 8.

한편 김영준은 민족 자본 축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던 독립운동가 출신 최한영이 회원사를 결성하여 자본 투자까지 해주니 그 이상 고마울 수가 없었다. 김영준은 최한영을 누구보다 신뢰하는 사이가 되었다. 최한영과 김영준의 관계를 설명하는 사례가 있다.

김영준은 1938년 호남화학공장을 광주 으뜸 재력가인 현준호와 공동 설립하였고, 경성고무공장의 주식도 매입하는 등 사세(社勢)를 확장하였다. 구레에 천일 제재소를 세운 것도 이 무렵이다. 특히 1938년 일본인 지주가 소유한 박간농장을 매입한 사건은 김영준을 일약 전국의 실업가로 주목하게 하였다.²⁷⁾ 이 농장을 매입할 때 김영준이 최한영을 대동하였다.

박간 농장은 ‘박간의 신화’라는 말을 낳았을 정도로 일본인 박간(迫間房太郎)의 재산이 ‘부산의 전 조선인 1만 31호’를 당하고도 남았다고 할 정도로 악덕 높은 식민지 부동산 재벌 1위 소유의 토지였다. 혹독한 소작료 징수로 소작쟁의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토지를 이름 없는 조선의 실업가가 매입하였으니 전 조선이 발각 뒤집혔고, 식민지 백성들이 느끼는 통쾌함은 컸다.

1938년 11월 김영준이 최한영을 급히 찾아 여수로 내려갔다. 최한영은 천일고무신 대리점 모임 회장을 맡고 있었다.

“목정 선생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어 갑자기 뵈자고 했습니다.”

김영준이 최한영과 함께 한 것은 그가 천우회 회장이기도 하지만 독립운동가로 지역의 신망이 두터웠기 때문이었다. 특히 김영준이 그 토지를 매입한 것은 단순히 사업이라기보다는 일본인 토지 자본으로부터 민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여진다.²⁸⁾ 이러할 때 최한영

27) 1938. 11. 30. 동아일보에, “하지마 진영농장 매도 3천여 정보 광대한 옥토”라는 제목의 사회면 톱기사로 다루었다. 매도 가격이 270만원이라 하였으니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28) 김영준은 민족기업가로 성장하였지만 태평양 전쟁 기간에 일제에 군용기를 헌납하였다 하여 친일파로 분류되어 친일인명사전에 올라 있다. 그는 1948년 10월 23일 여순사건 때 봉기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경향신문, 1948. 11. 2.)

과의 동행은 의미가 있다.

최한영은 김영준과 신뢰 속에 천우회 회장을 맡고 자본축적도 빠른 속도로 재력을 축적하였다. 이 과정에 그가 활동한 근거는 광주실업청년 구락부와 광주상업회였다. 이제 광주의 대표적인 민족자본가의 반열에 올랐다.

광주고무상조합

시국 순응을 합의하다

【광주】

재광(在光) 반도인용 고무신 판매업자로 조직된 광주고무신상조합(商組合)은 19일 오후 1시부터 본정 4정목 광산고무상회에서 임원회를 열고 해임 조합회장 최한영(崔漢泳)씨의 후임으로 김양실(金良實)씨를 선거한 후, 반시국 정신을 품고 암거래를 행하는 회원의 근절을 기하기 위해 조합원 중 규칙 위반자로부터 그 보증금 50원을 조합에서 몰수하기로 하고 암거래에 빠지기 쉬운 지방으로의 판매는 금지하기로 하는데, 만일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조합의 허가를 얻어서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산회하였다.

다음은 광주 고무신 도매상 조합에서 “시국에 순응을 보이자”라고 내용의 회의를 열었다는 신문 기사이다. 시국에 순응하자는 것은 국방헌금 등을 많이 내자는 것이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일제는 국방헌금을 강요하였다. 이 때문에 자본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모든 조선인에게 국방헌금을 강요하였다. 이를 내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광주 고무신도매상 조합에서도 성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이 운동을 조합장인 최한영이 물러난 뒤에 했다는 것이다. 최한영이 국방헌금 내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자 강제로 쫓겨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일제는 성금 납부를 거절한 최한영에게 보복하였다.

고무신 암거래한

최한영씨 신병 구속

【광주】

전 광주고무신상조회장 동 상 최한영씨는 고무신 구매로 상당한 재산을 이룬 인물인데, 지난 4월 고무신 1만 2천 8백 5켤레, 방한화 2천 1백 49켤레 운동화 2백켤레를 청구서에는 고정 도매가격으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고 사실은 고정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소매상에게 판매한 암거래 사실이 발각, 광주서의 엄중한 취조를 받고 관계자 3명과 함께 신병이 불구속된 채 가격통제법 위반범으로 조서 한 건만 송국되었는데, 이번에 동 사건계 송본(松本) 검사에 의해 신병을 구속, 광주형무소에 수용되었다.

최한영이 2중 가격표를 사용하다 구속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일제가 최한영에게 2중 가격표를 사용하였다고 누명을 씌워 잡아 가두려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가 재판받은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구속하였다가 바로 석방하지 않았나 싶다. 일본 경찰이 최한영을 누명을 씌워 체포한 것은 일제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를 통해 그가 일제의 압력에 맞선 대표적 민족자본가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제의 압력에도 그가 강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3·1운동을 일으킨 주역에다 1920년대 광주 청년운동, 사회운동의 리더로서의 그가 지닌 강한 민족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1920년대 말 안재홍이 광주에 왔을 때 최한영을 만나고 있었던 것도 그가 여전히 강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③-1 매일신보 1937. 4. 3.

광주상공회의소 초대 임원 선정

광주상공회의소는 창립 이래로 제반 사무가 순조롭게 진척되어 전일에 선거된 의원의 첫 총회를 지난 2일 오후 1시 40분부터 광주부청 회

의실에서 개최하고 임원을 건거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두 1인 부회두 2인 당의원 5인을 각각 선정하였다.

회두 마홍작, 부회두 김희성 가등기차랑, 당의원 최한영 지창선 강신일 각치삼랑 궁기영희

③-2 광주상공회의소 정부(正副) 회두(會頭) 결정

광주상공회의소 초대의원 선거는 3월 20일에 거행되어 정원 18명이 선정되었다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이 일에 부 회의실에서 최초 의원의 회합이 있었는데 회두와 부회두급 5명의 상무위원을 선정하였는바 다음과 같다.

회두 상미여작 부회두 김희성, 가등기삼랑

상무의원 지창선 강신일, 각치삼랑 최한영, 궁기영희²⁹⁾

③-3 광주상공회의소의원선거는 3월 11일 오전 9시부터 광주소학교 강당 선거장에서 거행하였는데 삼산부윤과 김전남도 산업과장이 감시관으로 임석하고, 태석규, 정상호, 등등하육, 국지광홍 4인이 입회인으로 입회하였다. 투표는 동일 오후 4시에 마치고 6시까지 개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당선되었다.

궁기영희 약종상업 65점

어곡홍장 잡화점업 63점

곡천사차랑 미곡상업 57점

각치삼랑 비료업 57점

가등기삼랑-유업 57점

강목성일 청부업 50점

경야어등 청부업 49점

내산중부 임목상업 46점

지창선 미곡업 43점

심상옥 포목업 41점

유연상 약종업 36점

29) 조선일보 1937. 4. 6.

김희성 정미업 35업
이채순 주조업 34점
최한영(고무신업) 30표
광주주조주식회사 51점
국빈중차랑 금물업 45점³⁰⁾

④ 재계산맥 근세 100년 산업과 인물

묘민임호연(苗民 林豪淵)

광주상의

1935년 부제(府制)를 실시하면서 광주상공회의소를 발족시켰다. 이 때까지는 임의단체로 한국인 측은 광주실업청청년회구락부, 일본상인들은 광주상공회를 조직하고 있었다.

광주실업청년구락부의 발족은 일인들의 상공회보다 뒤가 되는데 이 구락부를 창설하게 된 데는 일본 상인들이 상공회를 조직하여 일본 등지의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싼값으로 대량 공동으로 구입하여 한국인 상권을 위협하는 한편 관청 학교 등에 납품을 거의 독점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인 상인들이 결속하게 되어 조직된 것이다.

광주실업구락부의 중심인물은 최한영(고무신 商, 호남동) 심상엽(포목상, 총장로 3가) 유현상(포목상, 총장로 4가) 공익상회 등이었는데 대표에는 최한영이 선출되어 구락부를 이끌었다.

창설후 사업의 하나로 광주상민대운동회를 현재의 전남대 의과대학의 교정인 ‘묵은 바탕’에서 개최하였는데 광주의 한국인 상인과 종업원이 거의 참가하여 단결과 의지를 과시하고 민족의 울분을 달래었다.

이 광주 상민대운동회는 상공회의소가 발족된 후에도 연례 행사로 개최되었다. 1936년 광주상공회의소가 설립되면서 실업청년구락부는 이에 흡수됐는데 구락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부회두 2명 가운데 1인은 한국인으로 하고, 상임의원 7인 가운데 한국인은 3인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부회두 김희성(수기동 정미업) 상임의원 최한영, 심상엽 지창선이

30) 매일신보 1937. 3. 22.

선임되었다.

그러나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어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15년 전쟁으로 발전하는 바람에 경제가 전시경제체제로 전환되어 상공회의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1930년도 광주의 공장은 일인들 경영의, 전남도시제사(1926 설립 자본금 2백만원), 종연방직9광주제사 1930 설립 자본 6백만원) 야림제사 광주공장(1930 설립) 광주주조 등이 대표적이었다.

광주의 공업은 활발한 편이 못되었고, 광주는 여전히 대 지주들의 거점도시로 소비도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하여 광주의 실력자들은 대지주들이었으며 그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광주면상담역 면협의회회원이 되고 있었다.

1917년 10월 면제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선 상담역 4명 가운데 한국인 즉 최상진, 김형옥이었고, 1920년 11월 개정 면제 실시로 상담역이 폐지되고 면협의회가 신설되었는데 회원은 민선으로 12명이 정원이었는데 한국인으로서는 제1기 협의회원 주가영, 김형옥, 장환두 박계일, 이정상, 현준호(보결)

제2기 협의회원

박계일, 현준호, 이기호, 오현창, 김상순

면장 김치주 1912년 5월 취임. 조유석 1913년 7월 취임, 박홍서 1914년 4월 최상진 1915년 2월

부장(副長) 정근섭 1923년 12월 취임 박계일 1924년 5월

1917년 이후는 일인들이들이 면장 직을 차지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944년 상공경제회로 개편되었다가 해방 후인 1946년 7월재발족을 보았는데 여수상공회의소 회두인 김영준을 내세워 전라남도 상공회의소를 조직했는데 회두 김영준(여수) 부회두 조천섭(광주) 강선명(목포) 오영식(순천)으로 이들이 회의소를 이끌었는데 2대에 가서는 광주상공회의소 회두 서재홍이 도상의회두가 되고 3대 회두에는 박인천이 등장했다.³¹⁾

31) 1984. 2. 16. 매일경제.

광주에 상공회의소가 설립되었다는 내용이다. ①~③은 그 과정을 다룬 당시 신문보도 내용이고, ④는 해방 이후까지 이어진 상공회의소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일본인 상인들과 치열한 상권을 다투고 있음이 보인다. 일본인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인은 최한영을 제외하고는 지창선이 눈에 띈다. 지창선은 미곡업으로 재력을 축적한 광주 대표적 부호의 한 사람이었다. 최한영이 광주실업구락부를 이끌었다. 그는 앞서 언급한 바처럼 이 조직을 결코 일제의 식민통치에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 고무신탁회에서 강제로 밀려나기도 하였다.

봉선동에 거주하고 있는 손녀 최은정(84)은 한국전쟁 때 폭격에 대비 공원다리 근처 양철지붕집 땅속에 가마니로 포장해 신발을 묻었다고 한다. 당시 고무신 바닥에는 ‘만월(滿月)’과 ‘천일(天日)’ 마크가 새겨져 있고, 총판점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전쟁 당시까지도 천일고무 총판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53년 전남연감에 학동 750번지 천일고무공업주식회사 광주공장이 수록돼 있다. 사장은 경상남도 김영준, 공장장 김중태, 지배인 최한영으로 표기됐다.³²⁾ 본래 종연방직터로 1950년대 말 천주교회가 인수한다. 남광주역 건너편 학동 937번지에는 남일피혁(윤승호)도 위치했다.

4. 연진회 창립과 최한영

최한영은 소문난 서예가였다. 인터넷 공간에 그의 글씨가 많이 있다. 독립운동가 최한영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이도 있다. 최한영은 4세부터 반야심경을 쓰기 시작할 정도로 서예에 일찍부터 소질이 있었다. 그는 남종화를 일군 유명한 의재 허백련과 함께 그림과 서예 공부를 하였다. 그의 서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생 서예 스승이자 동지였던 의재의 작품세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2) 이 연감은 내용이 부실하다. 김영준은 1948년 10월 23일 여순사건때 봉기군에게 친일파라 하여 죽임을 당했다. 위의 내용은 그가 죽은줄 모르고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추사 김정희의 영향을 받은 허소치가 전남지방에 남종화의 뿌리를 내렸다고 한다면, 의재 허백련은 이를 찬란하게 꽃 피웠고, 의재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1891년 진도에서 태어난 의재는 소치의 제자인 미산의 밑에서 4군자를 익히다가 일본 명치대 법학부로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법학보다는 그림에 심취하여 소실취운(小室翠雲)에게서 본격적으로 남화를 공부하였던 그는, 귀국하여 제1회 선전(鮮展)에 ‘추경산수(秋景山水)’로 입상하면서 화가로 등단하였다. 광주로 이사를 의재는 1939년 ‘연진회’를 발족시켜 남화 보급에 앞장섰다.

의재는 소치에게서 직접 그림을 배울 기회는 없었지만 미산을 통해서 정신적인 면, 특히 남화 이론을 익혔다. 소치가 아들 미산에게 ‘작대기 산수’로 그릴 것을 강조했고, 또 미산이 의재의 초기 작품을 보고,

“네가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던 작대기 산수를 그렸구나. 할아버지께서 네 그림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

고 말했었다고 한다. 곧 의재는 소치의 ‘작대기 산수’의 필선을 발전시켰다. 수묵과 농염을 잘 섞어 죽죽 그어 내린 선묘(線描)와 점묘(點描)에서 탈속한 그의 화풍을 느낄 수 있다. 의재는 화법(畫法)에 대해서 그가 즐겨 쓰는 화제(畫題)로 쓰고 있는 ‘不在古法, 不在吾手, 又不出古法 吾手之外’ 곧 화법은 옛것에 있는 것도, 우리 손에 있는 것도 아니며, 또 우리 손 밖의 옛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사군자를 그릴 때 꼭 화제(畫題)를 먼저 정하고 ‘글씨가 곧 그림’이라는 추사 화론(畫論)을 강조했다.

의재는 또한 남화(南畫)의 개조(開祖)라고 할 수 있는 당 왕유의 그림에 대해서 소동파가 한 말, 즉 ‘畫中有詩 詩中有畫’를 강조하였다. 그것은 문기(文氣)를 강조하는 말이다. 남종 문인화의 생명은 역시 문기(文氣)에 있기 때문이다. 그 문기는 詩·書·畫의 三絶思想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의재가 소치의 영향을 받아 남화를 이 고장에 정착시킨 것은 중국

의 상황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남화가 양자강 이남의 화남지방에 꽃피웠던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남도지방의 화가들이 대부분 남화를 그리고 있다. 화북에서 양쯔강 이남으로 밀려나 세워진 남송에서 보수적이면서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화풍이 형성된 것처럼 조선의 유배지로 기후가 온난하고 물산이 풍부한 전라도 지방에 남화의 전통 산수가 뿌리깊이 형성된 것은 맥락이 통한다고 한다. 특히 중국 역사의 근거지인 화북을 상실한 한족들이 은일(隱逸) 사상, 청유(淸遊) 사상³³⁾의 독특한 자연관으로 ‘意在必先’이라는 이상주의적 화풍을 전개시킨 것처럼 남도의 화풍도 이와 유사하다.

당나라 초기 선종이 남종파와 북종파로 갈라지고, 남종파는 강남지방에 근거를 두고 선승의 명가들이 불교적 선미(禪味) 짙은 남종 문인화풍을 발전시켰던 것과 같이, 전남지방에서도 대부분의 사찰이 선종사찰이며, 특히 초의와 같은 선승들이 남화를 뿌리박게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의재의 스승 소치는 필법은 중국 황공망의 방작(傍作)을 통해서 화론(畵論)과 사상은 추사와 선승 초의에게서 익혔다. 그러나 의재와 소치의 그것은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 차이는 선묘(線描)나 미점(米點)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산을 그리는 방법에서 소치가 중국의 산을 많이 다룬 반면, 의재의 산수의 산들은 밋밋한 황산들이 많은데, 곧 전라도 산(山)이다. 수목이 듕성듬성하고 등성이가 밋밋하여 황토색이 짙은 전라도의 진경인 것이다.

그의 작품의 변화는 초기 의재시대와 중기 산인(散人) 시대, 후기 의도인 시대 이렇게 3번으로 구분된다. 특히 1930년대 산인(散人) 시대는 주로 그가 광주로 생활 근거지를 옮긴 시기인데, 이때부터 무등산과 비슷한 둥글고 밋밋한 전라도 진경이 본격적으로 시도되는데, 1939년에 그가 발족한 ‘연진회(鍊眞會)’가 그것이다. 그는 연진회를 통해 후진을 양성하고 남화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의재는 해방 후인 1947년 무등산에 농업기술학교를 설립하고,

33) 광주시사, 1980.

춘설현에 은거하면서부터는 사실적(寫實的이며 담화(淡畵)를 많이 쓰던 경향을 탈피하여 농염을 풀면서 최대한으로 여백의미를 살려 필의(筆意)가 넘치는 문기(文氣)가 강해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의재가 연진회를 발족하고자 한 것은 일본의 소실취운(小室翠雲)이 남화원을 만들어 남화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자극받았기 때문이었다. 광주의 문인 노채필이 쓴 연진회 발기문을 통해 연진회가 철저하게 남화정신에 바탕을 두고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술을 배움은 진경(眞境)에 드는 일이고, 양생(養生)을 진원(眞元)에 이르도록 하는 일이다. 우리가 예약으로써 모아 놓고, 여생을 값지게 보내기 위해 연진회를 세운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서로 부명(賦命)이 같지 않아 혹은 벼슬을 해서 치민(治民) 치정(治政)하고 산림에 숨어 목식간음(木食間飮)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이도 있으리라. 그러나 우리의 바탕은 부귀를 구하지 않는 바탕이라. 좋아하는 것을 그저 좋아하고, 또 시, 서, 화 3절은 고금인(古今人)이 다 좋아하는 것이어서 이를 즐기기에 모였다.”

의재는 전주에서 개인전을 얻어 얻은 수익금으로 1939년 1월 16일 광주 금동시장 옆 100여 평의 땅에 연진회관을 마련하고 동호인들을 모아 화론 강습을 시작하였는데 이때 회원이 60여 명이었다. 당대의 유명한 김은호와 변관식도 찬조회원으로 이름을 올리니 연진회는 출범하자마자 곧 주목을 끌었다.

연진회 출범 초기 회원을 보면, 찬조회원인 김은호와 변관식을 비롯하여 근원 구철우, 지봉 정상호, 동강 정운면, 춘파 김동곤, 대재 허행면 등 서화가들 외에도 참서관 이원보, 민병기, 오석유 군수 등 고급관리들과 독립투사인 최한영³⁴⁾, 광주부호 최정숙 등이었다. 전주 서화가도 60

34) 광주시사에서는 최한영을 독립운동가 아닌 서화가에, 그리고 양백아를 독립투사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최한영은 서화가 이전에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하였기에 독립운동가로, 양백아의 존재는 필자가 확인을 하지 못해 명단에서 누락시켰다.

여 명이 한때 회원이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연진회는 이 고장 화단의 요람지였고, 모체였다.

연진회를 통해 배출된 작가들로는 근원 구철우(국전 초대), 구당 이범재(국전 특선), 동강 정운면, 목재 허행면, 정소산, 허정두 등을 비롯해서 옥산 김옥진(국전 초대작가), 석성 김형수(비국전), 회재 문장호(국전 추천), 춘헌 허규(국전 특선, 작고), 녹설 이상재(국전 특선), 우계 오우선(국전 입선), 금봉 박행보(국전 추천), 치런 허의득(국전 입선), 연사 허대득 등을 비롯해서 서예에 정상호(도전 심사위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의재의 남화산수의 맥을 계승하고 있다.

연진회의 출범은 체계적인 서화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목정이 연진회에 참여하였던 것은 의재가 지향하는 남화가 우리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던 측면이 훨씬 최한영에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최한영이 평생 고고한 삶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묵향에 젖어온 삶도 한몫하였다.

한편 연진회는 해방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그런데 허백련은 한국전쟁 직후 실업교육을 위해 농업기술학교를 세웠다. 그러다 농업기술학교를 남도 예술인의 전승장으로 바꾸었는데, ‘연진회미술원’이 그것이다. 1978년부터 산수, 사군자, 화오 등 3과에 20명씩 학생은 모집하였다. 이 미술관 설립에 최한영과 구철우 등 생존 회원과 최한영의 장남 최일출 등 연진회 2세 모임인 애일회(愛日會) 회원들이 힘을 모아 가능하였다.³⁵⁾

35) 동아일보, 1977. 10.

제7장

• • •

통일국가건설과 좌절

1. 전남도 건준 조직과 최한영

“본 방송은 1945년 8월 14일 오후 9시 뉴스, 그리고 15일 7시 21분 뉴스로 2번에 걸쳐 “15일 오전 중 천황이 직접 조서를 발하여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모두 빠짐없이 잘 들으라”는 것이었다. 이날 방송은 신문 호외를 통해서도 알려졌다.

“오늘 정오에 중대방송 국민은 반드시 엄숙히 청취하라

15일 정오 중대방송이 진행된다. 이 방송은 실로 미증유의 중대방송이며 일억 국민은 엄숙히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아사히신문 호외)

우리가 잘 아는 무조건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하는 방송에 관한 것이었다. 이 방송은 정확히 1945년(소화 20년) 8월 15일 수요일 정오 12시에 시작되었는데, 2015년 8월 1일 일본 궁내청에서 종전 70주년을 기념하여 당시 방송 녹음 원판 사진과 고음질 음성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 원판에 있는 일본 국왕의 항복선언문을 그대로 옮겨보겠다.

“짐은 깊이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현상에 비추어 비상(非常)의 조치로서 시국을 수습코자 자(茲)에 총량한 신민에게 고하노라. 짐은 제국정부로 하여금 미·영·지·소 4국에 대하여 그 공동선언을 수락할 뜻을 통고하였노라. 대저 제국신민의 제국(帝國) 신민의 강령을 도모하고 만방공영의 즐거움을 함께 함은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유범(遺範)으로서 짐의 권권

(拳拳)하여 마지 않는 바 일찍이 미영 제국에 선전(宣戰)한 소이도 실로 제국의 자존과 동아의 안정을 갈망함에서 나온 것이라 타국의 주권을 배격하고 영토를 침략함과 같음은 진실로 짐의 뜻이 아니었노라. 그러나 교전이 이미 4년을 경과하면서 짐의 육군 해군 장병의 용전(勇戰) 짐의 백관 유사의 여정(勵精), 짐의 일억 중서(衆庶)의 봉공 등 제 각각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전국이 혼전된 것만은 아니었고 세계의 대세 또한 우리에게 이롭지 아니하며 뿐만 아니라 적은 새로이 잔학한 폭탄을 사용하여 잇따라 무고한 백성을 살상하였다. 그 참화가 미치는 바는 실로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노라. 하물며 아직 교전을 계속코자 함은 끝내 우리 민족의 멸망을 초래할뿐더러 나아가 인류의 문명조차 파괴될 것이라.

이러할진대 짐은 어이 억조의 백성을 지키고 황조황종의 신령께 사죄하랴. 이것이 짐이 제국정부로 하여금 공동선언에 응하게끔 한 소이니라. 짐은 제국과 함께 시종 동아의 해방에 협력한 제 맹방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노라. 제국신민으로서 전선에서 죽고 직역에 따라 비명에 스러진 자 및 그 유족에 생각이 미치매 오내(五內, 오장)가 찢기노라. 아물러 전장을 입고 재화를 당하고 가업을 잃은 자의 후생에 이르러는 짐이 깊이 진념(軫念)하는 바이다. 생각건대 금후 제국이 받을 고난은 물론 심상치 않고 그대 신민의 충정을 짐은 족히 아노라. 그럼에도 짐은 시운이 기우는 바 건디기 어려움을 견디고 참기 어려움을 참아 이로써 만세(萬世)를 위하여 태평을 열고자 하노라.

짐은 이에 국체를 호지(護持)하며 총량한 그대 신민의 적성(赤誠, 참된 정성)을 믿고 의지하여 언제나 그대 신민과 함께 하노니 만일 감정이 격해지는 바 함부로 사단을 일으키거나 동포를 배제하여 서로 시국을 어지럽힘으로써 이로 인하여 대도를 그리치고 세계에 신의를 잃음과 같음은 짐이 가장 경계하는 바이니라.

모름지기 거국일가 자손 상전하여 굳게 신주의 불멸을 믿고 소임을 무겁게 여기고 갈 길의 땀을 생각하고 총력을 장래의 건설에 기울여 도의를 두텁게 하고 지조를 굳건케 하고 맹세코 국체의 정화(精華)를 발양하여 세계의 전운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기(期)하라. 그대 신민은 능히 짐의 뜻을 체(體)하도록 하라.”

일본 국왕의 항복선언 방송을 최대한 원뜻에 가깝게 번역한 내용이다. 이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 것은 국내에 항복선언문이 부분적으로 소개되다 보니 원래 뜻이 잘못 전달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위 ‘항복선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무조건 항복’이라는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 “짐은 제국정부로 하여금 미·영·지·소 4국에 대하여 그 공동 선언을 수락할 뜻을 통고하였노라.”는 내용이 무조건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곧 1945년 7월 독일의 포츠담에서 미, 영, 중, 소 4개국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것에 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위 항복 선언문은 항복 선언문이라기보다는 천황제라는 일본 국체를 지키려는 안간힘이 가득함을 알 수 있다. 곧 태평양 전쟁을 아시아를 구하기 위한 것이고, 전쟁의 종결 또한 죽어가는 백성을 구하고 잔학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일본 신민과 인류 문명을 구하려는 일본 국왕의 결단을 일본인들에게 인식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항복선언문의 교묘함이 전범 천황이 아니라 전쟁의 참화로부터 일본을 구한 천황으로 둔갑되었고, 나아가 전후 일본의 전쟁 책임 회피와 일본 우익들의 이론적 근거에 이용되었다.

여하튼 1945년 8월 15일 12시,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연합국의 무조건 항복 선언을 받아들이면서 36년 가까운 일제의 식민통치는 끝났다. 전라남도 도청 회의실에서 부동자세로 항복 방송을 청취하던 일본인 야기 도지사가 3백여 명의 한국인 직원과 일본인 직원들 앞에서 흘린 눈물은 이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표시였다. 대열의 가운데 많이 끼어 있던 일본인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떨군 침통한 표정이었다.

일본 국왕의 항복 방송이 곧 조선의 해방을 의미한 것이었다. 일제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통치에 신음하고 있던 우리 민족에게 8·15해방은 감격 그 자체였다. 한 시인은 해방의 기쁨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아이도 뛰며 만세!

어른도 뛰며 만세!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까지
만세! 만세!
산천도 빛이 나고
초목도 빛이 나고
해까지도 새빛이 난 듯
유난히 명랑하다.

이처럼 해방의 환희와 감격 자체가 컸다는 것은 해방이 되어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1910년 일제 식민 지배체제로 들어가면서 일제는 조선의 백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였다. 대한제국 말기보다 3배 이상의 부담이 늘어났다. 특히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해방 전까지 무려 200만에 가까운 조선의 청년학생들을 군인, 군속 등의 전투 요원으로 강제 징집 동원하여 전쟁의 충알받이로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해방 이전까지 80여 만 명의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하였으며, 국내에서도 460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노역 동원에 내몰고 있었다. 이들은 상당수가 현지의 노동 현장에서 사고로 죽거나 질병과 기아가 시달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마쳤기 때문에 한국민에게 징병과 징용은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제는 이미 식민지 병탄 이전부터 경제적 약탈을 자행하였지만, 전시체제로 바뀌던 1930년대부터는 식량을 비롯한 생산물 전반에 걸쳐 가 공할만한 수탈을 자행하였다. 특히 공출에 의한 미곡의 일본 방출은 농민들의 생활을 극도의 피폐 상태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 문화에 대한 말살 정책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8.15 해방은 조선인의 생존과 생명에 대한 절박한 위협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지금 조선 천지는 다 그럴 것처럼 이 동네에도 남녀노소할 것 없이 집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은 없다. 사람이란 있는대로 밖으로 물러나와 혹은 뉘집 토방마루에 혹은 마을 앞 큰 나무 밑에 이렇게 떼를 짓고 패를 지어서는 제가꿈 좋아하며 떠돌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국왕의 항복 방송을 들은 국내외 한국민들은 만세를 부르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미국 유학을 다녀온 후에도 독립운동에 앞장 선 서민호는 벌교의 집 지하실에서 고성능 라디오를 통해 전쟁의 추이를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패망을 예상하고는 있었던 서민호는 막상 일본의 패망 소식을 듣자 엉엉 울었다. 광주의 총장로 등 중심상가는 물론 동네 구멍가게까지 문을 닫고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태평양 전쟁을 치른 일제는 우리를 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기지로 철저히 삼았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합법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였다. 1938년 시행된 지원병제도는 그 시작이었다. 지원병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전쟁에 투입하기 위해 조선의 청년들을 선발한 일본은, 선발된 청년들의 이름을 신문에 내고, 지원병에 선발된 청년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대대적인 축하행사를 함으로써 그들의 교활한 강제 동원을 은폐하려 하였다. 이러한 인적 수탈과 더불어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전쟁물자를 마구잡이로 수탈하여 갔다. 전쟁 말기에 이르러 우리 국민의 생필품은 사실상 바닥나 있었다. 그래서 해방이 되었을 때 가게들은 대부분 개점 휴업 상태에 있었다.

광주의 경우도 해방이 되고 며칠이 지나 곧 민간 상거래가 완전히 중단되었다. 특히 광주 상거래의 70~80%를 차지장악하고 있던 일본인 상점들은 문을 굳게 닫고 몸을 감추고 주위 상황을 살피기에 급급하고 있었다.

한편 조선 총독부의 하부기구인 전남도청의 권력 기구도 8월 15일을 기점으로 종말을 고하였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정치·행정 권력의 공백과 새로운 공화국 정부를 수립하려는 진통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이미 일본의 패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내외의 정치세력은 각기 자기들 중심으로 정치권력을 재편하려고 있었다.

중경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2년 임시정부 활동에 소극적인 평가를 하고 있던 김원봉을 군무부장에 임명함으로써 독립운동 세력

의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시정부는 1945년에 들어 화북지역에 동지를 틀고 있던 김두봉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공산주의 계열의 조선 독립동맹과 통합 논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보다 앞서 국내에서는 여운형이 1944년 조선건국동맹을 결성하고 있었다. 여운형은 사회주의 사상에 바탕을 민족주의자로 그의 주변에는 사회주의 활동을 한 인사들이 많았다. 건국동맹 결성 당시 호남 지부 책임자는 보성에서 양정원을 세워 무상교육활동을 하던 윤운기였다. 이처럼 지역 명망가들조차 민족주의 계열이든 사회주의 계열이든 독립운동 단체에 가입하여 민족 해방이 임박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조선의 정치 세력들은 곧 일본의 식민 지배를 대체할 정치조직을 결성하려 하였다. 이튿날 여운형, 송진우 등 이른바 좌·우 세력을 거의 망라하여 결성된 건국준비위원회였다. 광주 전남에서도 서울의 건국준비위원회 결성과 거의 같은 시기에 전남건국준비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총독부를 대신할 정치기구를 조직하고 있었다.

전남건국준비위원회를 보더라도 좌·우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처음에는 출범하였는데, 일제와 맞서 독립을 해야 한다는 절대 절명의 순간에는 좌·우의 이념적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1920년대 초반 광주청년회 활동을 보면 좌·우 이념 갈등이 꽤 드러났지만, 곧 봉합되고 있었다. 일본에서도 독립운동을 하는 한인들 사이에도 이념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사회주의 노선에서 이탈하기도 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제가 일으키면서 일제의 징병, 징용 등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내부의 갈등은 수면 아래로 잠복한 상태였다.

한편, 태평양 전선에서 패퇴를 거듭하면서 패망의 징조를 느낀 조선총독부는 패전 이후의 급격하게 변동할 조선에서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국내 치안 질서 유지보다 국내에 들어와 있던 일본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와 그들의 안전한 귀국이였다. 일제는 그들의 가혹한 식민통치로 인해 형성된 조선인들의 일본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방과 더불어 닥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총독부가 독점하고 있던 행정권과 치안권과 같은 권력의 일부를 한국인에게 이양하여 일종의 자치행정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총독부는 송진우, 안재홍, 여운형 등 당시 조선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인사들을 만났다. 총독부는 먼저 8월 10일부터 4차례에 걸쳐 송진우와 만났다. 하지만 송진우는 연합군이 들어오기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정권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거절하였다. 이에 총독부는 15일 당일 아침 여운형을 만났다. 여운형은 이미 1944년 조선건국동맹이라는 비밀조직을 결성해두고 있었다. 여운형은 총독부에 다음의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행정권을 이양받겠다고 하였다.

1. 전(全) 조선의 정치범,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2. 집단생활지인 경성지방의 식량 8, 9, 10월 3개월 분을 비축할 것
3. 치안유지와 건설사업에 아무 구속과 간섭을 하지 말 것
4. 조선에 있어서 추진력이 되는 학생의 훈련과 청년의 조직에 간섭을 하지 말 것
5. 조선에 있는 각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우리 건설 사업에 협력시키며 아무런 괴로움을 주지 말 것

이러한 조건이 조선총독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지만,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여운형이 새로운 국가가 건설되기까지 과도기의 질서 유지와 국가권력의 순조로운 이양을 위한 중대한 책임을 맡게 된 배경이다.

여운형은 이보다 앞서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송진우에게 해방 후에 건국 준비를 함께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결렬된 역사적 경험이 있었다. 이에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만나고 나온 여운형은 안재홍의 협력을 받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여운형은 8월 15일 건국동맹 회원들을 만나 치안대 조직과 식량대책위원

회를 소집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설계를 하였다. 15일 저녁 실행부를 구성하였는데 위원장에 여운형, 부위원장에 안재홍이 추대되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위원장, 부위원장만 결정되고 그 외의 담당부서는 정하지 못하였는데 건국동맹이 건준의 실질적인 추진체였다.

건준은 16일부터 활동을 개시하였다. 오후 1시 건준 본부 옆의 휘문중학교 운동장에서 5천 군중들이 집결한 가운데 여운형이 건준이 조직되었음을 알리고 일본인에게도 아량을 보일 것을 당부하였다. 이때 건준이 작성한 유인물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었다.

조선 동포여.

중대한 현 단계에 있어 절대적 자중과 안정이 요청된다. 우리들의 장래에 광명이 있으니 경거망동은 절대적 금물이다. 제위의 일어 일동이 민족의 휴적에 거대한 영향 있는 것을 명성하라!

절대의 자중으로 지도층의 포고에 따르기를 유의하라.

8월 16일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6시, 9시 세 차례에 걸쳐 경성방송국을 통해 부위원장 안재홍은 “3천만 동포에게 고향”이라는 방송연설을 함으로써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이 서울에서 건준이 결성되어 활동에 들어갔음을 알았다. 이 연설에는 치안대 격인 경위대와 정규병의 편성, 식량의 확보, 통화와 물가의 안정, 정치범의 석방, 친일파 문제 등이 들어 있었다.

8월 17일 건준은 위원장, 부위원장 외에 총무부장 최근우, 재무부장 이규갑, 조직부장 정백, 선전부장 조동우, 경무부장 권태석 등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8월 22일 창설 당시의 원로 정치인들 외에 활동력이 강한 청장년층을 대거 참여시켰다. 곧 처음에는 ‘건국’에 목표를 두었다면 이제는 항일운동기의 투쟁가들이 위원회의 실무를 맡았다. 8월 17일 조직이 건국동맹과 신간회 관련 인사들이 주축을 형성했다면 22일에는 사회

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많이 포진했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처럼 건준은 출범 초기부터 조직원들 사이에 이념적 갈등과 전국적인 조직 구성을 둘러싼 여운형과 안재홍 사이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통합에 한계를 보였다. 안재홍은 ‘건준이 초계급적 협조정신으로 명실상부한 과도기적인 기구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좌경화되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일체 활동을 중단하였다.

이때 확실한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하고 있던 허헌이 부위원장에 추대되면서 다시 건준 조직이 정비되었다. 9월 4일 3차 조직 개편이 있었다.¹⁾ 3차 조직 개편에는 안재홍 중심의 신간회 인사와 우익 진영의 인사들이 빠짐으로써 본래 의도한 통일전선적 성격이 많이 퇴색한 채 막 결성된 조선공산당의 영향을 받는 구조가 되었다.

사실상 좌익세력에 의해 장악된 건준은 9월 6일 오후 7시 경기여고 강당에서 ‘전국인민대표자 대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 1천 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조선인민공화국 임시조직법안을 상정 통과시킨 다음 중앙인민위원 55명, 후보위원 20명, 고문 12명을 선출 발표하였다. 이른바 인민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정확히 8월 16일 출범한 건준은 불과 20일 활동하고 사실상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

8월 15일 저녁 여운형과 안재홍이 중심이 되어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치안 공백을 메우며 새로운 공화국을 수립하려는 준비를 시작할 때 전남 지역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조직 결성에 나섰다. 해방 후 전남지방에서 가장 먼저 조직된 단체는 전남도청 조선인 청년단이었다. 8월 15일 12시에 있는 일본 국왕의 항복 소식을 들은 도청 근무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은 1시쯤 ‘전남도청 조선인 청년단’을 결성하였다. 단장에 김창

1) 이때 편성된 조직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여운형, 부위원장 : 안재홍·허헌, 총무부 : 최근우·전규홍, 조직부 : 이강국·이상도, 안전부 : 이여성·양재하, 치안부 : 최용달·유석현·정의식·장권·이병학, 문화부 : 함병엽·이종수, 건설부 : 윤형수·박용칠, 조사부 : 최익환·고경흠, 양정부 : 이광·이정구, 후생부 : 정구충·이규봉, 재정부 : 김세용·오재일, 교통부 : 김형선·권태휘, 기획부 : 박문규·이순근, 서기국 : 최성환·정치묵·정화준

선, 부단장에 양보승을 선출하고, 미군이 진주하고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도청을 조선인만으로 지키기로 하였다. 이들은 도청의 서류, 집기 일체를 일본인이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날 오후 5시 무렵 또 하나의 청년단체가 결성되었다. 광주교보 후신인 광주서중 졸업생 100여 명이 '화랑단'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광주서중 정문을 출발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벌이고 광주공원으로 가 식민통치의 상징인 '신사(神社)'를 파괴하고, 1943년 제2차 무등회 사건을 수사한 친일경찰 10여 명을 붙잡아 태형을 가하였다.

한편 전남 지역의 정치, 행정권력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일부 인사들이 자주적으로 전남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전남건준은 서울에서 결성된 건준과 신국가 건설이라는 성격은 기본적으로 같았으나 중앙과 지방의 통상적인 상하 행정조직과는 달리 중앙의 지시없이 독자적으로 조직되었다는 특성이 있었다. 곧 8월 16일 오후에 있는 안재홍의 건준 설립 촉구 방송과 무관하게 전남 지역 정치세력 스스로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성되었다.²⁾ 일제강점기 치열하게 전개된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당시 '제2수도'라는 의식을 지녔던 전남 지역 주민의 강한 자존감은 어느 지역보다 건국준비위원회 결성을 서두르게 하였다.

8월 15일 일본 국왕의 항복 방송을 직·간접으로 들은 광주 거주 주요 인사들이 국기열 집으로 모였다. 그의 집은 해방 이전부터 이들이 자주 모였던 장소였다. 국기열은 1919년 3월 10일 광주 3·1운동을 기획한 세력이 서울 3·1운동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파견한 최홍중, 김복현을 2·8 독립선언서를 이보다 앞서 2월 5일 장성에서 인쇄하여 만세 시위를 준비하던 경성의전 재학생 김범수를 서울에서 접선하게 하였고, 1928년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일본으로 강석봉이 망명할 때 일본 경찰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등 독립운동을 직, 간접으로 후원하고 있었다.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활약하다가 필화사건으로 투옥되기도 했던 그는, 동아일보가

2) 안재홍의 '동포에게 고향'이라는 방송을 듣고 전국각 지방에서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지부가 발족되기 시작하여 8월 말에는 145개에 달하였다(안종철, 위의 책, 67쪽).

폐간되자 『매일신보』의 초대 사장이었던 이상협³⁾의 도움으로 전남지사장으로 내려와 있었다.

이런 연유로 그의 집에는 해방 이전부터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는 우국지사들의 출입이 잦았다. 그 전날에 이어 다음날인 8월 16일 국기열 집에 모인 10여 명은, 경성의 건국준비위원회 결성 소식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남지방에서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자는데 쉽게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⁴⁾ 이때 참석한 10여 명이 누구인지 모두 알 수 없으나 최인식이 본인이 그 모임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그 역시 포함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최인식은 조선일보 기사를 하다 조선일보가 폐간되자 국기열처럼 『매일신보』 기사를 하고 있었다.

17일 결성된 전남건국준비위원회 간부를 맡았던 인물 가운데 상당수가 국기열 집에 있었던 회합에 참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미루어 김범수도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싶다. 김범수는 광주청년회 활동을 하며 국기열과 평소 가까이 지낸 데다 그가 경영하는 남선의원과 국기열 집이 가까이 있어 당연히 그 모임에 참석하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들은 이튿날인 8월 17일 오전 10시에 국기열 집 앞에 있던 창평상회에서 건국준비위원회 전남지부 결성식을 개최하기로 하고, 위원장으로 최홍종을 선출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창평상회는 고광표가 운영하던 회사였다. 최홍종은 광주에서 YMCA를 처음으로 설립한 기독교 장로로서, 광주 3·1운동을 계획하다 경성에서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출옥 후에는 광주청년회를 중심으로 사회운동을 전개하며 민족의 역량을 키우려 노력하였으며 일제 말기에는 울분을 참지 못하여 무등산 증심사 계곡에 토굴을 파고 은거했던 인물이었다.

8월 17일 오전 10시 창평상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건국준비위원회

3) 『광주시사』 및 김석학 외, 『광복 30년』 1, 28쪽.

4) 『광주시사』, 및 안중철, 위의 책, 73쪽. 그런데 이와 달리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자 국기열이 한길상의 집에서 강석봉과 만나 건국 준비를 논의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곧 박준규의 주선으로 고광표가 대표로 있는 창평상회로 옮겨 전남건준의 조직작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전남지부 결성식을 인근에 있는 제국관(현 무등극장)에서 11시에 열기로 하였다. 전남지부 결성식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창평상회는 비좁았기 때문이다. 수 백인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결성식에서 최홍종이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출되었다.⁵⁾ 결성된 건국준비위원회 전남지부 간부들이다.⁶⁾

위 원 장: 최홍종
 부위원장: 김시중, 강해석
 총무부장: 국기열
 치안부장: 이덕우
 재무부장: 고광표
 선전부장: 최인식
 학무부장: 신순언
 산업부장: 한길상
 조직부장: 김범수
 청년부장: 주봉식

이들 외에 58명의 건국준비위원이 선출되었는데, 그들의 구체적인 명단은 현재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날 선출된 주요 간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
- 5) 전라남도 건국준비위원회 결성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도 있다. 이기홍은, 8월 17일 전남 도내 각 군 대표들이 대화고등학교에 모여 준비 과정을 거친 후 제국관에서 전남도 건준 결성대회를 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날 건준위원장으로 박준규, 부위원장으로 강석봉, 국기열, 김철 등이 선임되었다고 하였다(이기홍, 『내가 사랑한 민족 나를 외면한 나라』, 도서출판 선인, 2016). 후술 되지만, 9월 3일 전라남도 건국준비위원회가 개편될 때 박준규가 위원장, 강석봉, 국기열, 김철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안중철, 앞의 책). 이기홍의 진술은 얼마 후 개편될 때의 건국준비위원회와 혼동한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 역시 차분히 다루어야 할 과제로 남겨놓는다.
- 6) 이들 명단은 자료들 『광주시사』(1966, 1980), 『전남도지』(1984), 『광복 30년』 1(1975)]마다 각기 다르게 나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학무부장 김범수와 조직부장 신순언의 경우인데, 『광복 30년』 1에는 이처럼 나와 있으나 서로의 임무가 뒤바뀌어 있다는 얘기도 있다(『광주시사』(1966) 및 이기홍, 이익우진술)(안중철, 앞의 책 참조).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시중은 장성 출신으로, 김성수의 족속이 되는 인척이었고 지주 출신이었지만, 광주학생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민족적 성격이 강한 인물이었다. 그렇지만 건국준비위원회가 개편될 때 우파인 한국 민주당에 가담했고, 한국 전쟁 때는 다시 인민공화국에 참여하다가 경찰에 피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부위원장이 된 강해석은 강석봉의 아우로, 일제강점기에 열렬하게 사회주의 활동을 전개한 인물이다. 1926년부터 1928년까지 전남 청년연맹의 위원으로 있었으며 이로 인해 검거되어 3년형을 받았다. 1927년의 제3차 공산당을 이끌었던 영암 출신의 김준연과도 친분이 있었으며, 그의 형 강석봉,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전남 사회주의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강석봉은 김범수와 함께 광주 3·1운동을 이끈 핵심 인물로, 형제가 모두 명단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강석봉은 동생 강해석을 위원으로 추천한 것이 아닌가 한다. 총무부장인 국기열은 담양 출신으로, 『매일신보』 전남지사장으로 있었지만, 동아일보 기자 시절 필화사건으로 쫓겨날 정도로 항일 의식이 강한 데다 사회주의적 성향도 있었다. 송진우와도 절친하게 지냈지만, 극우적인 성향을 표명하지 않은 이른바 중도적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닌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많은 민족적 성향을 지닌 인사들이 그의 주위에 많았고, 건국준비위원회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선전부장이 된 최인식은 일본 유학을 다녀온 후, 광주에서 조선일보 지국장을 지내다가 해방 직전에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기자로 활동했고, 한국전쟁 때는 입산하여 야산대 활동을 하다가 전향하여 사회주의 조직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하였다. 치안부장 이덕우는 광주사범학교 재학시절 광주학생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다 투옥된 독립지사로, 이후 독학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였다. 사회주의 사상을 지녔던 그는 해방 후 좌익사건에 대한 무료변론을 많이 했으며, 인권변호사로서도 명성이 높았다. 친일파 경찰 노주

7) 이하 서술은 안종철, 위의 책.

봉 암살사건에 연루된 김현 등을 무료 변론한 것으로 광주시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이러한 경력 때문에 치안부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이승만 정부가 사회주의 계열로 전향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보도연맹에 강제로 가입되었다가 한국전쟁 때 광주형무소에서 처형되었다.⁸⁾

산업부장인 한길상은 3·1운동과 1925년 이후 전개된 조선공산당 운동에 관련되어 투옥된 경험이 있는 독립운동가이자 철저한 사회주의 운동가였다. 강석봉의 가장 가까운 동지였던 그는, 조선공산당 교양부 위원으로 활동하다 검거되어 2년 6개월 형을 받기도 하였다.

조직부장인 김범수는 경성의학전문학교 출신으로 광주에서 남선의원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3·1운동으로 대구형무소에서 안재홍과 함께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였다. 광주청년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민족 실력 양성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및 인민공화국 참여를 비롯하여 좌·우를 막론하고 해방 공간에서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 앞장섰다.

재정부장 고광표는 담양 창평의 대지주로서, 동아일보의 고재욱, 고재필과 사돈지간이었으며, 김성수, 송진우, 백관수 등과 일본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였다. 건국준비위원회 사무실이 되는 창평상회는 그가 경영하고 있던 미곡상회였다. 그는 건국준비위원회가 좌익 중심으로 개편될 때 이탈하여 우파 정당인 한국민주당 전남지부를 창설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학무부장 신순언은 경성제대 법학부를 졸업한 변호사로서,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이었다. 청년부장 주봉식은 운동선수로서 기골이 장대한 청년이었다.

이처럼 처음 결성된 전남 건국준비위원회에는 지방 명망가와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이는 해방 직후 독립 국가 건설로 나아가는 혁명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과도적 조직이 생겨났고, 그에 따라 이를 담당할 사람도 지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이어야 했다.

8) 이기홍 증언.

따라서 초기의 전남 건국준비위원회는 신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극렬 친일파를 제외하고는 항일투쟁의 정도나 이념, 그리고 나이와 관계없이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한 통일전선 성격의 조직이었다.

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이 완성되자 해방 후의 무정부적 상태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일본인에 대한 공격 저지와 치안 유지를 담당하기 위한 치안대의 조직이 급선무였다. 이에 치안부장인 이덕우는 함평 출신 김석을 대장으로 한 치안대를 급하게 조직하였다. 김석은 상해 복단대학을 다녔고, 대한민국임시정부 밀명으로 국내에 파견되었다가 체포되어 오랫동안 투옥되었던 인물이다.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김철의 조카였다.⁹⁾

그러나 건국준비위원회 위원 가운데 일부 위원이 치안대를 새로 조직하는 것보다 식민지 시기의 경찰조직을 복원하여 재가동하자고 주장하였다. 즉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조직한 치안대원들은 과거 경력을 고려할 때 치안업무를 떠맡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치안대원은 운동선수들이 많았고, 체격이 좋은 청년들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처럼 치안대조직 문제로 위원들 간에 의견이 나누어지는 상황에서 8월 24일 열린 건국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치안대 건설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던 보수 인사들이 사퇴하였다. 그들이 물려난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충원되었다.¹⁰⁾

이처럼 치안대원 구성 문제로 표면화된 내부 문제는 9월 3일 열린 제2회 전라남도 도민대회에서 최종 정리되었다. 9월 3일에 개최된 도민대회에서 영암 출신 유혁이, 경성의 한민당¹¹⁾ 발기인명부에 전라남도 건국준비위원회의 간부였던 김시중, 고광표와 함께 최홍종과 국기열 이름

9) 김석학, 『광복 30년』 1.

10) 안종철, 앞의 책.

11) 한국민주당은 1945년 9월 16일 발기인 1600명이 모여 창당대회를 하였는데 미군정에 우호적인 언론인, 지식인이 주를 이루었다. 여기에는 고려민주당(45. 8. 18), 조선민족당(45. 8. 28), 한국국민당(45. 9. 4), 국민대회준비회(45. 9. 7), 충청임시정부 및 연합군환영준비위원회(45. 9. 7) 등 우파 단체가 참가하였다.

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회의장에서 최홍종과 국기열은 반대진영으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았다. 고광표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최홍종과 국기열을 임의로 포함을 시켰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하였지만, 치안대 건설에 반대하였던 일부 보수진영은 공개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한편 이날 열린 도민대회에서 보수진영은, 미군이 곧 진주해울 것이므로 건준 간부들은 친미적 인물로 채워 건준과 미군 사이를 원만하고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건준의 재조직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는 그러한 주장은 이제 막 해방된 조선의 위엄에 걸맞지도 않고 미국은 잠시만 머물 것이라고 하여 반대하였다. 이 논쟁에서 진보진영이 승리했고 상임위원회를 개편하는 선거에도 간부의 2/3를 차지함으로써 거의 완전한 주도권을 장악했다. 9월 3일, 도민대회에서 개편된 전남도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구성원은 다음과 같다.¹²⁾

위 원 장 : 박준규

부위원장 : 강석봉, 국기열, 김철

조직부장 : 김종선

산업부장 : 한길상

총무부장 : 장영규

후생부장 : 노종갑

지방부장 : 조병철

학무부장 : 강해석

치안부장 : 이덕우

무임소위원 : 이익우

12) 『광복 30년』 1. (39쪽)에는 위원장 박준규, 부위원장 국기열, 재무부장 선태섭, 조직부장 장재성, 산업부장 조남용, 선전부장 조운, 학무부장 김범수, 치안부장 이덕우로 기록되어 있고, 『광주시사』(1966, 68쪽)에는 위원장 박준규, 부위원장 국기열, 김철, 유혁, 총무부장 김유성, 산업부장 문태곤, 선전부장 최인식, 청년부장 김철, 치안부장 이덕우로 기록되어 있다. 필자는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이익우의 증언을 토대로 안중철이 정리한 견해를 좇았다. (앞의 책, 78쪽의 주37.)

전남건국준비위원회의 개편된 조직은 이상의 간부 12명과 평의원 21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되었다.¹³⁾ 새로 건국준비위원장이 된 박준규는 평양 출신으로서, 일제 강점기에 항일운동을 했던 독립투사이며, 해방 직전에는 호남은행에 근무하였다. 그는 덕망이 있어 많은 사람으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원로로서, 1946년 초에는 민주주의 민족전선 위원장에 추대되기도 하였다. 이 경력으로 인해 미 군정에 좌익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국기열, 한길상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부위원장이 된 강석봉은 강해석의 형으로, 1920년대 후반 조선공산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았던 사회주의 운동가로서 광주학생사건 때 성진회와 관련되어 여러 차례 투옥당했다.

새로 조직부장을 담당한 김종선은 일본에서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일본 공산당 재건 운동과 일본 산별노조의 간부를 지냈던 혁혁한 공산당 혁명가였다. 1차 조직에서는 없었던 무임소위원에 이익우가 선출되었는데, 그는 제주 출신으로, 유명한 제주 해녀 사건을 일으켰던 주동자로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해방과 함께 입국하여 목포를 거쳐 광주에 올라와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대단한 이론가였기 때문에 전남지방 사회주의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개편된 전남건국준비위원회를 보면 명망가적 특성을 나타냈던 보수적 인물이 대부분 탈락하고 보다 진보적 인물들로 채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초기의 혁명적 분위기에서 점차 실무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활동가들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¹⁴⁾ 이때 탈락한 인사들을 보면 부위원장 강해석, 총무부장 국기열, 치안부장 이덕우, 산업부장 한길상을 제외하고, 위원장으로 추대된 최홍종을 비롯하여 부위원장 김시중, 재무부장 고광표, 선전부장 최인식, 조직부장 신순언, 학무부장 김범수, 청년부장 주봉식 등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3) 이하 서술은 안종철, 앞의 책을 참고하였다.

14) 안종철, 위의 책.

이때 탈락 인사들은 최홍종을 비롯하여 고광표, 김시중 등 보수적 성격이 강한 인물이 많았다. 이들 중에 김범수도 포함되어 있다. 말하자면 김범수는 당시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인물들에게는 보수적 인물로 비추어졌음을 알려준다. 이것만 보더라도 김범수가 철저한 사회주의 이론가라고 살핀 것은 이러한 측면을 살피지 못한 채 일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여겨진다.¹⁵⁾

2. 인민공화국 결성

1945년 9월 3일 재정비된 전남 건국준비위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달 23일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그것은 1945년 9월 6일 경기여고 강당에서 전국인민대표자 대회가 개최되어 ‘조선인민공화국 임시조직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공화국 수립을 서둘렀던 까닭은 미 군정의 진주에 앞서 국내 각 계층의 사회 세력들이 참여하는 정치 조직을 만들어 미 군정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고 미군정과의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고, 동시에 중경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맞설 수 있는 정치 조직을 만들어 해방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함이었다.¹⁶⁾

인민공화국의 중앙조직의 부서장으로 선임된 인물 가운데 80%이상이 좌파 성향이 강한 인물들이었다. 그것은 건국준비위원회 결성에 참여하였던 우파들의 일부가 한국민주당을 독자적으로 결성하며 이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민공화국은 공산주의자가 지배적이지는 않았고, 더구나 극좌파가 우세하지도 않았다. 특히 이들 가운데 63%가 일제 강점기 정치범으로 한 번 이상 투옥된 경험이 있으며 인민위원 87

15) 현재 생존 인물 가운데 김범수를 마지막으로 본 이복순(백아산에 본부를 둔 빨치산 전남도당사령부 소속)은 열렬한 사회주의자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에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라 하였더니 건준, 또는 인민위원회에서 간부로 활동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16) 안종철, 위의 책.

명 가운데 그들의 애국심을 의심받을 정도로 일제에 협력했던 자들은 극소수에 달했다.¹⁷⁾ 특히 항일투쟁의 경력으로 무장된 구성원의 성격은 인민공화국이 많은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요인의 하나였다.

인민공화국은 수립과 더불어 “우리는 안으로는 조선 인민 대중 생활의 급진적 향상과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고 밖으로는 소련·미국·중국·영국을 비롯하여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민주주의적 제(諸)국가와 제휴하여 세계평화의 확립에 노력하려 한다.”라는 선언을 발표하였다.¹⁸⁾ 인민공화국이 표방한 정강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주적 독립 국가의 건설을 기함.
1.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와 봉건적 잔재세력을 일소하고 쏘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충실하기를 기함.
1. 우리는 노동자, 농민 및 기타 일체 대중 생활의 급진적 향상을 기함.
1. 우리는 세계민주주의 제국의 일원으로서 상호 제휴하여 세계평화의 확보를 기함

인민공화국 정강에 따르면, 인민공화국이 일본 제국주의와 봉건적 잔재 청산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강은 당시 해방된 조국의 지향하는 바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중앙은 물론 지방에서 조직 정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9월 12일 서울시 인민위원회를 시작으로 11월 10일 경기도 인민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남한의 7도 12시 131개 군에 걸친 조직이 완결되었다.¹⁹⁾

전남 건국준비위원회는 9월 20일 인민위원회로 개편하는 대회를 열었

17) 브루커밍스, 김자동역,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4.

18) 송남헌, 『한국현대정치사1』, 성문각, 1981.

19) 안종철, 앞의 책. 팔순이 훨씬 넘은 필자의 모친은 지금도 이 시기를 ‘인공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인민공화국이 당시 상당히 기세를 올렸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 유혁이 임시의장을 맡아 대회를 진행하였는데, 건국준비위원회의 기존 간부들을 그대로 인민위원회의 간부로 재임명하였다. 다만, 총무부를 없애고 실무를 총괄하는 서기국이 신설되어 이익우가 서기국장에 선출되었다. 다만, 학무부장에 병을 앓고 있던 강해석 대신 김범수로 바뀌었을 따름이다.

이렇게 보면 전남인민위원회의 성격은 전남건국준비위원회가 재정비 되는 과정에서 제외되었던 김범수가 다시 학무부장에 선출된 것만 다를 뿐 이전의 전남건국준비위원회와 큰 차이 없이 사회주의 활동을 하였던 인사들이 인민위원회를 주도하게 되었다. 김범수는 강해석이 건강 문제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급히 대안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김범수는 이념상으로는 열렬한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사회주의 운동을 주도한 강석봉, 한길상 등과 광주 3·1운동을 주도하다 함께 투옥되었고, 광주청년회 활동도 같이하였기에 강석봉 등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이 김범수가 인민위원회 간부가 되는 것은 이념을 떠나 인민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법하다. 김범수가 인민위원회 간부에 선임된 배경이라 하겠다.

그러나 인민공화국은 출범하였지만 미 군정에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운형은 11월 초 해방 직전 그가 조직한 조선건국동맹을 모태로 한 조선인민당을 창당하였다. 조선인민당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조선민족의 역량을 집결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을 기함.
1. 계획경제 제도를 확립하여 전 민족의 완전해방을 기함.
1. 진보적 민족문화를 건설하여 인류문화향상에 공헌함을 기함.

강령을 통해 조선인민당이 사회주의 경제에 바탕을 둔 민족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인민당 강령을 보면 사유재산을 부정한다는 내용 등 급진적인 내용 없이 계

획경제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인민당의 지향이 중도좌파적인 성격임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광주에서 전남건국준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때, 공산주의자들은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한 전남도당 결성모임을 9월 15일 열었다. 이 모임에는 박헌영계열과 이정윤계열 등 15명이 참석하였다. 박헌영계열로는 윤순달, 고향, 이남래, 조주순, 좌혁상이었고, 이정윤계열로는 유혁, 김종선, 선태섭, 윤석원, 한종식, 조병철, 선동기, 이익우, 김부득 등 9명이었다. 이정윤계열은 일본이나 국내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던 인텔리들로서 건국준비위원회나 인민위원회 등 공개조직에 참여하면서 국가 건설에 매진하고 있었다.

반면 박헌영계열에서는 노동자, 농민들의 기층계급 속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었다. 박헌영은 같은 공산주의 노선과 정책을 지닌 이정윤계열을 포용하지 못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중도파와 우익세력을 민족통일의 관점에서 연합해내지 못한 치명적 약점을 드러냈다. 더구나 박헌영계는 미제국주의 침략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1946년 중반까지 그들과 타협을 모색하는 등 상황을 오판하기까지 하였다.²⁰⁾ 물론 이 모임에 김범수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있다. 김범수가 해방 이전부터 공산당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그의 화려한 독립운동 이력이나 사회활동 경력으로 볼 때 이날 모임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김범수가 조선공산당과 관련이 없음을 말해준다 하겠다. 다만 그의 사위인 조주순 이름은 보이는 데, 이를 가지고 김범수를 조선공산당과 연결을 짓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 하겠다.

이렇게 조선공산당 내부에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깊어지고 있을 때 여운형은 좌·우를 연합하는 정치기구를 구상하였다. 조선인민당 창당선언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20) 안종철, 『광주시사』 3, 1995.

“조선의 완전독립과 민주주의 국가의 실현은 현 단계의 조선이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엄숙한 요청이니 우리의 이 당면임무를 수행함에는 각층 각계의 인민 대중을 포섭, 조직하여 완전한 통일전선을 전개하고 관념적 혹은 반동적 경향을 극복, 타파함으로써만 완수될 것이다.”²¹⁾

즉, 그는 좌와 우를 아우르는 망라하는 완전한 통일전선을 구축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파들이 한국민주당 등을 결성하여 이탈하고, 좌파인 박헌영의 공산당 계열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일정한 한계가 드러났다. 따라서 완전한 통일전선 정치체를 지향한 인민당은 일부 중도 우파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회주의 계열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지방인민위원회 구성에도 나타났다. 전남도인민위원회도 앞서 살핀 바처럼 민족주의 우파들도 있었지만 사회주의적 성향을 띤 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른바 공산주의 계급투쟁의 선봉에 섰던 인사들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극히 일부여서 대세를 장악하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인민공화국을 비롯하여 해방 직후 결성된 정치조직 대부분이 사회주의적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²²⁾

우선 일제의 식민지 반봉건적 모순 관계가 쌓이면서 기층계급의 불만이 고조되어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으로 지주·소작인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주장이 현상 유지를 원하는 세력보다는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민족주의 우파 세력이 민족운동 과정에서 친일 협력 내지는 타협적 운동을 전개할 때도 사회주의 세력들이 멈추지 않는 투쟁을 통해 민족운동의 전통을 보존하였기에 해방 후 이른 시일 내에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더구나 사회주의 세력은 보수 세력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대중 조직력이 매우 우세했다. 그것은 일제의 무서운 탄압을 받으면서도 지켜낸

21) 『해방전후회고』, 돌베개, 1984.

22) 안종철, 『광주 전남지방현대사 연구』.

조직원리가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방 직후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지역에서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우파와 손을 잡거나 때로는 독자적으로 정치조직을 결성하여 권력의 공백기를 메워갔다. 그러나 미군정이 이들 정치기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갈등이 나타났다. 특히 한국 민주당을 비롯하여 독립촉성중앙회 등 우파들이 중심이 된 정치 세력이 등장하면서 주도권 다툼이 나타났다. 사회주의 내부에서도 박헌영이 주도하는 공산당 세력과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중도적 사회주의 세력 사이의 갈등도 나타났다.

최한영은 해방 직후 정치 활동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광주, 전남 곳곳에서 어제 동지들이 좌·우 이념을 둘러싸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상황이 답답했기 때문이다.

3. 최한영, 민주주의 민족전선(민전) 참여

해방 정국에 일체 정치활동에 간여하지 않았던 최한영이 좌·우 연합전선인 민주주의 민족전선에 참여한다. 이 단체의 성격이 어떠하길래 최한영은 참여하였을까?

해방 직후 광주를 포함 전국에서 좌·우 또는, 정파간에 치열한 세력 다툼이 전개되고 있을 때인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협정이 발표되었다. 이른바 ‘모스크바 3상 회의’이다. 여기서 결정된 내용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었던 1항과 3항을 원문 그대로 옮겨보도록 하겠다.²³⁾

1.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하여 조선을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발전시키는 것을 조건을 조성하고 일본의 강구한 조선통치의 참담한 결과를 가급적 속히 청산하기 위하여 조선의 공업, 교통, 농업과 조선인민의 민족문화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취할 임시적인 조선민주주의정

23) 안종철, 『광주시사』 3, 1995.

부를 수립한다.

2. (생략)

3. 조선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과 독립 국가의 수립을 원조, 협력할 방안을 작성함에는 또한 조선 임시 정부와 민주주의 단체의 참여하에서 공동위원회가 수행하되 공동위원회의 제안을 최고 5년 기한으로 4국 신탁통치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영·소·중의 4개국 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4. (생략)

이에 따르면 모스크바 협정의 핵심 내용은 ‘조선에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협정의 핵심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오히려 3항의 ‘신탁통치’ 부분이 강조되어 ‘모스크바 협정=신탁통치’라는 외신 보도가 전해졌다. 심지어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하였으나 소련은 탁치를 주장한다’라는 사실과 다른 보도들이 나오면서 12월 28일 이후 좌·우를 막론한 정치 세력들이 신탁통치에 대한 강한 반대 태도를 경쟁하듯이 잇달아 표명하였다.

독립촉성중앙회·충청임시정부·한민당 등 우익과 중도파 정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인민공화국·조선공산당·인민당 및 기타 좌익계 사회단체나 언론기관들도 모두 신탁통치에 대해 반대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반탁운동은 민족 감정을 자극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²⁴⁾ 신탁통치에 대한 반대는 완전독립을 바라는 민족적 자존심, 신탁통치를 변형된 식민지배로 간주한 오해 등이 상승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익진영은 ‘결사반대’를 주장하는 반면, 좌익진영은 ‘신중한 반대론’을 전개하였다. 곧 ‘찬탁=매국’, ‘반탁=애국’이라는 기이한 구도가 형성되었다. 소련이 주장하여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다고 하여 우익은 더욱 격렬히 반대 주장을 하였지만, 좌익은 민족 감정 때문에 반대하면서도 머뭇거렸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해방공간에서 열세에 놓

24) 안종철, 『광주시사』 3, 1995.

여 있거나 특히 청산의 대상이었던 친일세력들이 ‘신탁통치 반대’라는 명분을 통해서 수세에서 공세로 입장이 전환되게 되었다는 점이다.²⁵⁾

그런데 당시 전민족적인 반탁운동은 김구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앞장서 이끌었다. 임시정부는 1945년 12월 28일 오후 김구 주석 이하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전 국민에게 신탁통치를 철저히 반대하는 운동을 촉구하였다. ‘탁치 순응자는 민족반역자로 처단하자’는 행동강령까지 발표되었다.²⁶⁾

한편 처음에 모스크바 결정을 반대하였던 좌익들은 ‘임시정부 수립’이 핵심이라는 협정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지로 선화하였다. 그것은 북한은 이미 좌익정권이 수립되고 있었던 데다 남한에서도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공화국 등 좌파 내지는 중도 좌파 중심으로 정국이 주도되자 하루 바빠 임시정부 수립이 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좌익들의 모스크바 결정지지 입장은 남한에서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크게 약화시켜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우익들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모스크바 결정 반대를 명분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찾으려 한 대표적인 세력이 김구가 이끈 임시정부계열이었다. 그들이 충청에서 귀국할 때 이미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에 의해 굳어진 우파의 권력 구조로 소외되어 있던 김구 세력은 모스크바 결정 반대를 제2의 독립운동이라는 기치 아래 약세를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기회로 삼았다.²⁷⁾ 김구가 주도한 반탁 운동에 이승만, 김규식 등 우익 대부분이 참여한 ‘비상국민회의’가 1946년 2월 14일 발족 되었다.²⁸⁾

이렇게 우파들이 조직적으로 모스크바 결정 반대를 빌미로 세력을 결집하여가자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는 좌파 민족진영에서도 조선인민

25) 안종철, 『광주시사』 3, 1995.

26) 안종철, 『광주시사』 3, 1995

27) 안종철, 『광주시사』 3, 1995.

28) 안종철, 『광주시사』 3, 1995.

당, 조선공산당, 독립동맹, 문학가 동맹, 청년총동맹 등 29개 정당 및 사회주의 단체들이 '민주주의 민족전선(약칭, 민전)'이라는 통일전선 조직을 다음 날인 1946년 2월 15일 결성하였다. 민전은 우익의 '비상국민회의'에 대항하기 위한 조선공산당, 인민당, 신민당 등 29개 정당, 사회단체의 결집체로 인민공화국의 후신이라 할 수 있다.²⁹⁾

민전은 각 지역에 지역위원회를 두었는데, 전남지역에도 1946년 3월 9일 출범하였다. 그러나 광주지역에서 민전과 같은 통일전선 조직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은 중앙 민전이 출범하기 훨씬 이전인 1월 23일 광주 시내 중앙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조선민족통일 광주협의회에서 있었다. 1946년 1월 27일 이미 모스크바 결정의 하나인 미소공동위원회를 환영하기 위한 광주 시민대회에서 중앙 민전의 결성을 지지하는 선언이 나왔다. 그리고 민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독립운동에 앞장선 김범수를 비롯하여 당시 이 지역 명망가들이 대거 참여하였다.³⁰⁾

위원장 : 국기열, 부위원장 : 김철

총무부 : 강해석, 양영하, 장영규, 여영숙, 박호민, 최상배, 장재성

선전부 : 이강진, 최석두, 최규창, 노천묵, 최영자, 신해순

연락부 : 선동기, 고재휴, 윤가현, 조주순, 박오봉, 이기홍, 김홍은, 장경렬

심사부 : 이용근, 윤순달, 박준규, 노종갑, 김범수, 정은찬

이들 가운데 건국준비위원회 결성에 앞장선 국기열과 김범수, 광주 인민위원장 박준규 등은 좌나 우에 속하지 않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민전 등에 참여한 것은 해방된 조국의 희망찬 미래를 건설하려는 일념이었다. 일제 치하에서 사회주의적 이념을 바탕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장재성, 최규창, 강해석, 이기홍 등도 참여하고 있다. 민전에는 선동기, 조주순, 윤가현,

29) 안종철, 『광주시사』 3, 1995.

30) 이하 명단은 안종철, 『광주시사』 3, 1995.

윤순달 등 해방 후 공산당 재건 활동에 참여한 열혈 공산주의 활동을 한 인물들이 적지 않게 보인다.

민전에는 당시 전남지역에서 항일운동의 선봉에 섰던 상당수 인물이 이념을 초월하여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민전 전남지부는 극히 일부 우파들이 빠진 그야말로 중도세력과 일부 공산주의 사상을 지닌 인물이 포함된 사회주의 세력들이 총결집하여 조직한 통일전선 조직체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전남 도내 18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이 지역 최대 통일전선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³¹⁾

3월 9일 정식 출범한 전남도민전의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 원 장 : 김완근

부위원장 : 유혁·국기열

사무국장 : 국기열(겸임) 사무국원 : 지용수, 김진규, 강문구, 김영환,
김문일

조직부장 : 양장주, 조직부원 : 이혁백, 김종선, 최영자, 이득윤

선전부장 : 장영규, 선전부원 : 김범수, 윤석원, 정임숙, 이강진, 양회인

재정부장 : 최한영, 재정부원 : 김언수, 지영구, 노종갑, 고재걸, 한익수,
최당식, 최상배, 양회인

무임소위원장 : 선동기, 위원 : 차인, 이남래, 김홍은, 윤가현, 오평기,
조용남

정식 출범한 민주주의민족전선의 구성 인물들이 앞서 살핀 준비위원회와 약간 차이가 있다. 이 가운데 새로 선임된 인물들 가운데 주목된 인사가 적지 않다. 우선 김언수가 눈에 들어온다. 그는 김범수의 바로 손아래 아우로 그의 집에서 독립선언서가 일부 인쇄되는 등 광주 3·1운동이 성공리에 일어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사실 그동안 김언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가 김범수의 아우라는 사실과 함께 그의 자택에서 독립선언서가 인쇄되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³²⁾ 형

31) 안종철, 『광주시사』 3, 1995.

제 독립운동가인 셈이다. 그 또한 투철한 배일(排日)사상을 가졌다는 이 복순의 증언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는 광주에서 사업을 하여 어느 정도 재력도 있었다. 그가 재정부원으로 선임되는 데는 형인 김범수의 역할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다.

최한영이 재정부장을 맡았다. 그동안 좌·우 세력이 각축하는 현실에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그가 이제 민전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3·1운동의 핵심인물로 김범수와 함께 대구 형무소에서 1년 6월 투옥되었다. 그는 1925년 조선공산당 창당 과정에 참여할 정도로 사회주의적 이념이 강하였다. 건준이나 인민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가 민전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민전이 그만큼 여러 세력을 아우르는 전 남지역 최대의 정치 조직이었음을 말해준다.

역시 주목된 인물로 재정부원으로 선임된 최당식을 들 수 있다. 최당식은 앞서 자세히 언급한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선전부장을 맡은 최인식의 큰형이었다. 그는 신간회 광주지부 자금부장을 맡아 활동을 하다 투옥된 경력을 지녔다.

김언수, 최한영, 최당식 모두 사회주의 사상에 투철한 혁명가라고 볼 근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된 민족주의자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민전의 간부 구성만 놓고 보면 민전은 좌·우 이념을 떠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지닌 인사들이 망라된 통일전선조직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민전의 성격은 결성대회 당일 발표된 성명서에서 알 수 있다.

조선건국은 일 계급이나 어느 당파만으로서 달성할 수 없다. 전 민족적 통일의 완수와 전 민족적 총역량의 집결로서만이 가능하다. 우리 민족의 당면한 급무는 광범한 인민의 토대 위에 선 민주주의 제정당과 대중단체 및 무소속의 진보적 인사 등 각종 각계의 거족적 단결로서 정권을 수립하는 데 있다. 이 진정한 민주주의 민족전선은 필연적으로 국제

32) 박해현, 『독립운동가 김범수 연구』

민주주의 노선과 합치되는 것이다. 그러하므로 이 민주주의 노선은 반 민주주의적인 일제 잔재 및 봉건적 잔재세력과 대립되고 있다. (중략) 친일과 민족반역자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진심으로 과거를 생각하고 성심으로 근신하는 자는 민족적 애정과 아량으로써 그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선도될 것이다. 이상 조선의 완전 자주독립은 민주주의 민족 전선의 바른 노선으로 전 민족이 총집결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왜곡된 선전에 맹종이 없도록 성명한다.³³⁾

이 성명서를 통해 전남민전이 모든 정치세력을 하나로 결집시키려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민전은 일제 잔재 및 봉건적 잔재세력과의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치세력화하고 있는 친일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친일세력의 준동을 경계하면서도 진정으로 회개한 친일인사에 대한 관대한 포용을 공포하고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는 민전이 이념 대립은 물론 친일 문제로 민족 내부의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경계하였음을 말해준다. 말하자면 이미 한반도 문제가 모스크바 결정에 따라 국제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끼리 분열하는 것은 결국 외세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해방 직후에 결성된 전남지방의 많은 정치사회단체들이 민전을 중심으로 총집결하게 되자 우익청년조직인 광주청년단원의 신언노, 김희중, 윤재춘, 문준식, 최정식 등 단장과 단원 일부가 탈퇴하여 민전에 참여하였다.³⁴⁾

이렇게 좌·우, 심지어 회개하는 친일 세력도 포용하여야 한다는 민전의 방향성은 매우 이례적이라 하겠다. 이처럼 파당성을 극복하고 완전한 통일전선을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김범수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해방직후 결성된 전남건국준비위원회, 그리고 재정비된 전남건국준비위원회와 전남인민위원회를 거쳐 민전에 이르는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격변하는 정치기구에 간부를 모두 맡은 이는 김

33) 안종철, 『광주시사』 3, 1995.

34) 안종철, 『광주시사』 3, 1995.

범수뿐이다. 여기에는 김범수 개인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당시 정치 세력들이 그를 더 필요로 한 것이 작용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것은 그가 광주 3·1운동의 영웅이라는 이미지에다 무산자를 위한 의료 활동, 민족 실력양성을 위한 노력 등 이념과 당파를 초월한 활동을 하여 일반인들은 물론 각 정치세력 내에서 그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정파를 초월하여 활동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다음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해방 직후 개교한 광주상업학교에 김범수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는 당시 신문보도이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받은 광주상업학교 개교식은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내빈 다수 참석하에 거행되었는데, 범대규씨의 개회사 있었고 이어 애국가를 부른 후 ○원경씨의 광주상업학교에 대한 경과보고 후에 지우○교장과 ○실교 김창석씨의 인사가 있는 후 시장 서민호 북정초등학교 학도○· 장용규·김범수·유성환 제씨의 축사가 있는 후 조선완 전독립만세, 광주상업학교 만세를 3창하는 것으로 개교식을 마치고 이어 동교 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임시의장에 유성환씨가 당선되었다.(○표시는 판독 불능)(이하 생략) (1945. 12. 27. 광주민보)

이 기사는 광주상업학교의 개교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광주상업학교가 12월 14일 개교식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³⁵⁾ 광주상업학교를 세운 최선진은 미곡상을 하여 크게 재산을 축적한 광주의 부호였다. 앞서 살폈지만, 1920년에 창립된 광주청년회의 창립회원이기도 하였던 그는 호남보통학교³⁶⁾를 세워 가난한 학생들의 교

35) 광주상업학교의 후신인 광주동성고등학교의 홈페이지에 있는 학교 연혁을 보면 1945년 11월 13일 광주사립호남보통학교를 모체로 광주공립상업전수학교의 교구 일체를 인수하여 최선진이 세웠다고 하였다. 즉, 11월 13일 설립인가를 받고 12월 14일 성대하게 개교 기념식을 열었다고 추측된다.

36) 훗날 호남소학교로 이름을 바꾼 광주사립보통학교는 현재 호남동 중앙로의 광주세무서 자리에 있었는데, 1922년 4월 광주 유지들이 설립하였다. 이 학교가 설립될 때 김형욱·최선진·최상현·조만선·지웅현·현준호·정덕범·정낙교 등이 추진위원이었다.

육기회를 마련하여 주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광주청년회 창립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였던 김범수와 가깝게 지냈을 법하다. 김범수가 최선진이 세운 학교의 개교 기념식에 초대되었던 것은 이러한 오랜 인연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최선진은 프롤레타리아들이 부정하는 전형적 부르주아 계급이라 할 수 있다. 만약 김범수가 노동자, 농민이 주도하는 계급혁명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당연히 이러한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참석하여 축하까지 하였다는 것은 그에게 이념적 장벽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다. 김범수와 최선진이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것은 김범수의 장남인 용채가 1949년 10월 3일자로 광주상업중학교 교사로 발령이 나고 있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³⁷⁾

그러나 김범수는 사회주의 계열이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하고 있다.

그동안 준비를 가꾸어 오던 전람도 문학가 동맹 결성식은 26일 오후 2시부터 광주 유치원에서 회원과 다수의 방청객이 참여한 가운데 먼저 애국가 합창과 묵념이 있는 다음 이동식씨의 개회사로 진행되었다. 경과보고에 이어 의장으로 최오수와 2명이 선출되고 민전 도위원 김범수 중앙문학가 동맹 정대병씨 등 각계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고 민청 민여원 등의 독창 후에 3시 끝을 맺었다.(1947. 3. 2. 자유신문)

1947년 2월 26일 전남도문학가동맹의 결성식이 열렸다는 신문보도 내용이다. 여기에 민전 도의원인 김범수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전남도문학가동맹은 사회주의 계열 문인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

1928년부터 최선진이 이 학교를 맡아 운영하다 1944년 폐교되었다. 이곳에 광주상업실업학교가 이전에 해방 직후까지 있다가 1945년 12월 광주상업고등학교의 전신인 광주상업학교로 개교되었다.

[illegible]

이다. 이 단체의 결성식에 김범수가 참석하였다는 것은 그가 역시 이념을 초월하고 있는 실체라고 하겠다.

이처럼 좌·우를 초월하는 그의 모습은 이념이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다음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조선 자주독립을 위해서는 우도 좌도 없고, 남도 북도 없다. 오직 3천만 민족이 다 같이 합작할 것뿐이다. 또한 몇 개인이 합작하는 것보다 민족 전체가 협력하여 합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광주에 있어 서도 좌우 합작은 필연가능하다고 본다.(1946. 7. 24. 동광신문)

이 글은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되고 있을 때 김범수가 언론의 인터뷰에 응한 내용이다.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완벽히 찾아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크나 김범수가 직접 작성한 글이나 얘기는 전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의 글은 그가 직접 말한 유일한 자료가 되는 셈이다. 그의 관심은 오직 3천만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좌와 우, 남과 북의 구분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성향은 그가 이념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그는 당시 비록 외세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남과 북의 분단, 그리고 남한 내에서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는 이념적 갈등에 대해 고민이 깊어졌을 것이다.

이렇듯 사회주의계나 민족주의계 양 측으로부터 존경과 신뢰가 깊은 김범수가 해방 직후부터 좌우를 넘나들면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광주지역에서는 좌우의 극단적인 대립 갈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민전의 조직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최대의 통일전선 정치기구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민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부 우파나 좌파도 이 조직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된 데는 김범수의 역할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따라서 광주지역은 민전을 중심으로 정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미군정 당국도 ‘도 민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7년 3월 15일 민전 측과 미군정 고문이 만나서 정국을 의논하였던 사실은 이러한 사정을 잘 말해준다.³⁸⁾

4. 좌우합작운동 좌절과 최한영

그러나 격변하는 정국은 이러한 평온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다. 우선 미군정의 점령정책이 노골화되면서 이에 편승하려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앞서 말한 반탁운동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었다. 거기다 모스크바 결정사항인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열린 미소공동위원회가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 때문에 결렬된 것도 모스크바 결정을 둘러싼 논쟁을 이어가게 하였다. 특히 이승만의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발언은 남한 내부에서 갈등을 촉발시켰다.

분단이 가시화되자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세력들이 나서서 1946년 7월 10일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0월 7일 모스크바 협정에 의한 남북한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분단을 우려하는 세력에게 이 이끌어가고 있었다. 민전은 창립 직후 서울에서 열린 미소공동위원회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정국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좌우합작운동이 전개되었을 때 광주지역에서도 민전을 비롯하여 우파 정치세력도 이를 지지하였다. 앞서 언급한 김범수나 독촉, 한민당 광주지부장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다.

좌우합작위원회에서 7원칙을 발표하자 극좌세력이 공산당과 극우세력인 한민당이 각기 다른 입장에서 명백히 반대를 표명하였고 이승만도 좌우합작운동의 성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좌·우의 입장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던 것은 7원칙 가운데 토지문제에 관한 두 번째 항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이었다. 즉 양 입장의 절충안이

38) 안종철, 『광주시사』 3, 1995.

었는데, 좌익이 주장한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아니라 몰수, 조건부 몰수, 체감 매상과 무상분배만을 내어놓았으며 중요산업을 국유화로 하여 좌익 안을 받아들인 셈이었다. 말하자면 이 문제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어정쩡하게 봉합한 것이다. 어쩌면 좌우합작운동의 구조적인 한계일 것이다.

그러나 토지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거부 이유는 표면적인 것이었고 실제로는 좌우합작을 추진한 주도세력과 다른 정치세력의 이해가 얹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박헌영이 이끄는 강경좌파는 처음부터 합작운동에 부정적이었다. 그것은 좌우합작이 미군정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며, 그들이 타협을 거부하고 있는 우익과의 타협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공산당은 명분과 여론 때문에 좌·우 합작에 소극적이었다. 이승만은 좌·우합작을 겉으로는 지지하면서도 그것의 실패를 예상해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다. 한민당은 처음에는 미군정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7원칙의 토지개혁 내용이 지주계급이 많은 한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다만 김구와 한독당은 좌우합작 7원칙을 '8·15이후 최대의 수확'이라고 하여 지지를 보냈다.³⁹⁾

좌·우 세력이 이탈한 상태에서 중간세력에 속하는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민족자주연맹'을 결성하였으나 1947년 12월 15일 좌우합작위원회는 해체를 선언하고 말았다.⁴⁰⁾ 이제 정국은 급속도와 좌파와 우파의 치열한 대립 갈등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것은 좌우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희망하였던 김범수에게는 건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가 그토록 혼신을 다해 추진하려 한 민족 대단결이 무참히 깨지고 분열로 나타나게 되자 크게 상심을 하였다. 다음을 보자.

39) 안종철, 1995, 『광주시사』 3.

40) 안종철, 위의 논문.

성명서(1949. 10. 5. 동광신문 광고)

①해방 이후 본인이 혼란한 정국에 제하여 정치에 관여하여 천직인
의업에 등한히 하였음은 심히 유감이었거니와 ②실은 단기 4280년
(1947) 8월부터 일체의 정치관계를 단절하여 실질적 탈퇴를 하고 ③더
욱이 대한민국 수립이후로는 충실한 국민으로 의료에 봉공하고 있는 중
이거니와 ④이에 본인의 태도를 선명히 하기 위하여 지면으로 성명함.
단기 4282 10월 1일 광주 대인동 김범수

김범수가 1949년 10월 1일 정계 은퇴를 거듭 확인하는 성명서를 신문
에 발표한 내용이다. 앞서 간단히 살핀바 있지만 위 성명서는 좌우합작
운동을 지지하는 신문 인터뷰 글과 함께 김범수가 직접 남긴 글로써 김
범수를 연구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이 글은 필자가 편의상
네 구절로 나누어 보았다. 먼저 ①그가 해방 후 혼란스런 상황을 극복하
기 위해 정치에 나섰음을 밝히고 나서. ②그런데 1947년 8월부터 정치
와 관련된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탈퇴를 하였음을 강조하였다. ③ 그
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의 국민
으로서 의사의 직분에 충실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④마지막으로 이러
한 사실을 지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김범수가 그가 혼란스런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정치의 전
면에 나섰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핀 바처럼 그는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 대단결의 통일조국을 건설하려 동분서주하였다. 그러한 그가 1947
년 8월부터 정치와는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 그가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다음의 추측은 가능하다.

우선 그 시점이 좌우합작을 추진하였던 여운형의 암살 사건 직후라는
점이 주목된다. 여운형은 1947년 7월 19일 암살되었다. 여운형은 앞서
설명하였다시피 건국준비위원회, 인민공화국, 좌우합작위원회 결성 등
이념을 초월한 통일국가를 건설하려 동분서주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
하였다시피 좌·우간의 대립 갈등이 증폭되며 좌우 합작 운동은 좌절되
고, 심지어 여운형의 암살이라는 비극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은 순수한 민족적 열정으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남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좌와 우의 이념공간을 넘나들었던 김범수는 크게 실망을 하였을 뿐 아니라 깊은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것이 그가 정계에서 완전히 떠나려는 이유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실적으로 미 군정청의 압력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다. 미군정청은 처음에는 박헌영과 대화를 모색할 정도로 남한의 모든 정치세력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국의 추이를 살피고 있었다. 1947년 3월 전남 민전 간부들과 정국 운영을 논의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좌·우합작위원회 활동도 주춤거리자 미군정은 우익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때부터 미군정은 좌익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갔다. 1946년 5월 있었던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배후에 공산당이 있다고 하여 공산당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미군정 당국은 1947년 들어 공산당은 말할 것 없고 우익 아닌 모든 정치세력을 공산당과 연결을 지어 탄압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미 군정의 정책 변화를 이용하여 서북청년회⁴¹⁾ 등 극우 정치세력들이 기승을 부렸다. 그들은 중도 정치세력까지 공산당과 연결 지으며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로부터 김범수도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그가 경영하는 남선의원은 서북청년회의 공격으로 병원 간판이 여러 차례 파손된 적이 있었다.⁴²⁾ 이러한 상황의 전개에 대해 김범수가 느끼는 심적인 부담은 매우 컸을 것이다. 특히 같은 민족에게 공격받았다는 사실은 독립운동가로서의 자존감이 강한 그로서는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가 정계에서 은퇴한 다른 이유일 것이라 믿는다.

41) 1946년 11월 30일 서울 YMCA 강당에서 대한혁신청년회, 복선청년회, 함북청년회, 황해회 청년부, 양호단, 평안청년회 등 이북 각 지역 출신들로 구성된 여러 청년단이 통합하여 결성된 단체이다. 이들은 우익 정당과 연결되어 인민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지역의 반대 조직을 좌익으로 연결을 지어 공격하였다.

42) 김범수의 마지막 모습을 본 유일한 증인인 이복순의 증언을 참고하였다.(2020. 4. 7. 이복순 증언)

김범수가 정계에서 은퇴를 결심한 것은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보다 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가 힘없는 의사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20세에 목숨을 걸고 광주 3·1운동을 주도한 결기는 많은 이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의 강직한 모습은 그의 3女の 친구인 그를 마지막 보았던 이복순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한영의 활동도 민전에 잠깐 이름을 보일뿐 이 무렵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무렵 광주, 전남 지도자들이 김범수처럼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분단을 극복하려다 좌절한 경우가 많았다. 완도 출신 독립운동가 문승수 선생도 해방 직후 잠깐 활동하였을 뿐 어떤 연유에서인지 일체 활동을 중단하였다. 좌·우의 이념을 떠나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에 환멸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최한영이 활동을 중단한 것도 해방의 환희보다 이후 전개되는 상황들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때 일어난 여순사건, 한국전쟁은 그를 한없이 절망하게 하였다. 그가 음풍농월(吟風弄) 벗삼아 서예와 궁도에 심취하게 된 배경이다.

제8장

• • •

민족을 사랑한 최한영

1. 민족을 사랑한 독립운동가, 초야에 묻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그는 무등산 동적골로 피난을 갔다. 80이 훌쩍 넘은 손녀 최은정은 조부의 손을 잡고 몸을 숨겼던 집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증심사 올라가는 허름한 한옥으로 필자를 안내한다.

손녀 최은정은 한국전쟁 때 폭격을 피해 비 광주공원 다리 근처 양철 지붕집 땅속에 가마니로 포장해 신발을 묻었다고 한다. 당시 고무신 바닥에는 ‘만월(滿月)’과 ‘천일(天日)’ 마크가 새겨져 있고, 총판점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손녀의 증언에 따르면 신발 재료를 공장에서 가져와 총판 대리점에서 완성품을 만들었다고 한다. 곧 가게에서 종업원들이 접착제를 이용하여 신발을 만드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1953년 전남연감에 학동 750번지에 천일고무공업주식회사 광주공장이 수록돼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장은 경상남도 김영준, 공장장 김중태, 지배인 최한영으로 표기됐다.¹⁾ 본래 종연방직터로 1950년대 말 천주교회가 인수한다. 남광주역 건너편 학동 937번지에는 남일피혁(윤승호)도 위치했다. 1953년 최한영이 천일고무산업의 호남 총괄 지배인을 맡았음을 알려준다.

1) 이 연감은 내용이 부실하다. 김영준은 1948년 10월 23일 여순사건때 봉기군에게 친 일파라 하여 죽임을 당했다. 위의 내용은 그가 죽은줄 모르고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최한영은 1950년 9월 28일 광주 국군이 들어오고 안정을 찾아가자 땅에 묻어 놓은 고무신을 꺼냈다. 손녀는 고무신이 찌그러져 있는 등 상태가 엉망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한영은 그 신발 모두를 광주의 가난한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배급하였다고 한다. 민족자본가이자 독립운동가 최한영다운 결정이었다. 그는 그가 모은 재산을,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이를 위해 흔쾌히 내놓았다.

이렇게 그는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후 더 이상 기업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의 며느리가 최한영이 운영한 고무신 가게터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어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 나갔다.

최한영은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활을 쏘거나 연진회에 나가 서예 공부를 하였다. 문자 그대로 음풍농월하였다. 그가 이렇게 초야에 묻혀 살려고 작정한 것은, 해방 직후의 혼란, 한국전쟁 때 그가 존경한 안재홍 등이 북으로 강제 납북된 데다. 민족지도자였던 이승만이 장기집권을 위해 반대파를 억누르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신에 연진회 창립회원으로 활동하였던 최한영은, 해방 이후에 연진회를 통해 서예 공부를 계속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가장 오랜 문화 서클의 하나는 광주의 연진회, 1939년 1월 16일에 허백련 화백을 중심으로 정운면, 구철우, 허행면, 최한영, 민병기 제씨가 모여 시작했다. 연진회라는 거목에서 뻗어난 가지가 두 개가 있으니 하나는 서도회(書道會)고 다른 하나는 서도연구회, 지금도 각각 30여 회원들이 매주 두 번씩 모여서 허백련, 손재형, 구철우 제씨에게 동양화와 서도의 지도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²⁾

1966년에 연진회가 중심이 되어 서도회, 서도연구회 등 많은 서예가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들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도 왕성하게 활동하였다.³⁾

2) 동아일보, 1966. 4. 12. 황철수설.

3) 『호남 한국화 300년전(年展)』 열린다 추진위 구성, 1984년 11월 5일부터 3대 도시

최한영이 이렇게 한국전쟁 이후 초야에서 묻혀 살았던 모습을 손녀 최은정은 조부 탄신 100주년을 맞아 추모사를 남겼다. 추모사에 최한영의 삶이 고스란히 오버랩된다. 그녀의 추모사를 전제한다.

“탄신(誕辰)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높으신 충의(忠義) 헤아려 보니
투철하신 애국정신
기미(己未) 독립 만세 부르고
부귀로 자처하지 않고
초야에 묻힌 선비이셨다.
음풍농월(吟風弄月) 벗 삼아
학(鶴)처럼 고고(孤高)했어라.
나라에 충성한 일편단심
오늘의 젊은이들 그 정신 받들어
나가야 할 덕목(德目) 바로 세우셨네.
산은 높지 않아도 신선이 살기에 명산(名山)이요
물은 깊지 않아도 용이 살기에 영수(靈水)이더라.
누추한 집이라 해도 사는 이의 덕이
향기로우면 누추하지 않다. 는
누실명(陋室銘)을 즐겨 읊으시며
문(文)과 무(武)를 겸비한 삶,
넓고 맑고 깊고 높은
홍익사상(弘益思想)의 길로 이끄셨네.
활을 쏘면 호랑이의 꼬리를 잡아당기듯.
산을 밀듯 기(氣)를 모았다.
방안에는 묵향(墨香) 그윽이 풍기고

순회”라는 제목 아래, 추진위가 구성되어 화단의 계보, 화풍을 재조명한다는 것인데, 이 행사의 지도위원으로 최한영이 구철우, 박행보, 하남호 등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경향신문, 1984. 2. 13.) 이듬해인 1985년 1월 10일 최한영은 광주 행사장을 찾은 이진희 문공부 장관과 면담을 하였는데, 이때 최한영의 소속을 ‘박물관회’로 밝혔다.(조선일보, 1985. 1. 11.)

연상(硯床)엔 서책이 가득했네.
반야심경(般若心經) 만 번 쓰고
마음 줄 고르셨는지
아침에 누운 몸 황혼 녘에 가셨네.
보훈 번호 제 591호
충의와 단심(丹心)
천년 길이 이어지소서.”

연진회에 나아가 서예 공부를 하고, 광주 활터가 있는 관덕정에서 사수(射手)를 하며 초야에 문헌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우리 전통문화의 보존과 활성화에 혼신을 다하였다. 그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궁도회장, 광주 국악원 원장, 광주박물관회 회장 자리가 이를 말한다. 궁도회장을 맡았을 때는 ‘사훈(射訓)’을 만들어 국궁을 단순히 활쏘기가 아닌 진정한 전통 문화로 인식하게 하였다.

2. 5.18 민중항쟁 수습에 앞장선 최한영

이렇게 초야에 문혀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광주에서 영향력이 있었다. 3·1운동 주동자인 김복현의 아들 김달호가 보관한 서류에 1960년 4.19 혁명 직후 광주 3·1운동 참여자들이 모임을 가진 흔적이 있다. 한 장의 종이에 참석자들이 본인들의 좌우명을 적었다. 최한영은 ‘살신성인(殺身成仁)’이라 적었다. 그의 평생의 삶을 압축한 것이라 하겠다.

최한영은 3·1운동 동지회장을 맡아 1966년 신동아에 회고담을 연재하는 등 광주 3·1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였다. 판결문에 들어 있지 않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광주 3·1운동은 그의 구술 덕에 복원이 된 경우가 많다.

초야에 문혀 있던 그의 삶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 일어났다. 1980년 5월 18일 한국전쟁 이후 일어난 최대의 민족 비극이 광주에서 일어났다. 새롭게 군부 독재를 이루려는 전두환 정권을 의도를 간파한 광주

시민들의 저항이었다. 광주에 엄청난 혼돈 상태에 빠졌다. 광주 지도자들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시민수습위원회를 결성하였는데, 최한영이 여기에 참여한 것이다.

1980년 5월 21일 오후 전남 도청을 접수한 시민들은 수습을 위해 각 계각층별로 모여달라고 방송하였다. 5월 22일 전남도청 부지사실에 마련된 수습위원회의 모임에 나갔다. 수십 명의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학생, 교수들이 모여 있어 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무작위로 수습을 위한 의견만 백출하였다. 한편 천주교 광주대교구 윤공희 대주교는 “이렇게 산만한 상태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 대표를 선정하여 체계 있게 수습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여 각계의 대표를 선정하게 되었다.

가톨릭교회 측에서는 윤 대주교님과 북동의 정규완 신부, 교구청 이영수 신부님이 참석하고 있었으므로 함께 논의하여 윤 대주교님께서 “조비오 신부가 가톨릭대표를 하라”라 하여 조비오는 5·18과 깊은 관계를 맺는 파란의 수습위원이 되었다. 이제 조비오는 하느님의 사도이기 이전에 ‘광주의 조비오’가 되어 갔다.

각계의 대표가 선정이 되고 나서 위원장을 뽑기 위해 “누가 위원장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자 이종기 변호사가 자기가 맡겠다고 하였다. 수습위원으로는 개신교 대표로 목사님 두 분, 독립운동가 최한영씨, 사업가 장휴동씨 등 11명으로 구성되었다. 최한영은 광주의 사실상 ‘어른’으로 참여하였다.

수습위원들은 계엄당국과의 수습을 위한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요구조건을 서로 이야기하였다. 대부분의 의견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와 민주주의의 표명을 공수부대원들의 무차별학살로 악화시켰으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폭적으로 계엄군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비상계엄 해제, 정치일정 단축, 유신잔당 퇴진, 구속학생 및 민주인사 석방, 군의 국방복귀, 평화적 가두시위에 대한 무력저지를 하지 말 것 등의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오고 나서 수습위원들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 내용은 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공수부대원들이 과격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폭압적인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7개항의 조건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7개항은 1. 계엄군의 과잉진압 인정 2. 구속학생 및 민주인사 석방 3.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보상 4. 발포명령 책임자 처벌과 국가책임자의 사과 5. 사망자의 장례식은 시민장으로 6. 무기는 자진회수 반납하고 계엄군의 무력진압을 반대하며 평화적 수습 7. 수습 후 시민·학생들을 보복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기로 하고 모아진 의견들을 가지고 수습위원 11명은 계엄분소(상무대)에 갔다.

계엄사에서는 새로 임명된 소준열 분소장이 상황을 모른다 하여 부사령관인 김기석 소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계엄분소 측에서는 김장군과 준장 3명, 보안대장(대령) 헌병대장(중령) 등이 참석하여 수습위원들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수습위원들은 7개항의 요구조건을 하나씩 차례로 설명하면서 제의하였다. 그러나 계엄사에서는 검토하겠다고 대답할 뿐 한발도 양보하지 않았다. 협상 결과 얻어진 것이라곤 선별석방 이외에 하나도 없었다.

허탈한 심정이었지만 협상내용을 시민들에게 보고해야 했다. 도청 앞 분수대에서 수습위원 중, 장휴동씨가 보고를 하자 시민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과연 무엇을 협상했느냐? 협상의 성과가 무엇이나? 보장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명노근 교수가 나서서 마이크를 잡고 시민들을 설득하였다.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자 무기를 회수하기 시작하여 처음엔 3,500여 정의 무기를 회수하여 도청 정문 옆에 모아놓았다. 그중 약 150여 정의 무기를 가지고 상무대 2차 수습회의에 참석했다. 계엄사 측에서는 “무기가 적다”는 트집을 잡았다. 우리들은 “또 회수해 올테니 시민들을 석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계엄사에서는 재야인사, 민주인사, 학생간부 등을 제외하고 일부 시민들을 석방하여 석방된 사람들과 함께 돌아왔다. 돌아와서 시민들에게 과정을 보고하는데 기대했던 인사들이 석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거센 항의를 해왔다.

두 번째 수습협상을 위해 상무대 계엄분소에 갔을 때, 부사령관인 김기석 장군이 수습위원들에게 말하였다. “무장헬기와 탱크가 준비되어 있어서 광주를 진압하려 한다면 몇 분 안에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인명살상을 하지 않으려고 군인들이 인내롭게 기다리고 있으니 무기를 빨리 회수하여 반납해 달라”는 요지였다. 수습위원들의 마음도 무기를 빨리 회수하여 사태의 수습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태의 발생 원인 규명과 그 책임소재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과 보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무기회수가 불가능하다”라고 설득 이해시키려고 애먹었다. 수습위원들은 “시민들을 지휘통솔 권한이 없으나 계엄사측에서 확실한 보장만 해 준다면 목숨을 걸고 무기회수를 하겠다”는 결의를 보였지만 계엄사의 태도는 무기반납만을 요구하는 냉랭한 고자세였다.⁴⁾ 최한영은 이러한 계엄군의 태도에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답답함을 느꼈다.

광주항쟁이 계엄군의 강경진압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이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위원회가 열렸다. 이때 수습위원들의 얘기가 나와 있다. 지극히 원론적이고 계엄군이 총칼을 들고 협박하는 상황이라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들의 진술을 보아야 한다.

“광주사태 국민모두가 자책-자성을”⁵⁾

광주 유지 발언 내용

- 김종호 지사: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내려왔으므로 민심순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기탄없이 자유롭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사태 수습과 관련한 의견을 말해 달라.
- 최한영(80. 독립투사 민심순화협의회 위원장):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충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꿈에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 문제를 말끔히 씻기 위해서는 한 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된다고

4) 조비오 신부 회고.

5) 조선일보, 1980. 7. 4.

생각한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책, 자성해야만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

오늘 많은 시민을 석방한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광주가 다른 도시보다 뒤떨어진 것은 광주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광주가 발전되도록 노력할 터이니 박총리 서리 등 정부지도자들이 적극 지도, 지원해 달라.

- 박찬일(72. 변호사) :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준 당국과 멀리 여기까지 내려온 총리에게 감사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국민과 정부당국에 송국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어디 있건 간에 엄청난 사태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교적 적은 희생 속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계엄 사령부에 또한 감사를 드린다. 만일 작전이 우물쭈물하며 시간을 끌어 잘못되었다면 희생은 컸을 것인데 최소한의 희생으로 성과를 거둔 작전의 공적을 높이 평가한다. 사후 수습에 모든 당국자가 불철주야로 원만하게 처리 노력해준 데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한다.

자체 반성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와 정부가 이 사건의 배후를 깊이 성찰해야만 한다고 본다.

- 전영희(56.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광주사태의 관련자들이 정부의 말을 믿고 자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
- 오항기(61. 전남대 총장) : 교수 6명과 직원 2명이 당국에 자진 출두했으니 깊은 배려를 해달라.

1980년 7월 4일 광주 남구 대촌동 임진의병 고경명을 배향한 포충사 건립 기념식이 당시 박충훈 국무총리 등 정·관계 고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때 최한영은 지역 원로로 참석하였다.

광주를 피로 적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어 광주를 방문하였다. 지역 원로로 최한영은 그를 만났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눈을 응시하고 있다 당당한 그의 기개를 엿보는 듯하다.

3. 최한영, 하늘의 별이 되다

최한영은 1990년 8월 6일 91세를 일기로 하늘의 별이 되었다. 그의 죽음은 전 광주시민이 애도하였다. 그가 운명하자 광주 각 단체에서는 곧 시민장을 거행하여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당시 신문보도 내용이다.

“독립투사 최한영 옹 별세 광주 시민장 거행키로⁶⁾

광주 시민장 거행키로

3·1운동에 참여했던 독립투사 최한영 옹(광주 서구 구동 37-22)이 6일 오후 6시 광주보훈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최 옹은 1919년 3월 8일 광주시 서구 사동 자기 집에서 독립선언문 경고문과 독립가 등 수천 부를 인쇄, 광주 시내 각지에서 배포하고 동지 및 수천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어 3년의 옥고를 치렀으며, 지난 77년 독립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었다.

한편 광주시는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임시 시정 자문위원회의를 열고 고 최한영 옹 광주시민장위원회위원장에는 이효계 시장, 부위원장에는 안종일 시교육감, 김상권 광복회 지부장, 박운중 시정자문위원장, 친지 고광표씨가 선임됐다. 영결식은 9일 오전 8시 30분 광주공원에서, 운구는 오전 10시 영결식장을 출발, 금남로 광주일고 어린이 대공원을 거쳐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조선일보 뿐 아니라 모든 언론이 그의 죽음을 대서 특필하였다. 그의 죽음은 광주를 깊은 슬픔에 빠지게 하였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시민장(市民葬)’으로 그의 장례를 결정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애도를 표하였다. 정부에서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여 빛나는 공적에 답하였다.

6) 조선일보, 1990. 8. 8.

4. 최한영의 유업을 빛낸 후손들

최한영은 1917. 5. 31. 화순 출신 조성숙의 딸인 조처례와 혼인하여 3남 4녀를 두었다. 조성숙은 본관이 창녕으로, 창녕 조씨들은 지금도 화순에서 명문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장남 일출은 1919년 4월 19일 태어났다. 일출이 태어났을 때 최한영은 광주 3·1운동 주역으로 체포되어 재판받고 있었다. 일출은 1936년 백부 최남립에게 양자로 입적되었다. 1924년 7월 20일 태어난 장녀 경예는 1942년 화순 출신 김홍명과 혼인하였다. 1926년 2월 3일 차남 삼출이 태어났다. 삼출은 서울대 음대에서 성악을 공부하던 중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지자 광주로 내려오려다 한강 인도교가 폭파될 때 사망하였다. 1931년 1월 1일 태어난 차녀 영례는 1956년 목포 출신 이영현과 혼인하였다. 1934년 12월 27일 태어난 삼녀 경림은 1961년 청원 출신 황남주와 혼인하였다. 1936년 10월 1일 태어난 4녀 복순은 1974년 사망하였다.

김달금과 혼인한 장남 일출은 2남 2녀를 두었다. 1940년 9월 21일에 태어난 장녀 은정(본명 숙자), 장남 창우(1941. 10. 16.생), 차녀 정자(1942. 9. 14생). 차남 창식(1945. 12. 10.생)을 두었다.

조부 한영의 높은 기개를 빼닮은 큰 손녀 최은정은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다. 전남여고 문인협회 회장을 맡아 여성 문인들의 창작 활동을 돕고 있고, 특히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현창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민족 기업을 일으켜 독립의 기틀을 삼고자 하였던 최한영의 정신은 그 며느리 김달금에게 이어졌다. 며느리는 최한영이 신발가게를 하였던 자리에 1954년 신선유업사라는 빙과가게를 열었다. 며느리는 이 가게를 운영하며 6남매를 가르쳤다. 그녀가 키운 신선유업사는 큰 아들 창우가 이어받았다.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한 어머니를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빙과류를 알게 된 창우는, 체계적인 공부를 위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화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 졸업 후 회사로 돌아온 그는, 신선유업을 세계적인 빙과회사로 키웠다. 1997년 주)라벨리로 상호를 바꾸었다. Lavelee는 ‘내

자신보다는 당신과 남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의미의 히브리어이다. 2003년에는 ISO 9001 인증도 받았고, 석탑산업훈장도 받았다고 한다. 현재 빙과 공장이 화순에 있는 대한민국 향토기업이며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다. 창업한 이래 70여 년 동안 한길을 걸어 온 국내 최고의 빙과류 제조·유통업체로 발전했다. 보국안민의 심정으로 창업한 기업으로, 어느 기업보다 정직과 품질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 수출하며 맛으로 인정받는 아이스크림의 대명사가 됐다. 2,677개의 빙과제조업체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살아남은 (주)라벨리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꿈꾼다.

창우는 "정직한 사람만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그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신념아래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라벨리의 이름값이며 고객 감동이라 굳게 믿는 이유다. 그는 "하나에서 열까지 정직, 최상의 상품은 정직이다."고 '정직'을 강조한다. '견리사의(見利思義)' 정신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한다. 조부 최한영의 가르침이 몸에 배어 있다.

모범적인 기업 정신을 실천한 최창우는 전남지역 소재 대학과 연구소에 거액의 산학 협력기금을 출연했고, 모교인 서울대학교와 광주일고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쾌척하였다. '자랑스런 일고인상', '자랑스런 서울대 농대 상록인대상'을 받는 명예도 얻었다.

창우가 이룩한 가업은 그의 아들 선웅과 현석 형제가 서로 우애하며 존경받는 호남의 대표 기업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창우의 장녀인 영화는 플롯 연주자로 동아콩쿠르에서 최고상을 받는 등 연기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창우의 누이 은정은 누구보다 조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는 조부 탄신 100주년을 맞아 추모시를 헌정하는 등 조부의 유업 계승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대수필가'로 양림동에서 선정한 '인문학 열전 100인'에 선정되었다. 광주 여성문인협회 대표를 맡아 여성들의 창작활동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큰 사위 박종현은 광주고(3회), 서울대 사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전남 교육 발전에 헌신하였다, 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장회의에 참

석하던 도중 쓰러져 순직하였다. 그가 순직하였을 때 “교육계의 큰 별이 떨어졌다”며 전남 교육계가 크게 슬퍼하였다고 한다. 은정 부부의 올곧은 가르침은 자녀들이 남부대학교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사위는 고려대학교 교수 등 대한민국의 명망있는 학자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다. 둘째 딸 정자는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녀의 부군은 미국에 건너가 활동하고 있는 재미의사이다.

한편 빛나는 조상들의 공적을 길이 빛내려고 후손들 중심으로 가정 ‘3·1회’를 결성하였던 장남 일출은 무양중학교의 후신인 비아중학교 이사장을 지냈다. 그가 작고하였을 때 장녀 은정이 유족 대표로 조사(弔辭)를 지었다. 다음은 조사 내용이다.

아버님 전 상서

- 최은정 -

2007년 9월 9일(음 7월 28일) 새벽 12시 15분, 89세를 일기로 아버지, 우리 곁을 떠나시다. 장마통에 비가 그치면서 삼오까지 고실고실한 날씨에 하늘도 푸르렀다. 덥도 춥도 않고 쾌청한 날씨가 우리들의 마음을 다독여 준다.

아버지 최 일자 출자 스물 한 살.

어머니 열여덟, 김 달자 금자 님과 혼인.

어머니 열아홉 살부터 스물아홉, 그 열 해 동안 나를 위시해 창우, 정자, 창식, 창복, 창주 연년생으로 여섯을 낳으셨다.

어릴 적에 창주, 장년에 창복을 잃었다. 서른세 해를 함께 한 부부, 아버지 55세 때, 52세 각시를 잃을 줄이야. 어머니 가신 지 삼 년 후 지금의 어머니 강 인자 옥자님을 맞아 서른 해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

신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병석에 누운 지 꼭 한 달 만에 고이 세상을 떠셨다. 홀연히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하늘 같은 은혜 어찌 다 갚으리오. 울음 대신 감사한 마음 몇 자 올립니다.

아버님 전 상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 두 분 아니시면 이 몸이 낳아 있을까. 하늘 같은 끝없는 은혜 어찌 다 갚으리오. 아버님, 저희들을 이목구비 바르고 건강하게 낳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바르고 끈게 미련스럽지 않고 영민하게 낳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선택하고 착하게 낳아 주시고 맑고 밝고 건강하게 길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생전에 저희들의 모범이 되게끔 흐트러짐없이 바르고 선하게 덕 베풀며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갚고자 한다면 바다보다 깊고 하늘같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아버님 당신은 비아중학교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세상 떠나는 이 순간 누워서 이 교정을 들렀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항상 보살피 주시옵소서.

아버님!

이제 아버님이 가신 그곳은 아버님처럼 선하고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

최 일자 출자 아버님, 세상에 남은 우리들은 아버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저희들을 낳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효자식들 올립니다.

2007. 9. 11.

※ 아버님은 생전에 문중학교 이사장직을 맡으셨습니다. 영결식장에서 교장선생님의 조사 끝나고 유족 대표로 제가 아버님 영전에 올린 글입니다.

■ 최한영 선생 연보

연도	주요 활동	국내	국외
1899. 5. 15. 출생	최양섭의 자	광주 사동 146번지	
1913. 3.	광주보통학교 졸업		
1914. 3.	광주농업학교 졸업		
1917.	신문잡지종람소 조직		
1919. 3. 10.	광주 3·1운동 주동	징역3년(1년 6월 복역)	
1919. 4. 30.	3·1운동 재판 선고	재기소	
1919. 4. 15.	3·1운동 재판	최한영 징역 1년6월	
1923. 7. 7.	민립대학설립기성회	상무위원	
1925. 8.	광주수재구제위원회	상무집행위원	음악회 개최
1926. 1. 4.	광주청년회임시위원회	지육부	
1926. 1. 29.	광주청년회 활동	구속 석방	집행위원
1926. 1. 30.	경성청년연합회 주최	광주사건 진상보고회	
1926. 1. 31.	경성청년연합	광주청년회 진상조사보고회 결의문 작성위원 선정	최한영 등 자본가의 주구로 공격
1926. 1. 31.	조선노동당 등 4단체	광주사건진상보고회	
1926. 2.	광주청년회 - 노동공제회 총돌	자본주의 주구로 비난 받음	
1926. 3. 14.	광주여자청년회 국제부인데이 기념	주제발표	
1926. 7. 26.~8. 5.	장성 삼서청년회 하기 연수	강사(동회 학원교원)	
1926. 7. 27.	장성 청년운동 특강	(내빈 축사)	
1927. 10. 29.	신간회 창립 제1회 간사회	총무간사	
1927. 11. 26.	광주청년동맹창립대회	위원	

연도	주요 활동	국내	국외
1927. 12. 16.	신간회 2회 정기총회	간사 선임	
1928. 6.	광주보교 분규 문제 개입		
1929. 10. 6.	광주에서 안재홍 만남		
1933. 8. 15.	광주 상민대운동회	추진회 총무	
1935.	신발대리점 확장		사정 131번지
1935. 6. 19.	광청회관부지문제 해결	실행위원	
1937. 3. 11.	광주상공회의소 임원당선	고무산업 대표	
1940. 10. 15.	시국에 순응 거부 (고무신탁회사사장 사임) 고무신 사업 관련	구속	
1946. 3. 9.	전남민주주의민족전선	재정부장	
1950.	신발총판대리점	(만월, 천일)	
1953.	천일고무공업주식회사	지배인, 회사 정리	
1954.	신업유업사	라벨리아이스크림창업 (최한영의 머느리)	
1990. 8. 6	타계 (건국훈장 애족장)		

부록 1. 3·1운동 판결문(예심)

대정 8년 형제 558호

- 박애순(朴愛順)(23세) 전라남도 목포부 양동(陽洞)
-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수피아여학교 교사
- 이달근(李達根)(27세) 평안남도 성천군 송인면(崇仁面) 창인리(昌仁里)
-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 서광산정(西光山町) 박춘도(朴春道) 집 거주 안마업
- 최영균(崔暎均)(20세)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수기옥정(須奇屋町)
-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교사리(校社里) 거주 농업
- 이동운(李東運)(24세) 경성부 삼청동(三清洞) 광주농업학교 기숙사 거주 생도
- 송기호(宋琪浩)(20세)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所安面) 비자리(櫃子里) 광주농업학교 기숙사 거주 생도
- 김정수(金丁洙)(21세) 전라남도 나주군 평동면(平洞面) 연산리(連山里) 광주농업학교 기숙사 거주 생도
- 정병소(丁炳沼)(22세) 전라남도 광주군 본촌면(本村面) 광주농업학교 기숙사 거주 생도
- 황오봉(黃五峰)(19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면(莞島面) 장사리(長沙里) 광주농업학교 기숙사 거주 생도
- 송광춘(宋光春)(23세)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雙置面) 금평리(金坪里) 농업
- 정두범(鄭斗凡)(21세) 전라남도 여수군 남면(南面) 우학리(牛鶴里)
-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김철주(金鐵柱)(19세)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금정(錦町) 생도
- 김성민(金聖敏)(20세) 전라남도 나주군 반남면(潘南面) 대안리(大安里)
-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김정수(金禎洙)(21세)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有治面) 학송리(鶴松里)
-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진신애(陳信愛)(20세) 전라남도 광양군 다압면(多鴨面) 신원리(新院里)
-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수피아여학교 교사
- 홍승애(洪承愛)(18세)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생도
- 홍순남(洪順南)(18세)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면(河東面) 읍내리(邑內里)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생도
- 박영자(朴永子)(19세) 전라남도 순천군 순천면(順天面) 옥천리(玉川里)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최경애(崔敬愛)(17세)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水北面) 주평리(珠坪里)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양태원(楊泰元)(16세) 경상북도 경주군 내남면(內南面) 덕천리(德川里)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최경동(崔敬東)(18세)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금정(錦町)
-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제중원 서기
- 김금석(金今石)(28세) 전라남도 화순군 외남면(外南面) 사평리(沙坪里)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제중원 간호인
- 김화순(金華順)(26세) 전라남도 강진군 고흡면(高勳面) 백양리(白楊里)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간호부
- 김순배(金順培)(20세) 전라남도 여수군 율촌면(栗村面) 조목리(稠木里)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고인(雇人)
- 조공찬(曹公贊)(40세)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북문통(北門通) 단야직(鍛冶職)

- 박재하(朴宰夏)(39세) 전라남도 제주도 제주면(濟州面) 중문리(中門里)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북문통(北門通) 거주 화상(靴商, 신발 가게)
- 최순우(崔淳祐)(21세)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고인(雇人)
- 국채진(菊採鎭)(18세)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면(潭陽面) 양각리(羊角里)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 북성정(北城町) 거주 고인(雇人)
- 이주상(李周庠)(52세) 전라남도 광주군 본촌면(本村面) 일곡리(日谷里) 농업
- 류상규(柳尙奎)(36세)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부동정 이발업
- 이윤호(李允鎬)(24세) 전라남도 광주군 본촌면(本村面) 일곡리 농업
- 민성숙(閔成淑)((30세) 전라남도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중흥리(中興里) 전라남도 광주면 부동정(不動町) 거주 무직
- 박창규(朴昌奎)(33세)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東面) 대포리(大浦里)
- 전라남도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중흥리(中興里) 농업
- 배광석(裴光錫)(22세)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유안리(柳岸里) 농업
- 노천목(盧千木)(22세)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森西面) 마량리(馬良里)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대공직(大工職)
- 정삼모(鄭三模)(24세)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鄕社里) 농업
- 차학봉(車學奉)(18세)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농업
- 임영구(林永九)(28세)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면(高敞面) 외정리(外亭里)
-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일용 노동자
- 변순기(邊舜基)(36세)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수기옥정(須奇屋町) 농업
- 최연순(崔連淳)(24세)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모도(茅島) 서리

-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농업학교 기숙사 거주 생도
- 강대년(姜大年)(26세)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水北面) 개동리(開東里)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鄉社里) 거주 송일학교 교사
- 신의구(申義求)(24세)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면(高興面) 등암리(登岩里)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송일학교 교사
- 이병환(李炳煥)(22세) 전라남도 광주군 본촌면(本村面) 일곡리(日谷里)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김판철(金判哲)(20세) 전라남도 함평군 식지면(食知面) 주박리(舟泊里)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장남규(張南奎)(20세)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생도
- 유계문(劉桂文)(20세)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생도
- 김영기(金永琪)(22세) 전라남도 나주군 봉황면(鳳凰面) 신창리(新昌里)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주형옥(朱亨玉)(21세)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同福面) 칠정리(七井里)
-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김학선(金學善)(24세)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珍原面) 영동리(永洞里)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김석현(金碩鉉)(19세)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조흥중(趙興鍾)(20세) 전라남도 순천군 순천면(順天面) 금곡리
-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이창호(李昌鎬)(19세) 전라남도 광주군 본촌면(本村面) 일곡리(日谷里)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원창권(元昌權)(22세) 전라남도 나주군 남평면(南平面) 노동리(蘆洞里)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주장암(朱張岩)(20세) 전라남도 화순군 송석면(松石面) 옥리(玉里)

-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황맹석(黃孟錫)(18세) 전라남도 순천군 순천면(順天面) 매곡리(梅谷里)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이남채(李南彩)(21세) 전라남도 광주군 서방면(瑞枋面) 중흥리(中興里)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김장수(金長洙)(19세) 전라남도 광주군 대촌면(大村面) 곡촌리(曲村里)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양만석(梁萬石)(16세)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新光面) 동정리(東井里)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정몽석(丁夢錫)(18세) 전라남도 광주군 송정면(松汀面) 도호리(道湖里)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박오기(朴伍基)(19세)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면(高興面) 울치리(栗峙里)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홍금돌(洪今突)(20세)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생도
- 김상원(金相元)(17세) 전라남도 순천군 순천면(順天面) 매곡리(梅谷里)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김필호(金弼浩)(17세)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玉果面) 옥과리(玉果里)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임진실(林眞實)(20세) 전라남도 순천군 순천면(順天面) 북문통(北門通)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고연홍(高蓮紅)(17세) 전라남도 제주도 성내면(城內面) 상천동(上天洞)
-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박성순(朴聖淳)(19세)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면(高興面) 옥하리(玉下里)
-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이태옥(李泰玉)(18세) 전라남도 순천군 쌍암면(雙岩面) 봉덕리(鳳德里)
-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김양순(金良順)(17세)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南面) 중대리(中大里)

-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양순희(梁順喜)(19세) 전라남도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중흥리(中興里)
-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서문통(西門通) 거주 생도
- 윤혈녀(尹血女)(20세)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생도
- 김덕순(金德順)(18세) 전라남도 광주군 본촌면(本村面) 본촌리(本村里)
-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조옥희(曹玉姬)(20세)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玉果面) 옥과리(玉果里)
-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이봉금(李奉錦)(17세) 전라남도 순천군 순천면(順天面) 금곡리
-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하영자(河永子)(18세)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黃龍面) 신흥리(新興里)
-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강화선(康華善)(16세) 평안남도 평양부(平壤府) 하수구리(河水口里)
-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생도
- 이라혈(李羅血)(17세)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생도 羅血事
- 김안순(金安淳)(20세) 전라남도 나주군 본량면(本良面) 산수리(山水里)
-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간호부
- 최수향(崔秀香)(16세)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생도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당법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굴감치랑(掘勘治郎) 간여로 심리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 피고 박애순(朴愛順)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 피고 이달근(李達根)·최영균(崔暎均)·이동운(李東運)·송기호(宋琪浩)·
김정수(金丁洙)·정병소(丁炳沼)

를 각각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 송광춘(宋光春)·정두범(鄭斗凡)·김철
주(金鐵柱)·김성민(金聖敏)·김정수(金禎洙)·진신애(陳信愛)를 각각 징
역 10월에 처하고, 피고 홍순남(洪順南)·박영자(朴永子)·최경애(崔敬
愛)·양태원(楊泰元)·강대년(姜大年)·신의구(申義求)를 각각 징역 8월
에 처하며, 피고 이병환(李炳煥)·김판철(金判哲)·장남규(張南奎)·유계
문(劉桂文)·김영기(金永琪)·주형옥(朱亨玉)·김석현(金碩鉉)·조흥중(趙
興鍾)·이창호(李昌鎬)·원창권(元昌權)·주장암(朱張岩)·황맹석(黃孟
錫)·이남채(李南彩)·김장수(金長洙)·양만석(梁萬石)·정몽석(丁夢錫)·
홍금돌(洪今突)을 각각 징역 6월에 처하며, 피고 최경동(崔敬東)·김금
석(金今石)·김화순(金華順)·김순배(金順培)·조공찬(曹公贊)·박재하(朴
宰夏)·최순우(崔淳祐)·국채진(國採鎭)·이주상(李周庠)·류상규(柳尙
奎)·이운호(李允鎬)·민성숙(閔成淑)·박창규(朴昌奎)·배광석(裴光錫)·
노천목(盧千木)·정삼모(鄭三模)·차학봉(車學奉)·임영구(林永九)·변순
기(邊舜基)·최연순(崔連淳)·김학선(金學善)·박오기(朴伍基)·김상원(金
相元)·김필호(金弼浩)·임진실(林眞實)·고연홍(高蓮紅)·박성순(朴聖
淳)·이태옥(李泰玉)·김양순(金良順)·양순희(梁順喜)·윤혈녀(尹血女)·
김덕순(金德順)·조옥희(曹玉姬)·이봉금(李奉錦)·하영자(河永子)·강화
선(康華善)·이라혈(李羅血)·김안순(金安淳)·최수향(崔秀香)을 각각 징
역 4월에 처하며, 피고 최경애(崔敬愛)·양태원(楊泰元)·조공찬(曹公
贊)·박재하(朴宰夏)·이주상(李周庠)·민성숙(閔成淑)·박창규(朴昌奎)·
배광석(裴光錫)·양만석(梁萬石)·김상원(金相元)·김필호(金弼浩)·고연
홍(高蓮紅)·김양순(金良順)·이봉금(李奉錦)·강화선(康華善)·이라혈(李
羅血)·최수향(崔秀香)에 대해서는 2년 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 홍승애(洪承愛)·황오봉(黃五峰)은 각각 무죄로 한다. 압수한 증1
호 내지 12호는 이를 몰수하고, 그 나머지의 압수품은 각 차출인에게 돌
려준다.

이유

일·한 병합 이래 이에 10년, 그동안 당국자가 조선계발을 위한 노력으로 백반(百般)의 시설이 점차 실마리를 찾아 선인(鮮人)의 행복이 더욱 증진되려 한 때에 맞추어 선인(鮮人) 중 일부 불령(不逞)한 무리가 해당 시설이 자기에게 편리하지 않음을 흡족하게 여기지 않고 만연히 조선 독립을 꿈꾸고 있을 때, 마침 만국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이라는 사항이 창도(唱導)되는데 그것이 조선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조선 또한 이에 의하여 독립할 수 있을 것으로 곡해하고, 조선 민족 독립의 기운이 도래하였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소리를 높여 조선 독립을 질호(叱呼)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을 해당 강화회의의 문제로 만들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개시하자고 절규하며 드디어 금년 3월 1일 고(故) 이태왕 전하국장 거행의 때를 기회로 수많은 선인(鮮人)이 각지로 부터 경성에 한꺼번에 모여들(蝟集) 기화로 손병희(孫秉熙) 외 32명의 연명으로써 ‘선언서’라 제목을 붙이고,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또는 세계 개조의 기운에 순응하기 위하여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민이 자주민임을 선언하여 세계만방에 알리고 인류 평등의 대의를 밝히면서 민족자존 주의를 영구히 자손에게 향유케 하고자 한다. 우리 민족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이민족의 억누름을 받아 생존권 및 심령(心靈) 발전을 가로막고 겹하여 세계의 문화에 공헌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이러한 목하의 고통을 벗어나고 장래의 압박을 면하며 구래의 억울(抑鬱)을 선포하여 우리 민족 각자가 정당한 인권을 발전시켜 자손의 행복을 도모할 최대의 급선무는 실로 민족의 독립에 있다. 우리는 우리 조선을 식민지시하고 우리를 토우(土偶, 흙으로 만든 우상)시하는 일본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병합으로 인하여 생기는 두 민족 간의 영원히 화동할 수 없는 원구(怨溝)를 심화시키는 금일의 상태를 타파하여 서로 행복을 위하여 새로운 방안을 개척하려는 것이다. 각설하고 함분 축원하게 하는

2천만 민족을 위압하는 따위와 같은 것은 동양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금일 조선 독립을 선언한 것은 선인(鮮人)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활을 수행하게 함과 동시에 일본을 반성케 하여 동양평화의 유지자로서의 중책을 완성하려는 데 있다.

위력의 시대는 이미 갔고, 도의의 시대가 왔다. 우리는 기탄없이 우리 고유의 자유를 향유해야 한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났다. 남녀노소를 구별없이 부활을 요구한다. 조종 천백의 명령은 우리를 안으로 도울 것이요, 세계의 기운은 밖에서 우리를 수호할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이에 착수하면 공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운운한 취지를 기재한 인쇄물 [이하 이 인쇄물을 편의상 ‘독립선언서’라고 약칭함] 을 비밀히 이들 재경 선인(鮮人) 사이에 배포하여 그 독립에 관한 사상을 고취한 결과 마침내 수만의 군중이 조선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경성 시내를 휘젓고 다니며 경성 시내를 소란케 하므로 각지의 불령 선인(鮮人) 또한 이에 화답하여, 동일(同一)한 망동(妄動) 행위를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때마침 불 일이 있다 하여 경성 봉래정(蓬來町) 신행여관(信行旅館)에 머물러 있던 나주군 나주면 금정(錦町) 김복현(金福鉉)은 위 선언서 수천 매, ‘경고 아(我) 2천만 동포’라고 제목이 붙은 “지금이야말로 각 민족은 강국의 기반(羈絆, 굴레)을 벗어나 세계 각국 평등의 지위에 오르는 기운에 향했고,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 우리 동포는 마땅히 속박의 줄을 끊고 최대의 결심으로 독립의 깃발 아래 오라. 속박의 생보라도 자유의 죽임을 택하라. 우리 동포는 분기(奮起)하라. 각성하라.”는 취지를 기재한 격문 약 100매, 선언서라 제목이 붙은 최팔용(崔八龍) 외 10명의 연명으로 된 “일한병합은 조선민족의 자유의사로 된 것이 아니고, 일본의 위계(偽計)와 당시 요로에 있던 선인(鮮人) 매국노들의 손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다. 게다가 당시 동양 평화를 위협한 러시아는 전연 군국적 야심을 포기했고 중국 또한 그러했다. 덧붙여 국제연맹이 실현되면 군국주의 침략을 감히 할 수 있는 국가는 없게 될 것이므로 합병 당시의 이유는 이미 소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병합은 우리 민족의 생존

과 발전을 협박하는 것으로 만약 일본이 한국을 보유한다면 선인(鮮人)의 혁명이 계속되어 동양 평화 교란의 원인이 되므로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써 우리 민족은 자유를 추구할 것이며 만일 성취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자기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모든 자유행동을 붙잡아 최후의 1인까지 자유를 위하여 열혈을 쏟을 것이다.”라는 취지를 기재한 인쇄물 약 150매, 조선독립을 구가한 독립가의 인쇄물 약 100매 및 ‘국민대소집 청원서’〔위 선언서 기재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일본 의회 및 정부에 대하여 조선 민족 대회를 소집하여 그 결의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주도록 한다는 취지를 기재〕 약 10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청년으로부터 전라남도 배부할 것을 위탁받고 수령하여 3월 6일 광주에 와서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김강(金剛)과 상의하고, 독립선언서의 취지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비상수단을 취할 결심을 하고 같은 곳에 있는 송흥진(宋興眞)·서정희(徐廷禧)·송일학교 교사 최병준(崔丙浚) 등과 모의한 끝에 학교 생도, 기타 찬동자는 단체가 되어 동월(同月) 10일 광주 큰 장으로 모여 김복현(金福鉉)이 독립선언서의 취지를 연설한 후 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광주 시내를 휘젓고 다니며 나아갈 것을 결의하고, 시내 일반 민에 대한 운동 참가 권유는 서정희(徐廷禧)가 이를 인수하여 송일학교 생도를 위 운동에 참가시키고, 또 그들 생도로 하여금 독립선언서 기타 인쇄물을 배부할 것은 최병준(崔丙浚)이 이를 맡고, 김강(金剛)은 수피아여학교의 교사인 피고 박애순(朴愛順)에게 교섭하여 독립선언서의 배포 및 해당 여생도의 운동 참가를 의뢰하고 3월 9일이 되자 이튿날인 10일 오후 3시 30분을 독립운동 개시의 시기로 결정하여 각 찬동자들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앞서 피고 박애순(朴愛順)은 생도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일신보’의 기사를 읽어 주고 만국강화 회의에서 조선도 독립이 승인되었으므로 각지에서 독립운동이 개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운동을 개시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최병준(崔丙浚) 또한 동(同) 생도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예수는 자기 한 몸을 희생하여 계급제도를 타파하고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그 교도인 우리는 여하한 장애라도 이를 배제하고 목적을 수행하는 데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교하였다. 다시 그는 또 자기가 교사인 것을 이용하여 송흥진(宋興眞)과 함께 송일학교 생도에 대하여 경성 기타 각지에서 이미 독립운동을 개시하였음에도 오직 우리 광주에서만 묵시한다면 후일 동지의 조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땅히 당지(當地)에 있어서도 같이 운동을 개시해야 한다고 중용하고, 또 동인은 결행 당일(當日) 생도들 가운데 중요한 생도 각 1인당 약 20매씩을 할당함으로써 독립선언서 등을 배포하고, 피고 박애순(朴愛順) 또한 당일(當日) 김강(金剛)으로부터 받은 같은 인쇄물을 자기가 교사로 있는 수피아 여학교 생도 가운데 중요한 생도로 하여금 분배시켰으며, 서정희(徐廷禧)는 운동 개시 이전 찬동자의 사용에 공여(供與)하려고 구 한국기를 가마니에 넣어 광주교(光州橋) 아래에 운반하여 두고 예정 시간이 되자 김복현(金福鉉)·김강(金剛)·서정희(徐廷禧) 등은 광주교 아래의 하천 변으로 가서 모여든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먼저 여러 회에 걸쳐 조선 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고 이에 독립운동의 개시를 선언, 각자 구한국기를 휘두르며 조선독립 만세를 절규하듯이 외치며 군중과 함께 하천변을 따라 광주천 언덕으로 올라와서 작은 장으로 나와 양림리(楊林里) 방면으로부터 송흥진(宋興眞)을 선두로 모여든 송일학교 생도단 수십 명, 피고 박애순(朴愛順)·진신애(陳信愛)를 중심으로 한 수피아여학교 생도 20여 명, 그리고 작은 장에 집합한 찬동자 수백 명과 합하여 천 명 이상의 대단체를 만들어 송흥진(宋興眞)은 조선 독립 만세라고 쓴 구한국 태극기를 꺼안아 들고 단체의 선두에 서서 이를 지휘하였다. 수피인 김복현(金福鉉)·김강(金剛)·서정희(徐廷禧)·최병준(崔丙浚) 등 또한 대열을 지휘, 군중의 대다수는 각자 구한국 작은 국기를 흔들고 국기가 없는 자는 혹은 모자를 벗어 흔들고 또 두 손을 높이 들어 조선독립 만세를 소리높여 외치며 용약(勇躍)하면서 작은 장터를 출발, 서문통을 지나고 우편국

앞에 당도하여 바른쪽으로 돌아 본정(本町)거리로 들어서서 전진하여 북문 밖에 이르자 같은 행동을 하며 누문리 방면으로부터 쇠도한 농업 학교 생도단 및 기타 찬동자로 된 수백 명의 집단과 합류하여 더욱 그 폭력스런 위세를 떨쳤는데, 이와 같은 동일 행위를 반복하면서 반대편으로 거슬러 올라가 우편국 부근에까지 전진하여 치안을 방해했거니와 피고 박애순(朴愛順)은 수괴인 김복현(金福鉉)·김강(金剛)·서정희(徐廷禧)·송흥진(宋興眞)·최병준(崔丙浚) 등의 망동에 관한 기도 획책에 참여하여 약 50매의 독립선언서 등을 수괴아여학교 생도들에 배포했고, 동 여생도의 운동 참가를 권유했으며, 피고 이달근(李達根)·최영균(崔映均)·이동운(李東運)·송기호(宋琪浩)·김정수(金丁洙)·정병소(丁炳沼)·송광춘(宋光春)·정두범(鄭斗凡)·김철주(金鐵柱)·김성민(金聖敏)·김정수(金禎洙)·진신애(陳信愛)는 주로 위 망동을 도와 이루어지게 하였고, 김철주(金鐵柱) 이외의 자는 많은 군중과 함께 전기(前記) 행동을 감행했다.

이달근(李達根)·송광춘(宋光春)·정두범(鄭斗凡)·김철주(金鐵柱)·김성민(金聖敏)·김정수(金禎洙)는 각각 담당구역 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했고, 최영균(崔映均)은 농업학교 생도에게 독립운동에 참가할 것을 권유했으며, 송기호(宋琪浩)·김정수(金丁洙)·정병소(丁炳沼)·김철주(金鐵柱)는 농업학교 생도와 송일학교 생도와의 독립운동 참가에 대하여 연락하는 것에 노력한 자로서, 그 중 송광춘(宋光春)·정두범(鄭斗凡)·김철주(金鐵柱)·김성민(金聖敏)·김정수(金禎洙)·진신애(陳信愛)는 그 사정이 약간 가볍고, 피고 홍순남(洪順南)·박영자(朴永子)·최경애(崔敬愛)·양태원(楊泰元)·강대년(姜大年)·신의구(申義求)는 각자 전기 운동에 참가, 시내를 휘젓고 다녔으며, 홍순남(洪順南)·박영자(朴永子)·최경애(崔敬愛)·양태원(楊泰元)은 운동 참가 여생도 중 중요 역할을 한 자로서, 참가 전에 사용할 국기를 미리 준비하고 강대년(姜大年)·신의구(申義求)는 교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도의 망동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생도와 함께 위 독립운동에 참가하였다.

피고 이병환(李炳煥)·김판철(金判哲)·장남규(張南奎)·유계문(劉桂文)·김영기(金永琪)·주형옥(朱亨玉)·김석현(金碩鉉)·조흥중(趙興鍾)·이창호(李昌鎬)·원창권(元昌權)·주장암(朱張岩)·황맹석(黃孟錫)·이남채(李南彩)·김장수(金長洙)·정몽석(丁夢錫)·양만석(梁萬石)·홍금돌(洪今突)은 전기 독립운동에 가담했고 또 독립선언서 등을 배포했으며, 피고 최경동(崔敬東)·김금석(金今石)·김화순(金華順)·김순배(金順培)·조공찬(曹公贊)·박재하(朴宰夏)·최순우(崔淳祐)·국채진(菊採鎭)·이주상(李周庠)·유상규(柳尙奎)·이운호(李允鎬)·민성숙(閔成淑)·박창규(朴昌奎)·배광석(裴光錫)·노천목(盧千木)·정삼모(鄭三模)·차학봉(車學奉)·임영구(林永九)·변순기(邊舜基)·최연순(崔連淳)·김학선(金學善)·박오기(朴伍基)·김상원(金相元)·김필호(金弼浩)·임진실(林眞實)·고연홍(高蓮紅)·박성순(朴聖淳)·이태옥(李泰玉)·김양순(金良順)·양순희(梁順喜)·윤혈녀(尹血女)·김덕순(金德順)·조옥희(曹玉姬)·이봉금(李奉錦)·하영자(河永子)·강화선(康華善)·이라혈(李羅血)·김안순(金安淳)·최수향(崔秀香)은 다른 사람과 뇌동하여 전기와 같은 독립운동에 참가한 자들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실 가운데 독립운동 개시의 전말(顛末) 및 피고 박애순(朴愛順)의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 김복현(金福鉉)이 당 공판정에서 “씨명 불상의 청년으로부터 판시(判示) 일시 및 장소에 있어서 판시(判示) 이유 아래 판시(判示)의 인쇄물을 받아 죽음을 각오하고 위 인쇄물을 배포할 것을 서약하고 3월 6일 광주에 와서 김강(金剛)의 소개로 송흥진(宋興眞) 집에 숙박하면서 김강(金剛)과 함께 상의하여 독립선언서의 취지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판시(判示)의 일반 방략을 정했으나, 광주의 사정에 정통하지 못한 자기는 각 담당자의 담당범위 및 실행방법은 모두 김강(金剛)에게 일임하였다. 결행 당일(當日) 자기는 작은 장부근의 언덕 위에서 형세를 관망하고 있으면서, 약 200여 명의 군중이 광주교 아래 천변에 모여드는 것을 보고 언덕을 내려와 이에 참가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천변 위로 올라가 작은 장터로 출발하여 송일학교 생도단 약 100명과 합세하여 서문 밖 부동정으로부터 서문통을 통과하여 우편국 앞에 이르러 왼쪽으로 꺾어 본정으로 들어가 북문 밖의 자동차 조합 앞에서 누문리 방면에서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며 올라오는 농업학교 생도단, 기타 군중과 합세해 천 수백 명의 단체가 되어 다시 돌아서서 광주우편국 부근에 도달하였다. 군중의 대다수는 독립만세기 및 구한국 국기를 휘두르고, 손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모자를 벗어 흔들고, 혹은 양손을 올려 수시로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미쳐 날뛰며 시내를 휘젓고 다녔다”는 취지로 공술(供述)

피고 김강(金剛) 또한 마찬가지로 “3월 6일 김복현(金福鉉)이 독립선언서 등의 인쇄물을 경성에서 가지고 와 그 배포방법의 상담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 동인(同人)과 일반 방략을 협정하고 그 실행방법은 자기와 피고 송흥진(宋興眞)이 이를 담당하였다. 또 사정을 최병준(崔丙浚)에게 알려 그 동의를 얻었다는 것과 당일(當日) 참가한 군중은 약 천명 이상이었다”는 공술(供述)검사가 작성한 동인(同人)의 제5회 신문(訊問)21) 조서 가운데 “송일학교는 송흥진(宋興眞)·최병준(崔丙浚)이 이를 담당하고 수피아여학교는 자신이 직접 박애순(朴愛順)에 교섭하여 생도의 출동을 촉구했고, 인쇄물 50통은 결행 당일(當日) 동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성내(城內) 일반 민에 대하여는 자기와 김복현(金福鉉)이 서정희(徐廷禧)에게 말하여 동인이 받아들였다. 3월 9일 최한영(崔漢泳)집에서 동인(同人)·한길상(韓吉祥)·김용규(金容奎)·김종삼(金鍾三)과 만나서 각자의 담당 구역을 정하고 독립선언서 등 300매를 한길상(韓吉祥)·김용규(金容奎)·최한영(崔漢泳)에게 분배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동(同) 약 1,000매를 최병준(崔丙浚)에게 교부하였으며, 박애순(朴愛順)에게 전기 독립선언서 등을 교부하였을 때 독립운동 결행의 일시를 알렸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

검사 작성. 피고인 서정희(徐廷禧) 제4회 신문(訊問)조서 가운데 “3월 8일 광주교 다리 아래에서 풋볼(축구) 놀이를 하는 청년에게 10일 오후

독립운동을 결행하겠으니 참가하라고 권유하고 또 그밖에 3,4명의 청년에게도 같은 권유를 하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

피고 최병준(崔丙浚)의 당(當) 공판정에 있어서 “3월 7일 김복현(金福鉉)으로부터 경성, 기타 각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 광주만이 묵시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독립운동 개시의 필요가 있음을 듣고 이를 찬동하고 자기가 숭일학교의 교사인 관계상 독립선언서 등의 배포 및 생도의 출동을 인수하고 3월 9일 밤 김강(金剛)으로부터 내일 독립운동을 결행한다는 말을 듣고 생도를 격려하여 위 운동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같은 날 밤 양림리(楊林里) 기념각에서 예수는 자기 한 몸을 희생하고 더불어 세인을 구제하고 계급제도를 타파하여 사회를 평등하게 하였다. 우리는 어떠한 난관이라도 배제하고 목적을 관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수피아여자학교 생도들에게 연설하였다. 10일 이른 아침 김강(金剛)으로부터 독립선언서 등 약 천 매를 수령하여 같은 날 아침 자기 소속의 숭일학교 보통과 고등과 각 학년으로부터 대표자로서 정두범(鄭斗凡)·김철주(金鐵柱)·김성민(金聖敏)·김판철(金判哲)·김정수(金禎洙) 외 1명을 나오라 하여 각급 생도 1명에게 약 20매 씩 할당하여 배포하도록 필요한 선언서 등을 교부하고, 또 위 6명에게는 남문 밖 또는 동문 밖, 그리고는 서문통에 각기 배포하도록 부서를 정하였다. 그리고 위 6명은 배포하는데 적당한 자로 생각하였다. 당일(當日) 독립운동에 참가한 인원수는 천 명 이상으로서 그 다수는 구한국 국기 또는 독립만세라고 쓴 기를 흔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자를 흔들고, 혹은 두 손을 들어 조선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며 시내를 휘젓고 다녔다. 향사리에 당도했을 때 군중의 선두에 서서 큰 깃발을 가지고 있던 자는 송흥진(宋興眞) 같았다. 자기는 일·한병합 이래 병합을 유감으로 여기고 독립의 기회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김복현(金福鉉)으로부터 독립운동의 거사를 듣고 기회는 왔다고 생각하며 이에 찬동하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송흥진(宋興眞) 역시 “3월 7일경 김복현(金福鉉)에게서 독립선언서를 읽는 것을 듣고 광주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로 독립운동을 일으

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때문에 이에 찬동하고 3월 7, 8일경 숭일학교 기숙사에서 모여 있던 생도 10여 명에게 독립운동은 다가오는 10일 개시한다는 취지를 알렸다. 당일(當日) 자기는 커다란 태극기를 들고 군중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시내를 휘젓고 다녔다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검사가 작성한 동인(同人)의 제2회 신문(訊問)조서 가운데, “군중의 지휘자는 김복현(金福鉉)·김강(金剛)·최병준(崔丙浚) 및 자기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

피고 최한영(崔漢泳)의 당(當) 공판정에서 진술, “3월 9일 자택에 한길상(韓吉祥)·김용규(金容奎)·김강(金剛)·김중삼(金鍾三)과 회합을 갖고 경성 기타 각지에서 독립운동이 개시되었는데 광주에서만 묵시(默視)할 수 없다. 마땅히 기치를 선명히 하여 대대적인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옳다고 협의하여 개시일을 10일 오후 3시 30분으로 결정했다. 당일(當日) 자기는 광주교 부근에서 독립선언서 수 매를 배포하고 또 서정희(徐廷禧)로부터 구한국 작은 국기 약 10개를 교부를 받아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한길상(韓吉祥)도 마찬가지로 “3월 9일 최한영(崔漢泳)집에서 동인(同人)·김용규(金容奎)·김강(金剛)·김중삼(金鍾三)과 회합하여 경성 기타 각지에서 독립운동 기색이 있으니 광주에서도 같은 운동을 안할 수 없다 하며 협의하여, 각자 선언서 배포 담당 구역을 정하고 선언서 약 100매를 수령하여 서방면 신안리 부호 또는 서당 등에 민족의 자결(自決)에 의하여 조선은 일본과 분리되어 독립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선언서를 배포하였다”는 취지로 공술(供述)

피고 김중삼(金鍾三) 역시 “3월 9일 최한영(崔漢泳)의 집에서 김강(金剛)·한길상(韓吉祥)·김용규(金容奎)·최한영(崔漢泳)과 회합하고 동인(同人)이 이기호(李起浩) 집에서 김복현(金福鉉)·서정희(徐廷禧) 등과 회합을 갖고 다음 날 10일 오후 3시 반을 기하여 운동을 개시한다고 결정했다는 말을 듣고 각인이 운동의 담임 구역을 정하였다. 그 구역은 확

실히 기억되지는 않으나 자기는 동문통 및 작은 장터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선언서를 배포할 것, 한길상(韓吉祥)은 북문 밖에서 누문리 일대에, 최한영(崔漢泳)은 큰 장터 및 광주교 부근에, 김용규(金容奎)는 서문 밖 및 남문 밖 방면을 각각 선언서를 배포하고 운동 참가에도 권유할 것을 결정했고, 한길상(韓吉祥)은 선언서 약 100매, 김용규(金容奎)는 선언서 약 50매를 김강(金剛)에게서 수령하였는데, 자기는 10매를 김용규(金容奎)에게서 받아 자기가 거주한 수기옥정 부근에서 선언서를 전부 배포하고 작은 장터에서 기다렸다. 오후 3시 넘어 광주교로 가서 구한국기 및 독립만세라고 쓴 기를 가진 군중의 일단이 광주천변을 올라오고 양림리로부터는 송일학교 생도단이 참가하여 군중은 약 천 명 이상으로 계산되었다. 또 다수의 군중은 광주교 밑에서 한국기를 가지고 왔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동(同) 피고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신문(訊問)조서 가운데, “자기는 4천 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 병합되어 버린 데 대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차에, 파리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주의가 창도(唱導)되어 강제로 남의 나라에 병합된 국가들을 독립시킨다는 일로 인해 선인(鮮人)이 병합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독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의 운동을 개시하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

동(同) 검사 작성 제2회 신문(訊問)조서 가운데, “최한영(崔漢泳)집에서 회합할 때 김강(金剛)이 양림리의 학교에 대한 수배를 인수하였다. 당일(當日) 어디서 만든 것인지는 몰라도 서정희(徐廷禧)가 구한국기를 가마니에 넣어 광주교에서 다수의 군중에게 배포하였다. 또 한길상(韓吉祥)도 당일(當日) 운동에 참가했다”는 취지의 진술

동(同) 제3회 조서 가운데 “깃발은 서정희(徐廷禧)가 가마니에 넣어 지참한 사실이 틀림이 없다. 한길상(韓吉祥)이 운동에 참가한 것은 김강(金剛)도 본정 거리에서 보았다고 동인(同人)이 말했다”는 취지로 각 공술(供述) 기재

피고 박애순(朴愛順)이 당(當) 공판정에서, “수피아여학교의 교사인

피고가 20여 명의 여학생과 함께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양림리로부터 작은 장터까지 와서 서문통을 경유하여 우편국 앞에 도달하고 구세군 지부까지 시내를 휘젓고 다녔다. 당일(當日) 김강(金剛)으로부터 독립선언서 약 50매를 받아 생도 홍순남(洪順南)·박영자(朴永子)에게 전부를 분배하여 주었다. 당시 다른 생도에 분배할 것을 명령하지 않았으나 두 사람이 다른 생도에게 분배할 것을 예상하였다. 자기는 독립을 절실히 희망하였기 때문에 그 운동에 참가하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사법경찰관 작성 피고인 박영자(朴永子) 신문(訊問)조서 가운데, “운동 개시 1주일 전 박애순(朴愛順)으로부터 신문 읽는 것을 듣고 강화회의에서 조선도 독립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독립을 도모할 의사가 생겼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임진실(林眞實)의 신문(訊問)조서 가운데, “박애순(朴愛順)이 신문 읽는 것을 들었고 조선도 독립될 수 있으므로 우리들도 만세를 부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여 생도들도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검사가 작성한 피고 임진실(林眞實)의 신문(訊問)조서 가운데 전항(前項)과 같은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강화선(康華善)의 제1회 신문(訊問)조서 가운데, “박애순(朴愛順)·진신애(陳信愛) 양 선생을 따라 다른 여학생과 같이 독립만세를 소리 높이 외치면서 시내를 휘젓고 다녔다”는 취지로 각 공술(供述) 기재

피고 이달근(李達根)·최영균(崔映均)·이동운(李東運)·송기호(宋琪浩)·김정수(金丁洙)·정병소(丁炳沼)·송광춘(宋光春)·정두범(鄭斗凡)·김철주(金鐵柱)·김성민(金聖敏)·김정수(金禎洙)·진신애(陳信愛)의 판시(判示)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 이달근(李達根)·김철주(金鐵柱)·진신애(陳信愛)를 제외한 다른 피고들이 각각 해당 공판정에서 “독립운동에 참가한 군중과 함께 독립을 축하하여 시내를 휘젓고 다녔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이달근(李達根)도 마찬가지로 “3월 10일 당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동일(同一) 오후 3시 경 작은 장터에서 씨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독립선언서 약 10통을 차 위에서 시내를 돌면서 살포했다. 자기는 내심 조선 독립을 희망하는 것도 맹목적이기 때문에 수괴로 되어 활동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동(同) 피고에 대한 신문(訊問)조서 가운데, “당일(當日) 독립운동은 작은 장터로 가서 몇 사람에게서 독립선언서 2, 30매를 받아 차별 없이 배포하고, 또 구한국기도 몇 명인가 주는 것을 받아 이를 가지고 조선독립 만세를 불렀다. 자기는 만국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을 창도(唱導)하여 병합된 나라들의 독립을 허용한다는 취지를 전해 듣고 또 각지에서 조선 독립의 소동이 일어났음을 들어, 이번 기회를 틈타 독립을 선언하기 위하여 다수 대중의 응원을 얻기 위해 김복현(金福鉉)·김강(金剛)·송흥진(宋興眞)과 상의하였는데 이들은 이미 이전부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3월 10일 운동을 개시할 것을 몰래 의논하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최영균(崔暎均)이 당(當) 공판정에서, “3월 9일 농업학교에 가서 기숙사 6번실에 모여 있는 같은 생도 십수 명에게 각지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상황을 알리고, 광주에서도 10일 운동을 개시한다는 취지를 말하였는데 동 생도들은 기꺼이 찬동하였다. 하여 10일 오전 중에 해당 학교로 가서 서정희(徐廷禧)로부터 들은 운동 개시 시각(당일 오후 3시 반)을 이동운(李東運) 외 수 명에게 알렸다. 운동 당일(當日) 자기는 두 손을 들어 만세를 외치면서 시내를 휘젓고 다녔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검사가 작성한 동 피고 신문(訊問)조서 가운데,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10일 운동에 농업학교 생도 참가를 권유한 당시, 기숙사에 있었던 생도는 15, 6명이었다. 또 운동을 위하여 행진 중 서정희(徐廷禧) 및 김용규(金容奎)가 다른 군중과 함께 휘젓고 다닌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

피고 이동운(李東運)이 당(當) 공판정에서, “자기는 농업학교 기숙사 입사생으로 최영균(崔暎均)에게서 10일에 독립운동이 개시된다는 말을

듣고 기꺼이 찬동하였는데, 다음 날 아침 개시 시간을 통지해 왔다. 또 깃발은 학교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작성된 약 3, 40본을 타인이 학교에 가지고 왔다. 당일(當日) 오후 3시 경 삼삼오오(三三五五)로 교사의 눈을 피해 학교 정문과 후문으로 약 28명이 나갔는데 누문리에 와서는 약 백여 명의 군중과 합세하여 읍내로 향하여 각자 손에 든 구한국기를 흔들며 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며 행진하여, 북문 밖의 조합자동차사무소 앞에서 본정에서 오는 군중과 합세하여, 수천 명이 되어 우편국으로 향하여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며 시내를 휘젓고 다녔다. 그러나 경관의 출동에 의하여 해산하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송광춘(宋光春)도 역시 “정두범(鄭斗凡)으로부터 광주에서 독립운동이 개시된다는 말을 듣고 알았다. 3월 10일 최병준(崔丙浚)으로부터 “다른 군중과 함께 독립운동에 참가하라” 하면서 독립선언서 약 20매를 받으라 하기에 이를 승낙하고 시내를 휘젓고 다닐 때 자동차 조합 앞에서 은행 앞까지 당도하는 사이에 살포했다. 자기는 선언서를 건네받을 때 최병준(崔丙浚)이 모든 행동은 송흥진(宋興眞)의 지휘를 기다리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송기호(宋琪浩) 역시 “농업학교 생도가 독립운동 참가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은 이동운(李東運)이 공술(供述)한 대로 틀림이 없다. 또 동생도가 운동에 참가하고 시내를 휘젓고 다녔다는 것 또한 동인(同人)의 공술(供述)에 틀림이 없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검사가 작성한 동인(同人) 신문(訊問)조서 가운데, “3월 8일 김정수(金丁洙)·정병소(丁炳沼)·황오봉(黃五峰)과 함께 송일학교에 갔는데, 그때는 송일학교에서 독립운동을 발기하여 조선독립 만세를 부른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확인하여 만약 함께 행동하기 위해서였으나, 정병소(丁炳沼)가 동교생(同校生)과 별실에서 만난 결과 그 학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확정되는 대로 통지하겠다고 하는 고로, 결정이 되면 같이 결행하자고 하고 동교(同校)를 나와 귀교 후 15, 6명 모여 있는 기숙생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

피고 김정수(金丁洙)의 당(當) 공판정에서 “이동운(李東運)의 공술(供述)과 같은 사정으로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누문리로부터 다른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고 북문 밖의 자동차조합 앞까지 당도하였다. 3월 9일 송기호(宋琪浩)·정병소(丁炳沼)·황오봉(黃五峰)과 함께 송일학교에 갔으며 정병소(丁炳沼)는 동(同) 생도와 만났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정병소(丁炳沼) 역시 “농업학교 생도의 독립운동에 참가한 상황은 앞서 기술한 이동운(李東運)의 공술(供述)과 같고, 당시 자기는 다수 군중으로 조금 늦게 자동차 조합 앞으로 나아가 다른 청년단체와 조선 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며 왔고, 3월 9일 송기호(宋琪浩)·김정수(金丁洙)·황오봉(黃五峰)과 함께 송일학교에 갔음이 틀림없으며 당시 송일학교 생도와 만나 의견을 나눈 것은 자기”라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정두범(鄭斗凡) 역시 “송흥진(宋興眞)으로부터 여러 곳에서 만세를 부른 것이 득책(得策: 훌륭한 계책)이라는 말을 들었고 독립운동 결행 당일(當日) 최병준(崔丙浚)으로부터 교부된 독립선언서 약 20매를 가지고 와서 북문통에서 위 선언서를 배포하면서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누문리로 갔다. 농업학교 생도들과 미리 약속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그 생도들이 출동하여 올 것이라고 믿었기에 한 것이라 했다. 3월 9일 농업학교 생도 4명이 송일학교를 찾아왔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김철주(金鐵柱) 역시 “자기는 최병준(崔丙浚)에게서 널리 배포하라고 10일 경 교부된 독립선언서 등 140~50매 가운데 보통과와 고등과 생도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독립선언서, 경고문 각 10매 정도를 휴대하고 같은 날 누문리 및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부락 등에 배포하고 좀 늦어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시내를 휘젓고 다니지 못하였다. 또 송일학교에서는 최초 독립선언서 등을 배포할 자와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시내를 행진할 자와 담당자를 구별하였는데 자기는 전자의 담당자였다. 위 부서는 최병준(崔丙浚)이 정한 것이다. 3월 9일 농업학교 생도 정병소(丁炳沼)와 만났는데 송일학교 생도 등이 독립운동을 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만약 사실이라면 농업학교 생도도 참석하는 데 동의하는 데에 어떠한가 해서, 자기는 사실 다음의 기도가 3월 10일 운동 개시하기로 결정했지만 개시 시각은 미정(未定)이라고 대답하니, 정병소(丁炳沼)는 그렇다면 보조를 같이 하겠다 하고 자기는 시간이 결정되는 대로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농업학교에서는 이미 독립 운동을 행할 것을 결정해 놓고 있었다. 다만 송일학교와 운동을 같이 하려고 온 것 같은 상황”이라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김성민(金聖敏) 역시 “3월 10일 교사 최병준(崔丙浚)이 독립선언서 150~60매를 동급생에게 배포하라고 했으므로 동급생 1명에게 20매 씩 분배하고, 자기는 최병준(崔丙浚)의 명에 의하여 잔여 매수를 당일(當日) 작은 장터에서 일반 민중에게 배포하였다. 자기가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고 휘젓고 다닌 곳은 최초에는 큰 장터에서 출발하여 작은 장터로 와서 서문통을 경유하여 우편국 앞에서 왼쪽으로 돌아 북문통에 당도하였고, 자동차조합 앞에서 누문리 방면에서 온 일단과 합류하여 또다시 돌아서 우편국 쪽을 향하여 갔다. 군중의 수는 약 3천 명 가량되었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김정수(金禎洙) 역시 “10일 아침 최병준(崔丙浚)에게서 독립선언서 140~50매를 받아 동급생인 3년생에게 분배하고 남은 10매를 당일(當日) 작은 장터에서 통행인에게 배포했다. 자기는 미리 만들어진 구한 국기를 가지고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시내를 행했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진신애(陳信愛) 역시 “자기는 독립운동에 참가한 수피아여학교 여생도 등의 뒤를 따라갔을 뿐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고 우편국 앞에서 한 번 만세를 불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최수향(崔秀香) 신문(訊問)조서 가운데, “박, 진 두 선생 등 28명과 함께 독립운동에 참가했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김필호(金弼浩) 신문(訊問)조서 가운데, “생도 약 30명과 박, 진 두 선생과 단체를 만들어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작은 장터에서 서문통을

경유, 우편국 앞에 당도하였다”고 공술(供述)

피고 김양순(金良順)·양순희(梁順喜)·김덕순(金德順)·윤혈녀(尹血女)·하영자(河永子)·강화선(康華善)·이라혈(李羅血)에 대한 신문(訊問)조서에 각각 같은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

피고 박영자(朴永子)·홍순남(洪順南)·최경애(崔敬愛)·양태원(楊泰元)·강대년(姜大年)·신의구(申義求)의 판시(判示) 범행에 대해서는 각 피고가 당(當) 공판정에서 “3월 10일 독립운동에 참가하고 시내를 휘젓고 다녔다”고 공술(供述)

피고 박영자(朴永子) 역시 “박애순(朴愛順)에게서 10일 아침 선언서를 수령하기 전에 홍순남(洪順南)·최경애(崔敬愛)와 함께 기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최경애(崔敬愛) 역시 “3월 8일 홍승애(洪承愛)에게서 3월 10일 독립운동이 개시된다는 말을 듣고 기를 만들었다”는 취지 공술(供述)

피고 양태원(楊泰元) 역시 “독립만세 개시 이전 국기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검사가 작성한 양태원(楊泰元)의 신문(訊問)조서 가운데, “3월 8일인 7일 밤 박영자(朴永子)·홍순남(洪順南)·최경애(崔敬愛)와 함께 구한 국기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

피고 박애순(朴愛順)은 공판정에서 “김강(金剛)에게서 받은 독립선언서 50매는 홍순남(洪順南)·박영자(朴永子)에 배포하였다”고 공술(供述)

피고 강대년(姜大年)·신의구(申義求)는 함께 송일학교 교원이었다는 것은 위 양인이 당(當) 공판정에서 각기 그 취지로 공술(供述)

피고 이병환(李炳煥)·김판철(金判哲)·장남규(張南奎)·유계문(劉桂文)·김영기(金永琪)·주형옥(朱亨玉)·김석현(金碩鉉)·조흥중(趙興鍾)·이창호(李昌鎬)·원창권(元昌權)·주장암(朱張岩)·황맹석(黃孟錫)·이남채(李南彩)·김장수(金長洙)·정몽석(丁夢錫)·홍금돌(洪今突)·양만석(梁萬石)의 전시(前示) 범행에 대해서는 위 각 피고들이 당(當) 공판정에서 그 취지를 공술(供述)

피고 최경동(崔敬東)·김금석(金今石)·김희순(金華順)·김순배(金順培)·조공찬(曹公贊)·박재하(朴宰夏)·최순우(崔淳祐)·국채진(菊採鎭)·이주상(李周庠)·류상규(柳尙奎)·이윤희(李允鎬)·민성숙(閔成淑)·박창규(朴昌奎)·배광석(裴光錫)·노천목(盧千木)·정삼모(鄭三模)·차학봉(車學奉)·임영구(林永九)·변순기(邊舜基)·최연순(崔連淳)·김학선(金學善)·박오기(朴伍基)·김상원(金相元)·김필호(金弼浩)·임진실(林眞實)·고연홍(高蓮紅)·박성순(朴聖淳)·이태옥(李泰玉)·김양순(金良順)·양순희(梁順喜)·윤혈녀(尹血女)·김덕순(金德順)·조옥희(曹玉姬)·이봉금(李奉錦)·하영자(河永子)·강화선(康華善)·이라혈(李羅血)·김안순(金安淳)·최수향(崔秀香)의 각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 김순배(金順培)·유상규(柳尙奎)·민성숙(閔成淑)·박창규(朴昌奎)·배광석(裴光錫)·조옥희(曹玉姬) 이외의 피고가 “당(當) 공판정에서 판시(判示)한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고 다른 군중과 함께 시내를 휘젓고 다녔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김순배(金順培) 역시 “작은 장터에서 군중이 독립운동을 위하여 독립만세를 부르짖고 오는 길에 조우(遭遇)하여 함께 2, 3회 독립만세를 불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유상규(柳尙奎) 역시 “자택 앞을 앞서 말한 무리를 지어 모은 단체가 통과하는 것을 보고 집 앞에 나와 함께 3회 정도 독립만세를 불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민성숙(閔成淑) 역시 “우편국 앞에서 독립운동의 단체를 만나 이에 화답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박창규(朴昌奎)의 당(當) 공판정에 있어서 위 민성숙(閔成淑)과 동일한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배광석(裴光錫) 역시 “서문통에서 독립운동의 단체와 조우하여 2회 독립만세를 불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조옥희(曹玉姬) 역시 “자기는 여학생단의 뒤를 따라가며 독립만세를 불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이상을 종합 조사하여 밝히고 또 압수한 판시(判示)의 취지가 기재된 손병희(孫秉熙) 외 32명이 연명으로 기재한 독립선언서, 경고문, 최팔용(崔八龍) 외 10명이 연명한 독립선언서, 청원서, 독립가 등의 문서의 존재, 대소(大小) 구한국국기, 조선독립 만세라고 붉은 글씨로 쓴 깃발 및 같은 모양으로 기재된 구한국기, 동 미완성 국기 등 현존하므로 이에 판시(判示) 사실을 인정한다.

법에 비추어 보건대, 각 피고의 행위는 공히 보안법 제7조에 해당되므로 조선형사령 제42조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의 범위 내에서 각 피고를 처분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각각 그 범죄의 사정에 의하여 주문 형량을 정하니, 피고 최경애(崔敬愛)·양태원(楊泰元)·조공찬(曹公贊)·박재하(朴宰夏)·이주상(李周庠)·민성숙(閔成淑)·박창규(朴昌奎)·배광석(裴光錫)·양만석(梁萬石)·김상원(金相元)·김필호(金弼浩)·고연홍(高蓮紅)·김양순(金良順)·이봉금(李奉錦)·강화선(康華善)·이라혈(李羅血)·최수향(崔秀香)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사정과 정황이 있으므로 각 형법 제25조를 적용하여 2년간 본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가(可)하고, 압수 증 제1호 내지 제12호는 본건 범죄에 사용되었고 또 제공하려 하였기에 피고 이외의 소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해 몰수하는 것이 옳다. 기타 압수품은 형사소송법 제202조를 적용하여 각 차출인에게 환부(還付)함이 옳다.

피고 홍승애(洪承愛)·황오봉(黃五峰)은 김복현(金福鉉) 등의 계획 취지에 찬동하여 본건 폭동 수행에 조력하여 조선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고 구한국국기를 흔들며 미쳐 날뛰며 광주 시내를 휘젓고 다녔다는 요지의 공소(公訴) 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동법(同法) 제224조에 의하여 각각 무죄를 언도함이 가하다. 따라서 주문대로 판결한다.

대정(大正) 8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고목안태랑(高木安太郎)

부록 2. 3·1운동 판결문(1심)

- 김복현(金福鉉)(30세) 전라남도 나주군 나주면(羅州面) 금정(錦町) 무직
- 김 강(金 剛)(29세)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농업
- 서정희(徐廷禧)(43세)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금정(錦町) 무직
- 최병준(崔丙浚)(24세)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송일학교 교사
- 송흥진(宋興眞)(33세)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농업
- 최한영(崔漢泳)(21세)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鄉社里) 전라남도청 고용인
- 한길상(韓吉祥)(24세)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수기옥정(須奇屋町) 유상(油商)
- 김종삼(金鍾三)(21세)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수기옥정(須奇屋町) 광주자혜의원 간호인
- 김용규(金容奎)(20세)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금정(錦町)
- 김범수(金範洙)(22세)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수기옥정(須奇屋町) 경성의학전문학교 생도
- 박일구(朴一求)(22세)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珍原面) 산동리(山東里) 무직
- 최정두(崔正斗)(21세) 전라남도 광주군 본촌면(本村面) 양산리(陽山里) 농업
- 김기형(金基亨)(25세)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北二面) 백암리(白岩里) 농업
- 김태열(金泰烈)(25세)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수기옥정(須奇屋

町) 광주보통학교 축탁교사

- 손인식(孫仁植)(26세)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金水面) 무학동(舞鶴洞)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거주 송일학교 교사
- 강석봉(姜錫奉)(22세)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수기옥정(須奇屋
町) 고인(雇人)
- 남궁혁(南宮赫)(38세)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남장로파 장로
- 이기호(李起浩)(34세)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鄕社里)
농업
- 박경주(朴京柱)(22세) 전라남도 광주군 송정면(松汀面) 선암리(仙岩里)
농업
- 범윤두(范潤斗)(34세) 전라남도 광주군 우치면(牛峙面) 생룡리(生龍里)
무직
- 정광호(鄭光好)(24세)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綾州面) 읍내리(邑內里)
무직
- 최기순(崔基順)(50세) 전라남도 목포부 호남정(湖南町) 무직

주문

피고 김복현(金福鉉)·김강(金剛)·서정희(徐廷禧)·최병준(崔丙浚)·송
흥진(宋興眞)·최한영(崔漢泳)·한길상(韓吉祥)·김종삼(金鍾三)·김용규
(金容奎)·김범수(金範洙)·박일구(朴一求)·최정두(崔正斗)·김기형(金基
亨)·김태열(金泰烈)·손인식(孫仁植)·강석봉(姜錫奉)·남궁혁(南宮赫)·
이기호(李起浩)·박경주(朴京柱)·범윤두(范潤斗)·정광호(鄭光好)에
대해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 피고 최기순(崔基順)에 대해 증거인멸죄로
각 피고 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 굴감치랑(掘勘治郎) 간여 심리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 김복현 (金福鉉)·김강(金剛)·최병준(崔丙浚)·한길상(韓吉祥)·김종삼(金鍾三)·최한영(崔漢泳)·김용규(金容奎)·김범수(金範洙)·박일구(朴一求)·최정두(崔正斗)·김태열(金泰烈)·정광호(鄭光好)·범윤두(范潤斗)·박경주 (朴京柱)를 각 징역 3년에 처하고,

피고 서정희 (徐廷禧)·송흥진 (宋興眞)·김기형 (金基亨)을 각 징역 2년에 처하며, 피고 손인식 (孫仁植)·강석봉 (姜錫奉)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 남궁혁(南宮嬾)·이기호(李起浩) ·최기순(崔基順)·김태열(金泰烈)의 범시(犯示)는 제1 범행이라는 점, 피고 서정희 (徐廷禧)가 동 출판법 위반이라는 점, 피고 강석봉(姜錫奉)은 보안법 위반이라는 점은 각각 무죄로 한다.

압수 물건 중 제200호의 1호, 2호, 4호, 5호 내지 11호, 제121, 131호의 1호 내지 12호는 각각 이를 몰수하고, 그 나머지 압수품은 각기 차출인에게 되돌려 준다.

피고 김용규(金容奎)·정광호(鄭光好)·범윤두(范潤斗)는 각각 궤석에 붙여 스스로 이 판결의 송달을 받고 형 집행으로 판결하니, 이를 안 날로부터 3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유

제1. 일·한 병합 이래 이에 10년, 그 사이에 당국자가 조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 많은 시설이 좋아져서 선인(鮮人)²²⁾의 행복감이 날로 증진되고 있는 때에, 선인 가운데 일부 불령(不逞)한 무리들이 그 시설이 자기에게 편리하지 않다고 기뻐하지 않음이 만연하여 조선독립을 꿈꾸

었는데, 우연히 만국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이 앞장서 주장되었으나 그것은 조선과 하등 관계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조선 역시 따라서 독립을 얻을 수 있다고 곡해하여 조선민족 독립 기운이 왔으니 우리는 마땅히 그 소리를 크게 하여 조선독립을 절규하듯 외침으로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해당 회의 문제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부르짖었다. 이 때문에 이태왕(李太王) 전하 국장 거행의 때에 많은 선인(鮮人)이 경성으로 모여들어 드디어 본년 3월 1일 같은 곳에서 손병희(孫秉熙) 외 32명이 연명으로서 선언서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또는 세계 개조의 기운에 순응하기 위하여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민이 자주민임을 선언하여 세계만방에 알리고 인류 평등의 대의를 밝히면서 민족자존의 주의를 영구히 자손에게 향유케 하고자 한다. 우리 민족은 유사 이래 수 천 년을 경유하며 처음으로 이민족의 견제(箝制)를 받아 생존권리를 박탈당하고 심령(心靈) 발전을 장애 받아 미리 세계의 문화에 공헌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이러한 현재의 고통을 벗어나고 장래의 압박을 면하며 구래의 억울(抑鬱)을 선포하여 우리 민족 각자가 정당한 인권을 발전시켜 우리 자손의 행복을 도모할 최대의 급선무는 실로 우리 민족의 독립에 있다. 우리는 우리 조선을 식민지시하고 우리를 토우(土偶, 흙으로 만든 우상)시하는 일본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병합 때문에 생기는 두 민족 간의 영원히 화동할 수 없는 원구(怨溝)를 심화하는 금일의 상태를 타파하여 서로 행복을 위하여 새로운 방안을 개척하려는 것이다. 만약 대저 축원하는 2천만 민족을 위압하는 것과 같은 것은 동양평화를 보장하는 소이가 아니다. 우리가 금일 조선독립을 선언한 것은 선인(鮮人)으로서 정당한 생활을 수행하게 함과 동시에 일본을 반성케 하여 동양평화의 유지자로서의 중책을 완성하게 하려는데 있다. 위력의 시대는 이미 갔고, 도의의 시대가 왔다. 우리는 기탄없이 우리 고유의 자유를 마땅히 향유해야 한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났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활을 요구한다. 안에서는 조종 천백의 명령이 우리를 도울 것이요, 밖에서는 세계의 기운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일에 착수하면 공은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운운(云云)” 한 취지를 기재한 인쇄물〔이하 이 인쇄물을 편의상 ‘독립선언서’라고 약칭함〕과, ‘경고 아 2천만 동포’라고 제목이 붙은 “지금이야말로 각 민족은 강국의 기반(羈絆, 굴레)을 벗어나 세계 각국과 평등한 지위에 설 수 있는 기운에 향해 있다.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 우리 동포는 마땅히 속박의 줄을 끊고 최대의 결심으로 독립의 깃발 아래로 나아가자. 속박된 삶보다 차라리 자유를 위하여 죽자. 우리 동포는 분기(奮起)하라. 각성하라.”는 취지를 기재한 격문 선언서와, 최팔용(崔八龍) 외 10명의 연명으로 “4300년 장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문명 민족의 하나로서 그간 아직 다른 민족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도 하루 아침에 일본 군국주의 야심에 희생되었다. 일·한병합은 조선민족의 자유의사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일본의 위계와 당시 요로에 있던 선인(鮮人) 매국노들의 손으로 성립된 것이다. 게다가 당시 동양평화를 위협한 러시아는 전연 군국적 야심을 포기했고 중국의 현 상황 또한 그러하다. 덧붙여 국제연맹이 실현되면 군국주의 침략을 감히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합병 당시의 이유는 이미 소멸되었다고 해야 한다. 병합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협박하는 것으로 만약 일본이 한국을 점유한다면 선인(鮮人)의 혁명이 계속되어 동양평화 교란의 원인이 되므로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유를 요구할 것이고, 불행히도 성공의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는 자기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모든 자유행동을 강구하여 최후의 1인까지 자유를 위하여 열혈을 쏟을 것이다. 운운” 취지를 기재한 인쇄물, 조선독립을 구가한 독립가 인쇄물, 기타 앞서 기록한 최팔용(崔八龍) 외 10명이 연명한 선언서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일본 의회 및 정부에 대해 조선 민족 대회를 불러 보아 그 결의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국민대회 소집 청원서’라는 제목이 붙은 인쇄물 등, 여하튼 조선의 헌법을 무너뜨리는 출판물을 비밀리에 이들 재경 선인(鮮人)에게 반포하고, 드디어 당일(當日)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만의 군중에게 조선독립 만세를 소

리 높여 외치며 경성 시중을 휘젓고 다니며 시내를 소란스럽게 하였으며, 각지의 불령 선인(鮮人) 또한 이에 호응하여 동일한 행동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경성부 봉래정(蓬萊町) 신행여관(信行旅館)에 머무르며 숙박 중이던 피고 김복현(金福鉉)은 그 상황을 목격하고 그가 평소에 희망한 조선 독립의 좋은 상황이 도달했다 생각하고, 앞서 기록한 출판물 각 여러 통을 입수함에 따라 이를 등사, 전라남도 각지에 반포하여 같은 곳의 선인(鮮人)에게 조선독립 사상을 고취시키고 광주에서도 소위 독립운동을 개시하고 멀리 떨어진 경성 기타 각지에서 일어났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망동행위에 성원해달라고 결의하고 동월 6일 해당 출판물을 휴대하고 당지(当地: 바로 그곳)에 와서 안면이 있는 피고 김강과 서로 만나 알렸다. 김강의 소개로 피고 송흥진(宋興眞) 집에 숙박하고, 피고 김강과 상의하여 독립선언서에 기재된 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비상수단을 강구하기로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획을 정하였다.

“1. 큰 시장에서 모두 찬동자를 집합시켜서 먼저 피고 김복현(金福鉉)에게 독립선언서 취지를 연설하게 한 후 조선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며 시내를 휘젓고 다닐 것2. 학교 생도 중에서 열심인 자를 물색해 이들에게 미리 비밀리에 선언서 등을 배부하고 결행 당일(当日) 그 생도가 다른 생도에게 분배하고 많은 군중에게 살포케 할 것3. 각 관청에는 동결행 당일(当日) 적당한 자를 선정하여 인쇄물을 배포하게 할 것4. 각 정(町)은 그 정의 찬성자 또는 생도로서 각기 그 부서에 따라 배포하게 할 것”그리고 피고 김복현(金福鉉)은 당지(当地)의 사정에 정통하지 않으므로, 각 담당자의 담당 범위를 정하고 기타 일반 방략 실행에 관한 사항은 모두 피고 김강에 일임하였다. 이에 피고 김강(金剛)은 동지를 규합하여 같은 날 밤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피고 남궁혁(南宮赫) 집에 피고 김복현(金福鉉)·최병준(崔丙浚)·송흥진(宋興眞)·최정두(崔正斗)·한길상(韓吉祥)·김용규(金容奎)·김태열(金泰烈)·

강석봉(姜錫奉)·손인식(孫仁植) 외 여러 명과 만나 의논하여 피고 김복현(金福鉉)은 경성에서 휴대하여 온 각 출판물을 일동에게 보이며 경성에서의 독립운동 상황을 알리며 광주에서 이것에 호응하여 일을 일으키자 하고, 위 출판물을 등사하여 운동 개시 때 널리 일반에게 반포하면 좋겠다는 제의에 회합자 모두 이에 찬동하였다.

동월(同月) 8일 큰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운동을 개시하려고 독립선언서 등의 인쇄는 시내 선인(鮮人) 청년에게 담당시키고 인쇄용지 1만 매는 피고 강석봉(姜錫奉)에게 구매를 담당하게 하였고, 인쇄용기는 송일학교 소장 등사판을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 최병준(崔丙浚)·손인식(孫仁植)·송흥진(宋興眞)은 송일학교 생도를, 피고 김태열(金泰烈)은 광주 보통학교 생도를 각기 권유하여 독립운동에 참가시킬 것 등을 모의 결정하는 즉시 피고 최병준(崔丙浚)은 피고 송흥진(宋興眞), 손인식(孫仁植)에게 송일학교에서 등사판 2개를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 강석봉(姜錫奉)은 이튿날 7일 아침 광주시내 조창(朝倉), 대강(大岡) 각 상점에서 백지 1만 매를 구입하여 피고 한길상(韓吉祥)에게 교부하고, 피고 한길상(韓吉祥), 김용규(金容奎) 등은 남궁혁(南宮赫) 집에서 곧 독립선언서 등의 인쇄에 서둘러 들어갔는데 밤에도 엄중한 경찰관현의 경계, 기타 사고로 인쇄를 할 수 없어 인쇄 장소를 광주면 수기옥정 김언수(金彦洙) 집으로 옮기어서도 앞서와 같은 이유로 인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다음날 8일 세 번째 인쇄 장소를 동면 향사리 피고 최한영(崔漢泳) 집으로 옮겨 동일부터 다음날 9일 저녁까지 앞서 언급한 등사판 백지 및 피고 최정두(崔正斗)가 자택에서 가지고 온 등사판을 사용하여 피고 김용규(金容奎), 최정두(崔正斗)·범윤두(范潤斗)·김종삼(金鍾三)·한길상(韓吉祥)·최한영(崔漢泳) 등이 협력하여 반포 목적으로 위에 서술한 조선의 헌법을 문란시키는 사항을 기재한 독립선언서, 경고문, 독립가 등 합계 수천 통 인쇄를 마쳤다. 이에 앞서 동월(同月) 7일 밤 피고 서정희(徐廷禧)는 자기 집에서 김강(金剛)·김태열(金泰烈)·범윤두(范潤斗) 외 1명

과 만나 전날 밤 남궁혁(南宮赫) 집의 회합에서 결정한 출판물은 피고 서정희(徐廷禧)의 발언을 토대로 수십 명 동지를 선별하여 운동 개시 당일(當日) 시내 각 집에 배포할 일을 결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운동 개시 때인 3월 8일까지 (인쇄물) 발행이 불가능하다 하므로 동월(同月) 9일 다시 피고 이기호(李起浩) 집에 피고 김복현(金福鉉)·김강(金剛)·서정희(徐廷禧)·송흥진(宋興眞) 등이 서로 만나 위의 운동 개시 방법, 시일 등을 협의하고 있는데 피고 김태열(金泰烈)에게서 독립선언서 등의 인쇄는 동일(同日) 완료될 수 있다는 뜻을 전해 듣고 드디어 독립운동의 결행 일시를 익일인 10일 오후 3시 반으로 결정하였으며, 피고 김강(金剛)은 같은 날 밤 위 시각을 동지에게 통지하고 또 반포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수령하기 위해 같은 날 밤 피고 최한영(崔漢泳) 집에 이르니 필요한 출판물의 인쇄는 이미 완료되어 있었다. 마침 거기에 있던 피고 최한영(崔漢泳)·김종삼(金鍾三)·김용규(金容奎)·한길상(韓吉祥) 등과 만난 피고 김강(金剛)은 명일(明日: 내일) 오후 3시 30분에 광주 큰시장에서 독립운동을 개시한다는 뜻을 알리고, 독립선언서 등의 인쇄물의 배포 집합 시간을 알리고 운동 참가 권유에 관해 피고 김강(金剛)은 양림리(楊林里) 해당 학교를, 피고 한길상(韓吉祥)은 농업학교 및 누문리 일대를, 피고 김용규(金容奎)는 부동정 방면 및 남문통 일대를 각기 담당하였고, 또 피고 김종삼(金鍾三)은 당일(當日) 작은장에 이르러 서로 담당자로 인정된 자에 대해 운동 개시를 알리는 일을 각 협정하고 실행에 관한 부서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한길상(韓吉祥)은 독립선언서 인쇄물 약 100통, 피고 김용규(金容奎)는 같은 인쇄물 50통, 피고 김종삼(金鍾三)은 위 김용규(金容奎)에게서 같은 인쇄물 십 수 통을 받고 흩어졌는데, 피고 김강(金剛)은 출판물 대부분 및 당일(當日) 같은 곳에서 피고 김태열(金泰烈) 등 여러 명에게 인쇄된 최팔용(崔八龍) 외 10명이 연명된 선언서 약 5, 60부를 함께 반포하기로 의뢰를 받아 가지고 귀가하였다. 귀가하는 도중에 피고 김태열(金泰烈)과 함께 피고 최병준(崔丙浚) 집에서 동인(同人)에게 독립선언서, 격문, 최팔용(崔八龍)의

선언서 등 약 천 매를 교부한 다음 수피아여학교에 도착하여 같은 유인물 약 50매를 교사 박애순(朴愛順)에게 교부하고, 각 독립운동 개시 시각을 통지하였다.이에 앞서 박애순(朴愛順)은 생도에게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일신보의 기사를 읽어주어, 만국강화회의에서 조선독립을 승인받기 위해 각지에서 독립운동이 개시되고 있는데 차체에 우리도 그 운동을 개시하여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는 것이 좋다고 설득하였으며, 피고 최병준(崔丙浚)은 일요일을 이용하여 3월 9일 밤 해당 여학교 부근의 교회에서 동교(同校) 생도 등에게 “예수는 자기 한 몸을 희생하여 계급제도를 타파하고 자유를 위하여 끝까지 진력했다. 기독교도인 우리는 어떠한 장애도 배제하고 그 목적을 관철시키자”고 설교하며 생도의 독립운동 참가를 종용하였고, 한편 피고 최병준(崔丙浚)은 자기가 교사인 것을 이용하여 송일학교 농감인 피고 송흥진(宋興眞)과 함께 동교(同校) 생도에 대해 경성 기타 각지에서 이미 독립운동을 개시하였는데 유독 우리 광주에서 묵시(默視)하면 다른 날 동지의 조소(嘲笑)를 어찌할 것인가. 마땅히 당지(當地)에서도 같이 운동을 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였다.

피고 김강(金剛)에게서 앞서 기술한 인쇄물의 배포를 받은 피고 최병준(崔丙浚)은 송일학교에서 당일(當日) 생도의 중책을 맡은 자인 각 생도에 약 20매씩 배포하라는 뜻을 전달하며 소용되는 인쇄물을 교부하고, 또 시내에서 배포 구역의 분담 및 운동 개시 시각을 알렸으며, 피고 박애순(朴愛順)도 마찬가지로 앞서 기술한 여학교의 생도에게 인쇄물을 분배하고 각기 출동 준비를 하였으며, 피고 최병준(崔丙浚)은 운동 개시 시각 임박하여 성명 불상의 생도에게 시내 각 관청에 독립선언서가 봉인된 편지를 몰래 투입, 반포하게 하였다. 피고 김복현(金福鉉)은 독립운동의 개시에 앞서 작은 장터 부근의 언덕 위에서 형세를 살피었고, 피고 서정희(徐廷禧)는 앞서 기술한 김언수(金彦洙) 집 및 피고 최한영(崔漢泳)집에서 미리 작성하여 둔 구한국 작은 깃발을 가마니에 넣어 광주

교 다리 아래 강변에 반출하여 운동 참가자의 사용에 준비하였으며, 예정 시각이 다가오고 함께 다수의 조선인(鮮人)이 위 강변에 모여들자 피고 김복현(金福鉉)은 언덕을 내려와 피고 김강(金剛), 서정희(徐廷禧) 등과 함께 해당 하천으로 와서 수 백명의 군중과 함께 여러 차례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듯 불렀으며, 이에 독립운동의 개시를 선언하여 각자 한국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며 군중과 함께 강변을 따라 광주천변을 올라가 작은장으로 나와 양림리(楊林里) 방면에서 출동하여 온 숭일학교 생도단 수십 명, 피고 박애순(朴愛順), 진신애(陳信愛)를 중심으로 한 수피아여학교 여생도단 20여 명 및 작은 장터에 미리 모인 수백 명의 찬동자를 합해 천 명 이상의 대단체가 되었다. 피고 송흥진(宋興眞)은 조선독립만세라고 적힌 구한국 큰 국기를 옹립하고 단체의 선두에 서서 이를 지휘하였고, 피고 김복현(金福鉉), 서정희(徐廷禧), 최병준(崔丙浚) 역시 책임자로 참가하였으며, 피고 한길상(韓吉祥), 김용규(金容奎), 김종삼(金鍾三) 역시 각기 앞서 기술한 임무를 완료하고 와 만났다. 피고 최한영(崔漢泳)은 광주교 아래에서 피고 서정희(徐廷禧)가 준비한 구한국 작은 깃발을 군중에 배포한 이후 많은 군중과 행동을 함께 했다. 군중 가운데 다수는 구한국 작은 깃발을 흔들었고, 혹은 모자를 흔들고, 또는 두손을 들었다. 흐트러진 대오를 조직하며 뛰어나니며 조선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작은 장터를 출발하여 서문통을 경유하여 우편국 앞에 도달한 후 왼쪽으로 꺾어 본정 거리로 들어와 전진하여 북문 밖에 이르렀는데, 동일 행동을 하려고 누문리 방면에서 쇠도한 농업학교 생도단 및 기타 찬동자로 이루어진 수백 명 단체와 합해져 더욱 그 세력을 드러내 이전과 마찬가지로 행위를 반복하였다. 거꾸로 거슬러 와 우편국 부근까지 휘젓고 다니며 치안을 방해하였다. 피고 김복현(金福鉉)·김강(金剛)·서정희(徐廷禧)·송흥진(宋興眞)·최병준(崔丙浚)은 실로 본건 망동의 수괴로 기도 획책하였고, 피고 한길상(韓吉祥)·김용규(金容奎)·최한영(崔漢泳)·김종삼(金鍾三) 등은 모의에 참여하고 그 기도 획책에 실행을 담당하였으며, 피고 김복현(金福鉉)은 독

립운동 개시 당일(當日) 각 곳에 반포하려고 3월 6일 피고 남궁혁(南宮
 燦) 집에서 광주 읍내 청년으로 비밀리에 앞서 언급한 독립선언서 경고
 문 독립가 등을 인쇄하고 피고 한길상(韓吉祥)·김용규(金容奎)·최정두
 (崔正斗) 등을 교사(敎唆)하여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피고 김종삼
 (金鍾三)·최한영(崔漢泳)·범윤두(范潤斗) 등에게 해당 문서 수천 통을
 인쇄하여 운동 개시 당일(當日) 광주 큰 장 부근에서 위 불온 출판물 여
 러 통을 군중 가운데 반포하게 하였다. 피고 김강(金剛)은 피고 최병준
 (崔丙浚)과 비밀히 서로 공모하여 숭일학교 생도를 시켜 반포하도록 하
 였으며, 3월 9일 밤 해당 불법 출판물 약 천 통과 최팔용(崔八龍) 외 10
 명의 선언서 약 5, 60통을 피고 최병준(崔丙浚)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최병준(崔丙浚)은 다음날 운동 개시 때에 숭일학교 생도 20명에게 명하
 여 광주 각 관청에 반포하게 하였으며, 광주 시내 각 곳에서 독립운동을
 위하여 시내를 휘젓고 다니면서 수시로 아무렇게 통행하면서 선인(鮮
 人)에게 각기 반포하였다. 피고 한길상(韓吉祥)·김용규(金容奎)·최정두
 (崔正斗) 등은 피고 김복현(金福鉉)의 교사(敎唆)에 응해서 피고 최한
 영(崔漢泳) 집에서 피고 김종삼(金鍾三)·범윤두(范潤斗)와 함께 반포
 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숭일학교 소장 등사판 및 피고 최정두(崔正斗) 소
 유의 등사판을 사용하여 3월 8일 9일 이틀간 조선의 헌법을 문란할 사
 향을 기재한 독립선언서, 경고문, 독립가 등을 제멋대로 인쇄하였으며,
 독립운동 개시 당일(當日) 피고 한길상(韓吉祥)은 광주군 서방면 신안
 리에서 해당 불법 출판물 약 100통을, 피고 김용규(金容奎)는 광주면 서
 문(西門) 밖 및 남문 밖에서 같은 유인물 40통을, 피고 김종삼(金鍾三)
 은 동(同)면(面) 수기옥정 부근에서 같은 유인물 약 10통을, 피고 최한
 영(崔漢泳)은 광주교 부근에서 같은 유인물 여러 통을 선인(鮮人)들에
 게 교부하여 반포하였으며, 피고 송흥진(宋興眞), 손인식(孫仁植)은 위
 불온문서를 비밀리에 출판한 사정을 알고서 3월 6일 밤 숭일학교에서
 등사판 2개를 피고 남궁혁 집에 가져와 피고 김강(金剛)에게 교부하였
 으며, 피고 강석봉(姜錫奉)은 마찬가지로 이튿날인 7일 아침 위 출판에

사용할 백지 1만 매를 구입하여 피고 한길상(韓吉祥)에게 교부함으로써 모든 해당 불법 출판을 용이하게 하였다.

제2. 피고 정광호(鄭光好)는 동경 명치(明治: 메이지)대학 유학 중 앞서와 같은 이유 아래 조선독립을 꿈꾸어本年(本年) 1월 중 최팔용(崔八龍) 외 10명 연명으로 된 선언서〔일본어 및 조선문 각 1통〕, 경고문 1통을 휴대하고 경성으로 돌아왔는 바, 동년 2월 2일 경성부 송현동(松峴洞) 피고 김범수(金範洙) 집에서 같이 머물고 있는 피고 박일구(朴一求)에게 해당 선언서, 경고문을 보여주며 내지(內地: 일본) 유학생은 이와 같이 이미 독립운동을 주창(主唱)하므로 조선 청년도 이에 호응하여 독립 기세를 올리게 하기 위해 비밀리에 이러한 문서를 등사하여 널리 일반에 반포하는 것이 좋겠다 하며, 다만 경성은 관헌의 경계가 엄중하므로 발각될 염려가 있으므로, 인쇄는 전사(田畝: 시골)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고(告)하여 그 찬동을 구하니 두 사람이 바로 이를 쾌히 승낙함에 따라, 동(同) 4일 경 3명이 의논하여 피고 박일구(朴一求)의 처가인 장성군 북이면(北二面) 백암리(白岩里) 피고 김기형(金基亨) 집에서 인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또한 피고 정광호(鄭光好)는 당시 피고 최정두(崔正斗)에게 앞서와 같은 사유로 권유하여 승낙을 받아냈으며, 동월(同月) 4일 피고 박일구(朴一求), 김범수는 함께 경성을 출발하여 피고 박일구(朴一求)는 같은 날 피고 김기형(金基亨) 집에 도착했고, 피고 김범수는 광주에 와서 같은 날 자택에서 피고 김태열(金泰烈)에게 사정을 알리고 동인(同人)에게 권유하여 그 찬동을 얻었고, 이튿날 5일 함께 피고 김기형(金基亨) 집에 도착하여 같은 날 등사판, 인쇄용지 등을 휴대하고 집에 온 피고 정광호(鄭光好), 최정두(崔正斗)와 만났다. 이에 피고 등 5명은 피고 김기형(金基亨)에 대해 경성에서 가지고 와 선인(鮮人)들에게 배부하여 조선독립을 이루기 위해 비밀리에 최팔용(崔八龍) 외 10명의 선언서를 인쇄하려 하니 도와달라는 신청에 흔쾌한 승낙을 받아낸 후, 반포할 목적으로 동일(同日)부터 다음날까지 위 피고

6명이 협력한 후 피고 정광호(鄭光好)가 휴대하여 가지고 온 등사판과 종이를 사용하여 비밀리에 최팔용(崔八龍) 외 10명이 연명한 선언서 가운데 조선문 약 600통, 동(同) 국문(일본어) 약 50통을 등사 출판하고 당시 피고 김태열(金泰烈)은 위 불법 출판물 55통을 휴대하고 광주로 와서 반포할 기회를 기다렸다가 3월 9일 밤 피고 최한영(崔漢泳) 집에서 피고 김강(金剛)에게 교부하고, 동인(同人) 및 피고 최병준(崔丙浚)의 손을 경유하여 이튿날 10일 광주에서 앞서 기술한 독립운동 개시 때에 숭일학교 생도를 시켜서 광주 읍내에서 선인(鮮人)들 사이에 배포하고 남은 부수의 출판물은 당시 피고 정광호(鄭光好), 박일구(朴一求) 등이 경성으로 지참하여 경성부 내의 선인(鮮人)에게 배포하였다. 제3. 피고 김태열(金泰烈)은 3월 10일 광주에서 독립운동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다시 전과 같이 비밀리에 독립선언서 등을 인쇄하여 선인(鮮人)들 사이에 배포함으로써 선인(鮮人)의 조선독립에 관한 사상을 고무시키려고 동월(同月) 12일 경 광주면 남문통 김금홍(金錦紅)인 피고 박경주(朴京柱) 첩(妾) 집에서 3월 10일 독립운동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다시 선언서 등을 인쇄 배포하여 선인(鮮人)의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두 번째 의거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교사(敎唆)하여 박경주(朴京柱)로부터 그 본택(本宅)인 광주군 송정면(松汀面) 선암리(仙岩里)에서 비밀리에 위 불온문서를 인쇄하였으며, 또 필요한 돈을 내도록 한 일을 승낙하게 하였으며, 다음날 피고 범윤두(范潤斗) 집에서 동인(同人)을, 다시 광주면 光州面 북문통(北門通) 도로에서 피고 김용규(金容奎)를 이전과 같은 이유로 각각 교사(敎唆)하여 두 사람에게서 동의를 받았다. 같은 달 17일 18일 이틀간에 위 박경주(朴京柱) 집에서 동인(同人)이 구입한 백지 6천매와 더불어 피고 최한영(崔漢泳) 집에서 불온문서 인쇄에 사용된 등사판을 사용하여 피고 박경주(朴京柱)·범윤두(范潤斗)·김용규(金容奎)에게 독립선언서 약 1,500통, 경고문 약 1,500매, 독립가 약 500매를 합부로 인쇄하게 하였다.

증빙을 살피킨대 첫 번째 행위에 대해서, 피고 김복현(金福鉉) 외 85명
에 대한 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 당(當) 공판정에서 3월 6일 판시(判
示)한 독립선언서, 경고문, 독립가 등의 인쇄물을 휴대하고 광주에 내려
와 피고 김강(金剛)의 소개로 피고 송흥진(宋興眞) 집에서 숙박하며 피
고 김강(金剛)과 상담하며 위 독립선언서 취지를 관철시키려 하였다. 판
시(判示)한 일반 방략을 정하면서 자신은 광주 사정에 정통하지 않았단
고 하며 각 담당자의 담당 범위 및 실행방법은 모두 피고 김강(金剛)에
게 일임하였으며, 결행 당일(當日) 자신은 작은 장터 부근 언덕에서 형
세를 관망하다가 약 200명 군중이 광주교 아래 강변에 참여하여 모이는
것을 보고 언덕을 내려와 여기에 합세해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강변을
올라와 작은 장터로 나와 송일학교 생도단 약 백 명과 합세하여 서문
밖 부동정에서 서문통을 경유해서 우편국 앞에 도착하여 왼쪽으로 꺾어
본정으로 들어와서, 북문 밖 자동차조합 앞에서 누문리 방면에서 만세를
부르며 오는 농업학교 생도단 기타 사람들과 합세하여 천 수백 명의 집
단을 형성하여 다시 거슬러 광주 우편국 부근에 도달하였다. 당시 군중
다수는 독립만세기, 구한국국기를 흔들었고, 기를 손에 가지고 있지 않
은 사람은 모자를 흔들었고, 혹은 두 손을 들어 때때로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며 미친 듯이 날뛰며 시내를 휘젓고 다녔다. 증4호, 5호, 6호,
11호, 12호는 당일(當日) 사용된 깃발, 증1호, 8호, 15호는 당일(當日) 배
포된 독립선언서, 증2호, 10호, 16호는 마찬가지로의 경고문, 증3호, 9호는
마찬가지의 독립가라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김강(金剛)도 마찬가지로
당(當) 공판정에서 3월 6일 피고 김복현(金福鉉)이 독립선언서 등의
인쇄물을 경성에서 가지고 와서 독립운동에 관한 일반 방략을 결정하고
그 실행방법은 자신과 피고 송흥진(宋興眞)이 담당하고, 다시 피고 최병
준(崔丙浚)에게 사정을 알려 그 동의를 얻었고, 3월 10일 독립운동에는
자신도 참가했는데 참석한 군중은 천 명 이상이라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최병준(崔丙浚) 역시 마찬가지로 당(當) 공판정에서 피고 김복현
(金福鉉)에게서 경성 기타 각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으므로 우리 광

주도 묵시(默視)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므로 독립운동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찬동하였고, 자기가 송일학교 교사인 관계로 위 독립선언서 등의 배포, 생도의 출동을 인수하였으며 3월 9일 밤 김강(金剛)에게서 명일(明日: 내일) 독립운동 결행의 일을 듣고 또 생도를 격려하며 운동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 같은 날 밤 양림리(楊林里) 기념각에서 “예수는 자기 한몸을 희생하여 함께 세상 사람을 구제하고 계급제도를 타파하여 사회를 평등하게 하니 우리는 어떻게든 힘들고 간난을 배제하고 목적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수피아여학교 생도에게 연설하였다. 피고 김강(金剛)에게서 독립선언서 등 1000매를 수령한 3월 10일 아침, 자기 소속의 송일학교 보통과 고등과 각 학년에서 대표자로서 정두범(鄭斗凡)·김철주(金鐵柱)·김성민(金聖敏)·김판철(金判哲)·김정수(金丁洙) 외 1명을 나오도록 해 각급 생도 1명에 대해 약 20매씩 할당하여 배포하기로 하고 같은 곳에 필요한 선언서 등을 교부하였다. 또 위 6명에게 남문 밖 또 동문 밖, 서문통에 각기 배포하기로 마찬가지로 부서를 정하였다. 위 6명은 위 배부에 적당한 자로 생각되었고, 당일(當日) 독립운동 참가 인원은 천명 이상으로 그 다수는 구한국국기 또는 독립만세라고 적혀 있는 기를 흔들었고, 그것이 없으면 모자를 흔들었고, 혹은 두 손을 들어 조선 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부르며 시내를 휘젓고 다녔다. 향사리에 이르렀을 때 군중의 선두에 서서 큰 깃발을 들고 있는 자는 피고 송흥진(宋興眞) 같았다. 자신은 일·한 병합 이래 병합을 유감으로 하며 독립 기회를 기대하면서 피고 김복현(金福鉉)에게서 독립운동의 거사를 듣고 기회가 왔다고 이에 찬동하고 당일(當日) 군중 뒤에 따라갔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송흥진(宋興眞)도 마찬가지로 당(當) 공판정에서 3월 7일 밤 피고 김복현(金福鉉)에게서 독립선언서를 읽었다는 얘기를 듣고 광주에서도 머지않아 독립운동을 일으키므로 이에 찬동하며 7, 8일 경 송일학교 기숙사에서 거주하던 생도 10여 명에게 독립운동은 다가오는 10일 개시한다는 뜻을 알리고, 위 운동 개시 당일(當日) 자신은 대형 태극기를 들고 군중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소리 높

여 외치며 함께 시내를 휘젓고 다녔다는 취지의 공술(供述)피고 최한영(崔漢泳)도 마찬가지로 당(當) 공판정에서 3월 9일 자택에서 피고 한길상(韓吉祥)·김용규(金容奎)·김강(金剛)·김중삼(金鍾三) 등과 회합하여 독립운동 개시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운동 개시의 당일(當日) 자신은 광주교 부근에서 독립선언서 수매를 군중에 배포하였으며, 또 피고 서정희(徐廷禧)에게서 교부한 구한국 작은 국기 약 10본을 마찬가지로 배포하여 군중이 참가하여 깃발을 흔들며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며 광주천 강변에서 작은장으로 나와 서문통을 거쳐 우편국 앞에서 왼쪽으로 꺾어 본정으로 들어와 북문 밖에서 누문리 방면에서 들어오는 군중과 합세하여 되돌아 본정 우편국으로 향하여 군중과 함께 휘젓고 다녔다는 취지의 공술(供述)피고 한길상(韓吉祥)도 마찬가지로 당 공판정에서 3월 9일 피고 최한영(崔漢泳) 집에서 피고 김용규(金容奎)·김강(金剛)·김중삼(金鍾三) 등과 협의하여 위의 각 독립선언서 등의 배부에 대하여 각자 담당 구역을 정하여 자신은 독립선언서 약 100매를 수령하고, 동월 10일 서방면 신안리 부호 또는 서당 등 민족의 자결에 따라 조선은 일본과 분리하여 독립해야 할 일이라고 알리는 위 선언서를 배포한다는 취지의 공술(供述)피고 김중삼(金鍾三)도 마찬가지로 당 공판정에서 3월 9일 피고 최한영(崔漢泳) 집에서 피고 김강(金剛)·한길상(韓吉祥)·김용규(金容奎)·최한영(崔漢泳)과 회합하여 이기호(李起浩) 집에서 피고 김복현(金福鉉)·서정희(徐廷禧) 등과 다음 10일 오후 3시 반을 기하여 운동을 개시한다고 결정되었다는 사유를 피고 김강(金剛)에게서 듣고 각자 운동의 담임 구역을 정하였는데, 자신은 운동 개시 당일(當日) 동문통 및 작은 장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고, 피고 한길상(韓吉祥)은 북문 밖에서 누문리 일대에, 피고 최한영(崔漢泳)은 큰 장 및 광주교 부근에서, 피고 김용규(金容奎)는 서문 밖 및 남문 밖 방면에 각각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여 운동 참가를 권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피고 한길상(韓吉祥)은 독립선언서 약 100매, 피고 김용규(金容奎)는 독립선언서 약 50매를 모두 김강(金剛)에게서 받았는데,

그 가운데 10배를 자신은 피고 김용규(金容奎)에게 받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수기옥정 부근에서 민중에게 배포하고 작은 장에서 기다리다가, 오후 3시 넘어 광주교 방면에서 구한국국기, 독립만세기를 흔드는 군중의 한 무리가 광주천 강변에서 위로 올라오자 자신은 이에 합세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소리높여 외쳤으며, 당시 양림리 방면에서는 송일학교 생도단이 참가하여 군중의 수는 천명 이상을 헤아리고, 많은 수의 군중은 광주교 아래로부터 구한국국기를 가지고 오고 있었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서정희(徐廷禧)도 마찬가지로 3월 7, 8일 경 피고 김강(金剛)이 자택에 와 각지에서 소동이 일어나니 우리 광주도 묵시할 수는 없다. 거사를 해야 한다. 거사를 하면 찬성하자는 일에 이에 찬동하고 동월 9일 이기호(李起浩) 집에서 피고 김복현(金福鉉), 김강(金剛) 외 여러 명과 회합하고 다음 10일 오후 3시 반을 기하여 독립운동을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당일(當日) 광주신사에서 군중 행동을 보다가 그 후에는 광주교 옆으로 가서 떨어져 있는 구한국국기를 주워 군중의 소리에 화답하여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고, 광주천 강변을 올라가 작은장으로 이르렀다가 부동정에서 우편국 앞에 도달하니 군중 수는 천명 이상이었으며 구한국국기 또는 독립만세기를 흔들고, 깃발이 없는 사람은 두 손을 들어 모자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며 휘젓고 다녔다. 증4호, 5호, 6호, 11호, 12호는 당일(當日) 사용된 깃발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동(同) 피고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김강(金剛) 제5회 신문(訊問)조서 중에 학교 생도의 독립운동 참가에 대해 자신과 피고 송흥진(宋興眞), 피고 최병준(崔丙浚)에게 송일학교를 담당하고, 수피아여학교는 자신이 직접 동교 교사 박애순(朴愛順)에게 교섭하여 생도 출동을 촉구하고 독립선언서 등 인쇄물 50통을 결행 당일(當日) 동인에게 교부하여 운동개시일을 알려주었으며, 성안 일반인민에 대해서는 자신과 피고 김복현(金福鉉)이 피고 서정희(徐廷禧)와 대화를 하며 동인(同人)이 이를 하겠다 하여 3월 9일 피고 최한영(崔漢泳) 집에서 피고 한길상(韓

吉祥)·김용규(金容奎)·김종삼(金鍾三)과 각자 담당구역을 정하고 독립선언서 등 약 300매를 피고 한길상(韓吉祥)·김용규(金容奎)·최한영(崔漢泳)에 나누어주고 집에 돌아오다 독립선언서 약 천 매를 피고 최병준(崔丙浚)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

역시 마찬가지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서정희(徐廷禧)의 제4회 신문(訊問)조서 중에 3월 8일 광주교 아래에서 풋볼 놀이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독립운동에 참가하도록 권유하였고, 또 기타 3, 4명 청년에게도 같은 권유를 하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역시 같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송흥진(宋興眞) 제2회 심문(訊問)심조서 중에 군중을 지휘하는 자는 피고 김복현(金福鉉)·김강(金剛)·최병준(崔丙浚) 및 자신이라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김종삼(金鍾三) 신문(訊問)조서 중에 자신은 4,000년의 역사가 있는 우리 민족이 병합되는 것에 눈물을 삼키며 파리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주의가 창도되어 강제로 타국에 병합된 나라들을 독립시킨다는 것. 때문에 선인(鮮人)이 병합을 좋아하지 않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려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독립을 쫓아내기 위하여 이번 운동을 개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

마찬가지로 검사가 작성한 피고 동인(同人) 제2회 신문(訊問)조서 중에 피고 최한영(崔漢泳) 집의 회합에서 피고 김강(金剛)은 양림리(楊林里) 학교에 대한 준비를 인수하였으며, 운동 개시 당일(當日) 피고 서정희(徐廷禧)는 가마니에 담은 구한국국기를 광주교(光州橋)로 가지고 가서 많은 군중에게 배포하였으며, 또 당일(當日)에는 피고 한길상(韓吉祥)과 운동에 참가하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

마찬가지로 검사가 작성한 동 피고인의 제3회 신문(訊問)조서 중에

피고 서정희(徐廷禧)가 가마니에 담은 구한국기를 지참하였다는 것에 틀림이 없고, 또 피고 김강(金剛)도·한길상(韓吉祥)이 군중에 참가하라고 하는 것을 본정통에서 목격하였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

마찬가지로 검사가 작성한 피고 송광춘(宋光春)의 신문(訊問)조서 중에 교사 최병준(崔丙浚)에게서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다른 사람에게 반포하고 선언서 약 20매를 받아 독립운동에 참가를 하여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고, 선언서를 군중에게 반포하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

마찬가지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정두범(鄭斗凡)의 신문(訊問)조서 중에 3월 10일 아침 최선생에게서 독립선언서를 전달받고 자신이 맡은 구역인 자동차옥(自動車屋)으로부터 누문리에 이르는 사이에서 민중에게 반포하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

마찬가지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김성민(金聖敏)의 신문(訊問)조서 중에 3월 10일 아침 최선생으로부터 동급생에게 20통씩 분배하여 사람들에게 배포하라는 선언서 156통을 교부받아 그대로 분배하였고, 자신의 몫은 시장에서 민중에게 반포하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

마찬가지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김정수(金丁洙)의 신문(訊問)조서 중에 3월 10일 조선독립선언서 등 245매를 최선생으로부터 받아 보통과 3년생에게 분배하고 자신이 나눌 10매는 분담구역인 우편국에서 작은장 부근에 이르는 사이에서 통행인에게 반포하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

마찬가지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박애순(朴愛順)의 신문(訊問)조서 중에, 김강(金剛)으로부터 받은 독립선언서는 하나하나 생도들에게 나누지 않고 홍순남(洪順南)·박영자(朴永子) 외 2, 3명 생도에게 여러 통

씩 배포시켜서 동인(同人) 등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분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

마찬가지로 검사가 작성한 피고 김판철(金判哲)의 신문(訊問)조서에 3월 10일 최병준(崔丙浚)으로부터 독립선언서 20매씩을 교부받아 사람들에게 배부하라는 것에 따라서 남문 밖에서 민중에게 배포하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

마찬가지로 검사가 작성한 피고 이병환(李炳煥)·장남규(張南奎)·유계문(劉桂文)·김영기(金永琪)·주형옥(朱亨玉)·김석현(金碩鉉)·조흥중(趙興鍾)·이창호(李昌鎬)·원창권(元昌權)·주장암(朱張岩)·황맹석(黃孟錫)·이남채(李南彩)·김장수(金長洙)·정몽석(丁夢錫)·홍금돌(洪今突)·양만석(梁萬石)에 대한 각 신문(訊問)조서 중에, 각 위 피고인이 3월 10일 광주 시내에서 독립운동 개시 당일(當日) 시내에서 독립선언서를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는 취지의 각각 공술(供述) 기재

보안법 위반, 출판법 위반, 증거 인멸 사건에 대하여, 피고 김복현(金福鉉)이 당(當) 공판정에서 경성 체재 중 손병희(孫秉熙) 외 32명이 조선 독립을 선언한 것을 듣고 그 본부와 행동을 함께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에, 전라남도에서 운동을 개시하려고 독립선언서, 경고문, 독립가 등 각 1통을 휴대하여 광주에서 이를 인쇄하여 독립운동을 개시할 때 민중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당지(當地)에 와 지기(知己)인 피고 김강(金剛) 집에 도착하니 김강(金剛)도 이에 찬성하였다. 3월 6일 밤 남궁혁(南宮赫) 집에서 판시(判示)한 자들과 회합하여 판시(判示)와 같은 취지를 제안하였고,

만약 일이 발각될 때는 자신이 전부 경성에서 가지고 왔다고 변해(辯解: 말로 풀어 자세히 밝힘)할 것이라고 하니 일동(一同)이 이를 찬성하

고 시내 청년에게 인쇄하는 일을 시키자고 하였고, 당일(當日) 3월 8일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운동을 결행하는데 송일학교 생도를 출동시키는 일은 피고 최병준(崔丙浚), 송흥진(宋興眞)에게 맡기고, 그 후 인쇄에 착수하면서도 뜻대로 되지 않아 북문 방면으로 장소를 옮기었다가 마찬가지로 사유로 마침내 향사리에서 인쇄에 종사한 일이 9일 밤까지 완료된다는 취지를 듣고 운동 개시일시를 10일 오후 3시 반으로 결정하였으며 운동 개시 당일(當日) 자신도 광주교(光州橋) 아래에서 독립선언서 여러 통을 군중들 사이에서 배포하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동(同) 피고인 송흥진(宋興眞)의 당(當) 공판정에 관해 3월 6일 남궁혁(南宮赫) 집에서 김복현(金福鉉), 김강(金剛), 최병준(崔丙浚) 기타 함께 10명과 독립선언서, 경고문, 독립가 등을 인쇄 등사하여 운동 개시 때 각 군중에게 배포하려고 의논을 할 당시 피고는 등사판을 가져오기 위해 외출하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검사가 작성한 동인(同人) 신문(訊問)조서 중에, 등사판은 송일학교의 것을 빌려 사용할 것을 결심하고 자신과 손인식(孫仁植) 두 사람이 동(同) 학교에 가서 손(인식)이 소지한 열쇠로 사무실을 열어 등사판을 가지고 왔다. 피고 남궁혁(南宮赫) 집에 와 피고 김강(金剛)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피고 최병준(崔丙浚)과 같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

피고 최병준(崔丙浚)의 당(當) 공판정에 관해 3월 6일 밤 피고 남궁혁(南宮赫) 집에서 피고 김복현(金福鉉), 김강(金剛), 손인식(孫仁植), 한길상(韓吉祥), 김태열(金泰烈), 김용규(金容奎), 강석봉(姜錫奉) 외 2, 3명과 회합하여 3월 8일 독립운동을 결행하여 독립 만세를 부르며, 김철(金鐵)이 휴대하고 온 독립선언서 기타 인쇄물을 등사하여 반포하기로 하였다. 등사는 시내 청년인 피고 한길상(韓吉祥) 등이, 송일학교는 자신과 피고 송흥진(宋興眞)·손인식(孫仁植)에게 인수하여 생도를 참가시키라고 하였으며, 등사판은 송일학교의 것을 사용하기로 하여 피고 송흥진(宋興眞)이 당일(當日) 밤 가지고 왔다. 용지는 마침 거기에 있던 청

년〔후에 강석봉(姜錫奉)이 한 일로 밝혀짐〕에게 피고 김태열(金泰烈)·한길상(韓吉祥)이 약 1만 매를 구입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손인식(孫仁植)의 당(當) 공판정에 대한 3월 6일 밤 피고 남궁혁(南宮赫) 집에 한길상(韓吉祥)·김용규(金容奎)·최정두(崔正斗)·김태열(金泰烈)·강석봉(姜錫奉) 등과 회합하여 동월(同月) 8일을 기하여 독립운동을 개시하고, 그때 피고 김복현(金福鉉)이 가지고 온 독립선언서, 경고문, 독립가 등을 등사하여 반포하려고 용지 구입은 피고 강석봉(姜錫奉)으로, 인쇄는 시내 청년들로 각각 임무를 맡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검사가 작성한 피고 한길상(韓吉祥)의 신문(訊問)조서 가운데, 3월 6일 피고 김태열(金泰烈)로부터 독립운동 상담을 듣고 피고 강석봉(姜錫奉)·김용규(金容奎)를 권유하여 피고 남궁혁(南宮赫) 집에 도달하여 피고 김철(金鐵)〔김복현(金福鉉)의 별명〕·최병준(崔丙浚)·김태열(金泰烈)·최정두(崔正斗) 외 3,4명과 회합하여 피고 김철이 판시(判示)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내어 인쇄는 시내 청년에게 맡도록 하고 자신, 피고 김태열(金泰烈)·김용규(金容奎)가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인쇄용지는 피고 강석봉(姜錫奉)이 맡고 3월 8일 큰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운동을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용지는 7일 아침 피고 강석봉(姜錫奉)이 구입한 것을 자신이 받았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 피고 김복현(金福鉉)이 당(當) 공판정에서 진술한 바, 3월 7일 밤 피고 남궁혁(南宮赫) 집에서 인쇄하려는 뜻이 여의치 않아 같은 날 밤 김언수(金彦洙)²³⁾ 집으로 옮겨 인쇄를 하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피고 최병준(崔丙浚)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김철주(金鐵柱) 외 여러 명의 보조자를 데리고 와서 국기 만드는 일을 하였다. 다음 날 9일 피고 김태열(金泰烈)로부터 피고 최한영(崔漢泳) 집에서 인쇄한다는 사정을 듣고 최한영(崔漢泳)의 집으로 가서 경고문, 독립가 등의 인쇄를 거들었다. 당시 인쇄를 서둘러 한(促事) 사람은 피고 최정두(崔正斗)·김용규(金容奎)·범윤두(范潤斗)·최한영(崔漢泳)·김종삼(金鍾三) 및 본인 6명이고, 인쇄물은 독립선언서 약 천 통, 경고문 독립가 각 200통 정도인데, 오후

11시경 전부 완성됨에 따라 피고 김강(金剛)이 피고 김태열(金泰烈)과 함께 와서 다음 10일 오후 3시 반을 기하여 운동을 개시한다는 사정을 알리고 인쇄물 대부분을 가지고 갔다. 자신은 100통 정도 들고 귀가했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강석봉(姜錫奉)은 당 공판정에서, 3월 6일 피고 남궁혁(南宮赫) 집에서 피고 김복현(金福鉉)의 명(命)으로 인쇄를 인수받았다. 피고 김용규(金容奎)·한길상(韓吉祥) 등이 인쇄를 인수받았는데 피고 한길상(韓吉祥)은 피고가 상점 점원인 관계로 위 용지매입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구입하라는 명을 받아 다음날 대강상점(大岡商店) 및 조창상점(朝倉商店)에서 합계 반지(半紙: 얇은 습자지) 1만 매를 구입하여 피고 한길상(韓吉祥)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김종삼(金鍾三)은 당 공판정에서, 3월 7일 김언수 집에서 피고 최정두(崔正斗)·김용규(金容奎) 외 1명 등과 함께 국기에 손잡이를 붙였다. 당시 피고 김용규(金容奎)가 선언서를 인쇄한다고 했는데 등사원지의 기재하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 데다 관청에 탐지된 흔적이 있어 중지했다. 동월(同月) 9일 피고 최한영(崔漢泳) 집에서 피고 한길상(韓吉祥)·범윤두(范潤斗)·최정두(崔正斗)·김용규(金容奎)·최한영(崔漢泳)과 함께 선언서 등의 인쇄를 했는데, 그 부수는 모두 약 1000통으로 그 대부분은 피고 김강(金剛)·김태열(金泰烈)이 양림리(楊林里)에 가지고 갔고 남은 부수 중 약 100통은 피고 한길상(韓吉祥)이, 약 50통은 피고 김용규(金容奎)가 받아 갔고, 자기는 피고 김용규(金容奎)에게 약 10통을 받아 다음 경성의전 생도 김범수의 아우로, 김범수 집과 이웃하여 있었다. 자료일 광주 시내에 반포했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서정희(徐廷禧)는 당(當) 공판정에서, 3월 7일 피고 범윤두(范潤斗)·김태열(金泰烈) 외 1명과 함께 자기의 집에서 김태열(金泰烈)로부터 경성에서의 독립운동상황을 듣고 광주에서도 그 운동을 행하는 것을 발의하니 일동(一同) 이를 찬성하여 시장에 집합하여 만세를 외치자고 협의했다. 그때 자기는 독립선언서는 다수 사람에게 밤중(夜半)에 각 집에 배포하자고

제의했다는 취지의 공술(供述)피고 최한영(崔漢泳)은 당(當) 공판정에서 3월 8일 저녁 시각 피고 김용규(金容奎)·범윤두(范潤斗)는 인쇄기, 용지류를 2회 가마니에 넣어 운반해 왔고, 동일(同日) 밤부터 다음 9일 저녁 시각 사이에 피고 김용규(金容奎)·최정두(崔正斗)·범윤두(范潤斗)·김중삼(金鍾三)·한길상(韓吉祥) 및 자기는 독립선언서 약 1000부 이상, 경고문, 독립가 약 2백 통을 반포할 목적으로 인쇄했다. 인쇄기는 2개인데 위 피고 등은 처음에 남궁혁(南宮赫) 집에서 인쇄에 착수했으나 기구 불량과 관청이 주목할 염려 때문에 중지하고 다시 김언수(金彦洙) 집으로 옮겼는데 같은 사유로 인쇄를 할 수 없어 마침내 자기 집으로 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피고 김강(金剛)·김태열(金泰烈)은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기 위해 인쇄물 대부분을 가지고 갔고, 피고 김용규(金容奎)·김중삼(金鍾三)·한길상(韓吉祥)도 남에게 배포한다고 남은 부수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의 공술(供述)피고 최정두(崔正斗)는 당(當) 공판정에서, 3월 6일 밤 피고 남궁혁(南宮赫) 집에서 피고 김복현(金福鉉)·김강(金剛)·송흥진(宋興眞)·최병준(崔丙浚)·김용규(金容奎)·한길상(韓吉祥)·김태열(金泰烈)·강석봉(姜錫奉) 외 1명과 회합할 때 피고 김복현(金福鉉)은 경성에 있어서의 독립운동 상황을 이야기하고 광주에서도 독립운동을 개시해야 한다. 독립선언서 경고문 등은 시내 청년에게 인쇄를 맡기자. 단지 만약 후일 발각되어도 동급생이 경성에서 다수 위 인쇄물을 지참할 것이라고 제기하고 청년에게 누(폐)가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니 피고 김용규(金容奎)·한길상(韓吉祥)은 이를 받아들여 등사판은 송일학교 것을 사용하고 용지는 피고 강석봉(姜錫奉)이 구입하는 것으로 정했다. 다음 7일 피고 한길상(韓吉祥), 김용규(金容奎)는 피고 남궁혁(南宮赫) 집에서 등사에 착수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중지하고 당일(當日) 밤 김언수(金彦洙) 집에서 인쇄하려 했던 것도 위험하다는 통보가 있어 원지(原紙)를 자르지도 않고 역시 완수하지 못했다. 동소(同所)에서 작성한 국기에 손잡이

를 붙이고 기구용지(등사용지)는 은닉하고 다음 밤 피고 최한영(崔漢泳) 집에서 본인 소유의 등사기를 사용하기 위해 휴대하고 가서 본인 외 김용규(金容奎)·범윤두(范潤斗)·김중삼(金鍾三)·한길상(韓吉祥)·최한영(崔漢泳) 6명이 독립선언서 약 1500부, 경고문, 독립가 각 약 200매를 인쇄하여 2~3백부를 제외하고 피고 김강(金剛)·김태열(金泰烈)이 (2~3백부를 제외한) 다른 것을 가지고 가고, 남은 2~3백부는 피고 김용규(金容奎)·한길상(韓吉祥)·김중삼(金鍾三)이 분배하여 가지고 갔다. 128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3·1운동피고 김강(金剛)은 최팔용(崔八龍) 외 10명 연명의 선언서 55통도 함께 일반에게 반포하기 위해 가지고 갔다. 증 4호의 2는 자기 소유로 당시 인쇄에 사용했고, 송일학교 소유인 증 3호도 역시 사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증 1호, 2호, 5호 내지 9호도 독립선언서 등의 인쇄에 사용됐다는 취지의 공술(供述)피고 김강(金剛)은 당 공판정에서, 3월 6일 밤 피고 남궁혁(南宮赫) 집에서 판시(判示)한 피고 등과 회합할 때 피고 김복현(金福鉉)은 경성에서의 독립운동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광주에서도 독립운동을 일으키자고 동인이 가지고 온 독립선언서 경고문 독립가를 인쇄하여 일반에게 배포하고 오는 8일 장날을 이용하여 운동을 개시한다는 것, 인쇄는 시내 청년인 피고 한길상(韓吉祥)·김용규(金容奎)·최정두(崔正斗)·김태열(金泰烈) 등이 인수하고 용지 구입은 피고 강석봉(姜錫奉)이 담당하고 자기는 인쇄물의 반포를 담당, 인쇄용기는 송일학교 것을 사용하고 인쇄는 피고 남궁혁(南宮赫) 집에서 하기로 하는 등을 정했는데 관청에 발각될 위험이 있어서 피고 최한영(崔漢泳)집에서 인쇄하게 되어 약 1000부를 인쇄하고 그중 7~80부 이외를 피고 최병준(崔丙浚)에게 맡겨 송일학교 생도에게 분배 배포시키고, 남은 부수 중 5~60통을 수피아여학교 교사 박애순(朴愛順) 부탁하여 생도에게 배포하는 식으로 의뢰하고, 남은 부수는 운동 결행 당일(當日) 작은 시장에서 자기가 배포했다. 맨 처음 자기는 인쇄물 배포를 담당하고 인쇄물 완성 후에는 동

지(同志) 중 누구라도 위의 인쇄물을 입수하는 대로 배포하는 것으로 했다. 령 121호의 증 1호 내지 3호는 당시 인쇄한 것이라는 취지의 공술(供述) 제2 사실에 관해서, 피고 김범수(金範洙)는 당(當) 공판정에서, 피고 김기형(金基亨)과 함께 인쇄 출판한 점 및 인쇄물을 반포한 점을 제외하고 판시(判示)와 같은 취지의 공술(供述), 3월 10일경 피고 정광호(鄭光好)가 경성에서 내지(內地) 유학생과 상의하여 위 판시(判示) 인쇄물을 반포한 것을 듣고 알았다. 인쇄물의 내용은 증 19호와 같고 인쇄기는 증 4호의 2라고 기억한다. 인쇄할 때 증 5호 내지 8호 같은 것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박일구(朴一求)는 당(當) 공판정에서, 피고 김기형(金基亨)에 관한 점 및 인쇄물 반포에 관한 점을 제외하고 판시(判示)와 같은 취지의 공술(供述), 인쇄물은 피고 정광호(鄭光好)가 반포해야 한다고 해서 동인은 내지(內地) 유학생과 상담한 끝에 반포했다고 이야기했다. 인쇄물의 내용은 증 19호와 같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김기형(金基亨)은 당(當) 공판정에서, 자기 이외의 피고 등이 판시(判示) 사유 아래에 자기 집에서 판시(判示)의 인쇄물을 인쇄했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검사가 작성한 동 피고인 신문(訊問) 조서 중, 인쇄물 배포 부분을 제외하고 판시(判示)와 같은 취지의 자료 동인(同人) 공술(供述) 기재

피고 김태열(金泰烈)은 당(當) 공판정에서, 다른 피고의 인쇄물 반포에 관한 점 및 피고 김기형(金基亨)이 인쇄를 도왔다고 공술(供述)한 것 외에는 판시(判示)와 같은 취지의 공술(供述)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박일구(朴一求)의 신문(訊問) 조서 중, 피고 김태열(金泰烈)이 광주에 가지고 온 약 100매를 제외한 인쇄물은 피고 정광호(鄭光好)와 함께 경성에 가지고 갔다. 그 후 경성에서 동인(同人) 등이 반포했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 제 3 사실에 관해서는, 피고 박경주(朴京柱)는 당(當) 공판정에서, 판시(判示)한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 김태열(金泰烈)이 판시(判示)한 사유 아래에 독립선언서 등을 인쇄하자고 했는데, 광주에서는

관청의 단속이 엄중하여 이를 피해 인쇄하기 위해 자기 집 방 하나를 대여하라 해서 1차 거절했지만, 동인(同人)이 수긍하지 않아서 부득이 승낙하고 인쇄비용은 자기가 출자하고 등사판 및 기타 필요한 기구는 동인이 모두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하고, 자기는 자기 집 고용인으로 하여금 광주 시내 대강지점(大岡 종이 가게)에서 반지(얇은 습자지) 8000매를 구입하게 했다. 피고 김태열(金泰烈)은 인쇄에 종사하는 사람은 동인(同人)이 보낸다고 말했고, 그 후 피고 김용규(金容奎)·범윤두(范潤斗) 두 명이 자기 집에 왔다. 금년 3월 17,18일 양일 자택에서 제2회 독립운동을 개시하여 광주 부근에 배포하고 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위의 피고 두 명과 함께 독립선언서 약 1500매, 경고문 약 1500매, 독립가 약 500매를 출판했다. 당시 사용된 등사판은 증 4호의 1, 2에 상응하고 증 5호 내지 9호는 인쇄하는데 사용된 것이고, 령 제121호, 제1 내지 3호는 자기들이 인쇄한 인쇄물과 동일한 종류라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김태열(金泰烈)은 당(當) 공판정에서, 3월 10일 광주에서의 독립운동은 충분하지 않아서 뜻을 관철시킬 수 없었음에 따라 다시 기회를 봐서 동일운동을 개시하기 위해 3월 12일경 피고 박경주(朴京柱)의 첩 집인 남문통 김금홍(金錦紅) 집에서 위에 서술한 독립운동은 충분하지 않으니 다시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독립사상을 고취하게 재거(再擧: 다시 들고 일어남)를 도모하는 것을 피고 박경주(朴京柱)에게 알리고, 그 승낙을 받아 다음날 판시(判示) 장소에서 피고 범윤두(范潤斗)·김용규(金容奎)에 같은 이유로 승낙받았다. 인쇄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 박경주(朴京柱)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또 등사판은 피고 김용규(金容奎)를 시켜 피고 최한영(崔漢泳) 집과 이기호(李起浩) 집에 두 개를 휴대, 피고 김용규(金容奎)·범윤두(范潤斗)·박경주(朴京柱) 세 명이 3월 17, 18일 양일에 걸쳐 독립선언서, 경고문, 독립가 등 합계 6000매를 인쇄했다는 취지의 공술(供述)위 사항을 종합 고핵(考覈: 생각하여 조사하여 밝힘)하고 또 판시(判示)한 조선 헌법을 문란하게 할 만130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3·1운동한 기사의 기재가 있는 독립선언서(증18,1호), 경고문(증2,10,16

호), 독립가(증3,9호) 독립기, 구한국기(증4,5,6호), 등사판용 용기(증3,4호)가 현존함에 따라,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여, 법률에 비추어 제1 사실 중 보안법 질서를 방해한 피고 등의 소위(所爲)는 대정(大正) 8년 4월 제령(制令) 제7호 제1조에 해당되고, 위는 해당 제령 발포 전에 관계됨에 따라 형법 제6조, 제10조 제2항 조선형사령 제42조를 적용하고, 해당 법조(法條)인 구(旧)보안법 제7조의 형과 전(前) 제령 제1조의 형을 비조(比照: 비교·대조)하여 가벼운 보안법형을 적용함에 따라 처단할 법 조항을 안내하니, 제1의 사실 중 피고 김복현(金福鉉)·김강(金剛)·송흥진(宋興眞)·최병준(崔丙浚)·한길상(韓吉祥)·김중삼(金鍾三)·서정희(徐廷禧)·최한영(崔漢泳)·김용규(金容奎)가 안녕질서를 방해한 소위(所爲)는 각 보안법 법 제7조, 조선 형사법령 제42조에 해당되어 각 피고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 한길상(韓吉祥)·김중삼(金鍾三)·최한영(崔漢泳)·최정두(崔正斗)·김용규(金容奎)·범윤두(范潤斗)의 독립선언서, 경고문, 독립가 등의 인쇄를 담당한 소위(所爲)는 융희 3년 법률 제6호 출판법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되고, 피고 김복현(金福鉉)의 인쇄 교사(敎唆) 행위는 전과 같은 법조(法條) 및 형법 제61조 제1항을, 피고 손인식(孫仁植)·송흥진(宋興眞)·강석봉(姜錫奉)의 위와 같은 방조(幫助) 행위는 각 형법 제61조 제1항을 제외하고 모두 전 동일(同一) 법조 및 형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68조 제3호를 적용하고, 피고 김복현(金福鉉)·김강(金剛)·최병준(崔丙浚)·한길상(韓吉祥)·김중삼(金鍾三)·최한영(崔漢泳)·김용규(金容奎)가 해당 인쇄물을 반포한 행위는 각 동(同) 출판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조선형사령 제42조에 각 해당되고, 위는 동시에 각 보안법 제7조, 앞서 언급한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보안법 위반 전부 포함)되므로, 형법 제54조 제1항, 제10조를 적용함과 중복하여 출판법 위반의 형을 더하여 처분함이 옳다. 제2 사실 중 피고 김범수(金範洙)·박일구(朴一求)·최정두(崔正斗)·김기형(金基亨)·김태열(金泰烈)·정광호(鄭光好)가 각각 인쇄를 담당한 행위는 제3 사실 중 피고 박경주(朴京柱)·김용규(金容奎)·

범윤두(范潤斗)와 같은 행위로 각 출판법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조선형사령 제42조에, 제3 사실 중 피고 김태열(金泰烈)의 인쇄 교사 행위는 위 동 법조 및 형법 제61조 제1항에 각 해당되고, 제2 사실 중 피고 김태열(金泰烈)·정광호(鄭光好)가 인쇄물을 반포한 행위는 각 동시에 출판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보안법 제7조에 해당되어 조선형사령 제42조, 형법 제54조 제1항, 앞서 언급한 제10조에 의해, 중복하여 출판법 위반형을 더해 처단함이 옳다. 피고 김복현(金福鉉)·한길상(韓吉祥)·김중삼(金鍾三)·정광호(鄭光好)의 각 출판법 위반 행위 및 피고 김용규(金容奎)·김태열(金泰烈)의 제2 사실 중에 같은 행위는 연속범죄이기에 형법 제55조를 적용함이 옳고, 피고 최정두(崔正斗)·김태열(金泰烈)·송흥진(宋興眞)·김용규(金容奎)·범윤두(范潤斗)는 각 수차례 범죄를 병발(併發 두가지 이상 일이 한꺼번에 일어남)해서 각 형법 45조, 47조, 10조를 적용하고, 피고 최정두(崔正斗)·범윤두(范潤斗)에 대해서는 범행 정도가 무겁고, 피고 김태열(金泰烈)에 대한 것과 같이 피고 송흥진(宋興眞)은 보안법 위반, 피고 김용규(金容奎)는 인쇄물 반포의 각 죄에 법정 가중을 하여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하고, 압수품 중 령 제121호의 1호 내지 12호, 령 제131제2부 _ 광주·전남 3·1운동 판결문 자료200호의 1호, 2호, 4호의 2, 5호 내지 11호는 범죄의 사용에 제공하고 혹은 제공하려고 한 것 또는 범죄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피고 이외의 소유에 속하지 않아 형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을 적용하여 각각 이를 몰수한다. 기타 압수품은 몰수에 관계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하여 각 차출인에게 돌려준다. 피고 정광호(鄭光好)·김용규(金容奎)·범윤두(范潤斗)는 권석에 붙여 각각 형사소송법 제 229조를 적용한다. 피고 남궁혁(南宮赫)·김태열(金泰烈)이 공모한 제1의 범행을 행한 취지, 피고 서정희(徐廷禧)가 같은 출판법 위반에 관한 범행을 함께 한 취지, 피고 강석봉(姜錫奉)이 같은 보안법 위반의 범행을 함께 한 취지, 피고 이기호(李起浩)가 대정(大正) 8년 3월 8일 피고 범윤두(范潤斗)·김용규(金容奎) 등에게서 독립선언서, 인쇄용지, 등사판, 구한국국기 등을 가마

니에 넣어 운반해 온 것을 그대로 일시 자택에 은닉해 두고 동일(同日) 피고 범윤두(范潤斗) 등을 시켜 피고 최한영(崔漢泳)집에 들고 가 같은 집에서 국권을 문란하는 문서의 인쇄를 하여 다음 9일 오후 1시경부터 3시경 사이에 피고 자택에서 피고 서정희(徐廷禧)·김강(金剛)·김복현(金福鉉)·송흥진(宋興眞)·김태열(金泰烈) 외 수 명과 조선독립 운동의 모의를 굳히고 거행 일시 인쇄물 반포의 방법을 협의하는 한편 다른 피고 등과 함께 최한영(崔漢泳)집에서 등사의 진행을 마치고 다음 10일 오후 3시 반에 거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등사 및 국기 작성을 완성하자마자 동 9일 밤 국기 및 등사판은 재차 피고 자택 안에 은닉하고 인쇄물은 전기(前記)와 같이 당일(當日) 동지에게 반포하게 하고 국기도 역시 동지에게 수백의 군중과 함께 휴대 사용하게 함으로써 광주에서 독립운동을 수행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치안을 방해했다는 취지, 피고 최기순(崔基順)이 대정(大正) 8년 4월 6일 피고 범윤두(范潤斗)의 의뢰에 의하여 불법인쇄에 사용된 정황을 알고 피고 박경주(朴京柱) 집에서 사용된 등사판 2개를 목포로 갖고 가 이를 은닉함으로써 범죄 증빙 인멸을 기도했다는 취지의 각 공소사실은 그 증빙이 충분하지 않아, 각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준거하여 각각 무죄를 언도한다. 피고 김강(金剛)·최병준(崔丙浚)이 판시(判示) 제1의 불법 인쇄를 담당한 점, 피고 송흥진(宋興眞)·손인식(孫仁植)·강석봉(姜錫奉)·최정두(崔正斗)·범윤두(范潤斗)가 같이 인쇄물의 반포를 담당한 점, 피고 김범수(金範洙)·박일구(朴一求)·최정두(崔正斗)·김기형(金基亨)이 판시(判示) 제2의 불법 인쇄물의 반포를 담당한 점, 피고 김태열(金泰烈)·범윤두(范潤斗)·김용규(金容奎)·박경주(朴京柱)가 판시(判示) 제3의 불법 인쇄물의 반포를 담당한 점은 각각 그 증빙이 충분하지 않아도 위의 각 연속 범행 일부에 관계가 있어 무죄를 언도하지 않는다. 위에 서술한 이유에 의한 주문대로 판결한다.

대정(大正) 8년 6월 16일
 광주지방법원조선총독부 판사
 고목안태랑(高木安太郎)

부록 3. 3·1운동 판결문(2심)

김복현(金福鉉) 외 15명 (대구복심법원)

- 김복현(金福鉉)(30세) 전라남도 나주군 나주면(羅州面) 금정(錦町) 무직
- 김 강(金 剛)(29세)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농업
- 서정희(徐廷禧)(43세)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금정(錦町) 농업
- 최병준(崔丙浚)(24세)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숭일학교 교사
- 송흥진(宋興眞)(33세)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양림리(楊林里) 농업
- 최한영(崔漢泳)(21세)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鄉社里) 전라남도청 고용인
- 한길상(韓吉祥)(24세)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수기옥정(須奇屋町) 제조업
- 김종삼(金鍾三)(21세)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수기옥정(須奇屋町) 광주자혜의원 간호인
- 김범수(金範洙)(22세)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수기옥정(須奇屋町) 학생
- 박일구(朴一求)(22세) 전라남도 광주군 장성군 진원면(珍原面) 상동리(山東里) 무직
- 최정두(崔正斗)(21세) 전라남도 광주군 본정촌면(本町村面) 양산리(陽山里) 농업
- 김기형(金基亨)(25세)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北二面) 백암리(白岩里) 농업

- 김태열(金泰烈)(25세)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수기옥정(須奇屋町) 광주보통학교교사
- 손인식(孫仁植)(26세)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숭일학교교사
- 강석봉(姜錫奉)(22세)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수기옥정(須奇屋町) 고용인
- 박경주(朴京柱)(22세) 전라남도 광주군 송정면(松汀面) 선암리(仙岩里) 농업

위 자들에 대한 보안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 피고 사건에 붙여, 대정(大正) 8년 6월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피고 등에 대해 행해진 유죄 판결 및 피고 최정두(崔正斗)에 대한 보안법 위반 사건에 더하여, 동년 4월 17일 동 법원에서 동 피고에 대해 행한 유죄 판결에 대해 피고 등이 각각 공소(控訴: 항소)를 신청함에 따라, 당 법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야전병웅(野田靱雄)이 간여한 심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 등에 대한 기존 판결을 취소한다. 자료 피고 김복현(金福鉉)·김강(金剛)·최병준(崔丙浚)·최한영(崔漢泳)·한길상(韓吉祥)·김종삼(金鍾三)·김범수(金範洙)·박일구(朴一求)·최정두(崔正斗)·김태열(金泰烈)을 각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 서정희(徐廷禧)·송흥진(宋興眞)·박경주(朴京柱)를 각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 김기형(金基亨)·손인식(孫仁植)을 각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 강석봉(姜錫奉)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물건 중 령제121호 중, 증 제1호 내지 제6호, 증 제8호 내지 제12

호 및 령 제200호 중, 증 제1호, 제2호, 제4호의 2, 증 제5호 내지 제9호는 이를 몰수하고, 기타는 각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이유

제1. 피고 김범수(金範洙)·박일구(朴一求)·최정두(崔正斗)·김기형(金基亨)·김태열(金泰烈)은 원심(原審) 상(相) 피고 정광호(鄭光好)와 공모하여 최팔룡(崔八龍) 외 10명 연명(連名)의 “일·한 병합은 조선민족의 자유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본의 위계(僞計)와 당시 요직에 세워진 선인(鮮人) 매국노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들은 우리 민족의 자유를 요구한다. 만약 성공하지 않으면 모든 자유의 행동을 집행함으로써 최후의 1인까지 자유를 위해서 끓는 피(熱血)를 채울 것이다 운운”이라고 조선독립에 관한 불온한 내용의 기재가 있는 선언서를 다수 인쇄하여 이를 선인(鮮人) 일반에게 반포함으로써 조선독립 시위 운동을 풍성하게 하는 것 등을 기획하여, 대정(大正) 8년 2월 5일, 6일 이틀에 걸쳐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피고 김기형(金基亨) 집에서 관찰 관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정광호(鄭光好)가 휴대하고 온 등사판 및 용지를 사용하여 위 선언서를 원고로 하여 국어문(일본어) 약 10통, 조선문 약 600통을 각각 인쇄했다.

제2. 피고 최정두(崔正斗)는 조선의 독립을 도모할 목적으로 동년 3월 1일 경성부에서 행해진 독립시위 운동에 참가하고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 만세를 고창하고 동부 내(경성부 내)를 행진하여 공공의 치안을 방해했다.

제3. 피고 김복현(金福鉉)은 동년 3월 초순 경 경성부 봉래읍 신행여관에 체재 중 같은 곳에서 조선독립에 관한 시위운동의 실황을 목격하

고, 또 손병희(孫秉熙) 외 32명 연명의 “조선은 독립국으로써 선인(鮮人)은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운운. 우리는 이에 분기하여 실로 일에 착수하면 절직(切直)하게 할. 운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선언서 및 ‘우리 2000만 동포’라고 제목 붙인 “우리 동포는 아무쪼록 속박의 끈을 끊고 최대결심으로 독립의 깃발 아래에 모이자 운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고문에 나란히 “감인한(감내하고 참은) 조선독립의 소리는 꽃피었다. 피와 뼈 모두 조선 생사(生死)와 함께 조선.운운”이라고 기재된 ‘조선독립가’를 입수함에 따라, 해당 각 문서를 인쇄하여 전라남도 각지에 반포하여 부지런히 일반 선인(鮮人)에게 조선독립의 사상을 고취하고, 또 전라남도 광주에서 해당 독립의 시위운동을 함으로써 전부터 희망하고 있는 조선독립의 기운을 촉진시키는 것을 기획하고, 위 각 문서를 휴대하여 동월 6일 광주에 와서 피고 김강(金剛)에게 그 사정을 알렸다. 동월(同月)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남궁혁(南宮赫) 집에서 위 김강(金剛) 및 피고 최병준(崔丙浚)·송흥진(宋興眞)·최정두(崔正斗)·한길상(韓吉祥)·김태열(金泰烈)·강석봉(姜錫奉)·손인식(孫仁植)에게 원심(原審) 상(相)24) 피고 김용규(金容奎) 등과 회합하여 피고 김복현(金福鉉)은 전시(前示) 각 문서를 일동(一同)에게 보이고, 또 경성에서 행해진 위 시위운동의 상황을 알리고 위 각 문서를 인쇄하여 이를 널리 일반에게 반포하여 당 시위운동을 하자는 뜻을 제의하고, 또한 위 최정두(崔正斗)·한길상(韓吉祥)·김용규(金容奎) 등에게 위 문서의 인쇄를 하도록 교사(敎唆)하고 위 피고 등은 각각 이를 찬동하였다. 피고 한길상(韓吉祥)·최정두(崔正斗)·김용규(金容奎) 3명은 피고 김복현(金福鉉)의 위 교사에 인해 피고 최한영(崔漢泳)·김종삼(金鍾三)·범윤두(范潤斗)와 함께 동월 8일에서 9일에 사이에 동면 향사리의 피고 최한영(崔漢泳)집에서 그 내용의 허가를 받지 않고 최정두(崔正斗) 소유의 등사판 및 송일학교 소유의 등사판을 각각 사용하여 전시 선언서, 경고문, 독립가 함께 수십 통을 인쇄하였고, 피고 송흥진(宋興眞)·손인식(孫仁植)은 위 인쇄를 할 때 송일학교 소유의 등사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제

공하고, 피고 강석봉(姜錫奉)은 등사용지 1만 부를 매수하여 이를 제공하여 각 인쇄 행위를 용이하게 했고, 이어서 동월 10일을 기해 드디어 광주 읍내에서 위 시위운동을 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피고 최병준(崔丙浚)은 동일 송일학교에서 동교 생도인 김성민(金聖敏)·정두범(鄭斗凡)·김철주(金鐵柱)·김정수(金丁洙) 등에게 위 각 인쇄물을 교부하여 이를 일반 민중 및 위 학교 생도 일동에게 반포할 것을 지시 교사했다. 피고 김복현(金福鉉)·김강(金剛)·서정희(徐廷禧)·송흥진(宋興眞)·최한영(崔漢泳)·한길상(韓吉祥)·김종삼(金鍾三)은 10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 및 구한국기를 휘두르면서 조선독립 만세를 고창하고 광주 시내를 줄지어 행진하였다. 피고 최병준(崔丙浚)은 해당 군중을 행렬에 더하고 함께 해당 독립의 시위운동을 했다. 그때 위 김성민(金聖敏) 이하 4명은 피고 최병준(崔丙浚)의 교사(敎唆)에 기초하여 피고 김복현(金福鉉)·김강(金剛)·최한영(崔漢泳)·한길상(韓吉祥)·김종삼(金鍾三) 등과 함께 각자 전시 인쇄물을 광주 시내 및 그 부근의 일반 민중에게 반포하여 공공의 치안을 방해하였다.

제4. 피고 김강(金剛)은 판시(判示) 제3의 광주 시내에서 하기로 한 조선독립 시위운동에 임하여 당 운동을 하는 것에는 선언서 등의 인쇄물 반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에 따라 후일 운동 거행 시 일반 민중에게 반포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판시(判示) 제3의 불온문서를 인쇄할 것을 기획하고, 동월 14일 경 피고 박24) 상(相) 피고의 ‘상(相)’은 여러 피고인 중 한 사람의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다른 피고인을 지칭함 자료경주(朴京柱) 및 원심(原審) 상 피고 범윤두(范潤斗)·김용규(金容奎)에게 그 사정을 알려 해당 각 문서를 인쇄할 뜻을 교사했다. 피고 박경주(朴京柱)·범윤두(范潤斗)·김용규(金容奎) 3명은 피고 김태열(金泰烈)의 교사를 기준으로 동월 17일 18일 이틀간 송정면 선암리의 피고 박경주(朴京柱) 집에서 그 내용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등사판을 사용하여 판시(判示) 제3의 독립선언서 약 1500통, 경고문 약 1500매, 독립가 약 500매를 인

쇠하였다.판시(判示) 제 1사실의 원심(原審)공판 시말서 중 피고 김범수(金範洙)의 공술(供述)로, “나는 김태열(金泰烈)과 함께 판시(判示)일 경 판시(判示)의 피고 김기형(金基亨) 집에 도착하여 2실 안의 작은 방에서 정광호(鄭光好)·최정두(崔正斗)·박일구(朴一求) 등이 경성에서 등사판을 휴대하고 와서 최팔용(崔八龍) 외 10명 연서의 ‘조선독립선언서’를 등사 인쇄에 착수하고 있으므로 나도 거기에 가담하고, 그 다음날 시내에서 해당 선언서 국문(일본어) 약 50통, 조선문 약 700통을 인쇄했다”는 취지의 기재위와 같은 시말서 중 피고 박일구(朴一求)의 공술(供述)로, “나는 판시(判示)일 경 판시(判示)의 김기형(金基亨) 집에서 정광호(鄭光好)·김범수(金範洙)·최정두(崔正斗)·김태열(金泰烈)등과 함께 최팔용(崔八龍) 외 10명 연서의 ‘조선독립선언서’ 국문(일본어)을 약 50통, 조선문 약 700통을 인쇄했는데 그때의 등사판 및 용지는 정광호(鄭光好)가 경성에서 가지고 왔다”는 취지의 기재위와 같은 시말서 중 피고 김태열(金泰烈)의 공술(供述)로 “나는 판시(判示)일 경 판시(判示)의 김기형(金基亨) 집에서 박일구(朴一求)·정광호(鄭光好)·최정두(崔正斗)등과 함께 정광호(鄭光好)·최정두(崔正斗)가 경성에서 준비해 온 인쇄품을 사용하여 최팔용(崔八龍) 외 10명 연서의 ‘조선독립선언서’ 국문(일본어) 약 50통, 조선문 약 700통을 인쇄했다”는 취지의 공술(供述)피고 최정두(崔正斗)는 당 법정에서 “경성에서 정광호(鄭光好)는 나에게 최팔용(崔八龍) 외 10명 연서의 선언서를 보여주고 이와 같이 조선은 목하 독립해야 하는 까닭에 이 일을 선인(鮮人) 일반에게 알리기 위해 인쇄하는 것이다. 경성에서 인쇄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판시(判示)의 김기형(金基亨) 집에서 인쇄한다. 덧붙여 함께 동소에 가서 정광호(鄭光好)와 서로 통(同通)하여 위 김기형(金基亨) 집에 가서 정광호(鄭光好)·박일구(朴一求)·김태열(金泰烈) 등과 함께 위 선언서를 국문(일본어)으로 약 50통, 조선문으로 약 600여 통을 인쇄하였는데 그 선언문은 령 제200호의 증 제19호와 동일하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김사의 피고 김기형(金基亨)에 대한 심문조서 중 “판시(判示)일 경 나
 는 매제 박일구(朴一求)의 의뢰로 나의 집에서 동인 및 정광호(鄭光好)·
 최정두(崔正斗)·김태열(金泰烈)·김범수(金範洙)와 함께 최팔용(崔八龍)
 외 10명의 연서로 ‘조선독립선언서’ 일본문 및 조선문 6매 1부로 약 600
 부를 인쇄했는데, 대부분은 136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3·1운동정광호
 (鄭光好)가 경성에 가지고 돌아가고 나머지는 김태열(金泰烈)이 광주에
 가지고 갔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판시(判示)와 같은 취지의 기재
 가 있는 령 제200호 증 제19호 선언서의 존재판시(判示) 제2의 사실에
 서 피고 최정두(崔正斗)가 당 법정에서 판시(判示)와 같은 취지의 공술
 (供述)판시(判示) 제3 사실에서 피고 김복현(金福鉉)이 당 법정에서 “나
 는 대정(大正) 8년(1919년) 3월 중 경성에 갔다. 봉래읍 신행여관에서
 손병희(孫秉熙) 외 32명 연서의 선언서 및 독립가를 입수하고 남대문
 부근에서 ‘경고 2천만 동포’라고 제목 붙은 경고문을 습득하였다. 해당
 각 문서를 인쇄하여 공중 일반에게 배포할 생각으로 동월 6일 광주에
 가지고 돌아와서 같은 날 밤 김강(金剛)과 타합(打合)하여 나와 최병준
 (崔丙浚)·송흥진(宋興眞)·최정두(崔正斗)·한길상(韓吉祥)·김용규(金容
 奎)·강석봉(姜錫奉)·손인식(孫仁植) 외 수 명과 회합했다. 그때 오는 3
 월 10일 광주 장날에 내가 경성에서 휴대한 각 문서를 배포하여 조선독
 립 운동을 일으키자고 상담을 하고, 위 문서의 인쇄는 광주 시내 선인
 (鮮人) 청년에게 의뢰할 것. 동월 8일부터 9일 저녁시각까지 최한영(崔
 漢泳) 집에서 한길상(韓吉祥)·김중삼(金鍾三)·최정두(崔正斗) 등이 협
 력하여 위 선언서, 독립가, 경고문을 약 8000매 정도 등사판을 사용하여
 인쇄했는데, 해당 인쇄에 있어서 그 내용의 허가는 받지 않았다.운운.’
 이렇게 해서 동월 10일 나는 김강(金剛)·서정희(徐廷禧)·송흥진(宋興
 眞)·최병준(崔丙浚) 등과 함께 군중에 술선하여 각자 한국기를 휘두르
 며 조선독립 만세를 고창하고 다수의 사람과 함께 광주 읍내를 행진했
 다. 그때 나는 위 인쇄했던 선언서, 독립가, 경고문을 반포하였다. 나는
 경성에서 조선독립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독립의 기운이 도래했다고

생각하여 그 일을 공중에 알리기 위해 위 운동을 했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김강(金剛)은 당 법정에서 “나는 대정(大正) 8년 3월 6일 양림리(楊林里)의 남궁혁(南宮赫) 집에서 김복현(金福鉉)·최병준(崔丙浚)·송흥진(宋興眞)·최정두(崔正斗)·한길상(韓吉祥)·김태열(金泰烈)·강석봉(姜錫奉)·손인식(孫仁植) 등과 함께 회합하고 광주 읍내에서 조선독립 시위운동을 하는 것을 협의하였다. 그때 김복현(金福鉉)이 경성에서 가져 온 판시(判示)의 선언서, 독립가, 경고문 등을 광주의 청년 층에 인쇄시키는 것으로 해서, 그 결과 동월 8일부터 9일 저녁시각까지 최한영(崔漢泳) 집에서 동인 및 최정두(崔正斗)·김종삼(金鍾三)·한길상(韓吉祥) 등이 약 8000매를 인쇄했고, 동월 10일 김복현(金福鉉)과 함께 주모자가 되어 한국기를 휘두르고 조선독립 만세를 고창하며 광주 시내를 행진했다. 그때 나는 위 인쇄한 선언서 등을 배포했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서정희(徐廷禧)는 당 법정에서 “대정(大正) 8년 3월 8일 김강(金剛)이 내 집에 와서 경성에서 조137제2부 _ 광주·전남 3·1운동 판결문 자료선독립 운동 사건을 말하고 광주에서도 당 운동을 개시하자고 하여 나도 이에 찬성하여 9일 이기호(李起浩) 집에서 나와 김복현(金福鉉)·김강(金剛)·송흥진(宋興眞) 등이 회합한 끝에 광주에 있어서 시위운동 방법에 대해 결정했다. 그 다음 10일 나는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광주 읍내를 행진했다”라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송흥진(宋興眞)은 당 법정에서 “대정(大正) 8년 3월 6일 김복현(金福鉉)이 자택에 머물렀는데 그때 동인 및 김강(金剛)과 나는 조선독립 시위운동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 또 그날 밤 남궁혁(南宮赫) 집에 갔는데 최병준(崔丙浚)이 송일학교에 등사판을 가지러 가자고 해서 나는 학교에 가서 등사판을 가지고 돌아왔다. 운운” 그리고 “동월 10일 나는

구한국기를 흔들고 군중과 함께 한국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광주 읍내를 행진했다”라는 취지의 공술(供述)원심(原審) 공판 시말서 중 피고 송흥진(宋興眞)이 공술(供述)하기를, “대정(大正) 8년 3월 6일 남궁혁(南宮 燦) 집에서 김복현(金福鉉)·김강(金剛)·최병준(崔丙浚) 등과 회합했는데 그때 김복현(金福鉉)의 주창(主唱)에 의해 손병희(孫秉熙)의 선언서, 경고문, 독립가를 인쇄하여 운동 때 군중에게 배포하기로 협의를 했다. 나는 등사판을 들고 나왔다”라는 취지의 기재

원심(原審) 공판 [피고 김복현(金福鉉) 외 85명 각자에 대한 보안법 위반 사건에 관한] 시말서 중 피고 최병준(崔丙浚)의 공술(供述)로 “대정(大正) 8년 3월 7일, 김복현(金福鉉)이 경성 기타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광주에서도 당 운동 개시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나도 이에 찬성했다. 동월 10일 아침 김강(金剛)에게서 독립선언서 등 약 1000매를 수령하고 즉시 숭일학교 보통과, 고등과 각 학년의 대표자로 정두범(鄭斗凡)·김성민(金聖敏)·김철주(金鐵柱)·김정수(金丁洙) 등에게 각급 생도 1명당 20매씩 배포한다는 뜻을 알리고 위 선언서 등을 교부하면서 남문 밖 또는 동문 밖 또는 서문 거리에서 각각 배포하도록 부서를 정했다. 운운. 당일(當日) 독립운동 참가 인원은 1000명 이상으로 다수는 구한국기 또는 독립만세라고 쓰인 깃발을 흔들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자를 흔들거나 양손을 올려 조선독립 만세를 소리높이 외치며 시내를 휘젓고 다녔다. 나는 일한병합을 유감이라고 여기고 독립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가 당일(當日) 위 군중 뒤에서 수행했다”는 취지의 기재동(同) 상(上) 시말서 조서 중 정두범(鄭斗凡)·김철주(金鐵柱)·김정수(金丁洙)의 공술(供述)로 “3월 10일 광주에서 조선독립 시위 운동할 때 나는 최병준(崔丙浚)에게서 건네받은 선언서를 배포했다”는 취지로 각자 공술(供述)하고 또 정두범(鄭斗凡)의 공술(供述)로 “령 제 121호의 증 제4호 내지 제6호, 11호, 12호는 위 운동 때 군중이 흔들었던 한국기 및 독립만세 깃발이고 증 제1호 내지 3호, 제8호 내지 10호는

내가 배포했던 위 선언서 및 기타 인쇄물”이라는 취지의 기재138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3·1운동동(同) 상(上) 시말서 중 김성민(金聖敏)의 공술(供述)로 “3월 10일 최병준(崔丙浚)에게서 손병희(孫秉熙) 외 32명 연서의 ‘독립선언서’를 동교생 및 일반민에게 배포하려고 150~160매를 교부받아서 나는 당 선언서를 동교생에게 20매씩 나누어 주고 그 나머지를 소시장에서 민중에게 배포했는데, 령 제121호의 증 제1호 내지 3호, 8호 내지 10호는 내가 배포했던 선언서 및 기타 인쇄물”이라는 취지의 기재피고 최한영(崔漢泳)은 당 법정에서 “대정(大正) 8년 3월 8일부터 9일 저녁 시각까지 김복현(金福鉉)이 경성에서 가지고 온 독립선언서, 경고문, 독립가 등을 사택에서 최정두(崔正斗)·김종삼(金鍾三)·한길상(韓吉祥) 등이 협력하여 함께 수천 통을 인쇄했는데 나도 위 사람들과 함께 인쇄했다. 당 인쇄는 그 내용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운운” 그리고 “다음날 10일 나는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 만세를 소리높이 외치면서 광주 읍내를 행진했다”라는 취지의 공술(供述)원심(原審) 공판 [김복현(金福鉉) 외 85명에 대한 보안법 위반 및 사건에 관한] 시말서 중 피고 최한영(崔漢泳)의 공술(供述)로 “나는 3월 10일 광주교 부근에서 김복현(金福鉉)에게 타인에게 배포하라고 독립선언서를 넘겨받아 내가 배포했다. 당 선언서는 손병희(孫秉熙) 외 32명의 발표에 관계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피고 한길상(韓吉祥)은 당 법정에서 “나는 대정(大正) 8년 3월 6일 남궁혁(南宮赫) 집에서 김복현(金福鉉) 등과 회합하고 광주에서 조선독립 시위운동을 하는 상담을 했다. 그때 김복현(金福鉉)이 경성에서 가지고 온 손병희(孫秉熙) 외 32명의 선언서 및 경고문, 독립가를 인쇄하여 공중에게 배포할 것을 결의했다. 그 결과 나는 동월 8일부터 9일 저녁 시각까지 위 3종의 문서를 최한영(崔漢泳) 집에서 등사판을 사용해 동인(同人)·최정두(崔正斗)·김종삼(金鍾三) 등과 협력하여 함께 수천 통을 인쇄했다. 다음날 10일 나는 당 인쇄물을 신안리 방면에서 배포했다”라는 취지의 공술(供述)검사의 피고 김종삼(金鍾三)에 대한 제2회 김복현(金福鉉) 외 85명에 대한 보안법 위반 및 사건에 관한

신문조서 중 “3월 10일의 운동에는 한길상(韓吉祥)도 그 행위에 가담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중을 휘젓고 다녔다”라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되고 김종삼(金鍾三)이 당 법정에서 “나는 대정(大正) 8년 3월 8일부터 9일 저녁 시각까지 최한영(崔漢泳) 집에서 손병희(孫秉熙)의 선언서, 경고문, 독립가를 수천 통 인쇄했다. 또 동월 7일 김언수(金彦洙) 집에서 최정두(崔正斗)와 함께 구한국기를 만들었다.운운. 그렇게 해서 나는 동월 10일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 만세를 고창하며 광주 읍내를 행진했는데 그때 인쇄한 선언서 등을 공중에게 배포했다”라는 취지의 공술(供述)

자료원심(原審) 공판 시말서 중 피고 최정두(崔正斗)의 공술(供述)로 “3월 6일 저녁 나는 남궁혁(南宮赫) 집에서 김복현(金福鉉)·김강(金剛) 송흥진(宋興眞)·한길상(韓吉祥)·김태열(金泰烈)·강석봉(姜錫奉) 등과 회합했는데 그때 김복현(金福鉉)은 경성에 있어서의 독립운동 상황을 말하고 광주에서도 당 운동을 개시해야 한다며, 덧붙여 독립선언서, 경고문 등을 시내 청년에게 인쇄시키자고 하여 김용규(金容奎)·한길상(韓吉祥)등이 이를 인수하고 등사판은 송일학교 것을 사용하고 용지는 강석봉(姜錫奉)이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동월 9일 최한영(崔漢泳)집에 내 소유의 등사판도 사용하기 위해 이를 휴대하여 가지고 나와 김종삼(金鍾三)·한길상(韓吉祥)·최한영(崔漢泳) 등은 선언서 약 1,500부, 경고문, 독립가 약 200매를 인쇄했는데 령 제200호의 증 제4호의 2는 내 소유의 등사판이고 증 제3호의 등사기도 동일 함께 사용된 송일학교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증 제1호, 2호, 5호 내지 9호는 위 선언서 인쇄에 사용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검사의 피고 송흥진(宋興眞)에 대한 심문조서 중 “등사판은 송일학교의 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나와 손인식(孫仁植) 두 사람은 학교에 이르러 손인식(孫仁植)이 소지한 열쇠로 건물 사무실을 열어 등사판을 들고 와 남궁혁(南宮赫) 집에서 피고 김강(金剛)에게 교부했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되고 손인식(孫仁植)은 당 법정에서 “3월 6일 최병준(崔丙浚)의 안내로 남궁혁(南宮赫) 집에 도

착했다”라는 취지의 공술(供述) 피고 강석봉(姜錫奉)은 당 법정에서 “대정(大正) 8년 3월 6일 밤 한길상(韓吉祥)과 함께 양림리(楊林里)에 있는 그의 집에 갔다. 그때 그 집에서 다수의 사람이 회합하고 광주에서도 조선독립 시위운동을 개시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에 반포할 목적으로 김복현(金福鉉)이 경성에서 휴대해 온 손병희(孫秉熙) 외 32명의 선언서, 경고문, 독립가를 광주 청년이 인쇄하는 것을 협의했다. 돌아오는 중 한길상(韓吉祥)에게 부탁받아 나는 동인과 함께 종이가게에 가서 위 인쇄에 필요한 종이 1만 매를 대금 삼천 원에 매입해 한길상(韓吉祥)에게 넘겼다”라는 취지의 공술(供述) 판시(判示)과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는 령 제121호의 증 제1호, 8호의 선언서, 증 제2호, 10호의 경고문, 증 제3호, 9호의 독립기 및 증 제4호 내지 6호, 증 제11호, 12호의 것 및 령 제200호의 증 제1호, 2호의 용지, 증 제3호, 4호의 등사판, 증 제5호의 첩필(鐵筆), 증 제6호의 모필(毛筆), 증 제7호의 잉크, 증 제8호의 인주담금, 증 제9호의 등사접기(謄寫摺器: 등사를 돌리는 기계)의 각각 존재판시(判示) 제4 사실은 피고 김태열(金泰烈)이 당 법정에서 “나는 대정(大正) 8년 3월 10일 광주에서 독립운동으로 인해 필요한 것은 인쇄물이라고 깨달아 경성에서 일어난 운동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몇 140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3·1운동번이고 일어났기 때문에 광주에서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몇 번이라도 일어날 것을 생각해서 후일 다시 운동이 일어날 때 반포할 준비로써 판시(判示) 피고 박경주(朴京柱) 집에서 동인(同人) 및 범윤두(范潤斗)·김용규(金容奎)에게 명하여 동인(同人) 등에게 손병희(孫秉熙) 외 32명 연명의 선언서 약 천1,500통, 경고문 약 1,500매, 독립가 약 5백 매를 인쇄하게 했는데, 해당 인쇄에 내용의 허가는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공술(供述) 원심(原審) 공판 시말서 중 피고 박경주(朴京柱)의 공술(供述)로 “대정(大正) 8년 3월 14일 경 나의 첩 집에서 김태열(金泰烈)에게서 권유받아 자택에서 선언서 등을 인쇄하는 것을 승낙했다. 그 후 판시(判示) 날 자택에서 김용규(金容奎)·범윤두(范潤斗)와 함께 손병희(孫秉熙) 외 32명 연서의 ‘독립선언서’ 약 1,500부, 경고

문 약 1,500매, 독립가 약 500 매를 인쇄했는데, 그것은 령 제121호의 증 제1호 내지 3호와 동일한 것으로 등사판 및 기타 준비는 김태열(金泰烈)이 모두 갖추고 나는 용지 팔천 매를 구입했다"라는 취지의 기재판시(判示)와 같은 기재는 령 제12 호의 증 제1호 내지 3호의 존재에 의해 각각 그 증빙이 충분한 것으로 한다. 법에 비추어 판시(判示) 제1의 피고 김범수(金範洙)·박일구(朴一求)·최정두(崔正斗)·김기형(金基亨)·김태열(金泰烈)의 선언서 인쇄의 행위는 각각 용희 3년 법률 제6호, 출판법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판시(判示) 제2의 피고 최정두(崔正斗)의 치안방해 행위는 행위 당시에 있어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대정(大正) 8년 제령 제7호 시행 후에 있어서 동령 제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6조 제10조에 준거한다. 위 양법(兩法)이 정한 바 형(刑)을 비조(比照)하여 가벼운 보안법 제7조의 형(刑)을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判示) 제3의 행위 중 피고 최한영(崔漢泳)·한길상(韓吉祥)·김종삼(金鍾三)·최정두(崔正斗)의 선언서 인쇄 행위는 각 출판법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조선형사령 제42조, 피고 김복현(金福鉉)의 당 인쇄물 교사 행위는 출판법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조선형사령 제42조, 형법 제61조 제1항, 피고 송흥진(宋興眞)·손인식(孫仁植)·강석봉(姜錫奉)의 당 인쇄 방조(幫助) 행위는 각 출판법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조선형사령 제42조, 형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68조 제3호, 피고 김복현(金福鉉)·김강(金剛)·최한영(崔漢泳)·한길상(韓吉祥)·김종삼(金鍾三)의 위 인쇄물 반포 행위는 각 출판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조선형사령 제42조, 피고 최병준(崔丙浚)의 반포 교사 행위는 형법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고 위 김복현(金福鉉)·김강(金剛)·최한영(崔漢泳)·한길상(韓吉祥)·김종삼(金鍾三)의 해당 인쇄물 반포에 의한 치안방해와 피고 등의 조선독립 만세 고창에 의한 치안방해 및 피고 최병준(崔丙浚)의 인쇄물 반포 교사에 의한 치안방해와 조선독립 시위운동 참가에 따른 치안방해 및 피고 서정희(徐廷禧)·송흥진(宋興眞)의 조선독립 만세 고창(高唱)에 의한 치안방

해는 그 행위 당시 법령에 있어서는 각각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전시(前示) 제령(制令) 시행 후의 일로 각 동(同)령(令) 제1조에 해당함에 따라 피고 서정희(徐廷熙)141제2부 _ 광주·전남 3·1운동 판결문 자료(禧)·송흥진(宋興眞)에 대해서는 형법 제6조, 제10조에 의해 보안법 제7조 소정의 형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피고 김복현(金福鉉)·김강(金剛)·최한영(崔漢泳)·한길상(韓吉祥)·김중삼(金鍾三)의 인쇄물 반포 및 피고 최병준(崔丙浚)의 동(同) 교사와 동 각 피고 등의 치안방해는 각각 1개의 행위로써 2개의 죄명에 저촉된다. 복합적으로 관계되어 피고 김복현(金福鉉)·최한영(崔漢泳)·한길상(韓吉祥)·김중삼(金鍾三)의 위 행위와 동(同) 피고 등의 인쇄〔김복현(金福鉉)은 교사(敎唆)〕는 수단·결과의 관계로써 범죄시의 법령에 있어서는 위 피고 6명의 인쇄물 반포〔최병준(崔丙浚)은 교사(敎唆)〕와 치안방해의 사이에는 형법 제54조 제1항 전단 제10조에 의해 각각 무거운 인쇄물 반포죄의 형을 따르고, 피고 김복현(金福鉉)·최한영(崔漢泳)·한길상(韓吉祥)·김중삼(金鍾三)의 동 행위와 인쇄 사이에 부가하여 동 제54조 제1항 후단(後段) 제10조를 적용하여 각각 더 무거운 인쇄물 반포죄의 형에 의해 처단한다. 또 전시(前示) 제령(制令) 시행 후에 있어서는 위 피고 6명의 인쇄물의 반포와 치안방해의 사이에 덧붙여 형법 제54조 제1항 전단(前段) 제10조에 의해 각각 무거운 위 제령 제1조 소정(所定)의 형을 따르고, 피고 김복현(金福鉉)·최한영(崔漢泳)·한길상(韓吉祥)·김중삼(金鍾三)의 동 행위와 인쇄의 관계에 붙여 동 제54조 제1항 후단(後段) 제10조를 적용하여 각각 더 무거운 제령 제1조 소정의 형에 따르는 것에 관계한다. 그래서 형법 제6조, 제10조에 의해 위 친구 양법 소정의 형을 비조(比照)하여 각각 더 가벼운 인쇄물 반포죄에 붙여 정한 형(刑)으로 처단한다. 판시(判示) 제4. 피고 박경주(朴京柱)의 선언서 등 인쇄행위는 출판법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조선형사령 제42조, 피고 김태열(金泰烈)의 인쇄 교사(敎唆) 행위는 동 각 법조, 형법 제61조 제1항에 각각 해당한다. 피고 송흥진(宋興眞)은 판시(判示) 제3의 치안방해와

인쇄방조, 피고 최정두(崔正斗)는 판시(判示) 제1의 인쇄와 판시(判示) 제2의 치안방해 및 판시(判示) 제3의 인쇄, 피고 김태열(金泰烈)은 판시(判示) 제1의 인쇄와 판시(判示) 제4의 인쇄교사의 각 병합(併合)죄가 되어 동 피고 등에 대해서 각각 형법 제45조, 제47조, 제10조에 준거하고 피고 송흥진(宋興眞)에 대해서는 중(重)한 치안방해, 피고 최정두(崔正斗)에 대해서는 중(重)한 판시(判示) 제3의 인쇄, 피고 김태열(金泰烈)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판시(判示) 제4의 인쇄교사죄의 형에 법정 가중을 하여 그 형기 범위 내 기타 각 피고에 대해서는 각각 소정의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의 형을 양정(量定) 처단한다. 압수물건 중령 제121호의 증 제1호 내지 6호, 증 제8호 내지 12호 및 제령 200호의 증 제1호, 2호, 4호의 2, 증 제5호 내지 9호는 형법 제19조에 준거하여 각각 이를 몰수한다. 기타는 몰수와 관계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준거하여 각 소유자에게 환부(還付)하는 것으로 한다. 더하자면 원심(原審)에서 피고 최병준(崔丙浚)의 출판법 위반은 인쇄물 반포의 정범(正犯)이 아니라 그 교사(敎唆)한 것과 관계없이 동 피고의 정범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 김태열(金泰烈)에 대한 출판법 위반 중 인쇄물 반포의 사실 없음과는 관계없이 동 피고에 대해 그 사실을 인정한 것은 실당(失當: 이치에 어긋남)이다. 피고 김복현(金福鉉)의 인쇄교사와 반포, 피고 한길상(韓吉祥)·김종삼(金鍾三)의 각 인142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3·1운동쇄와 그 반포 사이에는 각기 형법 제54조 제1항 후단을 적용해야 하는 것과 관계없이 각 동 제55조를 적용한다. 피고 최한영(崔漢泳)의 인쇄와 그 반포 사이에 동 54조 제1항 후단의 적용을 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피고 김복현(金福鉉)·김강(金剛)·최병준(崔丙浚)·최한영(崔漢泳)·한길상(韓吉祥)·김종삼(金鍾三)의 인쇄물 반포 [최병준(崔丙浚)은 당심에서는 교사(敎唆)를 인정했다] 와 동 피고의 치안방해 및 피고 김복현(金福鉉)의 인쇄 교사(敎唆), 피고 최한영(崔漢泳)·한길상(韓吉祥)·김종삼(金鍾三)의 각 인쇄는 각각 실질상 하나의 죄가 되어 그 일부에 대한 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전부에 대해 신·구법 및 형법 제54조

를 적용하여 정한 후 소정의 형(刑)을 비조(比照)하여 가벼운 형(刑)을 적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일부인 치안방해죄의 형으로 부가하여 신·구법 소정의 형을 비조하는 것은 실당(失當: 이치에 맞지 않음)이다. 또 피고 최정두(崔正斗)의 판시(判示) 제1, 제3의 각 인쇄와 판시(判示) 제2의 치안방해는 병합(併合)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 각 인쇄 사이에만 병합죄의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각 인쇄와 치안방해 사이에 병합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김기형(金基亨)을 징역 2년, 피고 강석봉(姜錫奉)을 1년 6월, 피고 박경주(朴京柱)를 3년에 처한 것은 각각 그 과형(科刑)이 지나치게 무거우면서, 피고 등에 대해령 제 121호의 증 제7호 및 령 제200호의 증 제10호, 11호는 공히 소유자에게 환부(還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수하는 것은 그 당위성을 얻을 수 없으므로 피고 등의 각 공소(控訴: 항소)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여 모두 형사소송법 제 261조 제2항에 준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大正) 8년 9월 15일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2부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전택성미(前澤成美)

조선총독부 판사 제등종사랑(齊騰宗四郎)

조선총독부 판사 말차청길(末次淸吉)

부록 4. 애국지사 목정 최한영 선생 탄신 100주년 및 서거 10주기 기념 추도식

일시 : 2000. 12. 15. 10:30

장소 : 광주시민회관

애국지사 목정 최한영 선생 탄신 100주년 및 서거 10주기 추모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초청의 말씀

뉴-밀레니엄 첫째, 애국지사 목정 최한영 선생(1900. 12. 26. 건국훈장 애족장 제2570호) 탄신 100주년 및 서거 10주년을 기념하여 목정 선생의 백절불굴(百折不屈)·살신성인(殺身成仁)의 독립정신과 애국충정 및 고고(孤高)·청아(清雅)한 선비 정신을 본받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추도식을 거행하기에 초청하오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모사업 : 목정 최한영 선생 기념사업회의 발족 및 추모사업에 관하여서는 추후 협의의 위계(爲計)이나 유족의 뜻을 받들어 추진위원회에 경제적 부담을 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자 하여 추도식과 관련하여 조화(弔花), 부의금, 향촉대 등 일체 접수하지 않으니 해량(海諒)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 12. 1.

초청인 명예위원장 : 고재유 (광주광역시장)

상임고문 : 김상권 (광복회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추진위원장 : 김양균 (애국지사최현숙여사기념사업회장·21세기법무법인 고문변호사,
헌재재판소 초대헌법재판관)

(최지사 유관기관)

관덕정(궁도)

광주향교

무양서원

민학회

삼우회

3·1동지회

애일회

탐진최씨 종회

학생동지회

추도추진위원회 명단(생략)

고 목정 최한영 선생 약력

1914 광주농업학교 본과 졸업

1916 종현소야학(從賢所夜學) 등을 통한 민족계몽운동

1919 동지들과 사동 자택에서 독립선언문 태극기 등을 제작하여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어 3년 옥고를 치름

1922 신간회 물산장려회 민립대학기성회 전남상임위원회 광주청년회
광주실업청년회 광주상업회 천우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항일운동

1945 광주 건준위원 3·1동지회 전남궁도회 광주박물관회회장 광주국악
원장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특별회원 광주농고동창회 명예회장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전남지부장 광주민주화운동수습대책시
민대표

1990 건국훈장애족장(제2570호)

광주직할시 시민장으로 장의

추도사

추진위원장 김양균

목정 최한영 지사님!

여기서는 최지사님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뉴 밀레니엄 새천년의 첫 해가 다 마무리되어가는 오늘 우리나라의 대표적 독립투사이시고 고고한 선비이셨던 최지사님의 탄신 100주년 및 서거 10주기를 기념하여 뜻있는 시민여러분과 함께 최지사님의 의로운 삶을 재조명하고 명복을 비는 추도식을 갖게 되오니 상천(上天)에서 조감하사 흠향하시옵소서!

이 식전에는 130만 광주시민의 살림을 꾸리고 있는 고재유 광주광역시 민선시장님, 광복회 광주전남지회장이신 김상권 애국지사님을 비롯해서 애국지사, 전·현직 공무원, 교육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상공업계, 언론계, 의약계, 종교계, 체육계, 사회단체, 시민단체 및 최지사님이 생전에 관여하셨던 관덕정, 광주향교, 무양서원, 민학회, 삼우회, 3·1동지회, 애일회(愛日會), 5·18기념재단, 탐진최씨 종회, 학생동지회, 그리고 평소 가까이 지내신 친지 등 많은 추진위원 추모시민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최지사님을 애절하게 추도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예로부터 ‘의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유는 최지사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나라와 겨레를 위해 헌신하신 의인이 많이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지사님은 1900.5.15.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 향사리(현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131번지)에서 아버지(최양섭 崔亮燮), 어머니의 슬하 3남 4녀 중 차남으로 무등산의 정기를 듬뿍 받고 태어나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한 후, 광주공립보통학교(서석초등)와 광주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최지사님께서 전남도청 고원(雇員)으로 근무 중이던 1919년 3·1 만세 시위에 주동적으로 참여한 이래 평생을 조국광복과 민주주의 정착, 인권신장, 그리고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심초사하신 독립투사이고 우국지사입니다.

여기서 제가 최지사님에 대하여 ‘애국지사’라는 칭호 대신 ‘독립투사’라고 말씀드린 것은 애국지사 중에는 독립운동과 무관한 분도 계실 수 있다는 이유로 최지사님께서 ‘3·1운동동지’이신 저의 어머니(최현숙 건국훈장 애족장 1990. 12. 21. 제2520호)의 추모비 앞면에 ‘독립투사’라고 휘호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최지사님의 충의의 일생을 몇 가지 각도에서 재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최지사님은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광주 3·1운동을 주도하시고 광주지역 신간회 상무위의 사무를 주관하신 독립운동가이십니다.

김필수 목사님, 오방 최홍중 장로(후에 목사)님, 김철 선생 등의 지도와 격려 속에 독립운동 동지이신 정광호, 최병준, 김강, 황상호, 강석봉, 한길상, 최영균, 김용규, 최정두, 서정희 선생 등과 더불어 광주의 3·1만세 시위를 주도하신 최지사께서는 사정에 의해 서울보다 10일이 늦은 3월 10일에 거사를 단행하시지만 실은 서울보다 먼저 거사를 시도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지사님께서 뜻있는 동지들과 함께 당시 일본 동경 유학생으로서 2·8독립선언을 주도하신 정광호 선생으로부터 ‘한국청년독립단’ 명의로 ‘2·8독립선언서’를 입수하여 동경의 2·8거사 직후 광주에서도 독립만세시위를 결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사 준비 중에 서울의 3·1만세 시위와 시기를 맞춰달라는 연락을 받아 거사일을 늦추다보니 더 늦어지게 된 것이며 그 무렵 최지사님께서는 김철선생으로부터 기미독립선언서, ‘경고 아(我) 2천만 동포’라는 격문, 애국가, 독립운동가 등을 입수하여 최지사님 댁에서 방문을 이불로 가린 채 3일 동안 밤낮으로 6가마 분량을 등사판으로 등사 비장해 두십니다.

격문에는 ‘...지금이야말로 각 민족은 강국의 기반(羈絆)을 벗어나 세계 각국과 평등의 지위에 설 수 있는 기운을 향하였다.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우리 동포는 모름지기 속박의 사슬을 끊고 최대의 결심으로 독립의 깃발 아래 속박의 생보다는 자유의 죽음을 택하라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3·1만세시위가 최지사님께서는 죽음을 각오한 용단이 있음을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최지사님은 3월 10일 오후 2시경 부동교 부근 광주천변 만세시위 현장에서 운집한 군중에게 이들 등사물을 배포하고 맨 선두에서 조선독립 만세를 고창(高唱)하셨으며 군중은 맨손 또는 모자를 흔들거나 또는 태극기, 구한국기를 손에 들고 만세소리 드높이 외치면서 가로를 행진하였던 것입니다.

시위군중이 현재의 우체국 앞에 이르렀을 때 일제 관헌은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고 주동인사 검거에 돌입하였는데, 현장에서 구속된 최지사는 1919년 6월 16일 호리(堀勘治郎) 검사 관여로 광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판사 다카기(高木安太郎)로부터 대정 8년 형제558호, 910호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게 되십니다. 검사와 피고 쌍방이 항소하므로써 동년 8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대정 8년 형공제403호 및 707호로 노다(野田鞅雄) 검사 관여로 형사 제2부 미야자와(前澤成美) 재판장에 의해 당시 징역 3년의 선고를 받으시는데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그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대구 형무소에서 3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시니 최지사님은 광주 3·1운동을 주도한 애국지사 중 김철, 정광호 선생 등 14분과 더불어 가장 무거운 형기를 복역하게 되십니다.

최지사님은 감옥 안에서도 온갖 고초를 당하셨으나 조국 광복에 대한 일편단심은 추호도 변치 않아 출감 이후에도 일제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광복운동에 전념해 오셨으니 그 한가지 예가 신간회의 참여 및 암약이라 하겠습니다.

신간회는 1927년 2월 15일 ‘민족단일당민족협동전선’이라는 기치아래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제휴로 창립된 대표적 항일민족운동 단체입니다. 안재홍, 백관수, 신채호 선생 등이 중앙의 발기인이고, 초대회장 직은 이상재 선생이 맡으시는데 ‘우리는 조선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해방의 실현을 기함’ ‘전민족의 현실적 공동이익을 위하여 투쟁하기를 기함’이라는 정강정책에서 엿볼 수 있듯이 신간회는 다분히 일제와 비타협적이고 행동으로 강력 저항하는 민족기관이었던 것입니다.

신간회 광주지회는 정수태 선생을 지회장으로 하여 동년 4월에 창립되었는데 최지사님은 상무위원회에서 활약하게 되십니다. 신간회는 좌·우익 양 진영의 불화와 갈등, 일제의 핍박으로 1931년 5월 16일 해산되고 말지만 1929년 11월 3일에 발발한 광주학생독립의거에 직, 간접의 영향을 미치고 전국의 학생독립운동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하게 하였으며 국제여론의 환기와 법정투쟁을 통해 기소된 학생을 보호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최지사님은 이 지역의 대표작 선각자요, 교육자이십니다. 최지사님은 친지인 최명구 선생이 3·1만세의거 직후 광주면 서광산정 구 광주시청터 옆에 청년수양회장으로 설립한 호남지역 민족운동의 총본산이었던 흥학관에서 지육부장의 직책을 맡아 ‘배워야산다’는 신념으로 문

맹퇴치와 청소년의 계몽을 위해 진력하시고 특히 뜻있는 젊은이들에게 민족혼과 의기를 심어주시는데 혼신의 정력을 다. 그래서 홍학관에서 많은 애국지사가 배출되는 데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하신 김기권 동지 회장님, 김용준 애국지사님 등이 홍학관 출신입니다.

그 보다 앞서 최지사님은 1917년도에 정상호 선생 등과 더불어 정선생의 아버지(정낙교) 댁에 신문잡지종람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를 운독, 선진지식과 교양을 수용함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역사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제에 의해 위 종람소가 폐쇄된 다음에도 1918년도에 현재의 부래옥 백화점 자리에 ‘삼화양조장(三合釀造場)’이란 간판을 붙이고 은밀히 그 사업을 계속하였으며 일본 요코하마에서 발행된 영자 통신도 입수하여 월슨 미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선포한 사실도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무렵 장성군 북일면 오북의숙(鰲北義塾)에서 교두(校頭)로서 농촌계몽운동도 전개하시는데 최지사님의 이러한 자기 수련 과정은 3·1거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이념적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최지사님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데 심혈을 경주하신 전통문화애호가이시고 문화예술인이십니다. 광주 관덕정(觀德亭)의 사수(射首)로서 우리나라의 전통 궁도(弓道)인 국궁의 보급 및 활성화에 기여하시고 광주 국악원의 원장으로서 전통국악의 계승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광주박물관회 회장으로 문화유산의 연구, 보전에 진력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연진회의 창립회원으로서 신선처럼 묵향에 젖어 살아오신 지순지고한 서예가이기도 하십니다.

1938년 1월 의재 허백련 선생에 의해 창립된 연진회의 서문을 보면 맨 앞부분에 “예도를 배우다는 것은 반드시 그 참된 경지에 이르는데 있으며 양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참된 근원을 보전함에 있으니 그러므

로 우리는 예도에 노니는 것으로 여생의 즐거움을 삼는 고로 연진으로 명명한다. …(學芸者必格其眞境 養生者必保其眞元 吾之會以遊於芸樂 余生 爲則故 命名以鍊眞…)"이라고 되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최지사님의 티끌세상의 명리(名利)를 초연하여 유유자지고한 마음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1985년 5월 11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재직시절 광주·전남지역 청소년들에 드높은 기품과 맑은 정서를 키워줌과 아울러 충효와 인애(仁愛) 사상을 고취시키며 좋은 재능을 지니고도 이를 펴보일 기회로 갖지 못하는 불우·근로 소년을 포함한 여러 청소년들에게 그 자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청소년 건전보호육성의 예방선도이념을 구현하고 나아가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하고자 금호문화재단(이사장 박정구)의 장학금 협찬으로 청소년 예방선도서화백일장제도를 창안, 시행한 바 있는데 당시 최지사님께서서는 위 제도의 시행을 적극 격려해주시고 심사위원장직을 기꺼이 수락해주셨던 것입니다. 심사에 있어서 최지사님은 대상 수상자에 대하여서는 심사위원 전원의 채점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을 기하셨던 것입니다.

최지사님은 심사평에서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 경향 탓인지 국민 학생을 제외하고는 고학년에 이룰수록 작품 수준이 떨어지고 서예나 한국화부분의 참가자 수가 서양화 부분에 비하여 적은 것은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진 데서 기인한 것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당시 심사위원 여러분의 서화작품도 함께 금호문화회관에서 전시되었는데 최지사님께서 '춘추정의(春秋正義)'라는 글을 출품해주셨습니다.

넷째 최지사님은 고고한 선비이시고 의인이십니다. 평생 권세와 벼슬을 마다하고 초야에 묻혀 사시면서도 국가 사회가 어려움에 처한 때 예컨대 1945년 8월 30일에 결성된 광주시 건국준비위원회(위원장 서우석)

에 33명 위원 중 일원으로 참여하셔서 해방 직후 어수선한 상황에서 건국의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하시고, 5·18민주항쟁 당시에는 80노구에도 시민수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의 보호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등 모진 격랑 속에서 외로운 등재지기의 역할을 떠맡아 주시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최지사님은 항시 공의(公義)와 충효를 대표적 덕목으로 강조하셨는데 1986년도 제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재임시 최지사님께서 써 주신 휘호는 ‘효무종시 회급기신(孝無終始 灰及其身)’이라는 내용입니다.

조국해방과 더불어 최지사님은 당연히 부구의 권세를 누렸어야 마땅함에도 양림동 누옥에서 서도와 국악과 궁도에 몰두, 선비로서 청빈, 고고한 생활로 일관해 오셨으니 이기주의 내지 물질만능 풍토에 젖어 호혜공영(互惠共榮)의 정신이 날로 쇠퇴되고 있는 오늘날 최지사님의 살신성인의 희생정신과 드높은 선비정신은 바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덕목으로서 최지사님이야말로 평생을 하늘을 우러러 한점의 부끄러움이 살아오신 빛고를 광주의 양심이고 지성이며 정신적 지주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최지사님은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지 않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최지사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분명합니다.

최지사님은 3·1절 기념행사시 매스컴과의 인터뷰 또는 후생들과의 대화에서 한사코 자신의 공적은 드러내지 않으려 하셨으며 다른 애국지사님의 공적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셨습니다. 특히 최홍종 목사님의 가정, 재산, 명예, 지위, 성(性)의 5가지를 버린다는 의미의 오방에 얹힌 얘기라던가 김철 선생의 공판정에서의 ‘쇠는 두들길수록 단단해진다. 마음대로 해보라’는 당당한 항변을 들려주시곤 하였습니다.

광주시사(光州市史)에도 보면 최지사님은 3·1운동 당시를 회고하시

면서 “쌀장수, 걸인도 참여하고 심지어 평소 친일파로 지목되던 사람도 시위에 참가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러한 말씀을 일제 때 한 것이라면 연루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이는 셈이 되겠지만 해방 후에 하신 것이니 공을 나누어 갖겠다는 겸손한 뜻이거나 친일세력도 감싸겠다는 따뜻한 마음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 때 최지사님을 핍박하였던 고등계 형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이름을 함구하시고 원망하지도 않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최지사님의 바다처럼 넓은 사랑과 금도(襟度)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90년 8월 6일 최지사님이 90세를 일기로 타계하셨을 때 이효계 광주직할시장님을 비롯 140만 광주시민의 애도 속에 광주시민장의 예우로 대전국립묘지에 모셔지고 동년 12월 26일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셨지만 최지사님의 평생의 우국충정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보상이라 사료되며 최지사님은 지금도 광주시민의 가슴 속에 생생히 살아 숨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추도식을 계기로 저는 목정선생기념사업회가 발족되어 최지사님의 전기 발간 및 동상의 건립 그리고 목정사회봉사상 제도의 사업이 활발히 논의, 추진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록 5. 누실명(陋室銘) 손녀 최은정(수필가)

우리 집 거실 벽에는 액자 몇 틀이 걸려있다. 의재*, 근원*, 소전*의 작품으로 내 결혼 때 보내주신 축하祝畵들이다. 그중 할아버지*가 써주신 누실명은 내 마음에 새겨있다. 기미 독립 만세를 불렀던 할아버지는 나라를 찾은 후 음풍농월 벗 삼아 초야에 묻히셨다. 6.25 전쟁 때 의재 선생댁과 우리 집은 무등산 아래 동적골로 피난했다. 의재 선생은 산 밑 조그마한 누옥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그림을 그리셨다. 그 영향으로 할아버지는 서예의 길에 들어서 연진회 회원이었다. 내가 여학교 다닐 때 “누실명”을 쓴 작품으로 국전에 특선했고, 나의 결혼 때는 누실명을 써주시면서 ‘저기가 조오지 워싱턴 집이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된다고 했다. 첫 손녀가 군자 같은 남편을 맞이하니 덕 베풀며 살라는 염원이었으리라.

산은 높지 않아도 신선이 살면 명산이고 물은 깊지 않아도 용이 살면 신령하니 누추한 집이라 해도 오직 나의 덕으로 향기가 난다. 그 안에 사는 이의 덕이 향기로우면 그것이 최고의 집이라 했다. 할아버지는 누실명 부분 부분을 설명하며 집을 장식하는 가장 큰 보물은 그 집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누실명의 ‘조소금 열금경調素琴 閱金經’은 거문고를 타며 금강경을 읽는 것이 음악 감상이나 독서삼매로 자신의 내면을 채워 품위를 갖춘다는 말이다며 아무리 초라한 집도 군자가 사는 곳에 무슨 누추함이 있겠는가 했다.

사람이 귀하고 천함은 그의 덕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사는 집이 아니라 고대광실을 생각하며 사람의 행색과 지위만을 보고 마음의 향기는 말지 못한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상일은 다 같은가보다. 공자도 강아지풀을 미워하는 것은 못자리에서 모와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이고, 말 잘하는 사람 미워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과 혼동되기 쉬운 까닭이라 했다. 공자가 자주빛을 싫어한 것도 진홍색과 혼

란을 일으키기 때문이었다. 공자는 실물과 비슷하지만 실물이 아닌 것을 미워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진실인 듯, 진실 아닌, 진실 같은 너’라는 말을 하면서도 덕행이 아닌 번드레한 겉만 보고 착각하며 산다.

5월 어느 날 강진 영랑 생가 모란을 구경하고 사의재四宜齋에 들렀다. 한옥촌 앞의 지붕이 납작한 초가가 사의재이다. 강진 땅에 귀양 온 정약용은 주모가 내준 한 칸 방에 거처를 정하였다. 귀양지에서 좌절하여 죽느냐 분발하여 사느냐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심기일전하였다. 글을 읽고 벼슬을 했던 그는 심신을 다잡기 위해 담백한 생각, 단정한 외모, 과묵한 언어, 신중한 행동의 네 가지 행동지침을 두고 사의재란 당호를 누옥에 걸었다. 남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배우니 교학상장敎學相長, 내 뜻 내 사상으로 아학편兒學編을 펴내 후대에 전하니 보람 있는 일이었다. 초라한 오두막이 번듯한 군자의 품격으로 거듭났다.

충남 공주시에 있는 풀꽃문학관에는 “나의 시가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조그마한 손수건이 되고 꽃다발이 되고, 그들의 어깨에 조용히 얹히는 손길이 되기를 바란다”는 시인의 어록이 있다. 시인은 사십여 년을 작은 학교, 시골 학교만 근무하여 그 자신이 풀꽃이 되었을 것이다. 비바람 맞으며 달빛과 별빛을 품고 피어난 풀꽃처럼 자연과 하나 된 시인이다. 그는 이곳에서 풀꽃을 가꾸며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풍금을 치며 노래도 부른다. 문학관에 들른 사람들은 풀꽃처럼 순수해지고 맑아진다. 풀꽃 시인*에게는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힘이 있다. 이런 문학의 향기가 혼탁에 젖은 세상을 맑게 씻어주었으면 한다.

우연히 오동나무 씨가 날아와... 올해로 오 년째 수돗가는 물론이고 현관 마루까지 그늘을 드리워 여름 한 철의 더위를 한결 덜어준다. “오동나무 팔자가 당신 같소. 하필이면 왜 내 집에 와 뿌리를 내렸을까?” “그러게 말이요. 오동나무도 기막힌 팔자인가 봐. 하지만 오동나무는 그늘이나 만들어 남을 즐겁게 해 주지요. 우리는 뭐요” “남에게 덕을 베풀지는 못할망정 폐는 끼치지 않고 우리 분수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구차한

살림 속에서 오동나무의 현덕^{玄德}만큼이나 드리워진 아내의 그늘을 의식한다. 찌든 내 집에 와 뿌리를 내린 오동나무가 그저 고맙기만 하다.

<오음실^{梧陰室} 주인* 중에서>

오음실 주인은 안빈낙도 가운데 옛 향기를 고스란히 간직하며 문사^{文士}로 살아오신 분이다. 수필은 번드레한 것이 아니라 소박하게 마음으로 써야 하며 참된 빛은 찬란하지 않다<진광불휘^{眞光不輝}>고 선생께서 알려주었다. 아직도 부족하기만 한 내게 선생은 빛의 존재이시다. 이런 빛 나지 않는 빛이 내 가슴에 꺼지지 않은 불로 타오르고 있다. 행복이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 누실명^{陋室銘} : 당나라 시인 유우석^{劉禹錫}이 지은 자계^{自戒}의 글

山不在高, 有仙則名. 水不在深, 有龍則靈.
斯是陋室, 惟吾德馨. 苔痕上階綠, 草色入簾青.
談笑有鴻儒, 往來無白丁. 可以調素琴, 閱金經.
無絲竹之亂耳, 無案牘之勞形. 南陽諸葛廬,
蜀子雲亭. 孔子云, 何陋之有.

* 의재^{毅齋} : 허백련

* 근원^{謹園} : 구철우

* 소전^{素荃} : 손재형

* 할아버지 : 목정^{牧丁} 최한영^{崔漢永}

* 풀꽃 시인 : 나태주

* 오음실^{梧陰室} 주인 : 수필가 윤모춘

부록 6. 기억 속의 의도인(毅道人) 허백련(최은정)

의도인(毅道人) 허백련 화백을 처음 본 것은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나던, 내 나이 열한 살 때였다. 그때 나의 조부이신 목정(牧亭) 최한영 할아버지와 친분이 깊어 무등산 자락에 있는 ‘동적골’로 우리 가족은 함께 피난을 갔었다. 그분은 동적골로 들어서서 첫 번째 돌담집에 계셨는데, 난세에도 의연하게 그림을 그리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였다.

그 후, 큰 서향나무 꽃이 향기를 뿜는 호남동 연진회(鍊眞會)에서 자주 뵈었다. 이곳에서 주변의 친구들과 친목을 도모하며 정신을 쓸데없는 곳에 팔지 않고, 사서화를 습작하며 강론하면서 마음을 다스려 군자의 길에 들어서신 듯싶었다. 목정 할아버지도 이때 서예의 길에 들어섰다. 의재(毅齋)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을 바탕으로 두고, 홍익사상으로 넓고, 밝고, 깨끗하고, 깊고 높은 이상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우주와 인간이 하나며 모두 복리를 누리고 네가 나고, 내가 너인 일체 사상인 이상세계를 구현하자고 했다.

무등산 골짜기에 천애(天愛) 지애(地愛) 인애(人愛), 삼애(三愛) 사상을 바탕으로 삼애원(三愛院)이라 부르는 농업 기술학교를 설립하여 과학적인 영농교육과 농촌지도자 육성에 뜻을 두었다. 제자들과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자급자족하고, 근면 검소를 몸소 실천하여 제자를 가르쳤다.

의재(毅齋)는 시내 호남동 집에서 무등산 어귀 춘설헌(春雪軒)으로 화실을 옮겼다. 이곳에서 춘설차의 차향과 묵향이 어울리는 생활을 하며 차(茶)를 만들어 무등산에서 자란 춘설차를 널리 권장하였다. 말하자면 다산(茶山) 이후 차 문화를 지킨 다인(茶人)이었다.

한복 차림에 얼굴에는 검버섯이 돋은 의재가 춘설차를 음미하는 의연한 모습은 ‘한국의 미’라고 춘설헌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극찬했다.

의재(毅齋)는 술은 자극성이 있어 취하면 심신이 건전하지 못하고 차

는 자극성이 없으므로 심신이 편안해 사색과 명상을 하면 수준 높은 국민이 되니 차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차를 즐기는 국민은 건전하지만, 술을 좋아하는 국민은 방탕을 가져오기 때문에 차 생활을 강조한 것이다.

춘설헌 뒤뜰에 대숲이 우거지고, 계곡에는 맑은 물이 흘렀다. 이곳에 관풍대(觀風臺)를 지어, 지운 김철수, 목정 최한영, 무하 최태근, 근원 구철우, 취정 박영만, 석정 최경식, 경암 최동문 등과 차를 마시며 민족운동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면서 풍류를 즐기기도 했다.

춘설헌을 찾아오는 이에게 의재(毅齋)는 홍익인간(弘益人間)과 경천애인(敬天愛人)을 일천 장도 넘게 써서 정표로 주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홍익사상에는 관심이 없고, 이상세계 만을 추구하여 의재(毅齋)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홍익사상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 집은 의재(毅齋)의 영향으로 해마다 개천절에 제물을 장만하였다. 그 이유는 의재의 부친께서 개화기에 장로직에 취임하여 기독교 신앙으로 가풍을 이루어 왔다. 그리하여 부인과 자손들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나의 친정어머니가 단군 신전에 올릴 제물을 대신 장만해 드렸다. 의재(毅齋)가 타인의 손을 의뢰해 가면서까지 단군제를 지내는 뜻은 나라가 부강하려면 우리의 근본인 건국의 이념과 주체성을 찾아야 하고 그 주체성의 구심점이 바로 단군이라고 믿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단군제를 모시고 단군신전 건립을 추진하였다.

회갑을 지나면서 의재(毅齋)는 의도인(毅道人)으로 호를 바꾸었는데, 이것은 공자의 사상을 가깝게 한 유교의 선비정신에 의해서라 했다. 친구의 자손들까지도 친자식처럼 사랑하여, 후손들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애일회(愛日會)란 모임을 만들었다. 의도인(毅道人)은 “큰 돼지(豚兒)가 누구냐” 하시며 제일 연장자인 우리 친정아버지를 회장으로 정했다고 한다.

호남예술의 굵은 맥을 이룬 화단의 거봉, 뜻을 세워 예술인의 정도를 걸어온 의도인, 글씨와 그림의 세계를 합일하고, 산수화에 몰두하였던

것은 그의 자연애(自然愛)의 반영이라고 본다. 어느 때는 온 정성을 들여 작품에 몰입하여 완성하고 나면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의도인은 건국 초부터 내려오는 참전계경(慘佺戒經), 정통 민족 신관인 삼일신고(三一神誥), 정통철학 천부경(天符經)을 바탕으로 일생을 사셨다.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춘설헌(春雪軒)을 사랑하고 춘설차를 즐겼다. 작대기 짚고 춘설헌 오솔길을 거닐던 그분의 모습은 정녕 선인처럼 보였다. 춘설헌을 바라보고 잠드신 유택, 그곳에 매화가 피어 나비가 날아드니 눈이 나부끼듯 아름답다. 꽃잎이 바람결에 눈처럼 휘날린다. 아마 구천(九泉)의 춘설헌에도 꽃과 나비가 날아들 것이다.

의도인(毅道人)은 갔지만 그가 남긴 예술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내 결혼 때 쌍낙관으로 받은 옥당부귀(玉堂富貴)라 쓴 축화(祝畵)와 몇 점의 작품은 우리 집의 가보가 되었다. 무등산 춘설헌 골짜기에 매화 향기가 은은하다. 그분의 향기인 듯싶어 옷깃을 여민다.

탄신(誕辰)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높으신 충의(忠義) 헤아려 보니
투철하신 애국정신
기미(己未) 독립 만세 부르고
부귀로 자처하지 않고
초야에 묻힌 선비이셨다.
음풍농월(吟風弄月) 벗 삼아
학(鶴)처럼 고고(孤高)했어라.
나라에 충성한 일편단심
오늘의 젊은이들 그 정신 받들어
나가야 할 덕목(德目) 바로 세우셨네.
산은 높지 않아도 신선이 살기에 명산(名山)이요
물은 깊지 않아도 용이 살기에 영수(靈水)이더라.
누추한 집이라 해도 사는 이의 덕이
향기로우면 누추하지 않다.
누실명(陋室銘)을 즐겨 읊으시며
문(文)과 무(武)를 겸비한 삶,
넓고 맑고 깊고 높은
홍익사상(弘益思想)의 길로 이끄셨네.
활을 쏘면 호랑이의 꼬리를 잡아당기듯.
산을 밀듯 기(氣)를 모았다.
방안에는 묵향(墨香) 그윽이 풍기고

연상(硯床)엔 서책이 가득했네.
반야심경(般若心經) 만 번 쓰고
마음 줄 고르셨는지
아침에 누운 몸 황혼 녘에 가셨네.
보훈 번호 제591호
충의와 단심(丹心)
천년 길이 이어지소서.

애국지사 목정(牧亭) 최한영. 삼일절 기념식장에서 독립선언서를 읽으시던 생전의 모습이 뚜렷하다. 올해로 탄신하신지 100년, 서거하신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목정 할아버지는 광주 장날인 1919년 3월 10일 독립 만세를 거사하기로 합의하고 동지들과 함께 기미 독립선언서와 태극기, 애국가, 격문, 독립가를 입수하여 할아버지 댁에서 방문을 이불로 가린 채 3일 동안 밤낮으로 6가마 분량을 등사했다 한다.

격문에는 “.....지금이야말로 각 민족은 강국의 기반을 벗어나 세계 각국과 평등의 지위에 설 수 있는 기운을 향하였다.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우리 동포는 모름지기 속박의 사슬을 끊고 최대의 결심으로 독립의 깃발 아래 속박의 생보다는 자유의 죽음을 택하라.”는 내용이었다. 3·1만세 시위가 죽음을 각오한 용단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거사 당일 장터에 모인 학생, 시민 등 천여 명의 군중을 이끌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주도하다 우체국 앞에서 체포되어 3년 형의 옥고를 치렀다.

현장에서 구속되어 1919년 6월 16일 ‘호리’ 검사 관여로 광주지방법원 조선 총독부 판사 ‘다까끼’로부터 대정 8년 형 제558호, 910호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된다. 검사와 피고 쌍방이 항소함으로써 동년 8월 13일 대구 복심법원에서 대정 8년 형공 제403호 및 707호로 ‘노다’ 검사 관여로 형사 제2부 ‘마에자와’ 재판장에 의해 다시 징역 3년의 선고를 받으시는데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그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구 형무소에서 3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셨다(김양균 21세

기 법무법인 고문변호사, 초대 헌법재판관. 애국지사 목정 최한영 선생 탄신 100주년 및 서거 10주년 추도식 추진위원장 김양균님 추도사 참조). 출옥 후에도 신간회 전라남도 상임위원 광주청년회장을 역임하면서 오직 조국 광복을 위한 계몽 운동과 항일 운동을 하셨다.

그런 목정 최한영 할아버지는 광주 관덕정의 사수로서 우리나라 전통 궁도인 국궁의 보급 및 활성화에 기여하시고(궁도회장), 광주 국악원 원장, 광주박물관 회장으로 문화유산의 연구 보존에 진력하셨다. 연진회 창립 회원으로 신선처럼 묵향에 젖어 살아오신 지고지순한 서예가이셨다. 세상의 명리에 초연하여 유유자적한 마음 자세를 지닌 분이다. 할아버지께서는 4살 때부터 반야심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며 만 번은 더 쓰셨을 거라고 고모는 말했다.

5·18 민주항쟁 당시에는 80의 노구에도 시민수습위원회 위원장으로 시민의 보호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등,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되셨다. 조국 해방과 더불어 권세와 부귀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누옥에서 서도와 국악과 궁도에 몰두, 선비로서 청빈 고고한 삶을 사셨다.

1990년 8월 6일 90세를 일기로 타계하실 때 광주시민장으로 대전 국립묘지로 모셔지고, 동년 12월 26일 건국훈장 애족장(제2570호)이 추서되었다. 할아버지는 친지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시기도 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끈기와 인내로써 극복할 수 있는 줄기찬 정신력을 가져야 한다.’ 하셨는데 그는 지금껏 이 정신을 받들고 있다.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활을 쏘셨다. 궁도로 익힌 팔 힘으로 손이 떨리지 않아 세상 뜨신 그날까지 반야심경을 쓰셨다. 목정 할아버지는 하루 해가 떠서 저녁에 지듯 아침에 누운 몸 황혼 녘에 가셨다. 1990년 8월 6일, 90세를 일기로 영면하셨다.

2000. 1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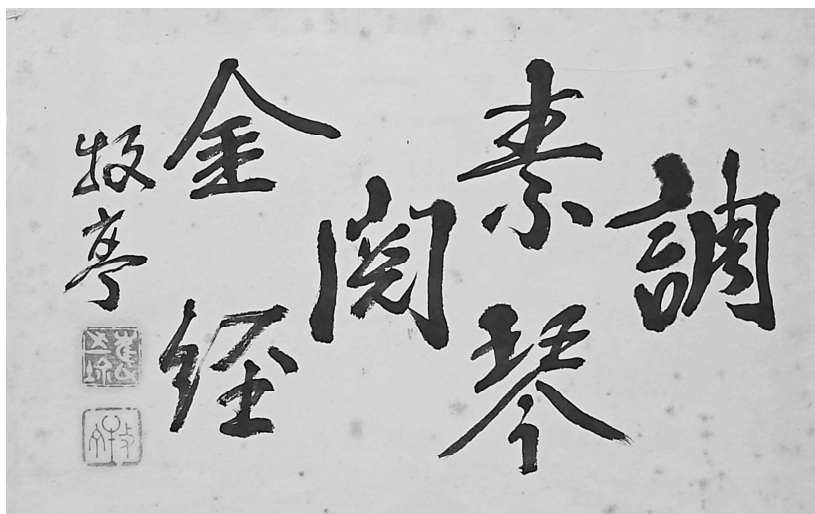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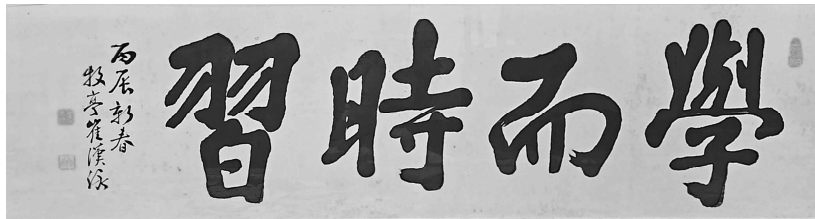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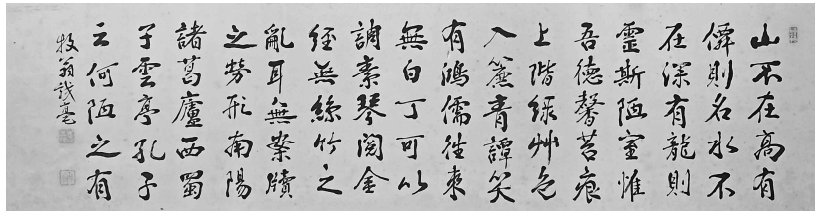
탄신 100주년에

墓 碑 文

牧亭 崔漢泳 志士께서는 三一運動의 先驅者로 祖國光復에 공훈을 세우시고 九十平生을 청빈한 선비로 일관하셨다. 청아한 선생의 書道는 달인의 경지에 이르셨고 弓道를 익히며 不正不義와 타협을 거부하셨다. 大人의 도량으로 만인을 포용하시며 새 시대의 문화진흥을 위해서도 몸 바쳐 盡力하신 永遠한 우리의 스승이시여! 고이 잠드옵소서.

玄庵 李乙浩 선생(전 광주박물관장)이
대전 국립묘지(애국지사 제1묘역 196호)
목정 최한영 선생 묘비문에 쓴 글

부록 8. 서예가 최한영 작품



부록 9. 최한영 가족 사진



대구 달성공원 출감 직후(1920)



생전 가족 사진 (오른쪽 안경쓴 이 최한영)



생전 가족 사진 (맨 뒤 오른쪽부터 4번째 최한영)



최은정의 둘 사진(1940년대)



최은정과 어머니, 고모들(1940년대)



최은정·최정자 자매



최은정 부부



장남 최일출과 손자들



장손 최창우 가족사진



최창식 가족사진



최창복 가족사진



최정자·정진성 부부



대전 국립현충원 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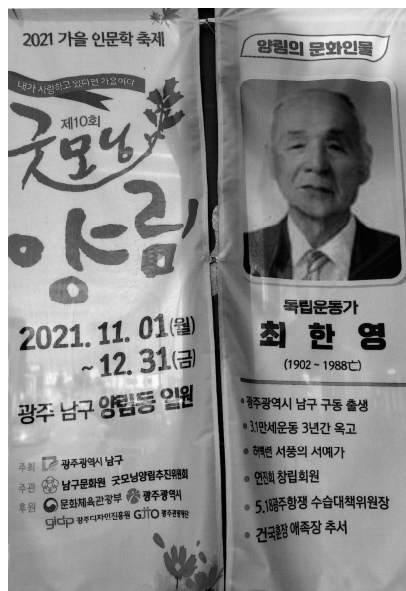
최한영 선생 영결식 사진



훈장



전북일보에 보도된 최한영 기사



2021 가을 인문학 축제(양림의 문화인물 최한영)

참 고 문 헌

- 매일신보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시대일보
- 중외일보
- 朝日新聞
-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發行, 1935, 「資料 義烈團經營の南京軍官學校の全貌」(思想彙報第四號)
- 국가보훈처, 공훈록 및 공훈전자자료관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광주시사』, 1980
- 김준엽·김창순, 1990,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2
- 정근식·나간채, 1992, 「1920~30년대 광주지역의 노동운동」, 『호남문화연구』 21
- 박선흥, 1994, 『광주1백년』
- 이애숙, 1995, 「1920년대 광주지방의 민중운동」, 『전남사학』 9
- 이애숙, 1995, 「1920년대 전남 광주지방의 청년운동」,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 신주백, 2005, 『1930년대 국내민족운동사』
- 박선흥, 2012, 『광주 1백년』
- 『소안면지』, 2019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2019, 『광주학생독립운동 90년사』
- 박해현, 2020, 『독립운동사 의사 김범수 연구』(도서출판 선인)
- 박해현, 2022, 『강석봉 평전』(다큐디자인)

- 박해현, 2021, 『독립운동가 교사가 되다』 (도서출판 다컴)
- 박해현 역, 2021,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3·1운동』
- 박해현·김승태 공역, 2021,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학생운동』
- 박해현, 2021, 『동구의 인물』 2